언론사: 국민일보-2-202.txt

제목: [암수술 잘하는 병원-이대목동병원 췌장암 토탈케어센터] 최상 팀워크… 생존율 10% 뛰어넘는다  
날짜: 20171023  
기자: 전미옥 쿠키뉴스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23203855001  
ID: 01100201.201710232038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span class='quot0'>모든 췌장암 환자와 가족에게 최상의 치유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 센터의 비전이자 목표입니다.</span>" 이대목동병원 췌장암 토탈케어센터 이선영 센터장(사진·소화기내과 교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췌장암 토탈케어센터는 췌장암의 진단부터 마지막 치료까지 총괄적인 케어를 담당하고 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1'>풍부한 경험이 있는 내과와 외과 교수진이 함께 췌장암 치료 중 가장 기본이면서 난이도가 높은 수술치료 성공률을 꾸준히 높여왔고, 수술적 처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내과, 영상의학과, 치료방사선과, 통증클리닉의 차별화된 팀워크를 기반으로 증상완화와 생명연장을 위한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췌장암은 암 중에도 예후가 나쁜 암에 속한다. 증상과 진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췌장암 증상은 대개 소화를 돕고 당을 조절하는 췌장 본연의 기능을 80∼90% 이상 잃어버린 후에야 나타난다. 또한 췌장의 위치가 위, 간과 같이 부피가 큰 장기 뒤에 숨어있어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시행하는 혈액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 등에서는 진단이 어렵다. 이 때문에 췌장암은 특히 수술이 어려운 3∼4기에 발견되는 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br/> <br/> 췌장암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바로 ‘수술’이다. 이 교수는 “수술이 가능한 환자분들에게는 희망을 갖고 신속하게 수술치료를 받기를 권하고 있다.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span class='quot1'>이대목동병원은 췌장암 적정성 평가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복강경 췌십이지장절제술부터 로봇수술까지 췌장암 분야의 난이도 높은 수술을 모두 진행하고 있다</span>”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br/> <br/> 췌장암 수술은 난이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이를 극복하는 노하우로 이 교수는 ‘긴밀한 팀워크’를 꼽았다. 이 교수는 “췌장암 치료에 있어서는 신속성, 신뢰성,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소화기내과, 췌담도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치료방사선과, 영상의학과 전문 교수진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구성원 사이의 신뢰도가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술적 처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항암화학요법팀, 치료방사선팀, 증상 완화와 통증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 혹은 시술 치료팀의 토탈 케어(Total care)를 위한 팀 워크로 향후 치료 방향을 결정한다. 이 교수는 “환자는 병에 대한 치료 외에 인간적으로 고귀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내시경치료를 담당하는 소화기내과 교수와 중재적 시술을 담당하는 영상의학과 교수가 증상 완화와 생명연장을 위해 스텐트 삽입 등을 상호보완적으로 함께 시술하고 있다. 여러 약물들의 적절한 사용과 중재적 시술, 통증 관리, 정신적 지지, 호스피스 관리, 보호자 역할 상담 등을 통해 확대된 췌장암 치료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span class='quot1'>중요한 점은 이러한 논의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일방적으로 치료를 받아들이는 대상이 아니라 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해와 자율을 통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배려하려고 노력한다</span>”고 덧붙였다. <br/> <br/> 현재까지 의학 수준에서 췌장암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 실제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10% 내외에 머물고 있다. 이선영 교수는 “<span class='quot2'>지난 20년간 의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했음에도 현재 췌장암 생존율은 20년 전과 비슷한 수준</span>”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완치를 목표로 최고 성공률과 최소 합병증을 위해 노력한다. 또 췌장암 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최상의 치유경험”이라고 강조한다. <br/> <br/> 이선영 교수는 “췌장암은 조기 발견으로 수술을 받는다면 완치도 가능한 병이다. 그러나 많은 환자들이 말기에 진단을 받는다. 이러한 말기 췌장암 환자들이 최상의 치유경험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존엄한 인간으로서 인격적인 진료가 필요하다. 췌장암의 시작에서 끝까지 그 병보다는 인간을 먼저 생각하며 진료에 임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전미옥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203.txt

제목: ‘사람이 좋다’ 길건 “제일 힘든 건 10년지기 김태우 잃은 것”  
날짜: 20171022  
기자: 문지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22111444001  
ID: 01100201.20171022111444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가수 길건이 과거 김태우와의 소속사 갈등에 대한 심정을 털어놨다. <br/> <br/>길건은 22일 방송된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 출연해 일상을 공개했다. 이날 길건은 2014년 김태우가 대표로 있던 소속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분쟁에 대해 언급했다. “왜곡된 보도와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김태우와는) 아무래도 10년지기 친구였으니까”라고 토로했다. <br/> <br/>이어 “내가 회사 복이 좀 없는 것 같다”며 “그 전 소속사 대표는 나를 연대보증인으로 앉혀놓고 돈을 썼다. 지금도 내가 남은 것을 갚고 있다”고 밝혔다. <br/> <br/> <br/> <br/>길건은 8년간의 공백에 대해 말하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그는 “8년 동안이나 무대에 오를 수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하루하루 ‘오늘만 버티자’라는 생각에 8년을 버텼다. 월세 때문에 길거리에서 노점상도 했다”고 고백했다. <br/> <br/>또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애틋함을 드러냈다. “<span class='quot0'>공백기에 집안이 기울어 엄마가 남의 집 식당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아빠는 굉장히 즐겁게 사시는 분인데 암 선고까지 받으셨다</span>”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빠가 ‘너에게 돈 줄게 생겨서 너무 좋다’고 하며 웃더라. ‘암 선고인데?’라고 했더니 ‘보험금 나오니까 너한테 반 줄게’라고 하셨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br/> <br/>길건은 2004년 댄스가수로 데뷔, 올해로 14년 차를 맞았다. 그러나 전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8년간 공백기를 가졌다. <br/> <br/>문지연 객원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204.txt

제목: 다발골수종, 새로운 진단기준에서 조기치료를 권고  
날짜: 201710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20144544001  
ID: 01100201.201710201445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노인 백혈병으로 불리는 다발골수종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혈액암이다. 노인인구가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조기진단기술이 개발되면서 예전에는 진단되지 않던 환자가 적극적으로 진단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br/> <br/>다발골수종의 전통적인 진단기준은 CRAB으로 불리는 장기침범이라는 전형적인 증상이 필수요건이었다. 즉, 단클론단백의 증가와 함께 고칼슘혈증, 신장병, 빈혈, 골병변 등이 있을 경우에 다발골수종으로 진단이 되었다. <br/> <br/>2016년 국제다발골수종 학회에 따르면, 장기침범이 없는 경우일지라도 혈청유리경쇄(free light chain)의 비율(K/L)이 100이상일 경우 다발골수종으로 진단하여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하라고 권고한다. <br/> <br/>이러한 진단기준과 관련하여, 지난 13~15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다발골수종학회에서는 무증상 다발골수종(Smoldering MM)에 대한 세션이 마련되었다. <br/> <br/>다발골수종은 어느 날 갑자기 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구단계를 거쳐 암으로 진행된다. 즉 초기단계인 MGUS(의미 불명 단클론감마글로불린혈증) 그리고 SMM(무증상 다발골수종)를 거쳐 최종적으로 MM(다발골수종)으로 전개 된다. 또한 MGUS 환자 중 약1%가 매년 MM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통상 MGUS는 50세 인구 중 약3%의 유병 율을 보이기 때문에 MGUS단계에서 진단이 이루어지면 위험도를 측정하여 건강관리를 해나갈 경우 훨씬 좋은 예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국제다발골수종학회의 권고사항이다. 더욱이 MGUS환자 중에서 다수가 신장병으로 합병되는 빈도가 높아 이를 미리 진단할 경우 신장병으로의 이환을 최소한도로 예방할 수 있는 유익도 있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br/> <br/>이런 배경에서 보면 중장년에 대한 건강진단프로그램에서 몇 년에 한번 정도는 MGUS관련 검사(혈청유리경쇄검사)를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권유되고 있다. 특히 선별검사에서 고칼슘혈증, 신장병, 빈혈, 골병변이 있는 고연령 환자의 경우 MM진단을 위한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것도 조기진단의 방법이다는 분석이다. <br/> <br/>혈청유리경쇄검사(Freelite)는 2007년 보험급여에 포함돼 많은 대학병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다우바이오메디카를 통하여 시약이 공급되고 있다. <br/> <br/>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05.txt

제목: 녹십자랩셀제대혈은행, 신규 고객 대상 ‘전화신청이벤트’ 진행  
날짜: 20171020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20093844004  
ID: 01100201.20171020093844004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녹십자랩셀제대혈은행은 20일부터 다음 달말일까지 한 달 열흘 동안 신규 전화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신청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포스터 참조). <br/> <br/>기간 내에 대표전화 상담을 통해 제대혈은행에가입하게 되면기본 사은품 외에 고급 실리콘 젖병을 추가로 제공하고모발 중금속검사 무료 서비스 및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카드 발급, 제대혈 보관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 판촉행사다. <br/> <br/>은행 측은 이뿐만 아니라 가입한 고객이SNS상으로 녹십자랩셀제대혈은행을 소개하는 사진이나 글을 게시하면 특수분유를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힙시트를 증정할 계획이다. <br/> <br/>제대혈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의 혈액 세포를 만들어내는 조혈모세포와 연골, 뼈, 근육 등을 만들어내는 간엽줄기세포가 다량 포함되어 있는 탯줄혈액이다. 분만 시에만 채혈할 수 있는 제대혈을 보관하면 태아에게 향후 발병할 수 있는 각종 암과 난치병 등에 대비할 수 있다. <br/> <br/>녹십자랩셀제대혈은행은 독일이 인증하는 ISO 9001을 획득, 제대혈의 공정처리와 냉동보관과정 및 시설에 대한 최고의 품질경영시스템을 유지하며 직접 제대혈의 포장부터 운송까지 책임지고 있다. 혈액 운송과정 중의 온도를모니터링 하며 전문차량 및 특수 포장재를 이용하여 운송하기 때문에손상∙변질의 위험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r/> <br/>녹십자랩셀제대혈은행 전화신청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라이프라인 홈페이지(https://lifeline.co.kr) 또는 대표전화 (080-578-013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06.txt

제목: [장애인과 함께하는 설교]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더라?  
날짜: 201710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20000156001  
ID: 01100201.20171020000156001  
카테고리: 사회>장애인  
본문: 시편 119편 71절 <br/> <br/>‘지선아 사랑해’란 책과 간증으로 희망을 주는 이지선 자매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2000년 7월 교통사고를 당한 뒤 수차례 피부이식 수술과 힘든 재활 치료를 했습니다. 그 후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따고 올해엔 한동대 교수로 학생들에게 사회복지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br/> <br/> 그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뉴욕마라톤 대회에 나가 42.195㎞를 다 뛰었고, 그때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라톤을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많았습니다. 죽을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죽을 것 같은 것이지 죽는 게 아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이 무섭게 생각되는 것이지 실제 그 고통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br/> <br/> 비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네”라고 반응합니다. “교회 다녀도 망하는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믿으면 다 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 힘들지 않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힘들어하고 있는 기독교인을 보면 믿음이 안 좋다고 판단합니다. 일부 기독교인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복을 찾아 다른 종교로 갑니다. <br/> <br/> 고난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별수 없고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고난의 뜻을 깨닫게 되면 달라집니다. 고난은 일반적입니다. 욥은 “사람은 고생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목사도 암에 걸립니다. 믿음이 좋은 사업가도 망합니다. 예수 믿는 집의 자녀도 삶의 방향을 몰라 헤맬 수 있습니다. <br/> <br/> 문제는 힘든 것,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숨은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깨닫는 순간 힘들고 아픈 것이 변해 행복이 됩니다. 시편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시 119:71)라고 했습니다. 힘든 것을 통해서 알아가고 나니 “힘든 것이 유익이다”고 말합니다. <br/> <br/>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톨스토이는 “<span class='quot0'>고통은 깨달음을, 괴로움과 번뇌는 기쁨을 준다</span>”고 했습니다. 고통 속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 힘든 것이 변하여 복이 됩니다. 그래서 힘든 것은 인생의 보물창고입니다. 다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힘들어서 평생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네” 하다가 죽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br/> <br/> 살아오는 동안 힘들지 않았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도 많은 문제와 힘든 것을 넘으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힘들고 아픈 것에도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별것이 됩니다. <br/> <br/>유봉호 목사 부산 연산성서침례교회 <br/> <br/>◇이 설교는 장애인을 위해 사회적 기업 ‘샤프에스이’ 소속 지적 장애인 4명이 필자의 원고를 쉽게 고쳐 쓴 것입니다.

언론사: 국민일보-2-207.txt

제목: 명지병원 “유방암 유(乳)비무환”… 24일 핑크리본 캠페인  
날짜: 20171019  
기자: 고양=김연균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19132545001  
ID: 01100201.20171019132545001  
카테고리: 지역>경기  
본문: 경기도 고양시 소재 명지병원은 유방건강의 달 10월을 맞아 오는 24일 제5회 핑크리본 캠페인 ‘유방암 유(乳)비무환’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br/> <br/>핑크리본 캠페인은 유방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유방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방암 건강강좌와 건강토크쇼, 쿠킹쇼 등으로 진행된다. <br/> <br/>건강토크쇼는 암 환자의 건강 식단을 주제로 의료진과 영양사, 유방암 환우 등이 참여해 암 예방을 위한 건강한 식사와 암 환자를 위한 식단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눈다. <br/> <br/>쿠킹쇼 ‘내 건강을 부탁해!’에서는 전문 요리사의 지도로 의료진과 환우가 함께 건강요리를 만들고 참가자들이 시식해보는 순서로 꾸며진다. 쿠킹쇼는 명지병원 페이스북을 통해 라이브로 중계될 예정이다. <br/> <br/>건강강좌는 최현정 교수 등 명지병원 유방갑상선센터 의료진이 유방암에 대한 실제적인 건강 정보를 소개한다. 또 유방암 치료 후 5년이 경과된 유방암 장기 생존자들을 위한 축하의 자리도 마련된다. <br/> <br/>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동병상련의 유방암 환자들이 서로에게 든든한 지원자가 돼 상처와 아픔을 나누고 용기를 얻어 암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매년 핑크리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고양=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08.txt

제목: “독방 쓰는 朴 인권침해? 특혜”…수감 경험자 증언  
날짜: 20171019  
기자: 문지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19122344001  
ID: 01100201.20171019122344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과거 구치소에 수감됐던 경험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감한 독방에 대해 “본 적이 없는 굉장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컨설팅업체 MH그룹이 제기한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span class='quot0'>형평성 문제 제기는 오히려 일반 재소자들이 해야 한다</span>”고 강하게 반발했다. <br/> <br/>2015년에 6개월 동안 서울구치소 여성사동에 수감됐다는 A씨는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span class='quot1'>박 전 대통령이 현재 사용하는 혼거실의 경우 운동장으로 나가는 방향에 위치해 지나가면서 볼 수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1'>3평(9.9㎡)이 넘고 적게는 4명, 많게는 6~7명까지 사용하는 방</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A씨는 “다른 방에 비해서 상당히 크지만 6명 정도가 수감되기에 조금 좁다”며 “그 방에 대여섯 명이 묵는다면 그야말로 인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정도 넓이의 방을 혼자 사용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며 “이 정도 예우를 받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기에 어렵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br/> <br/>MH그룹은 박 전 대통령 독방에 대해 “<span class='quot2'>접이식 매트리스 침대가 적절치 않다</span>”고 주장했다. A씨는 이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다른 제소자들 같은 경우 그런 매트리스를 깔 만한 공간조차 확보 되지 않는다”며 “혼자 사용하는 독거실에도 보통 2명이 수감돼 굉장히 비좁다. 포화상태”라고 밝혔다. <br/> <br/>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치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혈압이나 암, 그보다 훨씬 심각한 중증 환자들도 많이 있다”며 “이런 환자들도 외부 병원에 나가 치료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수용 기간에 한 번도 외부 병원을 가지 않은 재소자들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br/> <br/>미국 뉴스채널 CNN은 지난 17일(현지시간) MH그룹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긴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MH그룹은 “65세의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며 인권침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유엔 인권위원회에 정식으로 문건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문지연 객원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209.txt

제목: [헬스파일] C형 간염 환자 10명 중 1명만 치료  
날짜: 20171019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19102244001  
ID: 01100201.201710191022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신현필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br/>간염은 간경변(간경화증)이나 간암으로 악화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암 사망률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간암의 80%가 B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한다.  <br/> <br/>간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간경변, 간암 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C형 간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부족해 주의가 필요하다. <br/> <br/>C형 간염 방치하면 간경변증, 간암으로 이어져 <br/> <br/>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 조사결과 C형 간염이 5년 새 8% 늘어났다(2012년 4만5890명→2016년 4만9569명). 하지만 전문가들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비율이 10% 미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한간학회는 3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br/> <br/>간염은 과하고 지속적인 음주나 성분 미상 혹은 과량의 약제나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A형 간염은 증상이 심해도 일반적으로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지 않지만 B와 C형 간염은 급성 간염 이후에도 만성 간염으로 지속될 수 있다. <br/> <br/>C형 간염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체액 등에 의해 감염된다. 주로 혈액이나 주사기, 면도기로 감염된다. 소독을 잘하지 않은 문신과 피어싱 시술, 침이나 주사바늘의 재사용, 정맥주사약물 남용 등으로 인한 감염이 사회적 이슈가 된 적 있다. <br/> <br/>C형 간염은 아직 법정감염병이 아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진행하지만,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는 포함돼 있지 않아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많다. 따라서 C형 간염은 한 번 감염되면 만성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간경변증, 간암,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br/> <br/>C형 간염 적절한 치료하면 완치 효과 기대 <br/> <br/>C형 간염은 한 번 감염되면 70~80%가 만성간염으로 진행된다. 이 중에서 30~40%가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쉽게 피로해지고, 입맛도 없어지고, 오심과 구토가 생기면 간염 등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간염의 증상이 워낙 다양하여 증상으로 간염을 알아차리긴 어렵다. 혈액검사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br/> <br/>C형 간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체액을 통해 전파되므로 주사기는 반드시 1회용을 사용해야 하고, 간염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성적 접촉 시에는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침을 맞거나 문신과 피어싱을 할 때에 반드시 소독된 도구를 사용해야한다. 그 외에 면도기, 칫솔, 손톱깍기 등 혈액에 오염될 수 있는 모든 물건이 간염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주의해야 한다. <br/> <br/>C형 간염은 아직 백신이 없지만 항바이러스제를 먹으면 유전자형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완치율이 99%에 이른다. 하지만 C형 간염은 다른 바이러스성 간염과 마찬가지로 만성 간염시에는 증상 발견이 힘들어 병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검진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br/> <br/>■ 간염을 예방하는 방법 <br/> <br/>⑴A형, B형 간염에 대비한 예방 접종을 한다. 동남아시아를 여행할 계획이거나, 젊은 층에 속한다면 A형 간염 예방 접종을 맞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br/> <br/>⑵A형 간염에 걸린 환자가 잠복기에 자신도 모르게 간염을 전파시킬 수 있기에 손씻기와 같은 기본적 개인위생에 신경을 써야 한다. <br/> <br/>⑶A형 간염에 대비해 음식을 고온으로 익혀 먹고 병과 캔에 들지 않은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신다. <br/> <br/>⑷B, C형 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피어싱, 문신 등 소독되지 않은 기구를 이용한 시술을 받지 않는다. 또한, 면도기, 손톱깎이 등을 공유해서 쓰지 않는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10.txt

제목: 인천성모병원, 로봇수술 300례 달성  
날짜: 20171019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19091544001  
ID: 01100201.201710190915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이학노 몬시뇰)은 최근 흉부외과 정진용 교수팀이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300번째 로봇 복경수술을 시행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br/> <br/>인천 부천 지역에서 다빈치 로봇수술 300례를 돌파하기는 이 병원이 처음이다. 환자는 수술 후 건강을 회복, 일상생활로 복귀했다. <br/> <br/>인천성모병원은 2011년 인천과 부천 지역 최초로 수술용 로봇 다빈치Si(Da Vinci Si Surgical System)를 도입한 뒤 그해 로봇 위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 이후 전립선암, 폐암, 대장암, 갑상선암, 자궁근종 등 총 300명 이상의 환자에게 로봇수술을 시행했다. <br/> <br/>전립선은 요도와 방광이 골반 깊은 곳까지 이뤄져 있어 정교하고 섬세한 로봇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결장•직장, 갑상선, 자궁 등에 생긴 암을 수술할 때 특히 로봇수술이 유용한데 이중 전립선이나 자궁과 같은 생식기관은 주변 조직이나 근육이 손상될 염려가 적어 요실금과 같은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br/> <br/>로봇수술은 복강경•흉강경 수술처럼 몸에 1~5개의 구멍을 뚫어 진행하는 수술이다. 합병증이 적어 회복속도가 빠르고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최대 15배까지 확대한 3D 영상으로 수술시야를 확보하고 사람의 팔을 대신한 로봇 팔이 540도로 활발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수술을 할 수 있다. 또한 의료진의 미세한 손 떨림까지 방지할 수 있는 강점이 있어 복강경·흉강경과 개복·개흉 수술을 한층 뛰어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br/> <br/>정진용 교수는 “<span class='quot0'>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분야에서 로봇수술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로봇수술센터 의료진들과 긴밀한 논의와 연구를 계속 이어갈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11.txt

제목: [헬스파일] 항암제 부작용 줄이는 ‘비타민 고용량 주사요법’이란?  
날짜: 20171019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19083744001  
ID: 01100201.201710190837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최종순 교수  고신대 복음병원 가정의학과 <br/> <br/>일상생활 속에서 만성피로의 치료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스트레스 완화, 음식물,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다. <br/> <br/>암의 경우에도 의료기술이 꾸준히 발전하고 그에 따라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암의 치료중 하나인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의 부작용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많다. <br/> <br/>그 이유는 대부분의 항암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세포독성 항암제는 암 세포 뿐만 아니라 정상 세포마저 동일하게 공격하므로 정상세포들의 파괴로 각종 항암치료의 부작용과 심각한 체력저하를 동반하게 된다. <br/> <br/>이와 같은 항암치료의 부작용들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표적항암제는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표적항암제의 사용이 암의 종류에 따라 제한적이고 아주 고가라는 단점이 있다. <br/> <br/>암 치료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치료가 바로 항암치료이며 방사선치료도 마찬가지이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의 부작용들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br/> <br/>항암치료의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br/> <br/>1. 골수 기능 억제(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감소)에 따른 두통, 출혈, 빈혈, 면역력 감소 등 <br/> <br/>2. 오심과 구토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식사의 어려움, 식욕저하, 체중감소 <br/> <br/>3. 구내염, 변비 또는 설사, 피부 발진 등과 같은 점막손상 <br/> <br/>4. 손발 저림, 불면증 등과 같은 신경계 손상 <br/> <br/>그 밖에 탈모, 근육 감소로 인한 보행 장애 등의 각종 항암치료의 부작용이 동반될 수가 있다. 방사선치료의 부작용으로는 방사선의 받은 부위에 만성 염증이나 섬유화현상, 피부손상 등이 올수가 있다. <br/> <br/>많은 환자분들이 항암치료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을 겪으시면서 지금 겪고 있는 것이 항암치료의 부작용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항암의 부작용이 심해서 항암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흔하다. <br/> <br/>이러한 항암의 부작용을 줄여주면서 신체 면역력을 높여서 암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암보조 치료가 바로 비타민 고용량 주사요법이다. <br/> <br/>비타민 고용량 주사요법의 주요 성분은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대표적 항산화물질이며, 수용성비타민이기 때문에 일정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배설이 되어 몸에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 또한 고용량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통증완화 및 항염증작용을 하게 된다. <br/>즉 비타민 고용량 주사요법이란 비타민 C의 하루 섭취권장량보다 100배에서 500배 이상 많은 양을 혈관으로 직접 투여하는 치료방법을 말한다. <br/> <br/>비타민 주사요법이 실제로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인 오심과 구토, 백혈구 수치 감소, 면역력 감소, 구강염, 설사 등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면역력의 회복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br/> <br/>전 세계적으로 500개 이상의 회사가 면역세포를 사용한 암 치료법 개발에 적극 투자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항암치료를 받는 암환자들의 대부분이 오늘도 비타민 고용량주사요법을 받고 있다. 항암제의 부작용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까닭이다. <br/> <br/>정리=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12.txt

제목: 암협회, 20~21일 서울역앞 ‘서울로7017’서 유방암 예방 캠페인  
날짜: 20171018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18114644001  
ID: 01100201.20171018114644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대한암협회는 오는 20~21일 이틀에 걸쳐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서울로7017에서 ‘서울로X핑크로X미래로’란 제목으로 유방암 예방 캠페인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br/> <br/>한국유방암학회와 서울특별시, 에스티 로더 컴퍼니즈 코리아(엘카코리아),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데비코어메디칼, 넥센타이어, 롯데월드타워 등이 이 행사를 후원한다. <br/> <br/>협회는 양일간 유방암 퀴즈 및 다양한 캠페인과 질병 정보, 그리고 행동 실천 다짐 등을 위한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br/> <br/>‘이제는 유방암을 끝낼 때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서울로 7017를 찾은 여러 남녀노소 시민들을 대상으로 유방암에 대해 주요 정보들을 간단한 퀴즈나 이벤트와 함께 알리고, 유방암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 실천을 독려하는 행사들이다. <br/> <br/>유방암은 전 세계에서 여성암으로 사망하는 가장 흔한 원인암이며 우리 나라에서도 여성암 2위를 차지하는 질병으로 40-50대의 발생률이 가장 높지만 10대에서부터 80대까지 두루 발생한다.  <br/> <br/>한국에서 매년 약 2만명 정도의 유방암 환자가 발생하는데 유방암의 경우 조기 진단 시 완치율과 생존율이 높다.  <br/> <br/>대한암협회에서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노출된 이러한 유방암에 대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짐으로써 질병 위험요인들은 예방하고 유방암 발병 시 조기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자가검진과 조기 검진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는 캠페인 활동을 매년 펼쳐왔다. <br/> <br/>노동영 대한암협회장(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원장)은 “고지방 고칼로리 위주의 서구형 식생활과 비만, 늦은 결혼과 출산율 저하, 수유 감소, 빠른 초경과 늦은 폐경 등으로 에스트로겐 노출 총 기간의 증가 등이 유방암 발병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br/> <br/>암세포가 국소 부위에 집중되고 조기(0기-2기)에 발견된 경우 5년 이상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유방암은 조기 검진과 발견이 매우 중요한데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유방암 초기 발견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13.txt

제목: 서울성모병원 최명규 교수팀, 췌장암 치료용 새 광감각제 개발  
날짜: 20171018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18113644001  
ID: 01100201.20171018113644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광역학요법 췌장암세포 살상 효과를 높이는 새로운 광감각제가 국내 의료진에 의해 개발됐다.  <br/> <br/>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소화기내과 최명규( <br/>사진 왼쪽)·박재명 교수 연구팀이 최근 새로운 광감각제인 ‘포토센시타이저 엔캡슐레이티드 폴리메릭 나노파티클’(PS-pNP)을 췌장암세포에 적용하는 세포실험연구를 통해 PS-pNPrk 광감각제 배출을 최소화함으로써 광역학 치료 효과를 배가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br/> <br/> <br/>광역학 치료법은 광감각제를 투여한 후 빛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파괴하는데, 기존 치료법과 다른 기전이다. 현재 광역학 치료는 암뿐 아니라 심혈관, 피부, 눈질환등에도 적용되고 있다. <br/> <br/>광역학 치료의 핵심은 ‘광감각제’이다. 빛에 반응하는 광감각제를 몸속에 투입한다. 광감각제는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표적 침착돼 빛에 노출 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는 암세포 표적치료의 특성이 있다. <br/> <br/>문제는 투입 후 몸속 암세포가 광감각제를 흡수해야 치료할 수 있는데, 체내 세포막 운반체가 광감각제를 세포 밖으로 유출시켜 치료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br/> <br/>최명규 교수는 “<span class='quot0'>여러 암치료에 대한 광역학치료의 임상결과가 꾸준히 제시되고 있지만 더딘 광역학 치료용 광감각제 개발로 치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PS-pNP가 효과가 높고 부작용이 적은 새로운 광감각제임이 증명된 만큼, 향후 췌장암 치료 임상에서 활발하게 쓰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 <br/> <br/>연구결과는 미국암연구협회가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몰리큘러 캔서 써래퓨틱스’(MCT)’ 최근호에 게재됐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14.txt

제목: 작년 노인 진료비로 25조2682억 썼다… 7년만에 2배 ‘껑충’  
날짜: 20171018  
기자: 최예슬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18050005002  
ID: 01100201.2017101805000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출한 진료비(비급여 제외)는 25조2692억원이었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9년(12조5442억원)과 비교하면 7년 만에 배로 늘었다. <br/> <br/>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7일 발표한 지난해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지난해 지출된 총 진료비의 39.1%에 이른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398만원이었다. 전체 인구 1인당 평균 진료비 129만원의 3배가 넘는다. <br/> <br/>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연평균 보험료는 전년보다 8.7% 증가한 93만9996원이었다. 전체 보험료 부과액은 47조5931억원이었으며 직장가입자가 39조9446억원, 지역가입자가 7조6485억원을 냈다. <br/> <br/>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인구 5076만명이 지난해 지출한 총 진료비는 64조576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총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보험급여비는 50조4254억원으로 전년보다 10.2% 올랐다. 1인당 연평균 99만5936원의 급여비를 받은 것으로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률은 1.06배에 달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br/> <br/> 진료비 지출은 고액 진료를 받는 환자에 집중됐다. 전체 진료비 중 41.2%(약 26조8863억원)는 1인당 진료비가 500만원이 넘는 환자에 쓰였다. 전체 환자의 4.1%(197만명)에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가 지출된 셈이다. <br/> <br/> 중증 암 환자 186만2532명 가운데 132만9880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1년간 전체 진료비의 2.3%(6조4432억원)를 진료비로 지출했다. 총 진료비의 5%만 부담하는 산정특례(희귀난치병 10%)를 적용받는 중증질환 환자 190만명은 진료비로 12조281억원을 지출했다. 이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11조200억원이었다. 질병별로 보면 특별한 원인 없는 고혈압(본태성 고혈압) 질환에 2조8254억원(565만명)이 쓰여 가장 지출이 컸고, 만성 신장병 질환이 1조6914억원(19만명), 2형 당뇨병 질환이 1조6732억원(237만명)이었다. <br/> <br/>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진료비는 항목별로 입원료 비율이 21.1%로 가장 높았고, 진찰료 20.9%, 처치·수술료 18.6%, 검사료 12.9% 순이었다. 입원료나 처치·수술료, 검사료 비율은 증가 추세지만 진찰료, 투약료, CT·MRI 촬영료 등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었다. <br/> <br/>글=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215.txt

제목: [기아대책·국민일보 공동 캠페인 ‘회복’] 쓰레기 뒤덮인 마을에 희망의 꽃 피웠습니다  
날짜: 201710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18000055002  
ID: 01100201.20171018000055002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칼루스오르도(쓰레기 마을)에 지난달 19일 도착하자 쓰레기 태우는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가득 메웠고 그곳에서 날아온 모래 먼지는 5㎝ 넘게 발밑에 쌓였다. <br/> <br/><br/>마을 어귀에 서 있던 네 살배기 여자아이는 땅바닥을 발로 차 먼지를 일으키며 뛰어놀았다. 바지를 벗은 채 온몸을 모래 먼지로 뒤집어쓴 남자아이는 초콜릿을 달라며 달려왔다. <br/> <br/> 김철규 광주성결교회 목사는 이날 유종호 기아대책 봉사단, 김태일 기아대책 국제사업부문장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 후원자로 아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김 목사는 “<span class='quot0'>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아이들의 교육과 영양 문제에 작은 도움을 주고 싶다</span>”고 말했다. <br/> <br/> 진흙을 쌓아 만든 좁은 집에 들어서자 낡고 허름한 텔레비전이 눈에 띄었다. 방바닥은 장판 하나 없이 진흙을 그대로 드러냈다. 아이들은 손님 대접할 찻잔을 구하기 위해 옆집을 오갔다. 찻잔에는 파리가 쉴 새 없이 앉았다. <br/> <br/> 복싱 선수가 꿈이라는 10살 소년은 동생들과 함께 자신이 받은 상장을 김 목사에게 보이며 자랑을 늘어놨다. 김 목사는 “<span class='quot0'>맞벌이 부모 아래 오빠가 동생을 보살피는 모습에서 가족애가 느껴진다</span>”며 “<span class='quot0'>우리가 보낸 작은 후원은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그 가정을 살리는 길</span>”이라고 했다. <br/> <br/> 사람들은 공사장 막일과 시장 허드렛일 등 일자리를 찾아 수도 비슈케크를 찾았다. 이들이 2010년대 들어 쓰레기 소각장 주변에 집을 짓기 시작하며 쓰레기 마을이 형성됐다. 제대로 된 화장실과 병원, 포장도로도 없는 이곳에 1만여명이 가정을 이뤘다. 오랜 시간 이곳에 머문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대개 폐암이나 기관지암 같은 질병이었다. <br/> <br/>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이곳에 3000여명 아이들이 자라고 있었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은 아이들의 방과후교실을 책임지기 위해 이곳에 아동개발프로그램(CDP) 센터를 세웠다. 센터에선 462명의 아이들이 컴퓨터와 영어 한국어 태권도 댄스 미술 등을 배운다. 키르기스스탄 전체로 확대하면 기아대책은 5개 센터 2000여명 아이를 후원하고 있다. <br/> <br/> 이날 오후 CDP 칼루스오르도 센터에서 운동회가 열렸다. 전통 의상으로 곱게 차려입은 아이들이 전통 연극과 무용을 선보였다. 공연이 끝나자 아이들은 공 전달하기나 띠 빼앗기 게임, 풍선으로 탑 쌓기와 페이스페인팅 등을 하며 숨 가쁘게 뛰어다녔다. 10년째 CDP에서 운동회를 맞이한 아스칼 알리(16)는 “CDP는 내 두 번째 집”이라고 소개했다. 아버지는 시장에서,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느라 알리를 돌볼 시간이 없지만 알리는 CDP에서 배우며 학교에선 학급 반장을 맡는 등 꿋꿋하게 자라고 있다. <br/> <br/> 알리는 오전 학교 수업이 끝나면 오후 1시 CDP를 찾아 부모님이 퇴근하는 오후 5시까지 영어 한국어 러시아어, 컴퓨터와 태권도 등을 배운다. 키르기스스탄은 11학년제로 초·중·고등학교 구분이 없다. 11학년 졸업반인 그는 “다시 어려져 CDP에 계속 있고 싶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CDP 막내에서 이제는 큰형으로 자란 알리는 “한국 후원자들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들이 찾아오면 종이로 하트 모양 백조 한 쌍을 만들어 직접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다. <br/> <br/> CDP 직원들은 수시로 학생들의 집을 찾아가 생필품을 전하고 있다. CDP 칼루스오르도 센터 설립 때부터 직원으로 일한 데칸바에바 박티굴(45·여) 매니저는 “<span class='quot1'>아이의 가정에 찾아가 화장실을 직접 만든 적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그 화장실에서 노래 부르며 일을 보는 아이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span>”고 웃으며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쓰레기 마을 아이들이 변하면서 가정도 변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이제는 그 아이들이 모여 또 다른 아이를 돕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 한국에서 보낸 작은 후원이 밀알이 돼 쓰레기 마을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 아직도 황량한 사막과 같은 곳이지만 젊은이들이 많은 지역인 만큼 희망도 있다. 10주년을 맞은 CDP 칼루스오르도 센터는 어느새 850여명 아이들과 인연을 맺었다. 졸업생 중에는 학교 선생님도, 지역 정치인도 있다. <br/> <br/> “<span class='quot2'>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span>” <br/> <br/> 김 목사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2'>예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한 부분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눌 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한다</span>”며 “<span class='quot2'>풍부함 속에 빠져있을지도 모를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삶의 땅을 체험해 스스로 돌이켜보았으면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칼루스오르도(키르기스스탄)=글·사진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16.txt

제목: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한국 여성 출산율  
날짜: 20171018  
기자: 최예슬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18235155001  
ID: 01100201.20171018235155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한국의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이 세계 195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 인구 비율은 상위권을 기록했다. <br/> <br/>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유엔인구기금(UNFPA)은 17일 발간한 ‘2017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에서 한국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1.3명으로 홍콩, 싱가포르, 그리스와 함께 190위였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보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포르투갈, 몰도바 등 2개국뿐이었다. 전 세계 1인당 평균 출산율은 2.5명이었다. <br/> <br/> 영유아가 포함된 0∼14세 인구 비율도 한국은 13%에 그쳐 일본, 독일과 함께 세계 194위를 기록했다. 저조한 출산율로 지난 8년 간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0.4%에 그쳐 세계 인구성장률(1.2%)에 훨씬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반면 고령인구는 세계 평균(9.0%)을 웃돌았다. 올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4%(48위)였다. 평균 기대수명은 남자 70세, 여자 74세로 각각 세계 20위와 6위를 차지했다. <br/> <br/> 한국의 인구 고령화 현상은 건강보험 지표를 통해서도 나타났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출한 진료비(비급여 제외)는 25조2692억원이었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9년(12조5442억원)과 비교하면 7년 만에 배로 늘었다. <br/> <br/>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날 발표한 지난해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지난해 지출된 총 진료비의 39.1%에 이른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398만3000원이었다. 전체 인구 1인당 평균 진료비 129만7000원의 3배가 넘는다. <br/> <br/>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연평균 보험료는 전년보다 8.7% 증가한 93만9996원이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인구 5076만명이 지난해 지출한 총 진료비는 64조576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br/> <br/> 총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보험급여비는 50조4254억원으로 전년보다 10.2% 올랐다. 1인당 연평균 99만5936원의 급여비를 받은 것으로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률은 1.06배에 달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br/> <br/> 진료비 지출은 고액 진료를 받는 환자에 집중됐다. 전체 진료비 중 41.2%(약 26조8863억원)는 1인당 진료비가 500만원이 넘는 환자에 쓰였다. <br/> <br/> 전체 환자의 4.1%(197만명)에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가 지출된 셈이다. 중증 암 환자 186만2532명 가운데 132만9880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1년간 전체 진료비의 2.3%(6조4432억원)를 진료비로 지출했다. <br/> <br/>글=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217.txt

제목: [로컬 브리핑] 충북도, 26일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날짜: 201710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18211455001  
ID: 01100201.2017101821145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충북도는 오는 26일과 27일 오송의 C&V센터에서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 BioExcellence’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전 세계의 바이오·의약 전문가 300여명이 참가한다. 단백질·세포라인 공학과 세포치료법, 바이오의약품 개발 등 총 6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암 연구센터 그룹 리더이자 항체, 백신, 단백질 합성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디미트로브 박사와 미국 제네텍에 근무 중인 임한조 박사가 기조 강연을 맡는다.

언론사: 국민일보-2-218.txt

제목: ‘하나님의 은혜’ 등 주옥같은 찬양 남기고…  
날짜: 20171017  
기자: 이사야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17000059001  
ID: 01100201.20171017000059001  
카테고리: 문화>음악  
본문: 한 사람이 죽음을 맞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아는 이들은 애도와 동시에 그가 남긴 노래를 벗 삼아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r/> <br/>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신상우씨가 간암 투병 끝에 50세의 나이로 지난 12일 별세했습니다. 클래식과 대중음악 분야에서 활동하던 그는 1995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예수전도단 월요모임에 반주자로 참여하면서 기독교 음악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98년부터는 송정미, 박종호 등 찬양사역자들의 음반에 작곡가와 연주가로 함께했습니다. 송정미의 ‘기름부으심’, 박종호의 ‘지평’과 ‘축복하노라’ 등을 작곡했지요. <br/> <br/> 그가 만든 노래 중 가장 유명한 곡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멜로디와 가사를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겁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갚을 길 없는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밞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br/> <br/> 암 진단을 받고 죽음을 목전에 뒀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문득 궁금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그는 찬양 곡 가사처럼 순전한 믿음을 구현하려 애쓴 것으로 보입니다. 찬양사역자 김태희(군포제일교회) 집사는 그가 병마와 싸우는 중에도 ‘다 겪는 인생의 과정이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다’고 고백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SNS 등에 남겨진 추모글에서는 슬픔보다 희망과 감사가 보였습니다. 장로회신학대 김효숙 교수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두렵기만 했다. 그때마다 신상우 형제가 작곡한 찬양곡 ‘하나님 부르실 때’ ‘축복하노라’ 등을 끝도 없이 따라 부르며 위로를 얻고 다시 걸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br/> <br/> 부천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조익현씨는 “<span class='quot0'>10년 전 시설아동들의 장학금 마련을 위한 공연 때 흔쾌히 무보수로 피아노 연주에 참여해 줬던 가슴 따뜻한 후배</span>”라고 신씨에 대해 추억했습니다. 조씨는 “그는 이제 없지만 그가 남긴 찬양곡들은 영원히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을 쏟아 내고 이제 돌아갔으니 천국에서 편안히 쉬길 바란다”고 추모했습니다. <br/> <br/> 동료였던 부흥한국 대표 고형원 선교사는 신씨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고 묘사하며 SNS 등에 신씨가 만든 찬양곡의 제목과 가사를 게재했습니다. <br/> <br/> 고 선교사가 신씨의 발인예배 때 드렸던 기도의 일부를 소개하며 글을 마칩니다. “<span class='quot1'>신상우 형제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찬양할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span>” <br/> <br/>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19.txt

제목: “인천의료원에 무슨 일이” 수억원 수익내는 의사들이 줄줄이 나갔다고  
날짜: 20171016  
기자: 인천=정창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16155444002  
ID: 01100201.20171016155444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인천의료원이 불통 경영과 우수 의료진의 이직으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br/> <br/>16일 인천지역 시민사회에 따르면 이 병원 정형외과, 심장내과, 신경외과 등의 진료과장들과 진료부원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최근 연이어 사퇴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br/> <br/>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span class='quot0'>김철수 원장의 리더십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직원들과 원장이 상호신뢰 하기 보다는 서로에게 네 탓 공방만을 하고 있이 더 문제</span>”라고 질타했다. <br/> <br/>이 때문에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올 8월 기준 누적 외래환자는 약 6000명, 입원환자는 약 7000명이 감소했다.  <br/> <br/>진료수익으로 보면 연간 수십 억 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이로 인한 인천의료원의 올해 적자 규모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br/> <br/>이 때문에 환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br/> <br/>인천평화복지연대측은 “<span class='quot1'>그동안 인천의료원은 경영상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설현대화 사업의 성과와 의료진 및 직원들과 경영진의 단합된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해 왔으나 새로운 원장이 들어서면서 소통이 원활치 못하면서 내부갈등이 커져왔다</span>”고 진단했다. <br/> <br/>이 단체는 “결국 10년 이상 근무해온 우수 의료진의 집단이탈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된데다 인천의료원이 인천시와 함께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 ‘암 관리 통합지원 사업’이 시민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위기가 가중됐다”고 질타했다. <br/> <br/>실제 이 사업에 암치료 권위자인 김철수 원장은 자신의 역량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br/> <br/>인천평화복지연대측은 “<span class='quot1'>전체 사업비 5억원 중에서 20%만 집행된 것이 문제</span>”라며 “<span class='quot1'>기존의 공공의료사업 분야를 소홀히 한 채 아직 검증도 되지 않은 사업에 편중된 운영을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경영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span>”고 따졌다. <br/> <br/>이에 따라 인천지역시민사회에서는 인천의료원의 의료상황과 인천시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경영방향을 새롭게 수립하고, 인천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책임이 있는 인천시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br/> <br/>이들은 “다가오는 인천시의회 정기회에서 인천의료원에 대한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부실경영의 원인을 규명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br/> <br/>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20.txt

제목: 젊을수록 유방암 완치 후 체중증가 확률 높다  
날짜: 20171016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16101644001  
ID: 01100201.201710161016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젊은 연령대에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경우 체중이 증가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방암 진단 당시 비만이 아닌(BMI<25) 경우에도 암 진단 후 체중이 증가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는 가정의학과 최호천( <br/>사진) 교수 연구팀이 유방암 경험자 클리닉을 방문한 5년 이상 장기 생존 유방암 경험자를 평균 8.2년간 추적 관찰하면서 체중, 나이, 생활습관, 암 관련 요인 등을 비교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br/> <br/>조사 결과 유방암 진단 시 젊은 연령군(18세~54세)에 속한 환자는 평균 0.53㎏의 체중 증가를 보인 반면 고령군(55세 이상)은 평균 0.27㎏ 감소했다. <br/> <br/>유방암 진단 시 체질량 지수가 25보다 낮아 비만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완치 후 체중이 평균 0.78㎏ 증가한 반면 체질량 지수 25 이상으로 비만이었던 경우에는 완치 후 체중이 오히려 평균 1.11㎏ 감소했다. <br/> <br/>통계적으로 유방암 진단 당시를 기준으로 젊은 연령에 속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체중 증가 위험도가 1.9배, 비만이 아닌 경우 비만인 경우보다 체중증가 위험도가 2.7배 높은 것이다. <br/> <br/>그 외에도 항암 화학요법 중 방향효소차단제(Aromatase inhibior)를 사용하지 않은 군이 사용한 군에 비하여 비만 위험도가 2.2배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방향효소차단제는 폐경후 여성의 유방암 재발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호르몬억제제이다. <br/> <br/>암 진단 후 체중증가는 암의 재발 확률, 생존기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br/> <br/>최호천 교수는 “<span class='quot0'>체중 증가가 유방암 생존자의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하므로 체중 증가 요인을 가진 암 환자는 비만 예방을 위한 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span>”고 지적했다. <br/> <br/>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에게 발생하는 암 중 갑상선암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암으로, 2014년 국립암센터 통계에 의하면 여성암 경험자의 19.3%를 차지하며 유방암 발생이 가장 많은 연령은 45~49세로 나타나고 있다.  <br/> <br/>서구화된 생활습관을 가진 인구층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유방암 경험자의 평균 나이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유방암 경험자 인구도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br/> <br/>암 치료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암 경험자 인구가 늘어나자 이들의 건강 및 삶의 질 관리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사회적 요구로 대두되고 있다.  <br/> <br/>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는 ‘유방암 경험자 특화 프로그램’을 런칭하여 유방암 경험자가 유방암 전문가인 노동영 원장(외과)을 비롯하여 가정의학과 전문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영양사, 운동치료사 등 분야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21.txt

제목: [뉴스룸에서-민태원] 암보다 무서운 항생제 내성균  
날짜: 201710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16172455002  
ID: 01100201.2017101617245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어이없고도 안타까운 일이었다. 한편으론 두렵기도 했다. 며칠 전 서울 시민 박춘덕씨로부터 그의 딸 관련 사연을 접하고서 든 생각이다. 박씨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 서른 한 살의 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다. 8월 9일 난소암 수술을 받고 두 달이 채 안 됐다. 그의 딸은 7월 말 배가 아파 인천의 모 대학병원을 찾았고 난소암 판정을 받아 곧바로 암 제거 수술을 했다. 의료진은 수술이 잘 됐고 몇 차례 항암치료를 받으면 잘 될 거라고 했다. 수술 후 중환자실에 1주일 머물렀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 1주일을 입원했다. 그런데 8월 29일 갑자기 졸도해 중환자실로 다시 옮겼고 그 과정에서 딸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E)’이라는, 발음조차 어려운 다제내성균(3개 이상 항생제에 듣지 않는 일종의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r/> <br/> 그것도 1주일 뒤 딸을 다른 암 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길 때 진료의뢰서를 통해서였다. 암 수술 병원에선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일절 말해 주지 않았다. 게다가 다제내성균 치료에 애를 먹어 정작 필요한 항암치료는 손도 못 댔다. <br/> <br/> 암을 치료하러 갔던 딸은 결국 암보다 더 치명적인 감염병에 발목 잡혀 짧은 생을 마감했다. 부지불식간에 딸을 잃은 아버지는 인터넷을 뒤져 CRE에 대해 찾아봤다. 국민일보 기사 ‘느린 쓰나미… 항생제 내성균의 역습’(8월 1일자 11면 참조)’을 보고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딸 사례를 통해 항생제 내성균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려달라고 했다. <br/> <br/> 박씨는 암 수술 병원을 상대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냈다. 딸의 다제내성균 감염이 암 수술 중에 일어났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오염된 수술 도구나 수술장 및 중환자실 환경, 의료진 등을 통해 옮았을 가능성이 높다. <br/> <br/> 세계보건기구(WHO)가 ‘느리게 움직이는 쓰나미’로 규정한 항생제 내성균은 이처럼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빠르게 우리 곁에 다가와 있다. 병 고치러 병원 갔다가 되레 더 무서운 병균을 얻어 생명을 잃는 황당한 일은 앞으로 흔한 일상이 될지 모른다. CRE 같은 강력한 항생제 내성균들이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것이고 확산 속도 또한 빠를 것이기 때문이다. <br/> <br/> 정부는 지난해 8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년)을 발표했지만 시행은 걸음마 단계다. 병원들도 감염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미흡하다. 내성균 감염에 대해 쉬쉬하기 십상이고 감염 경로를 환자나 가족들에게 속 시원히 말해주지 않는다. 이름조차 생소한 항생제 내성균에 국민들은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다. <br/> <br/> “<span class='quot0'>암 환자의 경우 내성균에 걸려도 의사가 암이 독해서 죽었다고 하면 가족은 그런 줄 알고 그냥 울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span>”는 박씨의 절규는 비단 그만의 일이 아닐 것이다. <br/> <br/>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CRE와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알균(VRSA) 등 2종을 3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해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 신고토록 했지만 그 외 내성균의 감시체계는 허술하다. 특히 병원에서 흔한 내성균 감염 루트인 ‘수술 감염’에 대한 감시가 허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 의료법상 재사용 수술 도구의 경우 멸균·소독 지침을 따르도록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 수준이어서 시행 및 보고 의무가 없다. 그렇다 보니 소독·멸균 검사가 끝나기도 전에 수술 도구를 환자에게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언론 보도 등을 계기로 이뤄지는 당국의 ‘사후 약방문식’ 점검은 그때뿐이다. <br/> <br/> 세계적 석학 미국 재러드 다이아몬드 박사는 저서 ‘총·균·쇠’에서 “<span class='quot1'>질병(병원균)이 인류 역사를 바꾸는 가장 큰 요인</span>”이라고 했다. 역사상 전쟁보다 세균으로 숨진 인구가 훨씬 많다. 진화하는 항생제 내성균은 현 인류에게 큰 보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br/> <br/>민태원 사회부 차장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22.txt

제목: 채식주의자가 고기 먹으면 반칙?… 상식과 극단 사이  
날짜: 20171015  
기자: 이현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15081344001  
ID: 01100201.20171015081344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고기나 달걀을 아예 섭취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엄밀히 말해서 채식주의(Vegetarianism)는 동물성 음식을 먹는 것을 피하고, 식물로 만든 음식만을 먹는 것을 뜻하지만, 가벼운 채식의 경우 일부 동물성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 <br/> <br/>최근에는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채식을 실천하는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육식을 포함하는 채식주의에서부터 오로지 식물만 먹는 채식주의까지, 채식주의의 종류와 효능은 아주 다양해졌다. <br/> <br/>■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lacto-ovo vegetarian) <br/>▶허용식 : 달걀, 우유, 유제품 <br/>▶불허용식 : 생선, 해물 <br/>유제품과 동물의 알은 먹는 채식주의로, 서양 대부분의 채식주의자는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으로 분류된다. '락토'는 우유를, '오보'는 달걀을 의미한다.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은 채식주의가 아닌 사람들과도 무리없이 어울려 식사할 수 있다. 육류를 먹지 않기 때문에 변비 개선에 효과가 좋다. 국내에서도 이태원을 중심으로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 요리를 제공하는 곳이 늘고 있다. <br/> <br/>■ 락토 베지테리언(lacto vegetarian) <br/>▶허용식 : 우유, 유제품 <br/>▶불허용식 : 생선, 해물, 달걀 <br/>고기와 동물의 알은 먹지 않지만, 유제품은 먹는 채식주의자. 인도와 지중해 연안의 나라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불교 신자인 락토 베지테리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달걀을 피하고 유제품 위주의 식단을 섭취한다.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체중 감소와 유지에 효과가 있다. <br/> <br/>■ 오보 베지테리언(ovo vegetarian) <br/>▶허용식 : 달걀 <br/>▶불허용식 : 생선, 해물, 우유, 유제품 <br/>오보 베지테리언 식단은 유제품은 먹지 않지만 계란 등의 알 종류는 먹는 채식주의자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나트륨이 적으며, 비타민과 무기질 등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고루 갖추고 있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질 좋은 단백질을 공급한다. 따라서 성장기 어린이, 임산부, 노인에게는 순수 채식보다는 오보 베지테리언 식단이 더 적합하다. <br/> <br/>■ 폴로 베지테리언(pollo-vegetarian) <br/>▶허용식 : 우유, 달걀, 조류, 어류 <br/>▶불허용식 : 붉은 살코기 <br/>우유, 달걀, 닭고기까지는 허용하나 붉은 살코기(돼지고기, 소고기, 양 등)는 먹지 않는 채식주의를 의미한다. 폴로 베지테리언은 포유류의 육류를 제외한 가금류(닭, 오리, 거위 등), 과일, 채소만을 식단에 허용한다. 대다수의 동물 보호가들, 비건, 다른 채식주의자는 폴로 베지테리언을 채식주의자로 분류하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채식과 가금류의 육류만 허용한다는 점에서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쉬운 비건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br/> <br/>■ 페스코 베지테리언(pesco-vegetarian) <br/>▶허용식 : 우유, 달걀, 어류 <br/>▶불허용식 : 가금류, 조류 <br/>우유, 달걀, 생선까지 먹는 채식주의자를 의미한다. 흔히 베지테리언으로 가는 첫 단계로 많이 선택된다 .식단은 소, 돼지, 닭고기 등을 제외한 생선을 포함한다. 페스코 베지테리언은 소나 돼지, 닭고기 등을 먹을 때 섭취하는 동물성 기름의 단점들을 피할 수 있고, 생선을 먹음으로써 오는 장점을 취할 수 있다. 폴로 베지테리언과 마찬가지로 비건의 단백질 부족 현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br/> <br/>■ 플렉시테리언(Flexitarian) <br/>대부분 채식을 하지만 때때로 육식을 하는 간헐적 채식을 의미한다. 평소에는 비건을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육식을 허용한다. 일부는 공장식 농장에서 생산되는 고기를 거부하고 자연 상태에서 자란 동물 고기만을 먹는 경우도 있다. 플렉시테리언은 채식으로는 완전히 채울 수 없는 영양소인 동물 단백질을 채우도록 도와주어 인체 결핍 상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기농 식단과 가장 가까운 형태의 채식주의기도 하다. 지인과의 식사 약속을 할 때 고민이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다. <br/> <br/>■ 생식주의(Raw veganism) <br/>▶허용식 : 생 야채, 과일, 견과류, 곡물, 콩과 식물, 씨앗, 식물성 기름, 야채, 식물, 버섯, 주스 <br/>▶불허용식 : 고기, 달걀, 유제품 <br/>음식을 익히거나 열을 이용해 조리하지 않고 주어진 그대로 먹는다. 조리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변형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생식의 효과는 열에 의해 손실되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는 물론 식이섬유의 손실을 크게 줄여준다는 점이다. 특히 엽록소, 비타민C 등 우리 몸의 생화학 반응을 활성화하는 효소를 그대로 우리 몸에 전달해 노화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여 준다. <br/> <br/>■ 비건(Vegan) <br/>▶허용식 : 야채, 과일 <br/>▶불허용식 : 유제품, 동물의 알, 모든 종류의 동물성 음식 <br/>유제품과 동물의 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는 엄격한 채식주의를 의미한다. 동물을 이용해 만들어진 상품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넓은 의미에서 비건으로 분류한다. 비건 식단의 경우 지방(포화지방산) 섭취가 낮고, 식이 섬유소 섭취가 높아 심장질환과 비만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비타민과 식이 섬유가 풍부해 암, 장 질환 예방과 변비에도 좋다. 그러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기 쉬우므로 식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식단을 구성해야 한다. <br/> <br/>■ 과식주의(Fruitarianism) <br/>▶허용식 : 과일과 견과류의 열매와 씨앗 <br/>▶불허용식 : 동물성 음식, 뿌리 식물인 감자, 마늘, 양파, 당근 <br/>과식주의는 채식주의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방식이다. 과일과 견과류의 열매와 씨앗 등 식물에 해를 끼치지 않는 부분만 먹는 채식주의를 의미한다. 일부 과식주의자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열매를 따 먹지 않고 오로지 다 익어서 땅에 떨어진 열매만 먹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뿌리식물인 감자, 마늘, 양파, 당근 등은 먹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섭취량의 75%가 과일이기 때문에 영양소 결핍의 가능성이 있어 실제로 과식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br/> <br/>채식이 무조건 좋다는 것은 과장일 수 있다. 영양은 적당한 양을 섭취할 때 좋은 것이지 출처에 따라 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장식 농장에서 물건 찍듯 만들어 내는 육류의 실상을 아는 것이 충격적이기는 하지만 영양과는 무관하다.  <br/> <br/>채식이 좋고 몸에 맞는다면 채식 위주로 식단을 짜되, 최소한의 육식을 통해 영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극단적 채식을 유지하려면 많은 공부와 준비를 한 후 신중히 하는 것이 좋다. <br/> <br/>이현지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223.txt

제목: [감성노트] 고통 속의 온전한 삶  
날짜: 201710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14180255001  
ID: 01100201.20171014180255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끝내 울고 말았다. 연휴 동안 존 윌리엄스의 소설 ‘스토너’를 읽으며 슬픔과 분노, 열정과 회한의 감정들로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주인공이 숨을 거두며 “넌 무엇을 기대했나”라고 질문 같은 독백을 할 때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주인공 스토너는 영문학과 교수다. <br/> <br/> 비열한 동료 교수 로맥스의 끊임없는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그는 학문과 문학에 전념한다. 공부를 수단으로 삼지 않고, 인생 그 자체로 여기며 산다. 죽음의 순간에도 책을 손에서 놓지 못 한다. 삶을 훼방하는 악인과 타협하지 않았으며, 꺾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힘없는 그에게 남겨진 건 멸시와 고독.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작은 성공과 큰 좌절들로 점철된 것이 스토너의 인생이었다. <br/> <br/>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스토너는 다른 선택을 할까? 암에 걸려 퇴직하는 순간까지 조롱을 일삼는 로맥스에게 굴종한 뒤 편히 사는 길을 택할까? 이것이 진정으로 그가 기대했던 것일까? 아닐 것이다. 젊은 시절로 돌려보내도 그는 영원회귀처럼 똑같은 삶을 반복할 것이 분명하다. <br/> <br/> 슬프기도 했지만 소설은 묘한 안도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스토너가 불행하게 여겨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온갖 고통 속에서도 온전히 자기 삶을 살아낸 영웅이었다. 작가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의 삶은 아주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일에 어느 정도 애정을 갖고 있었고, 그 일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현실과의 불화를 스토너는 후회하지 않았을 것 같다. 세속적인 성공의 기준에서 어긋나 버린 삶을 “틀렸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의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말처럼 “<span class='quot0'>모두가 되고 싶은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span>” 그래도 괜찮다고 할 것 같았다. <br/> <br/> 이런 생각에 잠겨 있으니, 나도 모르게 김도향의 노래 ‘시간’이 흥얼거려졌다. “나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난 어디로 돌아갈까. 그 모든 걸 이뤘다면 난 정말 행복했을까. 아님 또 다른 고민에 밤을 지샐까. 가슴 한켠 숨어있는 후회도 내가 흘러 갈 세월이 가려 주겠지. 모두 내게 소중했던 시절들….” <br/> <br/>김병수(정신과 전문의)

언론사: 국민일보-2-224.txt

제목: 여성 건강 위협하는 유방암, 맘모톰 어플리케이션으로 정보 얻고 똑똑하게 관리한다  
날짜: 201710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13151244001  
ID: 01100201.201710131512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성 암 발병률 중 1, 2위를 차지하는 것은 갑상선암과 유방암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유방암학회가 전국 20~50대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유방암 발생률을 예측한 결과, 20대가 50대보다 발병 위험도가 2.4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을 만큼 유방암은 전 연령대의 여성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br/> <br/>하지만 유방암은 0기 95%, 1기 85%, 2기 80% 정도의 완치율로 초기 발견 시 완치율이 높으므로 무작정 암을 두려워하기보단 적극적인 정기 검진과 올바른 유방암 관련 정보 습득에 나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br/> <br/>특히 유방 초음파검사, 조직검사 등 검사와 시술 과정에 있어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정보 중 하나는 ‘맘모톰’이다. 가슴에 절개와 흉터 없이 조직 검사와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편리함 덕분에 많은 여성들이 유방 양성 질환의 시술법으로 맘모톰을 익숙하게 여기지만. 맘모톰이 시술 자체가 아닌 장비 이름을 칭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는 많지 않다. <br/> <br/>이에 국내 맘모톰 장비 공급을 맡고 있는 ‘데비코어메디칼코리아’는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 맘모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알리기에 나섰다. 이와 더불어 유방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손색없을 만큼 맘모톰 어플리케이션 하나만으로 자가진단, 검진 시기 등 유방암에 대한 대비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풍성한 콘텐츠를 구성했다. <br/> <br/>어플리케이션 이용 시 맘모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유방 관련 질환 및 유방암 예방 및 권장 식단, 유방암 수술 후 유의사항, 유방암 자기진단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어플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맘모톰 정품을 사용하는 병원들과 함께 설치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만큼 많은 여성들의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기대된다. <br/> <br/>데비코어메디칼코리아 김순중 대표는 “<span class='quot0'>맘모톰과 유방암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많은 분들이 무료로 누릴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맘모톰 장비 공급은 물론 여성을 위한 브레스트케어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는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여성 유방 건강 지키기에 앞장설 것</span>”이라고 전했다. <br/> <br/>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25.txt

제목: [책과 길] 스트레스의 역설  
날짜: 20171013  
기자: 강주화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13050155002  
ID: 01100201.20171013050155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스트레스는 무익하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span class='quot0'>스트레스는 가능한 빨리 풀어야 한다</span>”…. <br/> <br/> 우리가 상식으로 여기는 것들이다. 그런데 독일의 과학전문기자 우르스 빌만이 갑자기 “<span class='quot1'>스트레스는 생활필수품이자 인생의 선물</span>”이라는 뚱딴지 같은 주장을 편다. 먼저 스트레스의 정의부터 바로 잡는다. 일상에서 우리는 심리적 과부하와 그 반응만을 스트레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스트레스의 순기능을 무시하게 만든다고 한다. 스트레스란 ‘생명체의 스트레스 시스템 활성화’라는 게 객관적이라는 거다. <br/> <br/> 그는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스트레스가 면역계를 활성화하고 사고력을 높여준다는 걸 보여준다. 미국 스탠퍼드대 정신병리학자 피르다우스 디바르가 쥐 60마리를 대상으로 한 자외선 실험이 우선 소개된다. 쥐 30마리는 자외선에 노출시키기 전에 2시간30분간 좁은 유리관에 가둬 스트레스를 받게 했다. 나머지 30마리는 평상시대로 뒀다. <br/> <br/> 이후 4∼6주간 주기적으로 쥐들에게 강한 자외선을 쐈다. 그 결과 많은 쥐의 피부에 악성종양이 생겼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았던 쥐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쥐보다 종양이 적게 생겼고 암 발생 시점도 훨씬 늦었다. 디바르는 이 실험을 근거로 “단기 스트레스는 생명체의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설명했다. 일상적인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이 비자발적 실업자보다 더 활력 있고 병치레가 적다는 걸 떠올려보면 어느 정도 수긍된다. <br/> <br/> 스트레스는 사고력과 창의력을 높여주기도 한다. 빌만은 시험 전 날 ‘벼락치기’ 공부를 할 때 막강한 집중력이 발휘되는 것을 손쉬운 예로 든다. 스탠리 큐브릭의 공포 영화, 예술가의 고문 퍼포먼스, 살인을 소재로 한 추리소설 등은 스트레스를 주지만 동시에 쾌감을 주기도 한다. 스트레스의 양면성이다. 빌만은 이런 흥미로운 자료와 사례를 바탕으로 스트레스의 이로움을 강조한다. <br/> <br/> 그렇다고 스트레스의 일면만 강조하는 건 아니다. 장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경우 여러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경고한다. 하지만 그는 2014년 독일 공공의료보험조합 조사를 바탕으로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지속적 경쟁, 조직 내 따돌림, 상사와 불통 등과 같은 만성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라고 한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다’고 하는 직장인의 하소연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이처럼 읽는 내내 책 속 통계와 사례를 현실에 대입해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br/> <br/> 그러나 나쁜 환경은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책 속에 나온 아래 연구를 참고할 만하다. <br/> <br/> 미국 위스콘신대 연구진은 1998년 스트레스 관련 설문에 응한 성인 2만9000명을 8년 뒤에 다시 조사했다. 응답자 중 사망 신고된 사람들의 답변을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집단은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는다’고 한 이들일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론 ‘스트레스가 심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한 이들이었다.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스트레스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야 오래 살 수 있다는 얘기다. <br/> <br/> 캐나다 내분비학자 한스 셀리에는 “<span class='quot2'>죽은 사람만이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span>”고 했다. 거꾸로 말하면 스트레스는 생명의 증거다. 빌만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받는 것이라면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자세를 바꾸자고 한다. 다소 무책임해보일 수 있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일상적인 격언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스트레스의 이점을 알려주고 활용법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이 책의 유익은 상당히 클 것 같다. <br/> <br/>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26.txt

제목: 아모레퍼시픽 하반기 캠페인 시작  
날짜: 20171013  
기자: 김혜림 선임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13214255001  
ID: 01100201.20171013214255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아모레퍼시픽은 방문판매원 ‘아모레 카운셀러’가 함께하는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의 2017년 하반기 국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고대구로병원 캠페인을 시작으로 10∼11월 전국 주요 16개 병원에서 약 700명의 환자를 만날 예정이다. <br/> <br/>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는 치료 과정에서 피부 변화,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를 겪은 여성 암 환자들에게 아모레 카운셀러의 재능 기부를 통해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뷰티 노하우를 전수하는 캠페인이다. 2008년 시작한 이 캠페인은 2016년까지 국내에서만 총 1만994명의 여성 암 환자와 4033명의 아모레 카운셀러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br/> <br/>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27.txt

제목: 치료 후 철저한 식이 관리가 필요한 대장암  
날짜: 201710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12090044001  
ID: 01100201.20171012090044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인체의 장기 중에서 대장은 수분을 흡수하고 소화되지 않는 음식물을 저장, 배설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대장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대장암이라 부르는데, 대장암은 발생 위치에 따라 결장암, 직장암으로 나뉠 수 있다. 대장암의 대부분은 대장 점막 샘세포에서 발생하는 선암으로 양성 종양인 선종성 용종에서 유래한다고 알려져 있다. <br/> <br/>대장암의 발병 위험 요인으로는 식이 요인, 비만, 유전적 요인, 선종성 용종, 염증성 장 질환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식이 요인은 대장암 발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다. 요즘에는 식생활이 점점 서구화되는 탓에 동물성 지방,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거나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붉은 고기, 소시지 같은 육가공품을 많이 즐겨 대장암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br/> <br/>대장암은 다른 암들과 비슷하게 초기에 눈에 띄는 증상이 없으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암이 진행되었을 경우가 많다. 보통 대장암의 증상으로는 설사나 변비, 배변 후 후중기(변이 남은 듯한 느낌), 혈변, 복부 불편감, 피로감 등이 있으며 종양의 발생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br/> <br/>대장암은 보통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요법 등으로 치료를 진행하며 치료에 따라 영양 문제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적절하게 식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 대장암 수술을 했을 경우 가스 형성, 설사, 나트륨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어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고섬유질 음식의 섭취는 주의해야 한다. <br/> <br/>또한,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요법은 식욕 부진,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영양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설사를 유발하는 콩류, 양념이 강한 음식, 생과일이나 채소 등을 피하되 이외의 음식들을 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br/> <br/>본래 암 치료를 위해서는 암으로 인해 생기는 면역 저하, 영양 불균형,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병원에서 해결해 주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부족한 병실과 입원 규정으로 수술 상처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들이 퇴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메디움수원요양병원은 통합의학적 암치료 및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br/> <br/>암은 이겨내기 위해서는 암 치료를 견뎌낼 체력과 면역력을 회복시켜야 하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체계적인 식사이다. 특히 항암 과정 중에서 오심, 구토, 식욕저하 등의 소화기 계통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화 기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br/> <br/>메디움수원요양병원은 환우들을 위해 항암 영양 식단을 제공하여 항암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영양 불균형을 교정하고 암을 이겨낼 체력과 면역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다양하고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진과 영양사가 의논하여 식단을 짜고 매주 병원 블로그에 게시하여 환우의 가족들에게도 식단표를 알려주고 있다. <br/> <br/>메디움수원요양병원의 나학열 원장은 “메디움수원요양병원의 음식은 5가지 기초 식품군에 의거한 다양한 식품의 섭취를 지향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식단을 제공한다. 환자에게 제공되는 음식은 완제/가공품이 아닌 수제로 제공하며 의료기관 급식 관리 기준에 맞추어 모든 음식을 기호에 맞춰 선택하는 장점이 있다”라고 전했다. <br/> <br/>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28.txt

제목: “전자담배 아이코스도 발암물질… 간접흡연 피해 더 심각”  
날짜: 20171011  
기자: 이종선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11050355003  
ID: 01100201.20171011050355003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아이코스(사진) 등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폐암, 구강암, 위암, 신장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br/> <b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은 국회도서관에 아이코스의 위해성과 관련된 국제 분석자료를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br/> <br/> 미국 의학협회지(JAMA)에 지난 7월 소개된 스위스 베른대학 레토 아우어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코스는 일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등 암 관련 화학물질을 방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협회지의 부편집장 미첼 카츠 박사는 “<span class='quot0'>가열식 담배는 발암물질을 주위에 퍼뜨리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비흡연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span>”고 경고했다. <br/> <br/> 일본금연학회도 지난해 4월 자료에서 “아이코스도 궐련담배(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을 포함해 사용자와 주위에 해를 끼친다”고 분석했다. 이 학회는 특히 “궐련담배와 달리 (아이코스는) 유해물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간접흡연을 피하지 못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br/> <br/> 국내에서는 그동안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담배 5분의 1 수준의 개별소비세만 부과해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에야 전자담배 유해성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심 부의장은 “<span class='quot1'>정부는 소비자가 전자담배의 유해성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29.txt

제목: 전자담배 아이코스도 발암물질 포함… “간접 흡연은 더 심각”  
날짜: 20171010  
기자: 이현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10123644001  
ID: 01100201.20171010123644001  
카테고리: 정치>정치일반  
본문: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 등에도 일반 궐련형 담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발암 물질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br/> <br/>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국회도서관에 ‘새로운 담배 아이코스의 위해성 관련 국제 분석자료’의 수집을 의뢰해 분석한 결과, 새로운 담배에도 폐암·구강암·위암·신장암 등 발암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br/> <br/>일본금연학회는 지난해 “아이코스가 건강 위협에 대한 위험이 적고 간접흡연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지만, 궐련과 마찬가지로 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을 포함해 사용자와 주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궐련 담배와 달리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간접흡연을 피하지 못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도 밝혔다. <br/> <br/>스위스 베른 대학의 레토 이어 박사는 아이코스가 일산화탄소,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s) 등 암과 관련한 화학 물질을 방출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학협회가 발행하는 의학전문지 자마인터널메디신(JAMA Internal Medicine)의 부 편집장인 미첼 카츠 박사도 “<span class='quot0'>가열식 담배도 발암 물질을 주위에 유출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은 비 흡연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span>”고 밝혔다. <br/> <br/>아이코스를 한국 시장에 내놓은 미국 담배 제조업체 필립모리스는 그동안 “<span class='quot1'>표준 담배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비교했을 때 아이코스는 유해하거나 잠재적으로 유해한 화학 물질이 평균 90~95% 적게 포함됐다</span>”고 주장해왔다. <br/> <br/>그러나 필립모리스가 말했던 표준 담배의 경우 소비자들이 흔히 접하는 일반 담배가 아닌 1개비당 타르가 9.4㎎, 니코틴이 0.72㎎ 함유된 연구용 담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타르가 많이 들어있는 모델과 비교해 아이코스의 유해성을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br/> <br/>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아이코스의 유해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아이코스는 국내에서 태우지 않는(Heat-Not-Burn) 담배라는 이유로 전자담배로 분류돼 담배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세금 또한 일반 담배의 50~60% 수준으로 부과된다. <br/> <br/>심 의원은 “<span class='quot2'>정부는 소비자가 새로운 담배의 올바른 유해성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야 하며 유해성을 낮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즉각 제재해야 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아이코스는 담뱃잎을 말아서 만든 것으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이현지 인턴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230.txt

제목: [헬스 파일] 양·한방 협력 진료  
날짜: 201710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10050455001  
ID: 01100201.201710100504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최근 들어 미국의 몇몇 유명 병원들이 새삼 세계 의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존스홉킨스, 메이요 클리닉, 메모리얼 슬로언케터링 암센터 등이 난치병 치료 목적으로 양·한방 협동진료(협진)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서다. <br/> <br/> 그중에서도 특별히 암과 뇌졸중 환자 재활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양·한방 협진이 주목을 받고 있다. 양·한방 협진이 항암 치료 또는 뇌졸중 재활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연구논문을 잇따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br/> <br/> 국제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가 2016년 뇌졸중 발생 후 30∼40일이 지난 다수의 아급성기(亞急性期)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의학적 치료에 한방 침술 및 한약 치료를 곁들인 결과, 일상생활 수행기능 및 감각신경 회복, 인지기능 개선, 우울증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한 것은 그중 한 예다. 한방 치료가 뇌졸중 환자의 사망률과 폐렴, 욕창 등의 합병증, 뇌손상 재발 위험까지 막는 데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고도 있었다. <br/> <br/> 이는 현대의학 치료에 한의학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만성 뇌졸중 환자뿐만 아니라 발병 후 약 한 달 정도 지난 아급성기 환자들의 후유증 감소와 일상생활 조기복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br/> <br/> 뇌졸중 환자는 일차적으로 발병 직후 3시간 이내 골든타임에 의학 치료를 통해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어 재활훈련을 통해 언어장애와 반신마비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시켜야 한다. <br/> <br/> 의학이든 한의학이든 한 가지 방식만으로 원하는 치료가 충분히 이뤄진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특히 암이나 뇌졸중 환자처럼 초기 대처를 잘했어도 언제든 재발할 위험이 있거나 후유증이 우려될 때는 현대의학만 고집할 게 아니라 한의학 치료도 곁들이는 게 바람직하다. <br/> <br/>글=김현호 동신한방병원장, 삽화=이은지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231.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130) 서울성모병원 갑상선암센터] 갑상선암 원스톱 검진…최적 치료시기 정확히 찾아  
날짜: 20171010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10050055001  
ID: 01100201.201710100500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서울성모병원 갑상선암센터(센터장 배자성 갑상선내분비외과 교수)는 갑상선암의 진단에서 수술, 그리고 수술 후 추적관리까지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펼치는 곳이다. <br/> <br/> 갑상선암은 말 그대로 목 울대뼈(방패연골)를 나비 모양과 같이 감싸고 있는 갑상선(thyroid)에 생긴 악성종양이다. 갑상선에 혹이 생긴 것을 갑상선결절이라 하며, 이 중 5∼10%가 갑상선암으로 진단된다. <br/> <br/> 갑상선암은 기원이 된 세포와 그 세포의 성숙 정도에 따라 몇 종류로 나뉜다. 이른바 ‘여포(소포)세포’에서 기원하는 유두암과 여포암, 저분화암 및 미분화암(역형성암), 비(非)여포세포에서 발원하는 수질암과 림프종, 전이성 암 등이 있다. 여포란 내분비샘 조직에 다수 세포가 군집을 이룬 주머니 모양의 구조물을 말한다. 갑상선암의 95% 이상은 유두암이다. 나머지 약 4∼5%가 여포암 저분화암 미분화암 수질암 등으로 분류된다. <br/> <br/> 한 해 평균 3만여명 걸려 <br/> <br/> 중앙암등록본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암등록통계에 의하면 2014년 한 해 우리나라 암 발생건수는 총 21만7057건이다. 갑상선암은 이 중 14.2%(3만806건)를 점유, 암 발생률 1위에 올랐다. 인구 10만 명당 조(粗)발생률(해당 관찰 기간 중 대상 인구 집단에서 새롭게 발생한 환자 수)은 60.7이었다. <br/> <br/> 연간 발생 환자 수는 2014년 기준 남자 6174명, 여자 2만4632명명으로 집계돼 있다. 남자보다 여자에게 4배 가까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8.8%로 가장 많았고 50대 28.2%, 30대 19.5% 순이다. <br/> <br/> 갑상선암도 다른 암과 비슷하게 발암원인이 뚜렷하지 않다. 갑상선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과도한 방사선 노출을 피하고 특히 소아기에 방사선 노출을 삼가도록 권고된다. 방사선 노출 외엔 별다른 원인을 모른다는 얘기다. 따라서 갑상선암은 조기에 발견, 화근을 제거하는 게 최선이다. <br/> <br/> 갑상선암은 ‘순한 놈’ 또는 ‘착한 놈’이라 치료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수년 전 갑상선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두암의 경우 크기가 1㎝미만이면 당분간 추적 관찰하다 그 이상 커지거나 변화가 생길 때 제거해도 괜찮다는 주장과 함께 과잉진단 및 수술 논란이 불거진 탓이다. <br/> <br/> 과연 그럴까. 서울성모병원 갑상선암센터 갑상선내분비외과 배자성 이소희 교수팀은 9일 “<span class='quot0'>꼭 그런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span>”고 경고했다. <br/> <br/> 배 교수는 그 이유로 갑상선 유두암 및 여포암 중 일부는 진행이 빠르고 전이도 잘 돼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사실 과잉 수술 논란이 빚어진 1㎝미만의 어떤 혹도 수술을 하기 전에는 ‘착한 놈’인지 여부를 확실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br/> <br/> 갑상선암 원스톱 검진서비스 각광 <br/> <br/> 서울성모병원 갑상선암센터는 이를 위해 10여년 전부터 방문 당일 갑상선초음파 및 세침흡인세포검사를 시행하는 갑상선 원스톱(ONE-STOP)검진 서비스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세침흡인세포검사만으로는 확진이 어려운 경우 즉시 초음파유도 중심부 바늘생검을 실시, 빨리 수술하는 게 나을지 좀 지켜보는 게 좋을지 판정해준다. <br/> <br/> 배 교수는 “<span class='quot1'>세침흡인세포검사나 중심부 바늘생검으로도 진단이 힘들 때는 암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분자병리 검사로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향후 치료계획 수립 및 치료결과까지 예측해 평가한다</span>”고 말했다. 그 결과 타병원보다 한 발 빠르고 정확한 판정으로 어떤 환자든 최적의 치료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br/> <br/> 배 교수는 병리과 정찬권 교수와 함께 미국에서 과잉수술 논란이 제기된 갑상선 유두암의 일종인 ‘비침습적 소포변이 유두암’의 경우 국내에서는 발생빈도가 2% 미만으로 낮지만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한 양성종양으로만 간주해선 안 된다는 것을 밝혀내 주목을 받았다. <br/> <br/> 이들은 또 이 같은 경우 치료 시 좌우 어느 쪽이든 혹이 있는 부위만 잘라내면 완치가 가능해 방사성요오드 투여 등 추가 치료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임상자료를 바탕으로 검증, ‘비침습 피막 형성 소포변이 유두암’의 새 진단 기준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했다. <br/> <br/> 수술법 다양해 선택 폭 넓어 <br/> <br/> 서울성모병원 갑상선암센터는 이 외에도 환자들의 수술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술 전후 외래 추적 진료지침’을 표준화했다. 전통의 개경(開頸, 목을 여는) 수술은 물론 흉터가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 미세침습 내시경 수술 및 최신 로봇 갑상선 수술에 이르기까지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놓고 있다. <br/> <br/> 한 예로 암이 목 뒤쪽으로 옮겨 붙는 측경부 전이 동반 갑상선암환자의 경우 로봇 팔을 활용, 겨드랑이 쪽으로 내시경을 삽입해 암을 제거하는 고난이도 내시경 로봇수술로 흉터를 감춰 환자의 수술 후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다. 서울성모병원은 이를 위해 2016년 3월 기존 다빈치S 로봇수술 시스템을 더 발전시킨 최신형 장비 ‘다빈치Xi’를 추가 도입해 가동 중이다. <br/> <br/> 서울성모병원 갑상선암센터는 갑상선암이 후두신경을 침범했을 때나 재발했을 때도 수술 중 신경감시장치를 사용해 후두신경을 최대한 보존하며 암 조직만 도려내는 완전수술을 도모하고 있다. 갑상선 수술 직후 성대기능 및 음성 검사를 통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성대마비뿐만 아니라 음성장애와 음식물 삼킴 장애를 예방해 환자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br/> <br/> 2004년부터 방사성요오드 치료실을 개설해 운영하는 등 방사성 물질을 암 치료에 이용하는 핵의학과 김성훈 교수팀의 노력도 이에 뒤지지 않는다. 원활한 방사성요오드 검사와 최적의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 매주 1회 암 환자들에게 저(低)요오드 식이 안내교육 및 맞춤형 식단을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 김 교수팀은 수시 전화상담을 통해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는 갑상선암 환자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해결사 역할도 한다. <br/> <br/> 내분비내과 강무일 임동준 김민희 조관훈 교수팀은 갑상선암 및 결절 환자의 진단, 장기 추적 및 전인적 치료를 도맡고 있다. 강 교수팀은 현재 다국가 국제공동 임상시험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방사성요오드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방사성요오드 불응성 환자 혹은 전이성 갑상선암 환자들을 위한 개인 맞춤 표적치료제도 개발하고 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32.txt

제목: 시각장애인 가수 김지호씨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 들어주셔서 노래를 다시 부르며 희망 전합니다”  
날짜: 20171009  
기자: 유영대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09095655001  
ID: 01100201.20171009095655001  
카테고리: 문화>음악  
본문: “비록 앞이 보이지 않지만 늘 하고픈 일에 도전했죠. 더 노력해 미국 시각장애인 가수 스티비 원더 같은 뮤지션이 되고 싶습니다.” <br/> <br/> 뮤지컬 ‘더 라스트 콘서트(THE LAST CONCERT)’에서 주인공을 맡아 열연 중인 시각장애인 가수 김지호(25·경기도 구리 제자교회)씨의 남다른 각오다. <br/> <br/> 김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7년 장애인문화예술축제’에서 뮤지컬 ‘더 라스트 콘서트’에 출연, 노래는 물론 연기와 군무까지 소화해 극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을 들었다. <br/> <br/> ‘더 라스트 콘서트’는 김씨의 삶을 다룬 논픽션 창작 뮤지컬이다. 갑상샘암에 걸려 노래할 수 없게 됐을 때 신앙으로 다시 목소리를 찾고 가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다. 8일 서울 강서구 ㈔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연습실에서 만난 그는 너무도 밝았다. 시각장애에 암까지 겪은 사람의 표정과 말투라고 여겨지지 않을 정도였다. <br/> <br/> 김씨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 그러고도 녹내장을 앓아 16번이나 수술을 받아야 했다. 힘든 날들이었다. 부모의 이혼도 마음의 상처였다. 그를 구원한 것은 신앙의 힘이었다. 교회 출석과 성가대에서 찬양을 부르며 아픔을 달랬다. <br/> <br/> 성인이 된 뒤엔 갑상샘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초등학교 시절 목에 난 작은 혹을 방치한 게 화근이었다. 약물치료로는 전혀 차도가 없었다. 의사는 “<span class='quot0'>이제 노래 부르는 일은 그만두라</span>”고 했다. <br/> <br/> “갈등이 컸습니다. 노래는 제게 생명과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결국 종양 159개를 떼어내는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br/> <br/> 그렇게 암을 이겨내고 김씨는 하나님의 주신 ‘천직’ 가수로 돌아갈 수 있었다. 가수로 데뷔한 건 2008년 한빛맹학교 재학 중‘블루 오션’이란 보컬그룹 멤버로 참여하면서였다. ‘다만’이란 제목의 음반을 냈다. 서울예술대 실용음악과 재학 때는 시각장애인 4인조 그룹 ‘더 블라인드’를 조직했다. 다음 달엔 디지털 싱글 곡 ‘알바트로스’를 발표할 예정이다. <br/> <br/> 2009년 SBS TV프로그램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서 노래 실력을 뽐내며 3연승을 거머쥐기도 했다. 그때 첫주 우승을 차지했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모습이 TV에 나오기도 했다. <br/> <br/> 악보를 볼 수 없는 그는 소리를 듣고 기억하거나 점자 악보로 바꿔 노래하고 연주한다. 노래 외에도 기타 드럼 마림바를 직접 연주한다. <br/> <br/> 김씨의 아버지는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밴드 ‘징검다리’ 4기 출신으로, CF 삽입곡으로 유명해진 ‘뭉게구름’의 김형로씨. 어머니 오승원씨 역시 ‘아기 공룡 둘리’ ‘떠돌이 까치’ 등 주제가를 부른 음악인이다. <br/> <br/>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슴 깊이 품고 있으니 어떤 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시각장애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고 이겨내는 다른 장애물과 같습니다. 이 벽을 넘어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이로 기억되길 원합니다.” <br/> <br/>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33.txt

제목: 서울 자살률 광진구 최저, 강북구 최고… 남성이 여성의 2배  
날짜: 20171009  
기자: 태원준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09075344001  
ID: 01100201.201710090753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서울에서 자살률이 가장 낮은 구는 광진구, 높은 구는 강북구로 집계됐다. 서울 거주 남성의 자살률은 여성의 2배를 웃돌았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선 서울이 가장 낮은 자살률을 보였고, 충북이 가장 높았다. 서울시는 9일 ‘2016년 서울지역 사망원인통계’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br/> <br/>서울은 4년째 자살률이 줄었다. 서울시민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23.0명으로 2015년 23.2명보다 0.9% 감소했다. 자살 사망자는 2015년(2301명)보다 1.7% 줄어든 2261명이었다. 하루 평균 6.2명이 자살로 숨졌다. 하지만 연간 자살 사망자가 2200명대로 낮아진 건 2008년(2200명) 이후 8년 만이다. <br/> <br/>연령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연령표준화 사망률로 보면 서울의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는 19.8명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유일하게 20명을 밑돌았다. 전국 평균인 21.9명보다 적고 가장 많은 충북(27.5명)보다 7.7명이나 적었다. <br/> <br/>자살률이 줄어들면서 서울시민의 10대 사망 원인 순서도 바뀌었다. 지난해 서울 시민의 사망 원인(총 사망자 4만3540명)은 암(1만3107명), 심장 질환(4209명), 뇌혈관 질환(3473명), 폐렴(2415명), 자살 순이었다.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1년 전보다 285명 늘면서 순서가 뒤바뀌었다. <br/> <br/>자치구별로는 광진구의 자살률이 15.6명으로 가장 낮았고 서초구(17.3명), 양천구(19.3명), 송파구(19.4명), 종로구(20.9명) 등도 낮은 자살률을 기록했다. 반면 강북구는 자살률 30.6명을 기록해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인구 10만명당 자살자가 30명을 넘었다. <br/> <br/> <br/> <br/>성별로는 여성의 자살률이 전년도 14.6명에서 13.9명으로 4.8% 줄어들었지만 남성의 자살률은 32.1명에서 32.5명으로 1.2% 늘어났다. 10년 전인 2006년과 비교해 보면 남성의 자살률은 24.0명에서 35.4%나 증가했다. <br/> <br/>현재 시는 종교별 자살예방 활동을 위해 가톨릭·개신교·불교·원불교 등 4대 종단을 지원하는 ‘살사(살자 사랑하자) 프로젝트’와 한강에 투신했거나 시도한 이들을 경찰서로 인계하기 전에 복지·구호담당자가 상담하고 추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br/> <br/>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34.txt

제목: 올 국정감사는 ‘이명박 vs 노무현’ 싸움  
날짜: 20171009  
기자: 최승욱 이종선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09050056002  
ID: 01100201.20171009050056002  
카테고리: 정치>국회\_정당  
본문: 문재인정부 들어 첫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2일 시작된다. 여당과 보수야당은 벌써부터 서로를 ‘암적 적폐’ ‘원조 적폐’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여론전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정부를 정조준한 상태이고, 자유한국당은 노무현정부를 겨냥하고 있어 이번 국감은 과거 정부를 둘러싼 정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br/> <br/> 민주당은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이명박정부 당시 생산된 ‘민간인·문화예술인 사찰 의혹’과 ‘2012년 총선 개입 의혹’ 문건 등을 대량 공개하며 물량 공세를 펼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이 전 대통령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8일 “<span class='quot0'>지난해 촛불 정국을 거치면서 국민은 우리나라를 ‘병든 국가’로 진단했으므로, 새로운 정부와 여당은 전임 정부의 암적 적폐를 들어내는 것이 임무</span>”라며 “<span class='quot0'>적폐청산이라는 표현에 다소 피로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반드시 암덩어리를 제거해 ‘유능한 정권’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 등 외부 요인과 1년 넘게 이어진 적폐청산 기조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약화된 ‘국정 드라이브’를 적폐에 대한 국민 여론 환기를 통해 회복하겠다는 계산이다. <br/> <br/> 한국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수수 의혹 재조명으로 맞불을 놨다. 한국당 지도부는 이미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재수사 요구 검토를 공식화했다. 한국당 재선 의원은 “<span class='quot1'>새 정부가 출범했으면 미래를 향해 가야 하는데, 계속 정치보복만 하려 든다</span>”며 “<span class='quot1'>우리도 ‘원조 적폐’를 상대로 맞불을 놓을 수밖에 없다</span>”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국민 지지를 감안해 여당의 공세 수위에 맞춰 속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은 “<span class='quot2'>(권 여사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는 이미 어느 정도 나왔던 것이고, 법사위에도 관련 특검법이 올라와 있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2'>현 정권이 정치 보복을 어느 정도 밀어붙이는지 보고 우리도 공세 수위를 결정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 여야는 공영방송 문제를 놓고도 거친 설전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여당은 전임 정부 시절 선임된 경영진이 언론인과 문화예술인을 상대로 벌인 인사 조치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span class='quot3'>지난 정권 MBC와 KBS 경영진이 벌인 인사 행태는 인권 유린에 가깝다</span>”며 “<span class='quot3'>공영방송 경영진 교체가 불가피해 보인다</span>”고 했다. 이에 한국당은 새로운 방송장악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전문위원이 작성한 ‘공영방송 문건’ 논란을 필두로 국정조사 등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는 태세다. <br/> <br/> 수비수에서 공격수가 된 한국당은 현 정권 실책을 찾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안보·인사·복지 정책 등을 ‘신 적폐’로 규정하고 지난 5개월간 추진된 국정과제들을 깐깐하게 들여다보는 중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북정책, 전술핵 재배치,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문제 등을 집중 조명하고,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복지 정책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에 대한 ‘퍼주기 논란’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br/> <br/>최승욱 이종선 기자 applesu@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35.txt

제목: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 들어주셔서 다시 노래 부르며 희망 전해요"  
날짜: 20171008  
기자: 유영대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08004644001  
ID: 01100201.20171008004644001  
카테고리: 문화>음악  
본문: “비록 앞이 보이지 않지만 늘 하고픈 일에 도전했죠. 더 노력해 미국 시각장애인 가수 스티비 원더 같은 뮤지션이 되고 싶습니다.” <br/> 뮤지컬 ‘더 라스트 콘서트(THE LAST CONCERT)’에서 주인공을 맡아 열연 중인 시각장애인 가수 김지호(25·경기도 구리 제자교회)씨의 남다른 각오다. <br/> 김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7년 장애인문화예술축제’에서 뮤지컬 ‘더 라스트 콘서트’에 출연, 노래는 물론 연기와 군무까지 소화해 극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을 들었다. <br/> ‘더 라스트 콘서트’는 김씨의 삶을 다룬 논픽션 창작 뮤지컬이다.  <br/> 갑상샘암에 걸려 노래할 수 없게 됐을 때 신앙으로 다시 목소리를 찾고 가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다.  <br/> 8일 서울 강서구 ㈔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연습실에서 만난 그는 너무도 밝았다.  <br/> 시각장애에 암까지 겪은 사람의 표정과 말투라고 여겨지지 않을 정도였다. <br/> <br/> <br/> 김씨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 그러고도 녹내장을 앓아 16번이나 수술을 받아야 했다. 힘든 날들이었다. 부모의 이혼도 마음의 상처였다.  <br/> 그를 구원한 것은 신앙의 힘이었다. 교회 출석과 성가대에서 찬양을 부르며 아픔을 달랬다. <br/> 성인이 된 뒤엔 갑상샘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br/> 초등학교 시절 목에 난 작은 혹을 방치한 게 화근이었다. 약물치료로는 전혀 차도가 없었다.  <br/> 의사는 “<span class='quot0'>이제 노래 부르는 일은 그만두라</span>”고 했다. <br/> “갈등이 컸습니다. 노래는 제게 생명과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결국 종양 159개를 떼어내는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br/> 그렇게 암을 이겨내고 김씨는 하나님의 주신 ‘천직’ 가수로 돌아갈 수 있었다.  <br/> 가수로 데뷔한 건 2008년 한빛맹학교에 다닐 때 ‘블루오션’이란 그룹 멤버로 참여하면서였다.  <br/> ‘다만’이란 제목의 음반을 냈다. 서울예술대 실용음악과 재학 시절 시각장애인 4인조 그룹 ‘더 블라인드’를 조직했다.  <br/> 다음 달엔 디지털 싱글 곡 ‘알바트로스’를 발표할 예정이다. <br/> 2009년 SBS TV 예능프로그램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서 노래 실력을 뽐내며 3연승을 거머쥐기도 했다. 그때 우승을 차지했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모습이 TV에 나오기도 했다. <br/> 악보를 볼 수 없는 그는 소리를 듣고 기억하거나 점자 악보로 바꿔 노래하고 연주한다. 노래 외에도 기타 드럼 마림바를 직접 연주한다. <br/> 김씨의 아버지는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밴드 ‘징검다리’ 4기 출신으로, CF 삽입곡으로 유명해진 ‘뭉게구름’의 김형로씨. 어머니 오승원씨 역시 ‘아기 공룡 둘리’ ‘떠돌이 까치’ 등 주제가를 부른 음악인이다. <br/>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슴 깊이 품고 있으니 어떤 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시각장애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고 이겨내는 다른 장애물과 같습니다. 이 벽을 넘어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이로 기억되길 원합니다.” <br/> <br/>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36.txt

제목: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측’ 동영상자료 오류 심각  
날짜: 20171008  
기자: 부산=윤봉학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08172044001  
ID: 01100201.20171008172044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측 동영상자료에 사실과 너무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참여단에게 심각한 판단 장애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br/>  <br/>한국원자력학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측 동영상자료의 오류가 심각, 시민들이 오판을 할 수 있어 팩트별 오류와 진실을 발표한다고 8일 밝혔다. <br/>  <br/>학회에 따르면 건설중단 측 동영상자료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사망자는 1368명,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 발생 환자는 파악 불가’라는 내용에 대해 후쿠시마 지역 사망자에 대한 사항은 일본 정부에서 외교문서 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사항이다. <br/> <br/> <br/>또 ‘UAE(아랍에미리트) 수익금 중 3조원 백텔사 지급, 우리 원전산업은 원천기술이 없어서 해외 부품과 기술력 지원이 없이는 원전사업조차 유지 못함. 2016년 한수원-웨스팅하우스 정비자재공급협정 체결은 원전 기술 자립이 어려운 우리나라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 UAE 수익금 중 3조원을 벡텔사에 지급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으로 약 100배 이상 부풀려진 금액이며, 실제 벡텔사에 지급한 금액은 300억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러시아, 캐나다, 프랑스 등과 더불어 원전 핵심 기술을 모두 보유한 국가로 외국의 지원 없이 원전 운영 및 수출이 가능하다. <br/> <br/>‘원전 주변 5㎞ 이내 감상선암 발생률 2.5배 증가’ 내용에 대해 월성원전 1호기 운영 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고법은 지난 7월 판결에서 주민의 갑상선암 발생이 원전 운영과는 무관하다고 판결했다. <br/> <br/>‘신고리 5·6호기는 비공개, 일방, 졸속처리 행정으로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어느 단계에서도 제대로 된 검토가 없었음.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한 번도 없었다’는 내용에 대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사업은 지역 주민 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 3단계로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지역 주민의 합의 하에 자율 유치로 신청된 사업이다. <br/> <br/>‘신고리 5·6호기는 짜놓은 시나리오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된 사업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계획 수립, 2013년 발전사업 허가, 2014년 실시계획 승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사업은 2000년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고시 등 20년 이상 준비해 시작된 사업이며 동시사고, 지진평가 등 제기된 문제를 외면하고 심의 1달 만에 건설허가 승인’이라는 내용에 대해 신고리 5·6호기는 규제기관에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8개월동안 4차례 나 자료를 보완하고 검토 후 건설허가 승인이 됐다. <br/>  <br/>‘핀란드 수출 시 우리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핀란드 측에 설득하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설계를 변경한 것인가? 이로 인해서 수출은 하지도 못하고 우리 국민들만 원전 안전에 대해서 차별 받은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 핀란드 사업이 중단된 것은 발주사의 재정 문제로 중단된 것이며, 설계를 변경한 것은 국가별 규제 요건이 달라서 그런 것으로 설계가 다르다고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br/> <br/>‘지역 주민들이 원전 건설을 반대했으나, 정부 정책이라며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다’는 내용에 대해 고리 1~4호기 건설 때는 건설을 반대했으나,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지역 주민이 자율 유치한 사업이다. <br/> <br/>‘최근 5년간 원자력 발전단가는 72% 상승, 태양광은 55% 하락’ 내용에 대해 정산단가를 가지고 비교한 자료로, 실제 보조금을 포함하면 태양광의 발전단가 하락은 실제로 크지 않으며, 2016년은 오히려 2105년에 비해 증가했다. <br/> <br/>‘정상운전 중에도 매일 방사성 물질 배출, 방사능 피폭으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사고’ 내용에 대해 원전 주변 주민이 원전으로 받는 선량은 0.01밀리시버트/년 (mSv/y)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방사선량과 비교해도 미미한 양이며, 이를 사고와 비교하는 것은 지나친 왜곡이다. <br/>  <br/>‘아무리 작은 방사능이라도 암 발생 확률을 증가시킴. 피폭량과 암 발생은 정비례’ 내용에 대해 유엔과학위원회 보고서(UNSCEAR 2008)에서 100밀리시버트(mSv) 미만 방사선에서 암 발생 위험도 증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br/> <br/>‘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에도 수도권에 원전을 짓지 않는 이유는 원전 안전에 대한 100% 확신이 없기 때문’ 내용에 대해 원전을 수도권에 짓지 않는 것은 비싼 땅값과 다량의 발전용 냉각수 필요로 인해 발전소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못하는 것인데, 이를 안전에 대한 불신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br/> <br/>‘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폐쇄, 노후 및 신규 석탄 발전소 를 취소해도 2030년에 총 발전설비는 164GW, 최대전력은 100GW로 설비예비율 22% 유지 가능’ 내용에 대해 2030년까지 신재생발전량을 20%까지 확대하더라도 탈원전, 탈석탄 시에는 ’24년부터 설비예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져 안정적 전력 공급에 문제가 있다. <br/> <br/>‘원전이 줄어드는 나라들의 온실가스도 줄어들고 있음. 우리나라는 원전과 석탄이 같이 증가해서 온실가스가 대폭 증가’ 내용에 대해 원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원이다. 석탄화력과 원전을 같이 묶어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는 것처럼 비유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br/> <br/>‘재생에너지와 LNG를 같이 늘려야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LNG 발전도 석탄화력의 절반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며, LNG의 주성분인 매탄가스는 CO₂의 25배의 온실가스 발생원으로, 누설 등이 발생할 경우 온실가스가 다량 배출된다.  <br/> <br/>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37.txt

제목: 과체중 아동·청소년 OECD 12위…11일 비만예방의 날 캠페인  
날짜: 20171005  
기자: 최예슬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05160044001  
ID: 01100201.20171005160044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비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비만 조기예방에 대한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br/> <br/>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비만예방의 날(10월 11일)을 맞아 ‘하이파이브 2017 건강한 습관으로 가벼워지세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제8회 비만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고 5일 밝혔다. <br/> <br/>이번 행사는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리며 대국민 비만인식조사 결과, 건강 다이어트 사례, 학교 비만예방사업 성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식생활·신체활동 교육을 진행하는 ‘건강한 돌봄놀이터’ 시범운영 성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br/> <br/>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 대장암, 식도암, 신장암, 간암 등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2015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33.2%로 2005년(31.3%)보다 1.9%포인트 증가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2013년 이미 6조원을 넘어섰다. <br/> <br/>아동·청소년 과체중 문제는 더 심각하다. 5~17세 아동·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율은 남녀가 각각 25%, 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 21%를 웃돌았다. 조사대상 40개국 중 12위였다. <br/> <br/>복지부와 개발원은 기념행사뿐만 아니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다큐멘터리 ‘뱃살이 꾸는 꿈’을 공동기획해 지난달 27일 EBS 지식채널e를 통해 방영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비만의 원인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비만예방관리법이 소개됐다. <br/> <br/>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38.txt

제목: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 종교개혁 500주년 복음의 능력이 교회 넘어 일터로  
날짜: 201710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02181855002  
ID: 01100201.20171002181855002  
카테고리: 문화>종교  
본문: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Wittenberg)대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1483∼1546)가 로마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에 대한 95개조의 항의문을 게재한 사건으로 시작된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이 시점에서 종교개혁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본다. <br/> <br/> 넓은 의미의 종교개혁은 그리스도인 개인이나 교회를 넘어 사회를 개혁하는 운동이었다. 영국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윌리엄 윌버포스로 인해 노예제도 폐지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영적인 부흥뿐 아니라 사회개혁도 함께 일어났다. 그리고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도 기생의 도시가 동방의 예루살렘이 됐던 것처럼 전도와 교회의 부흥으로 그친 게 아니라 사회개혁이 수반됐다. 이렇게 복음은 교회를 넘어 그 사회를 개혁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넘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종교개혁 당시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넘어 사회를 개혁했듯 과연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br/> <br/> 지금 한국교회에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교회 성도 중 빵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 있다. 아들이 암에 걸렸는데 패스트푸드를 먹고 밤새 가려움증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암 환자도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기로 했다. “<span class='quot0'>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12)</span>”는 말씀에 따라 내 가족이 먹는 빵이라는 마음으로 빵을 판매한다. <br/> <br/>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부부가 있다. 가장 맛있고 좋은 과일을 싼값에 팔기 위해 부지런히 새벽시장을 누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직업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라고 믿는다. 단순히 장사가 잘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놀라운 것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점이다. 더 놀라운 일은 이들의 삶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br/> <br/>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다고 칭찬하는 문자메시지도 오고, 그들의 삶을 보고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를 영접한 경우도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부족한 면도 많지만 가게에서 이들과 함께 일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가야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부활의 주와 동행하는 삶, 사랑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가 결국 그 사회를 개혁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br/> <br/>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넘어 그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해야 한다. 종교개혁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복음은 반드시 삶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왜냐하면 변화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이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그리스도인 삶의 현장에서 빛이 나며 결국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넘어 사회를 개혁하게 된다. <br/> <br/> 위그노(프랑스 칼뱅파 교도)들은 ‘직업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부른 일터’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을 단순히 먹고살려는 수단이 아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의 통로이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소명으로 삼아야 한다. 말씀과 기도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치열하게 일하는 것도 거룩한 일인 것이다. 종교개혁 500주년,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넘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언론사: 국민일보-2-239.txt

제목: 암 수술 받던 남성 '암덩어리' 아닌 40년전 삼킨 '장난감'  
날짜: 20171001  
기자: 박효진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01074044001  
ID: 01100201.201710010740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3년 전 영국에서 기관지 암 선고를 받은 한 남성이 수술대에 올랐다가 문제의 암 덩어리가 40여년 전 자신이 삼킨 장난감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br/> <br/>CNN에 따르면 올해 50세인 한 남성은 어린 시절 종종 장난감을 삼켰다고 한다. 1974년 7살 생일에 선물받은 원뿔 모양의 장난감도 삼켰다. 그는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40여년이 지난 뒤 암수술을 받고 난 후에야 그 사실을 기억해냈다. <br/> <br/>이 남성은 46세 때 만성기침 때문에 의사와 상담을 했다. 그는 첫 두달간 폐렴, 오른쪽 폐의 강직, 기관지 확장증, 호흡관 손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 질병들은 공기가 폐에 들어가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r/> <br/>그러다가 47세에 결국 영국 로열 프레스턴 병원에서 모하메드 무나바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됐다. 무나바는 이 남성을 상대로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고, 오른쪽 폐 아래쪽에서 짙은 그림자와 두꺼운 덩어리를 발견했다. 당시 이 남성의 오른쪽 폐 아랫쪽에서 박테리아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의료진은 오른쪽 폐 아랫쪽에 종양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즉시 수술을 진행했다. <br/> <br/>무나바는 최근 CNN에 "박테리아 감염이 폐의 다른 영역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속하게 행동했다"고 말했다. <br/> <br/>하지만 환자의 흉부를 개복하자 암덩어리라고 생각했던 것은 장난감으로 밝혀졌다. 장난감은 기도 점막에 빨려 들어가 있었고, 남성의 기도는 장난감에 맞게 변형된 상태였다. <br/> <br/>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40.txt

제목: 추석 연휴 첫날에도 민주당 "적폐 청산은 이제 시작"  
날짜: 20170930  
기자: 김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30153144001  
ID: 01100201.20170930153144001  
카테고리: 정치>국회\_정당  
본문: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첫날인 30일에도 적폐 청산 기조를 이어나갔다. 특히 보수 야당의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br/> <br/>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곳곳에서 암 덩어리가 드러나고 있고 이 종양을 제거해야 한다. 이것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br/> <br/>이어 “수술이 다 끝나면 대한민국은 더 새롭고 건강해질 것”이라면서 “당분간 힘들어도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br/>현근택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span class='quot0'>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적폐 청산은 이제 시작됐을 뿐</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span class='quot1'>최근 여권에서 검찰을 앞세워 벌이고 있는 MB정부에 대한 수사는 노무현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 쇼에 불과하다</span>”고 주장했다.  <br/> <br/>이에 대해 현 부대변인은 “<span class='quot2'>전전 정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드러나도 면책특권을 인정해주어야 하느냐</span>”고 반박했다. <br/> <br/>김판 기자 pa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41.txt

제목: [우먼 칸타타] “환자들 위로하다 제가 더 큰 위로 받았죠”  
날짜: 20170930  
기자: 글·사진=이지현 선임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30000255001  
ID: 01100201.201709300002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김복남 전도사는 ‘사랑의 복음전도자’다. 그는 27년 동안 세브란스재활병원 전도사로 환자들의 영적 건강을 보살폈다. 절망을 희망으로,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지난 2월, 65세로 세브란스재활병원 전도사에서 은퇴한 그는 여전히 퇴원한 환자를 심방하거나 상담사역을 하며 변함없이 복음전도자로 살고 있다. <br/> <br/> 최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만난 김 전도사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발견한 인생의 키워드는 ‘감사’였다고 했다. “<span class='quot0'>사람들은 저더러 고생이 많았다고 했지만 환자들을 위로하다 제가 더 많은 위로를 받았고, 만족을 모르고 살던 내가 감사를 배웠지요.</span>” <br/> <br/> 김 전도사는 세브란스재활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중도 장애인이 된 사람을 많이 만났다. 감전 사고로 두 팔을 잃고 의수를 한 환자의 고백을 잊을 수 없다. “저는 아내가 밥을 떠먹여 줘야 먹을 수 있고, 화장실에 가서도 바지를 내리고 뒤처리까지 다 해줘야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아내를 안아줄 수 없는 몸이 됐어요. 두 팔이 있었을 때 자주 안아주지 못한 게 많이 후회돼요.” <br/> <br/> “온전한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고, 자신의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고, 배우자가 ‘여보’라고 부르고, 자녀들이 ‘엄마’ 또는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고 있는지요. 자신에게 건강한 팔이 있다면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껏 안아주길 바랍니다.” <br/> <br/> 김 전도사는 이들이 바라는 기적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라고 했다. 자신 역시 소중한 것을 잃은 뒤 후회했던 사람이었다고 고백했다. 지난 세월 그가 병원 사역과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1989년 소천한 남편 때문이었다. <br/> <br/> 당시 남편은 예배와 전도에 열심이었다. 농협대학 교수였던 남편이 어느 날, 일본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했을 때 그는 극구 만류했다. 그러던 중 남편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직장암이었다. 3년 동안 3번의 수술, 40회의 방사선 치료를 하며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했다. 남편은 말기 암 판정을 받고도 영혼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으로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br/> <br/> “남편은 죽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야 한다면서 통증으로 한숨도 못 잔 몸을 이끌고 이 병원 저 병원, 이 집 저 집, 이 가게 저 가게를 다니며 전도했어요. 88년 5월 29일 서울 은광교회 새 신자 초청 주일에 46명을 전도해 왔어요. 그때 교회에서 받은 전도 상패는 우리 집 가보입니다.” <br/> <br/>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10살이던 딸이 “<span class='quot1'>이제 엄마가 아빠처럼 병든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고 약속해줘</span>”라며 그에게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그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의 삶을 결심했다. <br/> <br/> 그는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임상목회 상담과정을 수료하고 세브란스재활병원에서 전도사로 근무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학위와 목사 안수, 세상의 직함을 포기했다. 연차와 명절 휴가는 물론, 심지어 남들이 퇴근할 때 교회로 출근했고 쉬는 날과 개인생활도 포기했다. 몸은 고달팠지만 복음 전하는 걸 사명으로 여기며 기쁨으로 순종했다. 2010년 김 전도사는 뇌종양으로 2번의 수술을 받은 후에도 복음전도를 멈추지 않았다. <br/> <br/> 그는 국내외에서 3700여회 간증집회를 했고, 이 가운데 해외집회는 100회가 넘는다. 집회를 다니며 받은 사례비와 후원금을 병원에 기부해 많은 절단 장애 환자들에게 다리(의족)를 만들어 주었다. 휠체어농구단을 창단해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세브란스병원 건축기부금으로 5000만원을 후원했다. <br/> <br/> 그동안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면서 막막했던 순간이 많았지만 되돌아보면 감사뿐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의 아들은 일본 선교사로 나가길 원했던 아버지 뜻을 이어 일본 홋카이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삿포로 국제교회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딸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복음 전도는 현재 진행 중이다. <br/> <br/>글·사진=이지현 선임기자 jeehl@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42.txt

제목: 간염 있는 경우 간암 발병률 높아져…생활 속 관리 중요  
날짜: 20170929  
기자: 전재우 선임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29220555002  
ID: 01100201.2017092922055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간암, 그만큼 간암은 초기 증상이 미비하게 나타나고 그로 인해 초기 진단이 어려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암 초기일수록 생존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조기발견이 어려운 간암이 생존율 및 예후가 좋지 않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 <br/> <br/>간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1~2년 정도의 정기적인 간암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간염이 있는 경우 간암의 발병 위험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과 함께 간 기능 개선을 위한 생활 관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br/> <br/>간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절주 및 금주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특히 만성간염 환자의 경우에는 금주가 필수적이며, 피로와 스트레스 관리 및 영양 관리가 이루어져야 더 큰 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br/> <br/>정기 검진을 통해 간암을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초기에 암을 발견한 경우 암 종양만 절제하는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암이 발생한 간 부위를 절제하는 수술이 효과적일 수 있다. 암의 발견이 늦을수록 부분 절제를 통한 암 치료가 어렵고, 간 기능 정도에 따라서 암 치료 이후 재발 우려도 달라진다. <br/> <br/>특히 간은 인체 장기 중에서도 부피가 큰 장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이의 위험성이 높은 장기이다. 그만큼 암 치료 이후 재발과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하며, 사후관리에 따라 생존율 역시 달라질 수 있다. <br/> <br/>천안 메디움천안요양병원 고상훈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암 치료 이후의 사후관리는 항암 효과를 높여주기 위한 치료 및 면역과 체력 관리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우리나라의 경우 대형 암 병원에서의 환자 사후관리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암 치료 이후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암요양병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실제로 메디움천안요양병원에서는 항암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고주파온열치료 및 면역주사 치료를 비롯하여 한의학적 치료를 접목한 항암 보조 치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마약성 진통제가 아닌 뇌에 전달되는 통증 신호를 바꾸어주어 암으로 인한 통증을 개선해주는 페인스크렘블러를 도입하여 즉각적이면서 무해한 통증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br/> <br/>이 외에도 항암 부작용 및 체력 저하로 인해 식사를 어려워하는 암 환자들이 건강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영양과 맛을 고려한 항암 식단을 제공하며, 환자의 정서적인 안정을 돕는 음악, 미술, 요가, 웃음치료 등의 복지프로그램을 통해 생활의 전반적인 관리를 돕고 있다. <br/> <br/>암이 무서운 이유는 암 치료 이후에도 재발과 전이의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암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암 검진을 통한 조기검진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외에도 암 치료 후 체계적 사후관리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br/> <br/>전재우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243.txt

제목: [우먼칸타타] "환자들 위로하다 제가 더 큰 위로 받았죠"  
날짜: 20170929  
기자: 이지현 선임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29162344001  
ID: 01100201.201709291623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김복남 전도사는 ‘사랑의 복음전도자’다. 그는 27년 동안 세브란스재활병원 전도사로 환자들의 영적 건강을 보살폈다.  <br/> 절망을 희망으로,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지난 2월, 65세로 세브란스재활병원 전도사에서 은퇴한 그는 여전히 퇴원한 환자를 심방하거나 상담사역을 하며 변함없이 복음전도자로 살고 있다. <br/> 최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만난 김 전도사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그가 발견한 인생의 키워드는 ‘감사’였다고 했다. “사람들은 저더러 고생이 많았다고 했지만 오히려 저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환자들을 위로하다 제가 더 많은 위로를 받았고, 만족을 모르고 살던 내가 감사를 배웠지요.”  <br/> <br/> 그는 26년 전 철도 사고로 다리가 절단된 자매와 함께 얼마 전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동안 무릎이 아프다고 불평한 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br/> 김 전도사는 세브란스재활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중도 장애인이 된 사람을 많이 만났다. 감전 사고로 두 팔을 잃고 의수를 한 환자의 고백을 잊을 수 없다. 환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는 아내가 밥을 떠먹여 줘야 먹을 수 있고, 화장실에 가서도 바지를 내리고 뒤처리까지 다 해줘야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아내를 안아줄 수 없는 몸이 됐어요. 두 팔이 있었을 때 자주 안아주지 못한 게 많이 후회돼요.” <br/> “온전한 다리로 일어서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자신의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고, 배우자가 ‘여보’라고 부르고, 자녀들이 ‘엄마’ 또는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게 얼마 감사한 일인지 알고 있는지요. 자신에게 건강한 팔이 있다면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껏 안아주길 바랍니다.” <br/> 김 전도사는 이들이 바라는 기적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라고 했다. 자신 역시 소중한 것을 잃은 뒤 후회했던 사람이었다고 고백했다. 지난 세월 그가 병원 사역과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1989년 소천한 남편 때문이었다. <br/> 당시 남편은 예배와 전도에 열심이었다. 농협대학 교수였던 남편이 어느 날, 일본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했을 때 그는 극구 만류했다. 그러던 중 남편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직장암이었다. 3년 동안 3번의 수술, 40회의 방사선 치료를 하며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했다. 남편은 말기 암 판정을 받고도 영혼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으로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br/> “남편은 죽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야 한다면서 통증으로 한숨도 못 잔 몸을 이끌고 이 병원 저 병원, 이 집 저 집, 이 가게 저 가게를 다니며 전도했어요. 88년 5월 29일 서울 은광교회 새 신자 초청 주일에 46명을 전도해 왔어요. 그때 교회에서 받은 전도 상패는 우리 집 가보입니다.” <br/>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10살이던 딸이 “<span class='quot0'>이제 엄마가 아빠처럼 병든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고 약속해줘</span>”라며 그에게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그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의 삶을 결심했다. <br/> 그는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임상목회 상담과정을 수료하고 세브란스재활병원에서 전도사로 근무했다. 오로지 병원 사역과 전도에 매진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학위와 목사 안수, 세상의 직함을 포기했다.  <br/> 연차와 명절 휴가는 물론, 심지어 남들이 퇴근할 때 교회로 출근했고 쉬는 날과 개인생활도 포기했다. 몸은 고달팠지만 복음 전하는 걸 사명으로 여기며 기쁨으로 순종했다. 2010년 김 전도사는 뇌종양으로 2번의 수술을 받은 후에도 복음전도를 멈추지 않았다. <br/> 그는 국내외에서 3700여회 간증집회를 했고, 이 가운데 해외집회는 100회가 넘는다. 그동안 그는 집회를 다니며 받은 사례비와 후원금을 병원에 기부해 많은 절단 장애 환자들에게 다리(의족)를 만들어 주었다. 휠체어농구단을 창단해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세브란스병원 건축기부금으로 5000만원을 후원했다. <br/> 그동안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면서 막막했던 순간이 많았지만 되돌아보면 감사뿐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의 아들은 일본 선교사로 나가길 원했던 아버지 뜻을 이어 일본 홋카이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삿포로 국제교회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딸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복음 전도는 현재 진행 중이다. <br/> <br/>이지현 선임기자 jeehl@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44.txt

제목: [헬스파일] 간암, ‘하이푸’ 치료로 극복하자  
날짜: 20170928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28141646001  
ID: 01100201.20170928141646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김태희 원장서울하이케어의원 <br/> <br/>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긴 연휴로 인해 술자리도 흔하고 집을 떠나 여행을 다녀 올 수 있는 기회도 많은데 술을 자제하고 간암의 발생원인인 B형과 C형간염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위생에 철저히 신경을 써야 한다. <br/> <br/> <br/>개인위생은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칫솔, 면도기 등을 같이 쓰지 말고, 술잔돌리기 등을 삼가야 한다.  <br/> <br/>간염바이러스는 혈액, 침, 정액등에 있기 때문에 건전한 성생활을 해야 한다. 또한 제대로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사용한 침이나 뜸, 문신, 귀 뚫기 등에서도 감염이 올 수 있다 <br/> <br/>간염과 간경변은 간암으로 발전하는 무서운 병이다. 국내 발생 6위이며 암중에서 사망률 2위인 간암의 최대 위험인자이기 때문이다.  <br/> <br/>간암은 우리나라에서 발생율이 많은 B형과 C형간염 바이러스 때문이고, 음주에 의한 알콜성 간염이나 간경변도 큰 문제이다. 여성의 경우는 적은 양의 술을 마셔도 간이 손상될 수 있다. <br/> <br/>간암은 다른 암에 비해 예후가 나쁜 편이다. 늦게 발견되는 경우나 간병변 등으로 대부분 간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방만이 최선이다. <br/> <br/>#간암의 주요 증상=간암의 주증상은 오른쪽 윗배에 통증이 있거나 덩어리가 만져지는 것이다. 때론 복부 팽만감이나 체중 감소가 일어나고 심한 피로감이나 소화불량 등을 호소하기도 한다.  <br/> <br/>간은 침묵의 장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들은 대부분 암이 많이 진행된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40세 이상의 B형, C형 간염바이러스 보유자와 간경변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6개월에 1회는 초음파와 혈청 알파태아단백(AFP) 측정을 시행한다. <br/> <br/>간암도 초기에 치료하면 완치 등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 주의할 것은 만성 B형이나 C형 간염, 간경변증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br/> <br/>대부분의 간암은 수술과 이식 등은 약 30%정도에서만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항암 및 방사선 치료 등을 해야 한다. 항암 및 방사선 치료는 치료효과가 불충분하고 인체의 다른 조직까지 파괴하여 환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br/> <br/>최근 국내에 선보인 ‘하이푸’ 치료법은 원발성 간암이나 다른 장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암, 간암으로부터 다른 장기로 전이된 암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br/> <br/>원리는 방사선을 쏘이듯 초음파를 고강도로 모아 암세포에 쏘여 열에 약한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것이다. <br/> <br/>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로 인증한 하이푸(HIFU)는 색전술, 동맥내 항암치료, 면역항암치료 등 다른 암치료법과 병행할 때 치료효과가 배가 된다. <br/> <br/>종양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주변 장기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br/> <br/>하이푸 치료는 현재 간암과 간내 폴립,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 제거에 특히 효과적이다. 치명적인 간암에 걸렸다고 지레 치료를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이푸 치료에 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br/> <br/>정리=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45.txt

제목: 웹소설 플랫폼 펀치라인, 크라우드 펀딩 ‘와디즈’ 통해 웹소설 ‘태안’ 종이책 출간 펀딩 진행  
날짜: 201709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28104344001  
ID: 01100201.20170928104344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차세대 웹소설 플랫폼 ‘펀치라인(대표 김태관)’이 태안 기름 유출 사건 10주년에 맞춰 연재 웹소설 ‘태안’의 종이책을 출판하며, 오는 11월 6일까지 크라우드 펀딩 대표기업 와디즈를 통해 소설 ‘태안’ 출간 후원 펀딩을 진행한다. <br/> <br/>소설 ‘태안’은 영화 ‘변호인’, ‘강철비’의 원작자이자 연출자인 양우석 감독이 ‘태안 기름 유출 사건’ 10주년 기념 프로젝트로 기획한 작품이다. 계명대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이자 방송 다큐멘터리 전문 작가인 이진이 작가가 글을 맡아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벌어진 기름 유출 사건의 명과 암을 생생한 드라마로 재구성했다. 감당할 수 없는 사건과 맞닥뜨린 태안의 공무원, 주민들, 태안을 돕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고군분투를 통해 다양한 인간 군상의 희로애락과 대한민국의 자화상이 생생하게 펼쳐지는 작품이다. <br/> <br/>3년 여의 기간 동안 작품을 기획한 양우석 감독은 “소설 ‘태안’은 2007년 태안 기름 유출사고의 사회적 의미를 오래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보다 많은 이들이 함께 태안의 기억을 나누고 의미를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확산성이 높은 웹소설로 먼저 공개한다”고 전한 바 있다. <br/> <br/>소설 ‘태안’ 출간 후원 펀딩을 기획한 펀치라인 관계자는 “소설 ‘태안’은 태안 사건의 의미를 오래, 더 널리 나누고자 기획된 작품인 만큼 확산성과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웹소설 오픈 이후, 의미 있는 작품을 책으로 소장하고 싶다는 요청이 이어져 보다 다양한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종이책 출판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br/> <br/>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에서 진행 중인 소설 ‘태안’ 출간 후원 펀딩은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2만원부터 15만원까지 원하는 리워드 중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펀치라인은 종이책 출간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일부를 펀딩에 참여한 서포터의 명의로 태안 지역의 유류 피해민 중 보상 소외주민을 돕는데 기부할 예정이다. <br/> <br/>종이책으로 출간될 소설 ‘태안’은 현재의 웹소설 형식에서 내용과 분량을 다듬어 오는 12월 7일 태안 사건이 발생한 지 꼭 10주년이 되는 12월 7일, 인터넷과 전국의 주요 서점에 배포하는 일정으로 제작된다. <br/> <br/>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46.txt

제목: [겨자씨] 예수 믿음의 행복 ‘강건’  
날짜: 201709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28003055001  
ID: 01100201.20170928003055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현대인의 최대 관심사는 건강입니다. 누구나 건강하기 위해 먹고, 입고,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아무리 노력한들 항상 건강할 순 없습니다. 인생의 결말은 쇠약과 질병과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육신의 건강을 넘어서는 더 높은 차원의 ‘강건’을 구해야 합니다. <br/> <br/> 일찍이 이런 강건을 누렸던 분 중에 고 이중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교회의 좋은 선생이자 목회자로 ‘별세(別世) 신앙’을 강조하며 바른 믿음을 촉구했던 분이시지요. 그분은 생전에 암으로 고통받는 중에도 이런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br/> <br/> “내가 병들고서야 깨닫는 은혜가 따로 있다. 내가 병들고서야 배우는 진리가 따로 있다. 내가 병들고서야 흘리는 눈물이 따로 있다. 내가 병들고서야 드리는 기도가 따로 있다. 내가 병들고서야 성숙할 인격이 따로 있다. 내가 병들고서야 만나는 주님이 따로 있다.” <br/> <br/>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하는 자는 육신 상태나 주변 상황에 관계없이 전인적인 강건함을 누립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겼기에 어떤 아픔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잊지 마십시오. 예수는 당신의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span class='quot0'>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span>”(엡 6:10) <br/> <br/>글=김석년 목사(서울 서초성결교회), 삽화=이영은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247.txt

제목: [인人터뷰]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소외된 사람 한 명도 없도록 ‘따뜻한 보훈’ 정책 펼칠 것”  
날짜: 201709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27050055001  
ID: 01100201.20170927050055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야간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어느 날 거리를 걷다가 여군 장교 모집 공고 포스터를 봤다. 당시만 해도 여성이 시험이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취직하는 경우가 드문 시절이었다. 교사들은 돈이나 연줄로 종종 들어가기도 했는데 사범대를 나왔지만 군인 출신의 대쪽 같은 아버지 밑에서는 엄두도 못낼 일이었다. 군이라면 계급 안에서, 군복 안에서는 평등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군에 지원했다. 군복을 좋아했고 군대와 결혼했다. <br/> <br/> 27년 군에 복무하면서 부당한 여성 차별에 반기를 들고 불합리한 제도와 싸웠다. 동료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은 ‘오뚝이’ ‘피닉스(불사조)’. 피닉스는 첫 여성 헬기 조종사인 그의 항공 호출명이기도 하다. 2002년 유방암 수술을 받으면서 양쪽 가슴을 절제한 것이 빌미가 돼 2006년 강제 전역됐다. 이후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1년7개월 간의 지난한 싸움 끝에 2008년 복직했다. 1961년 보훈처 설립 이래 최초의 여성 국가보훈처장이 된 피우진(61) 예비역 중령 얘기다. <br/> <br/> 문재인정부 내각 인사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파격적인 인사를 꼽으라면 단연 피 처장 임명일 것이다. ‘짜릿하고 감동적인 인사, 역대급 홈런’, ‘문재인 대통령의 신의 한 수’란 호평들이 쏟아졌다. 가을 햇살이 곱게 내리비치던 지난 21일 여의도공원에서 피 처장을 만났다. <br/> <br/> -보훈처장에 임명된 지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중점을 둬서 한 일이 있다면. <br/> <br/> “보훈가족들에 대한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치른 5·18 기념식이나 현충일 등의 큰 국가적 행사에서 대통령과 국민들이 다 함께 참여해 그날의 주인공들을 생각하며 가슴 뭉클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했다. ‘따뜻한 보훈’을 기치로 제도나 보상 중심의 보훈정책과 함께 ‘보훈복지’ 개념을 강화하는 데도 노력했다. 특히 소외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과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국가유공자 보상금도 지난 8년간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br/> <br/> -현 정부 들어 장관급 부처로 격상됐다. 앞으로 계획은. <br/> <br/> “어깨가 무겁다. 240만명의 보훈가족 중 한 명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따뜻한 보훈’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 한다.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예우국과 보훈단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보훈단체협력관을 신설하고 현장 복지서비스 인력도 충원하겠다. 보훈가족들이 존경받고 사랑받는 보훈문화를 만들어가려 한다. 6·25전쟁 참전국과 참전용사를 위한 감사행사, 참전용사 후손 지원사업 등 보훈외교도 강화하려 한다.” <br/> <br/> -6·25전쟁에 참전했던 네덜란드 용사가 부산 유엔공원에 동료들과 함께 안장되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다. 이에 따라 엊그제 유해 봉환식이 열렸는데. <br/> <br/> “2015년부터 유엔 21개국 참전용사가 부산 유엔기념공원 등 한국에 안장을 희망할 경우 유해 봉환식을 거행하고 있다. 오는 11월에도 프랑스 참전용사가 한국에 안장될 계획이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br/> <br/>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방부뿐 아니라 보훈처도 할 일이 많을 듯하다. 다른 과거사 부분도 조사하고 보상할 부분이 있는지. <br/> <br/>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민주화운동유공자로 등록되는 분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예우할 것이다.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나 6·25전쟁에 참전했던 분들 중 아직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이 많다. 이들을 발굴하는 데도 노력하겠다.” <br/> <br/> -일부 국회의원들이 현행 10월 1일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군 기념일(9월 17일)로 바꾸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2000년 이후 4번째다. 어떻게 보는지. <br/> <br/> “국군의 날 주관 부처와 기념일 관련 법령을 총괄하는 관련 부처의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보훈처가 예우하는 독립관련 단체들의 주장을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이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br/> <br/> -문재인 대통령은 30%를 여성 각료로 채우고 임기 말까지 남녀동수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br/> <br/> “국가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는 것은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외연적인 확대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성성’이 가진 섬세하고 내밀한 관점으로 조직의 문화, 업무절차,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다. 여성성이 가진 커뮤니케이션 강점이나 다양성을 바라보는 융합의 강점들을 여성 장관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발휘하면서 사회통합과 소통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특히 국회나 각료들을 보면 여전히 남성 중심의 문화가 있다. 이런 편향된 문화가 사회 다양성과 통합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br/> <br/> -군대 내 여권신장을 위해 싸워왔다. 술자리에 상관이 부르자 부하 여군에게 전투복을 입혀 내보낸 일화가 유명하다. <br/> <br/> “여러 번 거절을 하다가 여군이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전투복을 입혀 보냈다. 당시 저는 군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군대 내에서 여군을 바라보는 변화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br/> <br/> -아직도 여군이 성폭행 등으로 자살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br/> <br/> “대다수 여성의 상관이 남성이고 이들 남성들이 ‘부하 여군, 동료 여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체득하지 못한 탓이라고 본다. 사관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여자 생도와 함께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7% 미만의 소수다. 한 조직의 10%도 안 되는 소수자로서 여군은 다수 남군과 문화적 분리현상을 일으키게 되고, 이 분리현상이 도리어 성폭력 등의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여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바뀌도록 군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여군이 소수자 문화를 벗어나서 일상적 주류 문화에 편입할 수 있도록 인력 규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br/> <br/> -얼마 전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여성징병제 청원이 올라왔다. 이스라엘과 노르웨이 등 10여개국이 시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br/> <br/>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때는 여군 비율이 1%도 안 됐다. 지금은 7% 미만인데 15%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본다.” <br/> <br/>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어땠나. <br/> <br/> “암인데도 불구하고 큰 걱정 없이 수술하면 되겠지 생각했다. 생각한 대로 되는 것 같다. 의사에게 수술 후 언제 군에 복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빨리 군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br/> <br/> 피 처장은 2006년 펴낸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란 저서에서 ‘군 생활 중 가장 불편한 것 중 하나가 가슴이었다. 직업상 백해무익(?)한 가슴을 이 참에 없애고 싶다’며 암이 발생한 부위뿐 아니라 양쪽 가슴을 일부러 제거했다고 썼다. 그 때문에 신체검사에서 장애 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됐다. <br/> <br/> -복직 투쟁이 힘들었을 것 같다. <br/> <br/> “유방암이 다 치료되고 아픈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군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많이 힘들었다. 제도적으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복직 과정은 제 개인적인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군 내부의 인권 향상을 위해 싸운 과정이기도 했기에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마도 그때와 같이 행동을 할 것 같다.” <br/> <br/> -살아오면서 후회스런 일이나 보람 있는 일이 있다면. <br/> <br/> “군인이 된 것에 대해 후회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오히려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 시기에 마침 국가에서도 군에 지원하는 여성인력에 대해 임무를 줘보자 시도하는 단계에 있었다. 처음 헬기 조종사가 됐을 때, 임무를 수행할 때 보람이 있었다.” <br/> <br/> -스스로 정의하는 피우진은 어떤 사람인가. <br/> <br/> “매사 단순명료, 명쾌하게 살아가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 업무는 고리타분할 정도로 원칙을 중시한다. 법이나 제도, 규정 등 사람이 또는 사회가 서로 합의하고 약속했으면 어떤 개인적 불이익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원칙을 지키는 과정을 누군가는 정의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저는 사회적 정의의 편에 서고 싶다.” <br/> <br/> -희망이 있다면. <br/> <br/> “후배들이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 후배들이 저를 떠올릴 때 후배 스스로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편안히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다.” <br/> <br/> 그래서 피 처장은 2009년 중령 전역식에서도 가수 방미의 ‘날 보러 와요’를 불렀다. <br/> <br/> 조심스럽게 촌스런 질문을 하자 “1촌을 말하나요?” 하며 웃었다. <br/> <br/> “당시에는 여군 장교는 결혼은 해도 되지만 아이를 낳으면 전역해야 했다. 부사관은 결혼도 하지 못했다. 바빠서 결혼은 생각해본 적이 없다. 영내 생활을 해야 했고 헬기 조종사 시절에도 옆 사람 쳐다볼 여유가 없었다.” <br/> <br/>만난 사람=이명희 논설위원 mheel@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 <br/> <br/> <br/>■피우진은 <br/> <br/>1956년 충북 청주 출생으로 청주대 체육교육학과를 나와 1979년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특전사 중대장을 거쳐 1981년 육군 항공학교 첫 여성 헬기 조종사가 됐다. 1군사령부 여군대장, 항공학교 학생대 학생대대장을 거치며 25년간 1300여 시간 비행기록을 세웠다. 2008년 6월 항공학교 교리발전처장으로 복직했다가 2009년 9월 정년에 의한 전역을 했다. <br/> <br/> 진보신당 비례대표로 2008년 18대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여군 인권향상을 위한 예비역 여군모임인 '젊은여군포럼' 대표로 활동하며 지난 4월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2008년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성평등 디딤돌상을 수상했다.

언론사: 국민일보-2-248.txt

제목: H+양지병원, 찾아가는 ‘가정간호서비스’ 개시  
날짜: 20170926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26102244001  
ID: 01100201.201709261022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H+)양지병원(병원장 김상일)은 이달말부터 서울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가정간호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사진). <br/> 가정간호서비스는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치료와 간호가 필요가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원의 의뢰나 개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전문 가정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 주치의의 처방에 맞춰 간호와 치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br/> 특히 전문 가정 간호사는 가정간호 전문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정부로부터 자격증을 받은 이들로, 3년 이상 병원에서 다양한 환자들을 간호한 경험이 있는 만큼 병원과 동일한 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br/> H+양지병원이 시행하는 가정간호서비스는 뇌혈관질환이나 척추손상, 정신질환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암 등 말기 질환을 앓거나 노인 등 거동이 힘든 환자, 욕창 및 수술 상처, 장루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타 필요 시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필요가 인정될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br/> 가정간호서비스로 환자들은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한 이들의 지속적인 간호와 치료가 가능한 것은 물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보다 세심한 치료가 가능해진다. ​더불어 불필요한 장기 입원 대신 자가에서 편안한 치료를 통해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 환자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br/> H+양지병원 김상일 병원장은 “<span class='quot0'>가정간호서비스로 병원을 방문하기 힘든 환자분들에게 편안하게 진료와 간호를 받을 수 있게 혜택을 제공해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빠른 회복을 기대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도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49.txt

제목: 날숨만으로 폐암 찾아 낸다… ‘전자코’ 이용 새 검진법 개발  
날짜: 20170926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26050055003  
ID: 01100201.2017092605005500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숨만 내쉬어도 폐암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검사법이 개발됐다. 상용화되면 발견이 어려운 폐암의 조기 진단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br/> <br/> 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전상훈(사진) 교수, 장지은 박사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함께 ‘호기가스 폐암 진단 검사법’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호기가스는 내쉬는 호흡인 날숨을 말한다. 이 검사법은 폐 속의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센서가 분석해 알려준다. <br/> <br/> 연구팀은 폐암 환자 37명과 정상인 48명에게서 채취한 날숨을 ETRI가 개발한 전자 코(Electronic nose)에 내장된 센서로 데이터화해 분석했다. 그 결과 수술 전 폐암 환자의 날숨은 약 75%의 정확도로 건강한 성인의 날숨과 구별됐다. 수술 받은 후에는 점차 정상인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br/> <br/> 연구팀은 “수술로 암 조직이 제거되면 암세포가 발생시키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정상인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암세포가 만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날숨에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확인하면 폐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br/> <br/>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센서 앤드 액추에이트’ 최신호에 발표됐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50.txt

제목: 전상훈 교수팀, 숨 쉬는 전자코 폐암검사법 개발  
날짜: 20170925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25131644001  
ID: 01100201.201709251316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폐암은 증상이 나타날 때쯤에는 이미 수술이 어려울 정도로 진행돼버린 경우가 많고, 말기에 이르기 전까지 증상이 거의 없는 환자의 비율도 적지 않다.  <br/> <br/>건강 검진에서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공인된 선별검사(스크리닝)도 없어 진단이 늦으며, 그만큼 사망률도 높다.  <br/> <br/>1기에 수술 받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이 70%인데 비해 3기 이후 수술 받은 폐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수술 기법이 발전한 지금도 30%에 불과할 정도다. <br/> <br/>그런데 앞으로는 폐암의 조기 진단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숨만 쉬어도’ 폐암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검사법이 국내 의료진에 의해 개발된 덕분이다. <br/> <br/>분당서울대병원은 흉부외과 전상훈( <br/>사진) 교수와 장지은 박사팀 연구팀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이대식 박사 연구팀과 손잡고 날숨을 채집해 폐암세포가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호기가스 폐암 진단 검사법’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br/> <br/>호기가스는 내쉬는 호흡인 ‘날숨’을 의미하는 것으로, 폐 속의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센서가 분석해 알려주는 방식이다. <br/> <br/>연구팀은 호흡과 관련한 단백질인 ‘시토크롬 P450 혼합산화효소’가 폐암 환자에게서 활성화되면 특정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분해를 가속하고, 이를 검출하면 폐암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연구를 시작해 이를 ‘바이오마커’로 만드는데 사실상 성공했다. <br/> <br/>연구팀은 폐암 환자 37명과 정상인 48명의 날숨을 채취하고, 이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전자 코(Electronic nose)에 내장된 다양한 화학 센서를 이용, 자료화했다.  <br/> <br/>‘전자 코’는 폐암 환자 판별에 적합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기계학습모델이다.  <br/> <br/>연구팀은 이 자료를 분석, 폐암 환자의 날숨은 수술 전 약 75%의 정확도로 건강한 성인의 날숨과 구별됐고, 폐암 수술을 받은 후에는 점차 정상인과 유사한 데이터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br/> <br/>조사결과 건강한 성인의 경우 93.5%가 시간에 따른 호기가스의 변화가 없이 일정한 값을 나타내 수술로 암 조직이 제거되면 암세포가 발생시키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정상인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까닭이다. <br/> <br/>전 교수는 “<span class='quot0'>현재 폐암 진단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X선 검사나 CT 등 영상검사는 방사선 노출과 비용 부담, 조영제 부작용 등 위험도가 적은 환자에게도 시행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span>”며,  <br/> <br/>“<span class='quot1'>이번 연구를 통해 인체에 해가 없고 호흡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폐암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검사법의 적용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센서스 앤드 액츄에이트 B.케미칼(Sensors & Actuators; B. Chemical)’ 최근호에 게재됐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51.txt

제목: [금융사 스토리-한국수출입은행] 경제영토 확대 선봉… 신성장 사업 든든한 동반자  
날짜: 20170925  
기자: 김태구 쿠키뉴스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25195155001  
ID: 01100201.20170925195155001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한국경제는 그동안 급격한 발전을 이뤘다. 1인당 국민소득과 수출액은 1960년 79달러, 3000만달러에서 지난해 각각 2만7600만달러, 5000억달러로 급격히 성장했다. 이런 성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정책금융기관 중 한 곳이 수출입은행이다. <br/> <br/> 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6년 설립됐다. 이후 국내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며 해외진출을 도왔다. 80, 90년대 들어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과 남북협력기금을 수탁 운영하면서 우리나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남북 평화통일에 밑거름 역할을 했다. <br/> <br/> 지난해 말 기준 서울 본점과 대구, 인천 등 10개 국내지점, 3개 출장소, 4개 해외현지법인 및 24개 해외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다. 주주는 대한민국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이다. <br/> <br/> 최근 수출입은행은 조선·해운업 등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관리 부실과 특혜 지원 문제를 드러냈지만, 혁신안을 마련해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br/> <br/> <br/> <br/>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세계로 <br/> <br/> 수출입은행의 주요업무는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 제공,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과 남북협력기금의 관리 및 운용이다. <br/> <br/> 수출입은행은 기본적으로 국가전략산업의 수출진흥 및 대외경제협력 증진 등 국익 실현을 위해 금융을 제공하는 공적 수출신용기관을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해외건설 및 플랜트, 선박 등 주요 수출산업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것이다. 또한 해외투자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br/> <br/> 이를 통해 에너지 등 상업금융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외거래 관련 리스크가 높은 분야의 진출을 돕고 있다. 최근에는 ICT융합, AI(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등 4차 산업관련 신성장산업 육성과 신시장 개척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도 나서고 있다. <br/> <br/> 또한 수출입은행은 국내 유일의 국가신용도 평가기관으로서 국가별 위험분석정보를 제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 200여국에 대한 국가별 경제현황 및 투자환경을 분석해 관련 정보와 해외직접투자 통계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br/> <br/> <br/> <br/>개도국 도우미·남북 평화통일 선봉 <br/> <br/> 수출입은행은 대외협력기금 수탁기관으로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유상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개도국과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2012년 승인된 아프리카 남수단공화국 ‘이태석 의과대학병원’ 건립사업도 이 중 하나다. <br/> <br/> 이 사업은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며 남수단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태석 신부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면서, 남수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 및 의료 인프라 구축 지원 프로젝트다. 수출입은행은 이 사업에 8400만달러를 지원했다. <br/> <br/>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남수단공화국 유소년 축구대표팀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이태석 신부는 경남고 선배이기도 하다. 평생 봉사의 삶을 바친 남수단의 어린이들을 만나서 반갑다”며 그를 회상하기도 했다. <br/> <br/> 이와 함께 수출입은행은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으로서 정부 대북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심사,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 통일 대비 북한개발 및 다자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동북아 협력채널 구축 및 사업모델 등도 연구 중이다. <br/> <br/> <br/> <br/>조선사 특혜 대출에 따른 적자 논란 <br/> <br/> 수출입은행은 주요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을 선도함으로써 경쟁력 회복을 견인하고 불황의 충격을 흡수해 고용유지 등 민생기반 보전에 기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br/> <br/>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및 성동조선해양 등에 싼 이자로 특혜 대출 지원을 한 것이 드러나 곤란을 겪기도 했다. 이런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손실과 충당금을 쌓으면서 지난해 1조46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3조2300억원의 충담금을 적립하고 정부로부터 추가경정예산 1조원의 현금출자 지원도 받았다. <br/> <br/> 하지만 추가적인 부실여신 재발방지를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강화 및 여신 심사체계 정비와 신용공여한도 축소 등 다각적인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올해 상반기 4453억원의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br/> <br/> 향후 수출입은행은 조선·플랜트에 여신지원이 집중돼 있는 편중리스크를 대폭 낮추고 인프라와 신성장산업 지원 비중을 2020년까지 2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br/> <br/> <br/> <br/>유연근무 도입… 여성 인재 적극 육성 <br/> <br/> 수출입은행은 국내 최고 수준의 임금을 자랑한다. 지난해 기준 신입 초임은 4300만원 수준이다. 올해는 이보다 200만원 오른 4500만원 정도다. 1인당 평균 급여액은 9300만원으로 금융권 톱이다. 기관장 연봉은 1억8000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br/> <br/> 특히 유연근무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근무환경이 우수하다. 전체 984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90명이 출퇴근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형 탄련근무제를 택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br/> <br/> 또한 여성 근무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으며, 인력 채용에 있어서도 여성을 우대하는 분위기다. 여성인력은 357명으로 전체 절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신규채용의 경우 2015년 98명중 45명, 지난해 33명 중 21명, 올해 2분기까지 8명 중 5명이 여성 근로자다. 인턴의 경우에는 지난해 114명 중 80명, 올해 2분기까지 109명 중 61명이 여성이다. <br/> <br/>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성별에 대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채용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 <br/> <br/>미래로 향하는 수출입은행 <br/> <br/> 최근 취임한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급변하는 남북관계, 4차 산업혁명 도래와 같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를 언급하며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그는 소통, 원칙, 미래 지향적 경영, 일과 여가의 균형을 강조했다. <br/> <br/> 은성수 은행장은 “<span class='quot1'>혁신과제 이행 등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와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안으로는 모두가 마음을 한데 모으고, 밖으로는 고객, 정부, 유관기관 등과의 폭넓은 소통을 통해 우리의 업무와 추진 방향에 대해 지지를 받도록 하겠다</span>”고 밝혔다. <br/> <br/> 이어 “모두가 ‘수은의 역사를 써 나가는 주인공’임을 잊지 말고 조직에 대한 자긍심이 넘쳐흐르는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수은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br/> <br/>김태구 쿠키뉴스 기자 ktae9@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2-252.txt

제목: 사망자 수 최고치 기록… 사망원인 1위부터 5위는  
날짜: 20170923  
기자: 안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23093644001  
ID: 01100201.20170923093644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지난해 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br/> <br/>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6년 사망원인통계'(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조사망률)의 자료에서 지난해 사망자 수는 28만 827명으로 전년보다 4932명(1.8%)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1990년 24만 1616명으로 최저를 기록한 뒤 증가하고 있다. <br/> <br/>사망자 수는 80세 이상(5.9%)과 60대(4.3%)에서 주로 증가했다. 사망률 성비는 전 연령층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다.  <br/> <br/>사망 원인 1위는 악성신생물(암)로, 7만 8194명으로 가장 높았다. 전체 사망자 수에 27.8%에 달한다. 4명중 한 명은 암으로 사망하는 셈이다.  <br/> <br/>심장 질환(2만 9735명·10.6%), 뇌혈관 질환(2만 3415명·4.7%), 폐렴(1만646명·5.9%), 자살(1만3092·4.7%), 당뇨병(9807명·3.5%) 순으로 나타났다. <br/> <br/>안태훈 인턴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253.txt

제목: [오늘의 국민일보] 소신과 현실 사이… 문 대통령의 고민  
날짜: 20170923  
기자: 박상은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23070044001  
ID: 01100201.20170923070044001  
카테고리: 정치>외교  
본문: ▶美‧北 치킨게임… “사상 최대 압박” “역대 최강 대응” <br/>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의 은행‧기업‧개인은 미국 은행과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새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또 북한을 경유한 선박과 항공기는 180일 이내에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겨냥해 디통령 행정명령으로 제재를 발표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br/>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역시 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직함을 걸고 국제사회에 직접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성명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span class='quot0'>사실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span>”고 위협했습니다. <br/> <br/>▶소신과 현실 사이… 고민깊은 문 대통령 <br/>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평화와 제재를 넘나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평화는 역사적 책무”라며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연설 20여분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span class='quot1'>북한에 대한 최고 강도의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span>”고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 내 기자간담회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된 한국의 처지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br/> <br/>▶1180억 들인 차세대 무인기, 첫 비행도 못 끝내고 추락 <br/>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개발 중인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가 지난해 첫 시험비행 도중 추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방위사업감독관실 조사결과 ADD 비행제어팀 소속 담당자가 무인기의 고도‧속도‧풍향을 측정하는 장비의 좌표 신호체계를 반대로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br/>▶고령화의 그늘…사망자도 최고 <br/>고령 사망자가 늘면서 지난해 사망자 수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8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 4명 중 1명 정도는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10~30대 젊은 층에서는 암보다 자살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br/> <br/>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54.txt

제목: 고령화의 그늘… 사망자도 최고  
날짜: 20170923  
기자: 세종=신준섭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23050155001  
ID: 01100201.201709230501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고령 사망자가 늘면서 지난해 사망자 수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8만명을 넘어섰다. 사망자 4명 중 1명 정도는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0∼30대 젊은 층에서는 암보다 자살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br/> <br/>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6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2015년보다 4932명(1.8%) 증가한 28만827명이다. 1983년 사망원인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br/> <br/> 사망자 수는 2006년 이후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사망자가 늘어난 게 원인이다. 지난해의 경우 80대 이상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절반에 가까운 42.5%를 차지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비중이 11.8% 포인트 늘었다. <br/> <br/> 전체 사망자 중 27.8%인 7만8194명은 암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 중에서는 폐암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 순이었다. 대장암의 경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위암을 제치고 3위에 올랐다. 식습관이 서구형으로 바뀐 게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고령층으로 갈수록 대장암 사망자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는 위암, 40∼5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간암, 폐암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40대 이상에서는 암이 가장 많은 사망원인을 차지했지만 10∼30대는 양상이 달랐다. 자살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자살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은 25.6명을 기록했다. 2015년보다는 소폭 떨어졌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12.0명의 배를 웃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폐렴과 치매로 인한 사망자가 유독 늘어난 것도 특징으로 꼽혔다. 치매 사망률은 17.9명으로 10년 전보다 114.1% 증가했다. 역시 고령사회가 만들어낸 현상이다. <br/> <br/> 지난해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는 4747명이다. 술이 하루 13명의 목숨을 앗아간 셈이다. 남자와 여자의 알코올 관련 사망률은 각각 16.1명, 2.4명이다. <br/> <br/>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55.txt

제목: 대한온열의학회, 암환우 및 환우 가족 대상 ‘특별세미나’ 개최  
날짜: 201709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22180444001  
ID: 01100201.20170922180444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대한온열의학회는 22일 가톨릭대학교 서울강남성모병원에서 ‘온열치료가 암치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br/> <br/>이날 세미나는 제 4의 암 치료법이라 불리는 온열치료를 주제로 국내 유수의 석학들이 암환우와 그 가족들에게 온열치료와 면역치료에 관해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강좌로 전문의들과의 소통을 통해 암환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br/> <br/>세미나 1부에서는 대한온열의학회 최일봉 회장(제주한라병원)이 좌장으로 나섰으며, 제주한라병원 한치화 혈액종양내과 과장의 온열치료와 항암요법 강연, 비오메드요양병원 박성주 병원장의 온열치료와 면역요법 강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송태진 교수의 고주파온열암치료기 REMISSION 1℃를 통한 심부열 증명 순으로 진행됐다. <br/> <br/>2부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강영남 교수가 좌장으로 대전대학교 유화승 교수의 ‘고주파온열치료와 항암치료를 병용해 호전된 증례보고’, 대한온열의학회 회장인 최일봉 교수의 온열∙면역 병용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강연 순으로 진행됐으며, 암환자와 가족들이 소통의 장을 갖는 시간으로 마무리 됐다. <br/> <br/>이날 대전대학교 유화승 교수의 강연에서는 SCIE급 국제학술지 Integrative Cancer Therapies 게재된 논문을 발표해 이목을 끌었다. 해당 논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고주파온열암치료기 리미션1℃(REMISSION 1℃)와 항암치료를 병용한 사례로써 온열치료와 면역치료를 통하여 수술 불가능한 담관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하여 호전된 사례에 관한 논문이다. <br/> <br/>대한온열의학회 관게자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고주파온열치료는 우리 몸의 체온을 상승시켜 NK Cell(자연살해세포)이 활성화됨으로써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라며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열에 민감한 속성의 원리를 이용해 괴사시키는 것으로 ‘제4의 암 치료법’으로 최근 의학계로부터 주목받는 치료방법”이라고 설명했다. <br/> <br/>이어 “최신 암 치료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암환자와 그 가족, 특히 말기 암 환자나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게는 큰 희망을 심어준 행사였다”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를 통해 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보다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엿다. <br/> <br/>한편 이날 행사는 가톨릭대학교 첨단융복합방사선의료기술연구소와 ㈜아디포랩스, ㈜비오신코리아, Newsin이 후원했다. <br/> <br/>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56.txt

제목: “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는 사랑을 통해야 합니다”  
날짜: 20170922  
기자: 김나래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22000057005  
ID: 01100201.20170922000057005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의 저자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나빌 쿠레쉬의 장례식이 21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퍼스트뱁티스트처치에서 열렸다. 쿠레쉬는 지난해 8월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휴스턴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투병하다 지난 16일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br/> <br/> 그는 숨지기 일주일 전 남긴 영상에서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여러분이 내 사역을 떠올릴 때 사랑과 평화, 진리와 돌봄의 유산으로 여겨주길 바란다”며 “이것이 내 사역에 숨겨진 소망과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무슬림이었던 쿠레쉬는 대학 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독교인이 된 뒤, 자신의 간증을 통해 기독교를 변증하는 활동을 해 왔다. <br/> <br/> 그는 “이슬람과 기독교 간에는 코란, 하디스, 성경, 예수, 마호메트 등 다양한 논쟁이 있다”며 “진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모든 논쟁은 사랑과 평화 안에서 이뤄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것에 대해 전할 땐, 사랑을 통해 전해야 한다”며 “사람들이 내가 나눈 정보를 타인을 상처내기 위해 사용하는데, 내가 그것을 가르쳤던 이유는 사랑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가 원칙을 어겼다면 부디 용서해주기 바라며, 이 실수들이 내가 남긴 유산의 일부가 되지 않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br/> <br/>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은, 곧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며 “당신은 힌두교인, 유대교인, 무슬림, 기독교인 누구를 만나더라도 사랑 안에서 대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r/> <br/> 쿠레쉬는 파키스탄 무슬림 가문의 후손으로, 미국에서 자랐다. 이슬람만이 선한 종교라고 믿었던 그는 대학에서 크리스천 친구 데이비드를 만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의 부활을 시인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됐다. 크리스천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책들을 펴냈다. <br/> <br/> 또 세계적인 변증단체 라비 재커라이어스 국제사역팀(RZIM)에서 강연자로 활동해 왔다. <br/> <br/> 그는 지난해 암 선고를 받은 뒤 무슬림들이 이를 알라의 저주가 이뤄진 것으로 여기면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품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는 “나의 기도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이 폄하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끝까지 담대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 <br/> <br/> 쿠레쉬가 지난 5월 치료비 모금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고펀드미’ 웹 사이트에 개설한 계좌에는 21일 현재 77만8000달러가 모금됐다. 쿠레쉬는 자신이 죽게 되면 세상에 남을 딸의 교육에 사용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힌 바 있다. <br/> <br/>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57.txt

제목: [이호분의 아이들 세상] 어린이 도벽  
날짜: 2017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21090544001  
ID: 01100201.20170921090544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아이들은 심리적인 불편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도벽이나 거짓말 등으로 자신의 심리상태를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br/> <br/>C는 초등학교 3학년 여자 아이다. 최근에 문방구나 친구 집에서 작은 물건을 몰래 집어오는 등 갑자기 도벽이 생겼다. C의 부모는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다. <br/> <br/>C의 가정은 맞벌이 가정이어서 C는 주로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여느 할머니들처럼 C의 할머니도 손녀에게 정성을 들였고, C도 할머니를 좋아하고 따랐다. 하지만 할머니는 며느리에게는 매운 시집살이를 시켰다. C의 엄마는 원래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고 자기 주장을 못하는 편이어서 시어머니로부터 일방적인 시달림을 당하면서도 속내를 드러낸 적이 거의 없었다. <br/> <br/>그러던 C의 엄마가 몇년 전 암 선고를 받았다. 그 순간 지난 세월의 설움이 밀물처럼 몰려왔고, 자신이 암에 걸린 것도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단정했다. 반란이 시작됐다. 시댁 근처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했고,아예 시댁과의 왕래는 커녕 인연마저 끊으려했다.  <br/> <br/>병원에 온 C는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한 상태였다. 그렇지만 엄마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다. 상담 후 가끔 할머니를 만날 수 있게 했다. C는 다소 기분이 나아지는 듯했다. 그럼에도 할머니가 사준 가방은 엄마가 볼까봐 장 속 깊은 곳에 숨겨 두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엄마는 많은 생각을 했다. 자식을 위해 엄마가 못할 일이 없고, 따지고 보면 자신의 병이 시어머니 탓일 수는 없었다. 오히려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쌓아놓기만 했던 자신의 성격이 더욱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렀다.  <br/> <br/>무엇보다 C에게서 할머니 사랑을 받을 기회를 박탈할 권리가 자신에게는 없다는 데에도 생각이 미쳤다. 역시 모성은 위대했다. 결국 C 엄마는 시어머니와 화해하기 시작했고,다시 할머니와 왕래를 시작했다. C가 장 속에 감춰 두었던 ‘할머니 가방’을 꺼내던 날, C의 도벽도 사라졌다.  <br/> <br/>이호분(연세누리정신과 원장,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언론사: 국민일보-2-258.txt

제목: 뚜벅뚜벅·쌩쌩…‘숲으로 다리’건너 가을속으로  
날짜: 2017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21050255001  
ID: 01100201.20170921050255001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산천어로 유명한 강원도 화천은 ‘물의 고장’이다. 화천댐과 평화의 댐, 파로호와 춘천호 등 2개의 댐과 2개의 호수가 있다. 물은 화천 풍경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다. 그 물을 즐길 방법도 다양하다. 붕어섬을 호젓하게 산책하거나 호수를 따라 드라이브를 하면 청명한 가을이 마음속에 내려앉는다. ‘산소(O₂) 100리 길’도 빼놓을 수 없다. 그 가운데 ‘숲으로 다리’는 백미다. 두 발로 뚜벅뚜벅 강을 따라 걸어도 좋고 자전거로 쌩쌩 달려도 좋다. <br/> <br/> 화천은 수도권에서 먼 곳으로 인식됐다. 한때 산 고개를 굽이굽이 넘고, 흙먼지 날리는 길을 달려야 닿는 곳이었다. 그러나 이제 많이 달라졌다. 넓은 직선로가 시원하게 열려 수도권에서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다. <br/> <br/> ‘산소길’은 원시림을 관통해 가는 숲속길과 물길, 물안개와 저녁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수변길, 연꽃길 등을 지난다. 바람소리, 물소리를 벗 삼아 떠나는 ‘물 위의 산책’이 따로 없다. 길이가 40㎞에 달해 하루 만에 걷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산소길의 백미인 ‘숲으로 다리’만 다녀와도 그만이다. 물위에 뜨는 플라스틱 구조물을 촘촘히 연결하고 그 위에 나무판자를 깔아 만들었다. 1.2㎞ 길이의 폰툰다리를 따라 원시림 상태로 보존된 흙길을 걷는 총 2.2㎞ 길의 일부다. 소설가 김훈씨가 이름을 붙였다. <br/> <br/> 다리로 들어서면 수채화 같은 화천의 비경 속으로 빠져든다. 오르막 없이 시종일관 편안하다. 수면은 잔잔하고, 흔들림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여름을 초록으로 물들였던 숲이 가을빛을 띠며 북한강 물줄기에 비친다. 뭉게구름 떠가는 하늘이 수면에 내려앉아 풍경을 넉넉하게 해준다. 느릿느릿 발걸음을 옮기면 가을속으로 한 발짝 다가선다. 호수와 주변 산자락에서 뿜어내는 맑은 공기가 세포 구석구석 찾아든다. 인공으로 만들어진 다리지만 자연을 느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br/> <br/> 다리 중간쯤에는 잠시 쉬어 가도록 벤치가 놓여 있다. 그 옆 산천어 모양을 한 나무 조각이 반갑다. 목을 축일 수 있는 수도꼭지도 있다. 바로 옆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호스로 연결했다. 이른 아침에 산소길에 들면 기온차로 인해 피어오른 물안개가 몽환적 풍경을 빚는다. 해질녘에는 북한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아름다운 일몰도 함께한다. 다리가 끝나는 지점에서 숲길이 이어진다. 생태가 잘 보전돼 원시림 느낌을 물씬 풍긴다. 강기슭을 따라 화천읍내로 연결된다. <br/> <br/> 산소길을 모두 느끼려면 자전거 투어가 제격이다. 붕어섬 입구에 자전거 대여소가 있다. 자전거도로 시작부터 북한강을 옆에 두고 달린다. 처음 만나는 화천의 명소는 붕어섬이다. 섬이 붕어를 닮았다는 설과 붕어가 많이 나서 이름지어졌다는 얘기가 있다. 강 가운데 섬은 다리로 연결돼 있다. 섬에서는 공중에 매달린 줄을 타고 이동하는 ‘하늘가르기’ 등 짜릿한 레저도 가능하다. <br/> <br/> 산소길 서쪽 끝은 하남면 서오지리 연꽃단지다. 지촌천이 북한강으로 흘러드는 곳에 있다. 약 19만8400㎡ 터에 13만2300㎡ 연밭이 자리한다. 1965년 춘천댐 완공 이후 쓰레기가 쌓이고 썩은 내가 진동하던 습지가 2003년 연꽃단지 조성으로 생명을 되찾았다. 요즘 수련(睡蓮)이 화려함을 자랑한다. <br/> <br/> 화천댐 방향으로 달리다 보면 꺼먹다리가 나온다. 길이 204m의 다리 상판이 검은색 콜타르 목재라서 얻은 이름이다. 등록문화재 110호인 꺼먹다리는 독특한 이력을 가졌다. 교각은 일본이, 철골은 광복 후 러시아(옛 소련)가, 상판은 6·25 전쟁 이후 한국이 올렸다. 교각에는 전쟁 당시 포탄과 총알에 의한 흔적이 남아 있다. ‘전우’ 등 주요 전쟁 드라마와 영화의 배경으로 자주 등장했다. <br/> <br/> 꺼먹다리에서 2.5㎞ 정도 가면 딴산유원지다. 물가에 자리잡은 작은 동산으로 섬처럼 두둥실 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여름에는 인공폭포가 장엄하게 흐르고, 겨울에는 하얀 빙벽이 만들어진다. 주변에 토속어류생태체험관이 있다. 황쏘가리, 금강모치, 연준모치, 버들치, 산천어, 무지개송어 등 다양한 물고기를 볼 수 있다. 자전거도로는 화천댐까지 이어진다. <br/> <br/> 화천의 대표적인 여행지 중 하나가 비수구미다. 화천댐이 생기면서부터 육로가 막혀 오지 중의 오지가 돼 ‘육지 속의 섬마을’이라 불리기도 했다. 6·25전쟁 직후 피난 온 사람들이 정착해 화전밭을 일구며 살기 시작하면서 형성됐다. 지금은 비포장 찻길이 난데다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오지의 맛은 예전만 못하다. 청정 계곡 비수구미 산책로를 따라 여유 있게 산책을 즐기고, 나물 향 살아 있는 산채비빔밥을 맛볼 수 있다. <br/> <br/> 평화의 댐도 가볼 만하다. 비목공원과 세계 평화의 종이 볼거리다. 비목공원 내 십자가 모양의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 녹슨 철모가 전쟁의 참화를 대변해준다. 세계 평화의 종은 30여 개 분쟁 지역의 탄피를 모아 만들었다. <br/> <br/> 평화의 댐 아래쪽에는 ‘국제평화아트파크’가 조성돼 있다. 평화를 약속하는 높이 38m의 거대한 반지 조형물 주위로 실전에 사용했던 무기가 배치돼 있다. 쇠사슬에 묶인 전차, 포신에 노란 나팔을 달고 오색 바람개비로 장식한 탱크, 장난감과 놀이시설로 변신한 대공포 등이 ‘평화를 입은’ 작품으로 변모했다. <br/> <br/> 사내면 삼일리 화음동 정사지(華陰洞 精舍址)는 조선 현종 때 서인의 거두 곡운(谷雲) 김수증(金壽增·1635∼1705년)이 1689년 기사환국으로 벼슬을 그만두고 화악산 북쪽 절경을 이룬 계곡에 사(舍)·암(庵)·정(亭)·대(臺) 등을 짓고 후학을 가르치며 은둔한 곳이다. 현재 건물은 없어졌고, 송풍정·삼일정만 복원 돼 있다. <br/> <br/> 바위에 새겨진 글자가 눈길을 잡는다. 전서(篆書)로 너럭바위에 새긴 ‘인문석(人文石)’이라는 명문이다. 김수증은 성리학의 세계관을 화음정사의 조경에도 응용해 넓은 바위에 태극도·팔괘도·하도·낙서 등을 새겼다. <br/> <br/> 사내면 동부와 춘천 사북면 북부에 걸쳐 15㎞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심산유곡이 곡운구곡이다. 김수증은 경치 좋은 9곳에 방화계(傍花溪)·청옥협(靑玉峽)·신녀협(神女峽)·백운담(白雲潭)·명옥뢰(鳴玉瀨)·와룡담(臥龍潭)·명월계(明月溪)·융의연(隆義淵)·첩석대(疊石坮)라 이름을 붙였다. 표지석이 있어 찾기 어렵지 않다. 1곡부터 계곡을 따라 가면 곡마다 경치가 다르다. <br/> <br/><br/>■여행메모 <br/>화천 서부는 구리포천고속도로 이용 파로호 제철 잡고기 '어죽탕' 담백 <br/> <br/>북한강 '숲으로 다리'는 화천읍내에서 가깝다. 수도권에서 승용차로 갈 경우 서울양양고속도로 춘천 나들목에서 빠져 407번 지방도를 타고 간다. <br/> <br/> 화음동 정사지나 곡운구곡은 경기도 포천을 거쳐 광덕고개를 넘어가는 것이 빠르다. 지난 6월말 개통된 구리포천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편하다. <br/> <br/> 서오지리연꽃단지는 춘천에서 화천으로 가는 5번 국도변 '현지사'라는 사찰로 들어가 다리 하나 건너면 닿는다. 연꽃단지 초입에 무료 주차장이 있다. <br/> <br/> '숲으로 다리' 인근에 맛집이 여럿 있다. '미륵바위쉼터' 식당은 매일 직접 만드는 두부로 끓이는 두부전골이 주 메뉴다. 두부 본래의 구수한 맛을 살리기 위해 두툼하고 넓게 썬 두부에 팽이버섯과 양념장만 넣어 끓인다. 대이리 '콩사랑'의 두부보쌈, 특선정식 등도 맛깔스럽다. <br/> <br/> 파로호 가는 길목의 '화천어죽탕' 식당은 북한강과 파로호에서 나는 제철 잡고기를 푹 삶아 뼈를 추려낸 다음, 추어탕처럼 끓인다. 진한 어죽탕이 담백하고 깊은 맛을 풍긴다. 숙소로는 아쿠아틱리조트가 깔끔하다. <br/> <br/>화천=글·사진 남호철 여행선임기자 hcnam@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259.txt

제목: (주)넥스트BT, ‘왕혜문 퓨어 보이차 100’ 곰팡이 독성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확인  
날짜: 201709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19180044001  
ID: 01100201.20170919180044001  
카테고리: 경제>유통  
본문: 최근 중국에서 유명한 과학저술가 팡저우쯔(方舟子)의 발언으로 보이차 발암물질이 논란이다. ‘과학세계 7월호’에 ‘차를 마시면 암을 예방할까, 아니면 암을 유발할까’라는 글을 게재해 보이차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주장이 실리며 이슈가 됐다. <br/> <br/>이 글에서 보이차는 발효 및 저장 과정에서 아플라톡신, 푸모니신 등 각종 독성 곰팡이가 자라기 쉽다. 그 중 아플라톡신이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이라고 주장했다. <br/> <br/>이에 중국 내 최대 차 산지인 윈난성 보이차 협회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보이차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팡저우쯔(方舟子)에게 600만위안(약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r/> <br/>국내 보이차 업계 관계자들은 정식수입절차를 밟아 국내로 들어오는 보이차는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이차에는 폴리페놀 일종인 카테킨과 갈산이 풍부하여 세포와 조직을 손상시키는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기능이 뛰어나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br/> <br/>그 중에서 헬스 케어 전문 유통기업 ㈜넥스트BT가 출시한 ‘왕혜문 퓨어 보이차 100’ 제품에서 독성곰팡이로 논란이 된 아플라톡신, 푸모니신이 불검출 됐다는 공인기관성적서를 공개했다. <br/> <br/>㈜넥스트BT 관계자는 “<span class='quot0'>NON-GMO 검사, 알러지 반응 검사, 잔류농약 검사, 대장균 및 대장균군 검사까지 완료하였고, 제조사인 ㈜네추럴에프엔피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의 제조, 수입 제품 안정성 품질 인증인 GMP 1호 기업으로 공장 생산 라인 별 검사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위생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원료 검수부터 제조까지 관리하고 있다</span>”고 전했다. <br/> <br/>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60.txt

제목: "의료계 4차산업혁명 실현"…고대의료원, 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 26일 '첫 삽'  
날짜: 20170919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19172344001  
ID: 01100201.20170919172344001  
카테고리: 경제>국제경제  
본문: "<span class='quot0'>의료계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겠다.</span>" <br/> 고려대의료원이 19일 미래 의료의 포문을 열었다. 의료원은 오는 26일 안암병원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의 기공식을 연다고 밝혔다.  <br/> <br/> 김효명 의료원장 겸 의무부총장은 "고난도  중증 환자에게 맞춤형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는 미래형 병원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span class='quot1'>의학연구를 통한 의료 산업화와 선순환투자구조를 구현해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 발돋음하겠다</span>"고 천명했다. <br/>  <br/> 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는 2022년을 완공 목표로 총면적 약 13만평방미터(약 4만평)의 규모로 지어진다. 특히 안암 구로 안산병원의 진료 및 연구 역량이 총집약된 융복합 R&D센터는 국내 최고 의학연구를 선도할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br/>  <br/> 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가 완공되면 국내 최초로 '정밀의료' 기반을 둔 의료서비스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대의료원이 선정된 국가전략프로젝트 정밀의료사업(5년간 총 769억원)을 구심점으로 정밀의료 기반의 암 진단 치료법 개발로 이어질 전망이다.  <br/>  <br/> <br/> 김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2'>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에 집약된 연구 시스템과 빅데이터 활용 기술을 활용해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를 실시하고 정밀 의료를 암 치료뿐 아니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적용, 이를 통한 치료 가능성을 높여나갈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는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고 발전시켜 최상의 의료시스템을 이루고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과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AI 로 구현되는 병원(AI-DRIVEN HOSPITAL)'를 지향한다.  <br/> <br/> 항생제 처방 이력과 추가 처방 등을 실시간 조언해 주는 AI 항생제 어드바이저 '에이브릴', 진료 차트를 자동 인식해 입력하는 진료 차트 음성인식 AI 등 첨단 연구들을 진료 현장에 접목시켜 환자들이 더욱 정밀하고 진일보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br/>  <br/> 이기형 고대 안암병원장은 "<span class='quot3'>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는 미래 의학 100년을 이끌어갈 핵심의료기관으로 성장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61.txt

제목: 인공지능 지방흡입 신기술 ‘MAIL’ 개발  
날짜: 201709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19050255002  
ID: 01100201.2017091905025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의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뿐 아니라 개인 맞춤 비만 치료와 지방흡입 수술에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br/> <br/> 365mc네트웍스는 한국MS와 함께 인공지능 지방흡입 신기술 ‘모션 캡처 애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어시스티드’(MAIL)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br/> <br/> MAIL시스템은 순전히 집도 의사의 촉감에 의존해야 하는 기존 지방흡입술의 모든 과정을 정량화해 안전성을 극대화시킨 신의료기술이다. <br/> <br/> 365mc는 이를 위해 한국전자부품연구원(KETI)과 손잡고 수술 동작을 디지털화하는 데 필요한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개발, 지방흡입술 관련 빅데이터를 축적했다. 한국MS 측은 여기에 자사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Azure)를 활용, AI알고리즘을 접목시켰다. <br/> <br/> 김남철(사진) 365mc대표원장협의회장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집도의의 수술 동작을 디지털 데이터로 기록, 잘된 수술과 그렇지 않은 수술의 차이점을 분석해낼 수 있고 부작용 및 후유증을 극소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br/> <br/> 수술 후 경과도 즉시 예측할 수 있다. 덩달아 환자들의 수술 만족도는 크게 향상된다. <br/> <br/> 365mc네트웍스는 한국MS와 공동으로 MAIL시스템을 세계 각국 지방흡입술 시술 병·의원에 적극 수출할 계획이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262.txt

제목: [로컬 브리핑] 부산시 ‘시네마 로보틱스’ 구축  
날짜: 201709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19175155003  
ID: 01100201.20170919175155003  
카테고리: 지역>부산  
본문: 부산시는 2018년부터 3년간 60억원을 투입, 부산영화 촬영스튜디오 일부를 리모델링해 ‘시네마 로보틱스(Cinema Robotics)’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시네마 로보틱스는 자동차 제작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로봇 암(Robot Arm) 제어기술과 ICT 기술을 융합해 무인 방송시스템과 컴퓨터 그래픽 촬영 등에 활용하는 차세대 영상로봇제어시스템이다. 영화 ‘원더우먼’ ‘암살’ ‘군함도’ 등 VFX(특수시각효과) 비중이 높은 영화들의 제작에 활용되고 있다.

언론사: 국민일보-2-263.txt

제목: 유방암, 암 초기 진단을 위한 검진 및 사후 관리 중요  
날짜: 201709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18175544001  
ID: 01100201.201709181755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유방암은 주로 유선조직이 발달한 여성들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성의 경우 1%이하의 발병률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유방암의 정기 검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발병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유방암의 위험인자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 이를 숙지하고 주의하는 것이 좋다. <br/> <br/>주요 위험인자로는 유전을 말하게 된다. 만약 가족 중 유방암 내력이 있는 경우 본인도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2~3배 늘어나게 된다. 또한 고지방식 섭취로 인한 비만, 흡연, 출산 및 수유 경험 유무 등이 유방암의 위험인자로 꼽힌다. <br/> <br/>유방암을 의심하는 가장 흔한 계기는 유방에서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이다. 심한 경우 유선조직이 발달한 겨드랑이에서 만져질 수 있으며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발생하거나, 유두 함몰, 피부가 두꺼워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유방암은 초기증상이 없어 증상이 나타난 뒤에는 암의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조기검진이 매우 중요하다. <br/> <br/>이에 국가암정보센터에서는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으로 매달 유방 자가검진 받는 것을 권장하며 만 40세 이상의 여성은 1~2년간격으로 주기적인 검진을 요하고 있다. 주의 깊은 관찰과 자가진단을 하면서 유방암의 발생유무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br/> <br/>일산에 위치한 다스람요양병원의 문일주 원장은 “유방암은 재발방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뼈와 폐, 중추신경계 등의 부위로 재발 및 전이가 이루어진다면 생존율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방암은 사후관리를 잘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수술 후 전문가의 상담과 환자 개개인에 맞춘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br/> <br/>암요양병원인 다스람요양병원은 환자들의 수술 및 치료 이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의학적암치료를 시행하여 환자 맞춤형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통합의학적암치료는 다양한 보완요법(한의학, 심신의학, 대체의학 등) 중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과 현대의학을 겸해 치료하는 것이다. 특히 암치료 시 환자가 받는 받는 고통 및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도와준다. <br/> <br/>또한 의료진과 영양사들의 협의하여 항암치료 시 식욕을 잃지 않게 매주 다양한 식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요가, 라인댄스 등 근력 강화 운동으로 기초체력을 향상 시켜주고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여 암을 이겨낼 수 있는 체력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준다. <br/> <br/>유방암은 발병원인이 불분명하지만 평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줄여 예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서구화 되가는 식단을 삼가하고 과일과 야채 등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음주 및 흡연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 <br/> <br/>만약 멍울이 손으로 만져지거나 유방통증 등이 나타난다면 유방암을 의심하는 것이 좋으며 병원에서 정확한 검진을 통해 꾸준한 관심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br/> <br/>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64.txt

제목: 호스피스 요양병원, 시범사업 이어 서비스 확대 전망  
날짜: 201709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18161444001  
ID: 01100201.201709181614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평가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서비스가 본격 사업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호스피스 요양병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br/> <br/>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르면 기존 암 환자에게만 적용되었던 호스피스 서비스는 에이즈(AIDS)와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말기 환자에게도 적용 가능해졌고, 향후 호스피스 요양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br/> <br/>이처럼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호스피스’란 특정 질환 말기 환자의 통증과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함으로써 존엄하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를 의미한다. <br/> <br/>과거에는 이러한 호스피스에 대해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주를 이뤘던 것이 사실이나, 최근에는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면서 호스피스를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br/> <br/>특히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완화 치료는 통증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음은 물론, 환자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그를 바라보는 가족들에게도 위안을 주고 있다. <br/> <br/>실제로 요양병원 호스피스는 기존 호스피스 완화치료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정서적 안정과 통증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br/> <br/>그 중 호스피스 지정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인천 청라백세요양병원의 경우, 통증완화 치료와 함께 환자들을 위한 아침체조를 비롯, 유기농 먹거리 맛집 탐방, 텃밭에서 직접 무농약∙유기농 채소 키우기 등 병원생활로 답답할 수 있는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기 위해 다양한 외부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br/> <br/>인천 청라백세요양병원 정양수 원장은 “호스피스라는 개념 자체가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면서, 앞으로 호스피스 병동을 찾는 환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국내 호스피스 서비스 역시 더욱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산업으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r/> <br/>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65.txt

제목: 대장암 제대로 알고 웃으며 살자  
날짜: 20170918  
기자: 오준엽·전미옥 쿠키뉴스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18230055001  
ID: 01100201.20170918230055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대장암은 국내 발병률 1위, 세계 4위의 다빈도 종양이다. 더구나 별다른 전조증상이 없어 ‘침묵’, ‘죽음’이란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는 무서운 암이다. 그럼에도 국내 대장암 발병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장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사전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대장암·직장암 팩트체크-닥터토크콘서트’는 대장암 진단과 치료, 예방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었다. <br/> <br/> ◇이윤석 교수, “마음껏 먹고, 암은 굶기자”=첫 강연자로 나선 이윤석 교수는 “<span class='quot0'>암도 결국 세포로 영양분과 산소가 필요하다</span>”며 암의 성장과정과 치료 전후 대처법, 암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식생활습관 등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암세포도 먹고 살기위해 주변의 혈관을 증식시켜 영양분을 공급받으려 한다</span>”며 항암치료의 핵심이 혈관의 증식을 방해해 암세포를 고사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표적항암제가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암은 유전적 요인이 5∼10%에 불과하며 잘못된 식습관과 흡연, 음주, 스트레스와 같은 생활환경의 영향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파하며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 쾌적한 환경과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r/> <br/> 특히 이윤석 교수는 “<span class='quot0'>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먹거리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span>”고 강조하고. 환자와 환자 보호자를 비롯한 토크콘서트 참석자들에게 혈관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딸기와 같은 베리류 과일, 홍차나 레드와인, 올리브유, 강황, 참치, 녹황색 채소 등을 소개하고 목록을 제시했다. <br/> <br/> ◇이인규 교수, “수술의 선택부터 관리까지”=이윤석 교수가 대장암을 방지하고 관리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뒤를 이어 연단에 선 이인규 서울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는 대장암의 치료방법과 수술 후 관리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인규 교수는 “<span class='quot1'>치료의 목표는 대장암을 완전히 없애는 것</span>”이라며 개복수술, 복강경수술, 로봇수술로 구분되는 수술 방법은 환자의 상태와 부위 등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지 좋고 나쁨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복수술과 복강경수술, 로봇수술은 수술 방식일 뿐이며 세 방법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모두 같아야하는 것이며 수술과 방사선, 약물 치료가 어우러진 다학제적 접근에 의한 환자 맞춤형 치료가 수술 방법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br/> <br/> 여기에 최근 관심이 높아진 프로바이오틱스로 대변되는 체내 박테리아와 식습관의 상관관계를 언급하며 암을 발현시키는 유전자와 환경적 요인, 수술 후 건강관리를 위한 방법을 참석자들에게 알렸다. 이인규 교수는 “암 유전자가 모두 발현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적으로 나쁜 것들이 계속해서 자극을 줘 암이 발병하는 것”이라며 “박테리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과 박테리아가 좋은 방향으로 공생할 수 있도록 식습관과 생활 태도를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br/> <br/> 이어 ▶건강검진을 통한 암의 조기발견 ▶주기적인 관찰과 검사를 통한 재발 및 전이의 빠른 발견 ▶적절한 치료 ▶편안한 마음가짐 ▶건강한 생활습관 ▶의사와 환자 간 믿음과 신뢰 이상 6가지를 꼭 기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오래도록 유지하길 기원한다는 뜻을 전했다. <br/> <br/> ◇과식·탄고기 금지…대장암 이기는 생활수칙 10가지는?=“대장암 극복, 생활수칙과 더불어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날 ‘대장암·직장암 팩트체크-닥터토크콘서트’에서는 대장암 예방을 위한 10가지 생활수칙이 소개됐다. 대한암예방학회가 발표한 대장암을 이기는 식생활 및 건강수칙’을 토대로 정리한 10가지 생활수칙은 ▶과식금지 ▶흰 쌀밥 대신 잡곡밥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해조류 섭취 ▶매일 적당량의 과일을 먹는 습관 ▶육류·육가공식품 적당량 섭취 ▶탄고기 금지 ▶견과류는 매일 조금씩 섭취 ▶칼슘 섭취는 필수 ▶꾸준한 운동 ▶음주 줄이기 등이다. <br/> <br/> 이윤석 교수는 “열 가지 수칙 중 빠뜨린 것이 있는데 바로 금연이다. 담배는 모든 질병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대장암 환자분들이나 예방을 원하시는 분들 모드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대장암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치의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잘 듣는 것이다. 또 충분히 대장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br/> <br/> 이인규 교수는 “이런 건강수칙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끔하다. 수칙 가운데서 고기는 안 먹을 수가 없다. 특히 항암치료를 받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다. 고기를 먹되 소량씩, 기름기가 적은 부위로, 좋은 조리법을 선택해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교수는 “건강습관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건강한 정신상태도 중요하다.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br/> <br/>오준엽·전미옥 쿠키뉴스 기자 oz@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2-266.txt

제목: 직장암 치료방법 선택, 종양 크기 아닌 조직 침투정도 따라 결정  
날짜: 20170918  
기자: 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18225855001  
ID: 01100201.201709182258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직장암 치료방법은 종양 크기가 아니라 종양이 조직을 침투한 정도로 판단해 결정된다.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적절히 병행하지만, 근본 치료를 위해 외과수술이 시행된다. <br/> <br/> 직장암 수술 원칙은 종양을 중심으로 하며 원위부(종양의 아래쪽)와 근위부(종양 위쪽) 양방향으로 종양과 충분히 떨어진 곳까지 대장을 절제한다. 이와 함께 림프절도 광범위하게 절제한다. 직장암 수술은 암 위치에 따라 절제 범위가 달라진다. 직장은 편의상 상부, 중간부, 하부로 나뉜다. 암이 직장의 중부나 상부에 있을 때는 종양 위치에 따라 직장간막의 일부를 남겨주는 저위 전방 절제술을, 수술 술기 발전으로 초저위 전방절제술도 시행되고 있다. 복회음부 절제술은 20세기에 들어 직장암에 주로 시행되는 수술법이다. 직장 하부에 암이 있거나 괄약근 혹은 항문거근을 침범했을 경우 항문기능을 보존하지 못할 때 시행한다. <br/> <br/> 광범위 절제술 시행 후 회음부는 봉합하고 좌측 하복부에 영구적인 결장루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직장암의 경우 암 조직 제거 후 직장과 결장을 연결하기 위해 통상 저위 전방직장절제술이 주로 시행된다. <br/> <br/> ◇전방직장절제술에서의 로봇수술 확대=전방직장절제술은 크게 개복수술 및 복강경 수술, 로봇수술 등으로 진행되며, 암의 진행 정도와 암세포 위치에 따라 수술 방법을 결정한다. 기존의 개복수술 방식은 복부 아래쪽을 크게 절개해야 하는 반면, 복강경 전방직장절제술은 최소 절개로 치료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 복강경 수술은 ▶짧은 입원기간 ▶수술 후 통증 감소 ▶빠른 일상 생활 복귀 등의 이점 때문에 직장절제술에 대중적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기존 복강경 수술은 2차원 영상, 고정된 기기로 인한 조작의 한계 등 단점도 있었다. 이후 2002년에 다빈치 로봇 수술기기를 이용한 로봇수술이 직장암 분야에도 도입되면서 미세침습수술의 한 방법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br/> <br/> ◇정밀 수술 돋보이는 직장암 영역, 항문 보존에 탁월=수술의 정밀성이 치료 결과를 좌우하는 직장암 수술에서는 다른 암과 달리 암세포의 완전 절제뿐만 아니라 항문의 기능을 살리는 노력이 핵심이다. 항문이 없으면 평생 장루(인공항문)을 통해 배설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하는 단점이 있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br/> <br/> 로봇을 이용한 직장암 수술은 최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수술법이다. 로봇수술을 하면 수술기구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은 물론 3D 화면과 확대 기능이 있어 좁은 골반 안에 모여 있는 성기능과 배변기능을 보존하면서, 미세하게 암세포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봇 전방직장절제술의 잠재적 이점은 ▶출혈 감소 ▶통증 감소 ▶짧은 입원 기간 및 빠른 회복 ▶배변 기능 및 식이요법의 빠른 정상화 ▶절개 범위를 줄여 흉터 범위 축소 ▶개복술로의 낮은 전환율 ▶주요 합병증 감소 등이다. <br/> <br/>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songbk@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2-267.txt

제목: 유방암 환자 10년간 3배 증가… 조기발견이 최상 예방법  
날짜: 20170918  
기자: 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18225455001  
ID: 01100201.201709182254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암 중 갑상선암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암이다. 한국유방암학회가 발간한 ‘2016 유방암백서’에 따르면 국내 유방암 환자 수는 2012년 1만6615명으로 지난 10여 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예후가 좋은 만큼 정기적으로 나이에 맞는 검진을 받고, 위험요인을 평소에 잘 관리해야 한다. <br/> <br/> ◇유방암 환자의 증가 원인은? <br/> <br/>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수록 유방암 위험이 증가합니다. 에스트로겐은 생리 시작 후 본격적으로 분비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성조숙증으로 초경이 일찍 시작되고, 최근엔 늦은 결혼과 출산율 저하, 수유 감소 등으로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졌습니다. 고지방·고칼로리의 서구화된 식생활과 그로 인한 비만, 음주 등도 에스트로겐 분비를 촉진시켜 유방암 위험을 높입니다. <br/> <br/> ◇유방 통증이 있으면 암인가요? <br/> <br/> -유방암 환자의 5∼7%에서 유방 통증을 호소하지만, 유방암과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힘듭니다. 생리 시작 전이나 생리 기간 중에 유방 통증을 느낄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유방의 한 부분이나 한 쪽에만 통증이 느껴진다면 유방암을 의심할 수 있으며 전문의 진료를 권합니다. 통증 외에 유방암의 주요 증상은 멍울이나 묽은 피로 보이는 분비물, 유두와 유방의 부분 함몰, 겨드랑이에 림프절 혹이 만져지는 경우 등입니다. <br/> <br/> ◇유방촬영술과 초음파검사를 모두 해야 하나요? <br/> <br/> -유방암 진단에 필수적인 검사인 유방촬영술은 촉진과 초음파검사 등에서 발견이 어려운 미세석회화와 같은 조기암 병변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유방에 섬유질이 많은 젊은 여성이나 유선이 많이 발달되어 치밀한 유방조직인 경우 유방촬영 시 엑스레이가 잘 투과하지 못해 초음파 검사를 병행해야 합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혹이 확인되어 악성종양의 가능성이 큰 경우 조직검사를 하고, 정기적으로 추적검사를 합니다. <br/> <br/> ◇대표적인 치료법은 무엇인가요? <br/> <br/> -유방암 치료는 국소적치료와 전신치료가 있습니다. 국소적치료는 수술과 방사선치료가 있고, 전신치료는 항암치료와 호르몬요법, 표적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수술은 유방암 치료의 핵심으로 유방보존술과 유방절제술이 흔히 시행됩니다. 최근에는 수술 후 유방재건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술 외에 다른 치료들은 주로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사용됩니다. <br/> <br/> ◇수술로 완치 되나요? <br/> <br/> -10년 전부터 시작된 유방암 예방·홍보 캠페인으로 조기 검진하는 여성이 크게 늘면서 환자의 약 90%가 질환 초기인 0∼2기에 발견됩니다. 최근 국가암정보센터는 5년 생존율을 92%로 보고하였고, 원자력병원의 자체조사로도 5년 생존율은 0기 99.6%, 1기 97.6%, 2기 91.7%, 3기 75.3%, 4기 33.4%로 집계됩니다. 하지만 환자의 약 20%는 결국 재발을 경험하고, 이중 25%는 수술 후 5년 뒤에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후 5년이 지나도 재발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고 관리해야 합니다. <br/> <br/> ◇특별한 예방법이 있나요? <br/> <br/> -유방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한국유방암학회의 연령별 조기검진 권고안에 따르면 30세 이후 매월 유방 자가검진을 하고, 35세 이후 2년 간격으로 의사의 임상검진, 40세 이후 1∼2년 간격으로 임상진찰과 유방촬영을 합니다. 고위험군은 의료진과 상담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발병률이 높은 40대 이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암검진으로 2년에 한 번 유방촬영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합니다. 또한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 등을 통해 비만을 관리하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br/> <br/>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juny@kukinews.com <br/> <br/> <br/> <br/>\*도움말=원자력병원 유방암센터 김현아·성민기(외과) 과장

언론사: 국민일보-2-268.txt

제목: [희귀질환 희망찾기-‘연조직육종’] 암환자의 0.5%… 경제 중추 청장년에 많아  
날짜: 20170918  
기자: 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18205355001  
ID: 01100201.201709182053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희귀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들을 만났다. 그 중 장래희망이 검사인 연조직육종 환자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환자들에게 “<span class='quot0'>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어떠한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span>”고 말했다. <br/> <br/>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정부 발표에 희귀암인 연조직육종 환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연조직은 우리 몸에서 장기를 연결하는 부위 중 뼈와 피부를 제외한 근육, 인대, 지방 등 모든 부위를 말한다. 연조직육종은 이러한 연조직에 발생한 악성 종양이다. 팔다리, 두경부, 후복막 등 우리 몸의 여러 부위에 발생한다. 중앙암등록본부 암등록통계에 의하면 2014년 기준 국내 암환자의 0.5%에 불과한 희귀질환으로 질환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br/> <br/> 연조직육종 환자층은 다른 암과 달리 사회생활이 한창인 청장년이 많다. 특히 질환 진행과정에서 극심한 통증과 신체 붓기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환자들이 많다. 따라서 치료 단계에서부터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복귀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기관으로 전이가 일어나는 4기 연조직육종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0%대에 불과할 만큼 질환 위중도가 높다. <br/> <br/> 반면, 지난 5년(2010∼2014년)간 연조직육종 환자들의 5년 상대생존율은 오히려 악화됐다. 이는 치료 분야에 있어서 발전이 더딘 것이 원인의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꼽는다. 다행히도 최근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연조직육종 환자들에서 기존 항암치료제에 비해 생존기간 연장을 보인 신약이 개발돼 환자들에게 한 줄기 치료 희망이 되고 있다. <br/> <br/> 이에 대해 서울성모병원의 종양내과 이지은 교수는 “<span class='quot1'>연조직육종은 40여년 동안 이렇다 할 생존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못해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에게 있어서도 의학적 미충족 요구가 높은 희귀 암</span>”이라며 “<span class='quot1'>국내에서도 적은 환자 수만큼이나 질환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사회적으로 외면 받고 있지만 환자가 경험하는 통증은 상상 이상</span>”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지은 교수는 “<span class='quot1'>한창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에 발병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사회적인 관심과 보장장치가 필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1'>희귀질환은 신약 연구개발이 어려운 만큼 진행성 연조직육종처럼 희귀질환에서 치료효과 개선을 보인 신약이 있을 경우 이번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br/> <br/>songbk@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2-269.txt

제목: [센터탐방-건국대학교병원 수면센터] 복잡한 수면장애 “꼼짝 마!”… 5개과서 통합진료  
날짜: 20170918  
기자: 오준엽 쿠키뉴스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18205255001  
ID: 01100201.201709182052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수면장애는 복잡한 질환이다. 수면장애라고 총칭해 부르지만 불면장애, 기면증, 과다수면장애, 수면무호흡증, 수면보행증, 하지불안증후군, 일주기리듬 수면-각성장애 등으로 다양하다. 각각의 수면장애는 서로 다른 원인과 증상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잠이 든 후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발현되는 증상으로 인해 환자 스스로 수면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어렵고, 자신의 증상이 어떤 종류의 수면장애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더구나 증상을 알고도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할지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br/> <br/> 건국대학교병원에서는 적어도 어느 진료과에서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주로 수면장애를 치료하던 정신건강의학과와 이비인후과를 비롯해 신경과, 호흡기내과, 영상의학과가 ‘수면센터’라는 이름 아래 함께 진료를 하게 됐기 때문이다. <br/> <br/> ◇미국 수면센터 벤치마킹한 통합진료모델 도입=박두흠 수면센터장은 “<span class='quot0'>그간 전공과별로 단절돼 환자를 개별적으로 치료하다 필요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로 검사소견을 묻는 등의 소극적인 진료가 이뤄졌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는 수면센터를 통해 해당 과와 치료방향이나 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상호보완적 치료가 진행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 예를 들어 높은 용량의 혈압강하제를 먹어도 고혈압 수치가 잘 떨어지지 않는 환자의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해 약의 용량을 줄여도 혈압이 잘 떨어지도록 하는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br/> <br/> 건국대병원 수면센터 전홍준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조교수는 흔히 몽유병으로 알려진 수면 중 보행증과 같은 사건수면장애(램수면 행동장애) 환자들이 파킨슨병으로 이환될 확률이 높다고 밝혀진 사례를 소개하며, 다양한 원인과 증상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협진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r/> <br/> 아울러 미국의 유수 대학병원의 경우 수면센터를 중심으로 둔 통합진료체계가 갖춰져 있어 수면장애와 연관이 높은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을 함께 치료하고 있는 만큼 우수한 진료체계를 모델로 수면센터가 설립된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건국대병원 수면센터는 5개 진료과가 서로 환자의 치료계획을 함께 논의하고 검사결과와 치료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자신의 전공영역이 아닌 분야에 대한 최신 연구 성과와 치료결과 등을 공부하며 환자의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br/> <br/> 이와 관련 박 센터장은 “<span class='quot1'>현재 5개 과가 모여 상호 소통하는 센터의 기틀을 마련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향후 심장내과나 내분비내과와도 협진을 실시해 수면장애와 심근경색, 대사증후군과 같은 내과적 합병증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갈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 <br/> <br/> ◇“돈만 벌려면 센터 시작도 안했다”=그렇다면 수익적인 측면도 좋아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흑자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통합진료를 권장하며 관련 행위에 따른 추가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보조하고 있다. 일명 ‘통합진료수가’다. <br/> <br/> 그러나 통합진료수가를 받으며 여러 진료과가 함께 치료에 나서는 분야는 ‘암’이 거의 유일하다. 통합진료수가가 많지 않아 치료비용이 많이 드는 암치료여야만 여러 교수들이 한 자리에서 한 명의 환자를 위해 의견을 나누고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br/> <br/> 반면 수면장애의 경우 수면다원검사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이 들긴 하지만 진료비용 자체는 그리 높지 않다. 더구나 수면장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면상태에서 장시간의 관찰과 검사가 이뤄져야해 50∼60만원대 검사비용도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검사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건강보험급여로 보조해줄 것이라는 이야기도 신빙성 있게 나오고 있어 수면장애 치료에 부담을 느껴온 환자들의 심리적 장벽은 낮아질 전망이다. <br/> <br/> 이에 박 센터장은 “<span class='quot1'>수익만 생각했다면 여러 진료과 교수들을 센터로 모으긴 쉽지 않았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어떻게 보면 고유영역을 여러 전공이 나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수면장애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오준엽 쿠키뉴스 기자 <br/> <br/>oz@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2-270.txt

제목: [한마당-김준동] 냉동인간  
날짜: 201709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16180255001  
ID: 01100201.20170916180255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냉동인간은 SF 영화나 소설 속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다. 냉동인간이 된 상태에서 꾸는 자각몽을 그린 톰 크루즈 주연의 ‘바닐라 스카이’(2001년)나 냉동인간으로 보관되던 흉악범들이 풀려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담은 실버스타 스탤론 주연의 ‘데몰리션 맨’(1993년)이 대표적이다.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영화라 할 수 있다. 이런 꿈을 현실화하려는 시도가 잦아지고 있다. <br/> <br/> 중국에서 폐암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40대 여성이 최근 전신 냉동보존 수술을 해 화제다. 중국에서는 처음이다. 사망 직후 2분 내 체내에 항응고제, 항산화제 등이 주사됐고 체내 생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심폐 기능 지원 설비도 투입됐다. 신체는 2000ℓ의 액체질소로 채워져 영하 196도로 유지되는 특수 용기에 안치됐다고 한다. 냉동인간이 된 것이다. 이 여성과 30년 동안 부부 인연을 맺었다는 남편은 “<span class='quot0'>만일 어느 날 폐암을 치료할 의학기술이 생긴다면 아내가 냉동에서 깨어나 병이 치료됐으면 한다</span>”라는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에는 희귀암을 앓던 14세 영국 소녀가 죽기 직전 자신의 신체를 냉동 보관해줄 것을 허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끝에 냉동 캡슐에 보관되기도 했다. <br/> <br/> 냉동인간 1호는 이미 50년 전에 탄생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제임스 배드포드 심리학 교수는 1967년 1월 간암으로 죽기 직전 스스로 냉동인간이 되기를 원했고, 그의 사망 직후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다. 그로부터 5년 후 미국에서는 냉동인간을 만들어주는 비영리 법인 ‘알코르 생명 연장 재단’이 생겼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재단이 3곳이나 더 있다. 알코르 재단에 영하 196도 질소탱크에서 냉동 보존된 시신만도 배드포드 교수를 포함해 250여구에 달한다. 시신 1구당 보존비용은 20만 달러다. 가입된 회원도 1500여명이다. 먼 훗날 의학기술이 발전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토끼, 개구리 등 동물 해동에는 성공했지만 아직 냉동 보관된 인간을 해동한 사례는 없다. 그렇지만 알코르 재단은 “<span class='quot1'>우리는 희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제2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span>”이라고 자신한다. 과연 그런 날이 올까. <br/> <br/>글=김준동 논설위원, 삽화=이영은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271.txt

제목: 산모와 아이가 행복한 노원 산부인과, 메디아이여성전문 병원  
날짜: 201709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15180044001  
ID: 01100201.201709151800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도봉, 노원구에서 15년 동안 분만수 1위를 유지한 병원이 있다. 바로 노원구에 위치한 산부인과, 메디아이 여성전문 병원이다. 2002년 개원한 메디아이는 강북과 노원지역에 개원을 한 이래로 많은 여성들의 질 높은 삶을 위해 노력해 왔다. 삼성제일 병원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한 여러 교수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이미 유명한 곳이다. <br/> <br/>메디아이는 임산부 진료뿐 아니라, 전문 클리닉을 운영, 불임과 습관성 유산, 그리고 갱년기 골다공증 등 진료에 세심한 진료를 기울인다. 특수 클리닉도 함께 운영되며 부인과 성형 및 암의 조기진단, 질환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br/> <br/>메디아이는 간호조무사 없이 12명의 간호사가 산모의 분만을 책임지고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의도 15명이나 포진해있어, 노원, 도봉, 강북을 통틀어 최다 의료진 구성으로, 전문 의료진이 과별로 전문 치료를 도맡아 준다. <br/> <br/>특히나 다수의 전문의 배치로 노원 강북 지역 최고의 시험관 수술 및 임신 성공률로 최고의 불임센터로 성장하기도 하였다. 부인과 내시경 수술도 1만3천건 이상 달성하여 차별화된 자궁근종, 복강경 수술 전문 병원이라는 칭호 또한 얻었다. <br/> <br/>분만 시에는 100%무통분만을 실시하며, 3명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원내에 항시 상주하고 있다. 분만법은 르봐이예 분만법을 이용하는데, 프랑스에서 창안된 이 분만 법은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아이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분만 법이다. 분만실에 낮은 조도의 조명으로 산모와 아기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의료진 역시 침묵하여 엄마 자궁 속처럼 평화롭고 아늑하게 분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온 아기의 최대한의 시력보호와, 청각, 그리고 호흡에 대한 배려를 해 주변 환경을 섬세히 조성시키는 것이다. <br/> <br/>메디아이는 출산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임산부를 위한 산모교실, 요가교실, 산후 조리원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 이곳에서 출산한 산모들의 카페와 블로그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br/> <br/>한편, 병원 홈페이지에서는 출산후기 및 감사후기를 적으면 소정의 상품(검진권 혹은 영양제 등)을 증정한다. 메디맘 공식 카페에서도 가입이나 로그인후, 출산후기란에 생년월일 앞자리와 연락처, 이름을 기재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메디아이여성병원 홈페이지 혹은 카페 및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r/> <br/>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72.txt

제목: [교회와 공간] 몸과 마음이 허전할 때 주기도문 산책길 걸어보실래요?  
날짜: 20170915  
기자: 양평=노희경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15000055002  
ID: 01100201.20170915000055002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세 개의 구멍에 나쁜 것이 산처럼 쌓이면 암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목 코 귀입니다. 목구멍은 음식을 섭취하는 식습관을 의미합니다. 코는 온갖 발암물질을 호흡하는 구멍을 말하며, 귀는 스트레스를 받는 구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에 오릅니다. 콧바람을 쐴 수 있고 귀로는 온갖 풀벌레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3000보를 걷고 난 뒤 우리 농산물로 가득한 건강 밥상 한 그릇을 먹고 나면 영혼이 춤을 출 것입니다. 그럼에도 걷는 게 주저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주기도문을 골방에서 가르치셨나요, 회당에서 가르치셨나요, 아니면 어디였나요. 산으로 나갑시다.” <br/> <br/> 최근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W스토리에서 ‘주기도문 영성의 길’을 오르기 전 하이패밀리 대표 송길원 목사가 순례자들에게 건넨 말이다. 그리고 순례자들은 송 목사를 따라 2.1㎞에 이르는 주기도문 산책을 떠났다. <br/> <br/> 송 목사는 W스토리 종교개혁500주년기념교회 뒤편에 있는 산을 ‘바이블 마운틴’으로 불렀다. 5년에 걸쳐 약 9만9200㎡(3만평)의 바이블 마운틴에 천지창조부터 최후의 심판까지 등 7가지 이야기를 담아 주기도문 길을 조성했다. 곳곳에 그림이나 조각물을 배치했다. 1000여개의 도자기 조각으로 만든 대형 십자가(윤석경 작)는 마치 주님의 말씀을 새겨놓은 듯 장엄하다. 180개의 타일 조각으로 그려진 ‘만종’ 작품(이인영 작)에선 200년을 뛰어넘어 밀레가 타일 아티스트로 다가온 듯하다. 이 길에선 영성 가득한 미학의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br/> <br/> 하이패밀리는 월·화·수·토요일 오전 오후로 나눠 ‘주기도문 해설사와 함께하는 산책’을 운영한다. 목요일엔 파이프오르간 연주와 함께하는 코스로, 금요일 저녁엔 숲 속 기도회와 함께하는 주기도문 산책도 진행한다. <br/> <br/>양평=노희경 기자, 그래픽=이영은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273.txt

제목: 이화여대의료원, 마곡 새 병원 3인실 위주 병실환경 구축  
날짜: 20170913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13171544001  
ID: 01100201.201709131715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이 서울 마곡지구에 새로 짓고 있는 이대서울병원의 병실을 환자 편의 도모를 위해 1인실 위주의 중환자실을 제외하고 모두 3인실 이하로 구성하겠다고 재천명했다. 4~8인실을 없애겠다는 얘기다. <br/> <br/>심봉석(사진 왼쪽) 신임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정혜원 병원장과 함께 13일 취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대서울병원’의 세부운영계획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이대서울병원의 성공적인 개원과 조기 정착을 최우선 경영과제로 삼을 각오라고 말했다. <br/> <br/>이대서울병원은 이화의료원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새로 짓고 있는 전문센터 중심의 상급종합병원이다. 2015년 1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현재 건축 공정률은 34.6%다. 내년 9월까지 완공하고, 진료는 2019년 2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br/> <br/>총 1014병상 규모의 이 병원은 국내 대학 병원중 처음으로 기준 병실 3인실, 전 중환자실 1인실 등 새로운 병실 구조로 설계, 감염관리에 취약한 우리나라 병원 진료 시스템은 물론 의료 문화 자체를 바꾸는 데 앞장서겠다고 착공 단계부터 선언해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br/> <br/>이대서울병원은 3인실 606병상, 2인실 72병상, 5·10인실(특수 병실: 준중환자실, 뇌졸중집중치료실) 60병상, 1인실 129병상, 특실(VIP실, VVIP실) 51병상, 중환자실 96병상 등으로 구성된다. <br/> <br/>일반 병실의 병상당 면적을 10평방미터 이상으로 높인 것도 병실 환경 개선 면에서 눈길을 끈다. 이 병원은 3인실의 병상당 면적도 10.29㎡로 의료법상 1인실의 병상당 기준면적 6.5㎡보다 배가까이 넓다. <br/> <br/>2인실과 1인실 병상당 면적은 각각 15.43㎡, 20.72㎡로 설계됐다. <br/> <br/>심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0'>3인실을 1인실 2개로 변경이 가능한 가변적 구조로 설계, 2019년 개원 후 의료 환경 및 제도나 환자 니즈(Needs) 변화, 개원 후 병상 가동률 추이 등에 맞춰 1인실 전환 방안도 탄력적으로 검토할 생각</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심 의료원장은 이어 5대 암, 심뇌혈관질환, 장기이식, 척추질환 등 고난이도 중증질환 치료 중심병원으로 특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r/> <br/>한편 이화여대의료원은 이대서울병원 건립과 함께 국내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인 보구여관(普救女館) 복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br/> <br/>1887년 설립돼 올해 130주년을 맞는 보구여관은 이대서울병원 및 의과대학 부지에 복원되며, 이대서울병원과 함께 2018년 9월 완공된다.  <br/> <br/>이화여대의료원은 국내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인 보구여관의 외형뿐만 아니라 ‘질병과 인습으로 고통 받던 여성을 널리 구하라’는 설립 정신과 의미도 복원해 국내 최초의 여의사와 간호사를 배출한 대한민국 여성 의료 및 간호 역사의 상징으로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br/> <br/>심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0'>의료 서비스의 기본은 진료이고, 진료는 실력이 우선되어야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최상의 치료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환자 중심 진료 시스템 개발과 병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74.txt

제목: 암환자 상당수, ‘자신상태’ 잘 모른다  
날짜: 20170913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13103044001  
ID: 01100201.201709131030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환자 10명 중 4명은 자신의 병기를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완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10명 중 6명은 담당 의사의 기대 수준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암환자와 의료진 사이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br/> <br/>삼성서울병원은 암치유센터 신동욱( <br/>사진) 교수와 충북대병원 충북지역암센터 박종혁 교수 연구팀이 국립암센터 등 전국 13개 암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와 보호자 750쌍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13일 밝혔다. <br/> <br/>연구팀은 우선 담당 의사들에게 각 환자의 병기, 치료 목표, 그리고 완치 가능성을 물었다. 이와 함께 환자와 가족 보호자1명씩에게도 같은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여 의료진 대답과 얼마나 일치하는 지 비교했다. <br/> <br/>그 결과 암의 진행 상태를 의미하는 ‘병기(病期)’에 대해 환자 63.0%, 보호자 65.9%만이 의사의 답변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와 보호자 모두 10명 중 6명만이 병의 진행 상태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의미다(그림 참조). <br/> <br/> <br/>치료 목표를 두고서도 엇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현재 받고 있는 치료가 완치를 위해서인지 증상을 완화하거나 여명을 늘리기 위한 치료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각각 69%와 70.0%으로 집계됐다. <br/> <br/>특히 완치 가능성을 두고선 환자와 보호자와 의료진의 답변이 크게 엇갈렸다. 환자와 보호자 각각 41.4%와 45.1%만이 의료진과 같은 기대 수준을 보였다. 나아가 환자와 보호자들은 의사들보다 상황을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치료결과에 대해서도 보다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br/> <br/>의사와 달리 답했던 환자와 보호자 대다수가 진단 결과보다 병기를 낮춰 말했고, 완치 가능성 역시 의료진보다 낙관적으로 기대했다. <br/> <br/>이처럼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사이에 병을 치료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를 서로 달리 알고 있는 이유는 결국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br/> <br/>의사는 진료실에서 환자의 기분을 고려해 완곡하게 표현하거나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 암이 상당히 진행된 환자가 미리 낙담해 스스로 치료를 포기할 것을 우려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꺼리는 경우도이러한 현상을 부추긴다. <br/> <br/>반대로 의사가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환자나 보호자 스스로 이를 못 받아들일 때도 있다. 게다가 의학적 지식이 충분치 않다 보니 설명을 듣더라도 자기식으로 해석하면서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br/> <br/>신 교수는 “<span class='quot0'>암치료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본인의 기대와 희망을 투영해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span>”면서  <br/> <br/>“<span class='quot1'>이런 태도는 투병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확한 상태를 모르면 치료 효과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기도 힘들고 위험한 치료를 선택하는 등 환자가 더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span>”고 지적했다. <br/> <br/>박 교수는 “<span class='quot2'>우리나라는 의사의 진료와 상담에 대해서 정부에서 충분히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짧은 진료시간에 많은 환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것</span>”이라며  <br/> <br/>“<span class='quot1'>암환자들의 주요 고비점 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담과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 <br/>연구결과는 정신과 종양관련 국제 학술지 ‘사이코 온콜로지’ 최근호에 게재됐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75.txt

제목: 야당 지지한 영화감독 52명 전원 ‘블랙 리스트’에  
날짜: 20170912  
기자: 최승욱 정건희 김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12213655001  
ID: 01100201.20170912213655001  
카테고리: 정치>정치일반  
본문: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개혁위)가 11일 공개한 ‘원세훈 국정원’의 ‘좌파 예술인 리스트’에는 모두 82명의 유명 배우, 방송인, 영화감독, 작가, 정치평론가들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br/> <br/> 구체적으로는 방송인 김미화 김구라 김제동 등 8명, 가수 윤도현 신해철 김장훈 등 8명, 배우 문성근 명계남 김민선 등 8명, 작가 이외수 조정래 및 정치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 등 문화계 인사 6명 등이다. 특히 영화감독이 52명이나 됐는데, 영화 ‘올드보이’로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과 영화 ‘괴물’의 봉준호 감독, ‘박하사탕’을 만든 이창동 감독 등이 포함됐다. 개혁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당시 야당(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영화감독 전부가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고 보면 된다</span>”고 전했다. <br/> <br/> 국정원의 ‘좌파 연예인 탄압 활동’은 2009년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로 시작됐으며, 국정원은 ‘대통령에 대한 언어테러로 명예를 실추’ ‘좌(左)성향 영상물 제작으로 불신감 주입’ ‘촛불시위 참여로 젊은층 선동’ 등을 탄압 이유로 내세웠다. <br/> <br/> 국정원은 이들을 집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혔다는 게 개혁위의 설명이다. 국정원은 2009년과 2011년 특정 연예인이 소속된 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도했다. 또 2010년 10월에는 연예인 김모씨를 모델로 기용한 광고주에 이메일을 보내 광고모델 교체를 시도했다. 또 특정 PD가 제작을 주도한 다큐멘터리 작품을 ‘방송대상’ 수상작에서 탈락시킬 것을 요청했고, 특정 인사를 A국제영화제 차기 위원장 후보에서 배제시켰다. 국정원은 ‘광우병 촛불집회’에 적극 가담한 연예인을 A급(15명), 단순 동조자는 B급(18명)으로 분류해 A급 연예인은 연예활동에 대한 실질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B급은 계도 조치했다. <br/> <br/> 국정원은 특히 MBC를 상대로 ‘작전’을 많이 펼쳤다. 방송인 김미화씨가 진행하던 MBC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를 교체했고, 김제동씨가 출연한 MBC 프로그램 ‘환상의 짝궁’도 폐지시켰다고 개혁위가 전했다. 김재철 전 MBC 사장과 MBC 노동조합이 대립하던 2010년 3월에는 MBC를 대상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의 출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이들이 출연한 프로그램의 폐지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때 원 전 원장의 지시로 ‘MBC 정상화 전략’이 세워졌다. 원 전 원장은 SBS에도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자제를 요구했다. <br/> <br/> 국정원 심리전단은 온라인에서도 이들을 상대로 한 ‘종북 심리전’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심리전의 주 내용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게시판 ‘아고라’에 특정 연예인의 교체가 당연하다는 내용의 토론글과 댓글 500여건 게재, 특정 연예인 이미지 실추 유도, 특정 연예인의 이적행위 폭로 등이다. 심리전단은 또 ‘문화·연예계 종북세력이 암적 존재’라는 내용을 부각시킨 인터넷 댓글과 이른바 ‘지라시’로 불리는 사설 정보지 형태의 문건을 적극 유포하기도 했다. <br/> <br/> 정보당국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좌파 연예인 대응TF는 2010년 김주성 기조실장 퇴임 이후 활동이 흐지부지됐고, 박근혜정부까지 이어지진 않았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1'>박근혜정부에서의 (연예인 탄압) 활동은 별도로 조사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 개혁위는 일단 원 전 원장과 ‘좌파 연예인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던 김 전 실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br/> <br/> 최승욱 정건희 김판 기자applesu@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76.txt

제목: “니코틴 더 많이 흡수하는 멘톨담배, 법률로 규제해야"  
날짜: 20170910  
기자: 김동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10105444001  
ID: 01100201.20170910105444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담배에 박하향(멘톨)을 비롯해 일부 가향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향물질이 담배 맛을 개선시킨다는 명목 아래 중독을 심화시키고 독성을 강화해 흡연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br/> <br/>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멘톨담배와 초콜릿담배 등 ‘가향 담배’에 들어가는 가향물질과 관련한 법적 규제는 거의 없다. 건강증진법(제9조 3항)에서 가향물질이 담배에 함유돼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br/> <br/>지난 1월 질병관리본부가 가향담배의 일종인 캡슐 담배의 가향 성분을 분석한 결과, 29종의 캡슐 담배에서 총 128종의 가향성분이 검출됐다. 대표적 가향물질인 멘톨은 모든 캡슐 담배에서 발견됐다. <br/> <br/>말단 신경을 마비시키는 멘톨은 담배 연기를 흡입할 때 느껴지는 자극을 줄여준다. 이는 흡연자가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 타르 등 유해물질을 더 많이 흡수하게 해 중독 가능성과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br/> <br/>국회입법조사처는 멘톨 등 담배 제조에 사용하지 못하게 할 가향물질의 종류를 정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프레시(fresh)' '아이스(ice)' 등 직접 향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재 담배 포장지에 표시할 수 있는 문구 역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한 담배라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br/> <br/>호주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과일향이나 바닐라, 초콜릿 등 특정 향이 포함된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규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담배규제기본협약을 통해 담배 맛을 높이고자 사용하는 성분을 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br/> <br/>김동운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277.txt

제목: 최성국 꼽은 ‘최고의 배우’ 故 유채영… 3년 전 위암으로 떠난 팔방미인  
날짜: 20170908  
기자: 이담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08162744001  
ID: 01100201.20170908162744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모델이자 가수, 연기자였던 故 유채영이 검색어에 올랐다. 유채영을 검색어 상위로 끌어올린 것은 배우 최성국이었다.  <br/> <br/>최성국은 8일 ‘구세주: 리턴즈’ 관련 인터뷰에서 최고의 상대역으로 유채영을 꼽았다. 최성국은 이어 2007년 ‘색즉시공 시즌 2’에 함께 출연했던 유채영을 그리며 “되돌아봐도 제게는 최고의 상대였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br/> <br/>잡지 모델로 연예계에 발을 들인 유채영은 그룹 ‘푼수들’로 데뷔했다. 이후 1994년 ‘쿨’의 보컬로 합류한 그는 많은 이들의 여름을 책임졌다. 1999년 솔로 활동이 끝나자 연기자로 탈바꿈하여 드라마, 영화 등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보였다. <br/> <br/>유쾌한 에너지가 넘쳤던 그는 2013년 10월 건강검진에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방송과 함 암 치료를 병행했지만 2014년 7월 24일, 41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야 했다. <br/> <br/> <br/> <br/>유채영의 남편은 팬카페의 ‘달력은 넘어가는데 내 시간만 멈춰있는 거 같아’ 등의 편지를 올려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기도 했다. <br/> <br/>이담비 인턴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278.txt

제목: 레지오넬라증 신고 58% 급증… 병원-주택 온수·목욕탕 ‘조심’  
날짜: 20170908  
기자: 최예슬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08183955002  
ID: 01100201.2017090818395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7∼8월 목욕탕 요양병원 등에서 물을 통해 감염되는 레지오넬라증 신고가 120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57.9%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br/> <br/> 레지오넬라증을 일으키는 레지오넬라균은 병원·공동주택의 온수, 목욕탕, 노인복지시설 등 생활시설의 냉각탑·욕조수에서 증식한다. 레지오넬라균은 호흡기로 흡입돼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레지오넬라증의 치사율은 10%다. <br/> <br/> 레지오넬라증 신고건수는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13년 21건이던 신고건수는 2014년 30건, 2015년 45건, 지난해에는 12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120건이 발생했다. 레지오넬라균은 높은 온도에서 왕성하게 번식하기 때문에 여름철 폭염이 이어졌던 지난해와 올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br/> <br/> 질본이 2011년부터 6년간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신고건수 266건을 분석한 결과, 환자의 82.5%(218건)는 50세 이상이었고, 당뇨·암·만성폐쇄성폐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80.5%(214건)이었다. <br/> <br/> 레지오넬라균 검출률이 가장 높은 장소는 온천(13.0%)으로 나타났고 찜질방(11.7%) 대형목욕탕(10.9%) 등이 뒤를 이었다. <br/> <br/> 질본은 “건물의 냉각탑과 욕조수 등을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게 중요하다”며 “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최예슬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279.txt

제목: [사설] 더 과감한 규제개혁 필요하다  
날짜: 201709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08173855001  
ID: 01100201.20170908173855001  
카테고리: 경제>국제경제  
본문: 문재인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이 나왔다.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모든 규제를 풀어주되 사후에 문제가 되는 것만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고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선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해 완화하고 국민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보건·복지, 주거·건설, 도로·교통, 교육·보육, 문화·체육 등 5대 분야의 규제도 중점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소득주도 성장만 강조해온 문재인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하다. <br/> <br/> 신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것은 기대할 만하다. 규제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하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이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2015년 최초로 시도했다. 일본은 2013년 국가전략특구에 이어 지난 5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묶여 사업이 지연된 자율주행차, 드론, 맞춤형 헬스케어를 대상으로 미리 규제를 찾아내 정비하겠다는 것도 업계가 반길 만한 조치다. 그러나 이 정도 규제를 푸는 것으로 저성장 덫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br/> <br/> 이명박정부는 ‘전봇대 규제를 뽑겠다’고 했고 박근혜정부는 ‘암덩어리’, ‘손톱 밑 가시’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기업들이 돈 싸들고 투자할 만한 규제는 풀어주지 못했다.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부닥쳐 정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 탓이다. 금융·의료·교육·관광 등 노무현정부 때 수립된 서비스산업 육성 계획이 십수년째 공전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소비자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원격진료는 의료법·약사법에 막혀 10년째 시범사업만 하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S8에 들어간 헬스케어 앱도 국내에선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기업들이 투자할 분야를 꽁꽁 묶어두는 것은 모순이다. 이 참에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br/> <br/> 때마침 기획재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피터슨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쏟아진 학자들의 고언은 우리나라가 새겨들을 만하다.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span class='quot0'>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과 금융시장, 상품시장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span>”고 일갈했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발전이 미흡하고 규제 수준이 높아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더 과감한 규제 혁파가 절실한 이유다.

언론사: 국민일보-2-280.txt

제목: H+양지병원, 면역항암제 투약기관으로 지정됐다  
날짜: 20170907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07112944001  
ID: 01100201.20170907112944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차세대 암 치료제로 꼽히는 ‘면역항암제’ 처방을 대학병원이 아닌, 개인 종합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br/> <br/>서울 관악구 소재 에이치플러스(H+) 양지병원(병원장 김상일)은 6일 개인종합병원으로는 유일하게 면역항암제 급여 투약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br/> <br/>이번에 면역항암제 급여 투약 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의 주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 92개 상급의료기관이다.  <br/> <br/>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면역항암제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혜택으로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대폭 낮아졌다.  <br/> <br/>H+양지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선혜( <br/>사진) 과장은 “<span class='quot0'>면역항암제는 기존 치료제 대비 부작용이 적고 효과 지속 기간도 긴 치료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고가여서 환자들의 접근성이 낮았던 문제가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보다 큰 치료효과를 보게 되길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br/> <br/>면역항암제, 체내 면역체계 활용…기존 항암제 대비 부작용 적고 효과 지속기간이 길어 <br/> <br/> <br/>면역항암제는 기존 항암제처럼 약물이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환자의 왜곡된 면역체계를 복원해 면역세포가 암 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방식이다.  <br/> <br/>암세포는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체내 면역체계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면역세포를 왜곡하고, 이로 인해 면역세포가 암을 공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br/> <br/>면역항암제는 이러한 암세포의 면역회피기능을 제거,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든다. 결국 화학항암제보다 부작용은 적으면서도 유전자 돌연변이 유무와 관계없이 항암효과를 나타내며, 1,2세대 항암제에서 보여주지 못한 지속 가능한 항암효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br/> <br/>다만 면역항암제는 항암제에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아직 완전하지 않고, 치료 초기 질병이 진행하는 양상을 띄는 경우도 있어 경험 있는 의료진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br/> <br/>또 다른 단점은 부작용이다. 면역항암제는 기존 항암제보다 부작용이 적다고 하지만, 약의 특성 상 독특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면역항암제는 체내 면역체계를 정상화,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암을 치료하기 때문에 뜻밖의 면역세포 과잉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br/> <br/>이 경우 갑상선염, 당뇨, 폐렴, 간염, 장염 등 다양한 면역 관련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때문에 혈액종양내과를 비롯해 감염내과 혹은 내분비내과, 병리과, 응급의료센터 등이 갖춰진 병원에서만 면역항암제 처방이 가능하다. <br/> <br/> 올 8월부터 92개 병원 통해 보험급여 적용, 점차 활용 범위 넓어질 것 <br/> <br/>면역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8월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면역항암제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로 지적되던 가격부담이 크게 줄어들어들게 됐다. ‘문재인 케어’에 의하면 약에 따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50만원~ 490만원 선이다. 종전 약값 대비 약 5% 수준이다. <br/> <br/>다만 환자들은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면역항암제 투약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면역항암제에 대한 사용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만큼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br/> <br/>특히 흑색종과 비소세포폐암을 제외한 암의 오프라벨(허가외 사용)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다학제 심사위원회가 갖춰진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br/> <br/>김 과장은 “<span class='quot1'>면역항암제는 암 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나 어떤 환자들이 효과를 볼 지에 대해 판별하여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1'>향후 수 년 내 많은 암환자들의 치료효과를 확신하기 위한 임상연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절실하다</span>”고 말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81.txt

제목: 중요한 날, '낡고 헤진 셔츠'만 입는 아버지 사연  
날짜: 20170906  
기자: 박효진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06184844001  
ID: 01100201.20170906184844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span class='quot0'>아버지, 왜 항상 같은 옷만 입으세요?</span>” <br/> <br/>딸은 늘 궁금했다. 아버지는 가족에게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여행을 갈 때면 항상 헤지고 빛바랜 녹색 셔츠를 꺼내 입었다. 오래된 이 셔츠에 구멍이라도 나면 직접 한 땀 한 땀 꿰매곤 했다. “<span class='quot0'>그 낡은 옷 좀 그만 입으라</span>”고 핀잔을 줘도 아버지는 이 셔츠를 늘 소중하게 보관했다. 일본인 리아씨가 트위터에 올려 화제가 된 아버지의 이야기다. <br/> <br/>리아씨는 항상 똑같은 셔츠를 챙겨 입는 아버지를 의아하게 생각했다. “어떤 사연을 가진 옷일까?” 늘 궁금했던 그는 지난 1월, 이 셔츠에 숨은 이야기를 알게 됐다. <br/> <br/> <br/> <br/>리아씨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앨범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이 셔츠를 입고 있었다. 옆에서 미소 짓고 있는 어머니 역시 색깔만 다를 뿐 같은 셔츠의 옷을 입고 다정하게 포즈를 취했다. <br/> <br/> <br/> <br/>그제야 리아씨는 아버지의 낡은 셔츠의 비밀을 알게 됐다. 어머니는 18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차마 어머니와 추억이 담긴 이 옷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그동안 아버지가 왜 항상 같은 티셔츠를 입었는지 궁금했다. 낡고 촌스럽게만 생각했던 아버지의 셔츠에 어머니와의 특별한 추억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br/> <br/> <br/> <br/>리아씨는 지난8월 트위터에 이 낡은 셔츠에 담긴 사연을 공개했다. 30만 명의 네티즌은 ‘좋아요’를 눌러 공감을 표시했다. 리아씨는 “<span class='quot1'>항상 오래되고 낡은 그 셔츠를 입는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나 역시 어머니에 관한 기억을 돌아보게 됐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 관한 중요한 물건들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82.txt

제목: [겨자씨] 신앙과 지식  
날짜: 201709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06000056004  
ID: 01100201.20170906000056004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한국 인삼은 세계적인 인기 상품입니다. 수십 년 전 한국에서 인삼을 선물 받은 미국인 의사가 인삼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별다른 의학적 효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삼이 대단한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국인들을 미신에 사로잡혔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당시 지식의 한계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깊은 연구가 진행돼 인삼은 자양강장제로서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홍삼은 암에 대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주목을 받습니다. <br/> <br/> 셰익스피어는 “<span class='quot0'>무지는 신의 저주이며, 지식은 천상에 이르는 날개</span>”라고 했습니다. 현대 지식의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식으로 여전히 밝히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것을 단순히 미신이라 비웃지 말아야 합니다. <br/> <br/> 우리에게 신앙과 지식은 모두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고 말했습니다.(고전 14:15) 바울은 영적 신앙과 이성적 지식을 모두 활용해 기도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신앙은 맹목적이지 않고 이성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지식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영이며 신비입니다. <br/> <br/>글=한상인 목사(광주순복음교회), 삽화=이영은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283.txt

제목: [단독] 30갑년 ‘골초’ 1500명 중 폐암 2명·의심 47명… 검진 시범사업서 확인  
날짜: 20170906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06230055001  
ID: 01100201.201709062300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CT(컴퓨터단층촬영) 검진 시범사업 4개월여 만에 2명의 폐암 환자가 확인됐다. 47명은 폐암이 의심돼 확인 검사를 진행 중이다. <br/> <br/> 5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충남대병원에서 폐암 검진 시범사업에 참여한 이모(72)씨와 박모(59)씨가 지난달 폐 선암으로 최종 판정받았다. 이씨와 박씨는 모두 30년 이상 매일 담배를 피워왔다. <br/> <br/> 정부는 지난 4월 말부터 30갑년(1갑년=하루 1갑씩 365일 흡연량) 넘게 담배를 피워온 만 55∼74세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국가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br/> <br/> 이씨는 20대부터 하루 평균 15개비씩 약 40년간 담배를 피워 30갑년(0.75×40)의 흡연력을 가졌다. 지난 7월 초 충남대병원에서 일반 흉부 CT에 비해 방사선 노출량이 5분의 1 수준인 저선량 CT를 찍은 결과 오른쪽 폐에 1.2㎝ 크기의 암이 발견됐다.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CT)과 자기공명영상(MRI) 등 2차 검사와 조직검사를 통해 지난달 중순 폐 선암 1기 판정을 받았다. 다행히 암이 다른 장기로 퍼지지는 않았다. 이씨는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옮겨 8일쯤 수술받을 예정이다. <br/> <br/> 하루 1갑씩 35년간 담배를 피워온 박씨 역시 검진에서 왼쪽 폐에 1.1㎝ 암이 발견됐고 지난달 29일 폐 선암을 확진받았다. 오는 14일 정확한 병기(病期)와 전이 여부를 알기 위해 추가 검사를 받는다. 박씨는 “젊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웠는데, 지금은 후회된다. 한 달 전에 담배를 끊었다”고 했다. <br/> <br/> 폐암은 암 가운데 사망률이 가장 높다. 5년 생존율은 두 번째로 낮다. 폐 말단 부위에 생기는 선암은 흡연과 연관성 높은 비소세포암의 한 유형이다. 최근 여성이나 비흡연자에게도 증가하는 추세다. 폐암의 80∼85%를 차지하는 비소세포암은 일찍 찾아내 수술받으면 완치 가능성이 높다. <br/> <br/> 복지부는 국립암센터와 9개 지역암센터(충남대 부산대 울산대 강원대 아주대 칠곡경북대 화순전남대 제주대 가천의대길병원), 서울대병원 등 11곳에서 1500여명을 무료로 검진했다. 연말까지 8000명을 검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1년 더 추가 시범사업을 벌여 폐암 검진의 비용 효과성과 위해성, 조기발견율 등을 평가한 뒤 2019년부터 국가 암검진으로 본격 도입할 방침이다. <br/> <br/> 김열 국립암센터 암관리사업부장은 “<span class='quot0'>암 검진자 중 흡연자는 10%도 안 될 정도로 검진을 잘 안 받는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흡연자에게 폐암 검진 의사를 물어보면 대부분 증상이 없어 필요없다거나 시간이 없고 겁이 난다는 등 이유로 거부하기도 한다</span>”고 말했다. 이어 “폐암은 증상이 나타날 때면 치료가 어려운 3기 이상인 경우가 많다”면서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다면 증상이 없어도 폐암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암의 조기(1, 2기) 발견율은 2014년 기준 22.2%다. 위암(62.2%) 유방암(58.6%) 대장암(36.1%)보다 낮다. 3기를 넘기면 75% 이상이 5년 안에 목숨을 잃는다. <br/> <br/>글=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삽화=공희정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284.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126) 서울성모병원 암병원 간담췌암센터] 간·담도·췌장암 극복 도와  
날짜: 20170905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05172755001  
ID: 01100201.201709051727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서울성모병원 암병원 간담췌암센터는 임상강사를 포함해 교수급 의료진 35명이 다양한 치료방식을 조합, 한마음으로 간·담도암과 췌장암 환자들의 암 극복을 돕고 있다. <br/> <br/> 소화기내과 윤승규(암병원장) 교수팀과 간담췌외과 유영경(센터장) 김동구 교수팀을 비롯해 종양내과 이명아 교수팀, 영상의학과 나성은 최준일 이영준 교수팀, 인터벤션영상의학과 이해규 천호종 교수팀, 방사선종양학과 장홍석 교수팀 등이 그들이다. <br/> <br/> 이들은 간암의 진행 정도, 간 기능, 환자의 몸 상태를 보고 최적의 개인맞춤 치료법을 찾아주기로 입소문이 난 지 오래이다. 보통 암세포 크기가 5㎝ 미만이고, 한 개밖에 없을 때는 외과적으로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 간경변증이 동반된 환자는 간이식 수술로 완치를 도모한다. <br/> <br/> 문제는 간암으로 이 센터를 찾는 환자 중 간 절제수술이나 간이식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20%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나머지는 간 좌·우엽에 종괴가 여러 개 존재해 수술이 어려운 경우, 아니면 간 기능이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라 수술을 한다고 해도 수술 후 남은 간 기능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윤승규 유영경 교수팀은 이같이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다른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절체절명 간암 환자들의 생존기간을 극대화시켜주는 의사들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br/> <br/> 생존율 향상 신기술 선도적 연구 <br/> <br/> 한 예로 다발성 간암이거나 종괴 크기가 3㎝ 이상일 때는 인터벤션영상의학과 이해규 천호종 교수팀에 의뢰해 간암 퇴치 수단으로 간동맥화학색전술을 활용케 하거나 항암제 또는 항암성분을 방출하는 미세구슬요법 또는 방사선색전술로 완치를 도모한다. <br/> <br/> 천 교수팀은 항암제(독소루비신)를 담은 100∼300μm 크기의 미세구슬을 간암 종괴 주변 혈관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미세구슬요법의 선두주자다. 연구결과 이 구슬요법은 절제수술이 불가능한 난치성 간암 환자들의 생존기간을 평균 7개월 연장하고 치료 중 사망률도 3분의1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량 항암제를 한 번에 투여하는 기존 색전술에 비해 전신 독성을 낮춘 상태에서도 종양 내 농도를 높게 유지시켜 암 조직만 선택적으로 죽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br/> <br/> 천 교수팀이 2011년부터 시작한 방사선색전술은 이보다 효과가 더 좋다. 방사선색전술이란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동위원소 ‘이트륨(Yttrium)-90’을 간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간동맥에 주입, 간암세포의 괴사를 도모하는 치료법을 가리킨다. 종괴가 큰 거대 종양이나 고령 환자에서 전신 부작용 위험 없이 단번에 암 증식 억제 및 퇴치효과를 6개월 이상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치료법의 장점이다. <br/> <br/> 간암 환자 간이식 수술 1000건 돌파 <br/> <br/> 서울성모병원 감담췌외과 김동구 유영경 교수팀은 지난 4월, 간이식 수술 1000건을 돌파했다. 간이식은 가장 적극적인 간암 치료법으로 간주된다. 암에 걸려 못쓰게 된 간암 환자의 간을 모두 떼어내 버리고 뇌사자가 기증한 건강한 간 또는 정상인의 간 일부를 이식, 간암을 극복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br/> <br/> 일반적으로 공여자가 뇌사자인 경우는 간 전체를 환자에게 이식해주고, 정상인인 가족 친지가 생체 간 일부를 기증할 때는 주로 우엽(右葉)만 떼어 부분 이식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br/> <br/> 현재 유 교수팀의 간이식수술 성공률은 95%에 이른다. 국내 대학병원 평균 89.5%보다 5.5%포인트 높은 성공률이다. 나아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의대 병원(85%)과 피츠버그의대 병원(82%)보다는 무려 10∼13% 포인트 높은 성적이다. <br/> <br/> 그동안 간 이식과 간 절제수술을 받은 간암 환자를 10년 이상 장기간 추적 관찰하며 생존율을 비교한 데이터도 국제 학술지 ‘애널스 오브 트랜스플란테이션’ 최근호에 공개했다. 조사결과 간암 절제수술만 받은 환자들보다 간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장기 생존율이 30%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br/> <br/> 유 교수팀은 1993년 간이식 수술에 처음 성공한 후 2001년 간·신장 동시이식, 2002년 골수이식 후 간이식, 2010년 혈액형 불일치 간이식에 잇따라 성공했다. <br/> <br/> 유 교수는 “<span class='quot0'>최근에는 배꼽 부위에 구멍 한 개만 뚫고 그 틈으로 치료내시경을 집어넣어 시술하는 단일통로복강경 수술을, 단순 간 절제는 물론 간 이식수술에도 적극 이용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수술상처가 작아 흉터가 눈에 띄지 않고 회복속도도 빨라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span>”고 말했다. <br/> <br/><br/>■윤승규 서울성모병원 암병원장 "<span class='quot1'>암 환자 맞춤서비스에 힘쓸 것</span>" <br/> <br/>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지난 1일자로 윤승규(58·사진) 소화기내과 교수를 암병원장으로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br/> <br/> 윤 교수는 2009년부터 약 8년간 이 병원 간담도암센터장과 연구윤리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간염협력센터 소장, 가톨릭대 간연구소장, 서울성모병원 내과 과장, 가톨릭의대 소화기학과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br/> <br/> 윤 교수는 "<span class='quot2'>암환자들이 한 가족처럼 편안한 환경에서 가능한 한 빨리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 일찍 퇴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까지 않을 계획</span>"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br/> <br/> 암 환자 개인맞춤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주요 목표다. 개인유전체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최적의 항암제를 선택해 치료할 수 있게 되면 암 극복이 더 쉬워질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br/> <br/> 윤 교수는 2012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상엽 교수팀과 함께 간암 줄기세포 표지자인 CD133을 이용한 가상세포 시스템을 구축해 지금까지 줄곧 간암 조기진단법과 표적치료제 개발 연구를 진행해왔다. 간암 맞춤의료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br/> <br/> 윤 교수는 CD133을 가진 세포는 암 증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선택적으로 탐지, 공격하는 표적물질을 찾으면 간암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간암 환자들마다 다른 항암제 감수성을 평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r/> <br/> 윤 교수는 "<span class='quot2'>간암처럼 복잡한 치료를 의사 한 사람이 결정하던 시대는 지났다</span>"며 "<span class='quot2'>간담췌암센터를 포함, 암 병원 내 13개 암센터에 유기적인 다학제 협진 시스템을 구축, 맞춤의료 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85.txt

제목: [가정예배 365-9월 4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날짜: 201709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04000355002  
ID: 01100201.20170904000355002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찬송 :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570장(통 453장) <br/> <br/>신앙고백 : 사도신경 <br/> <br/>본문 : 출애굽기 14장 15∼21절 <br/> <br/>말씀 : 인생길에는 순풍이 불 때도 있지만 거센 풍랑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홍해를 만납니다. 앞으로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고,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철병거를 타고 추격하고 있는, 이른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br/> <br/> 사람이 보기에는 절대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넙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어떻게 갖고 나가야 할까요. <br/> <br/>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모두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의 형편이나 고통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편과 문제를 다 아시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br/> <br/>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앞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와 내 고통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심을 믿을 때 문제의 실마리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br/> <br/> 둘째,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해결책을 갖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깊은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지팡이 든 손을 바다위로 내밀면 바다가 갈라진다는데 이해는커녕 쉽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br/> <br/>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방법으로도 안 되는 문제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해결책을 내놓으십니다. 목회 현장에서 종종 경험합니다만, 죽음 직전에 있던 암 환자들이 현장에서 고침을 받아 뛰기도 하고, 목발을 던지고 깁스를 풀고 나가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br/> <br/> 셋째,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문제 해결은 완전하다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흑암으로 묶으셔서 추격하지 못하게 하시고(20절), 큰 동풍을 불게 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21절). 또 애굽 군대가 바닷길로 다 들어왔을 때 물을 합하시자 애굽 군대는 홍해에 몽땅 수장되고 말았습니다(27∼28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믿음 안에서 반드시 문제는 해결됩니다. <br/> <br/>기도 :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문제마다 해결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br/> <br/>주기도문 <br/> <br/>강창훈 목사(서울 동아교회)

언론사: 국민일보-2-286.txt

제목: [안기종의 환자 샤우팅] 건강사랑방으로 동네약국 부활했으면  
날짜: 201709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04203655002  
ID: 01100201.2017090420365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환자에 대해 알아야 한다. ‘환자’(患者, Patient)란 무엇일까? 국어사전에는 “병 들거나 다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 설명돼 있다. 치료는 누가 하는 걸까? 이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캐치프레이즈가 있다. “<span class='quot0'>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span>” 한국사회는 1999년 의사와 약사의 역할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의약분업’을 경험했다. 의약분업 이전 동네약국은 지약사회 주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건강사랑방 역할을 했다. 그 시절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이 아닌 약국부터 찾아 갔다. 약사와 먼저 상담한 후 약을 구입해 치료할지 아니면 동네의원에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지 결정했다. 적어도 의약분업 이전에는 약사도 환자의 치료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 <br/> <br/> 1999년 의약분업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아프면 동네의원이나 병원을 먼저 찾는다.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전문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한다. 2012년부터 약국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도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 일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의약분업 후 약사는 복약지도를 고유한 업무로 할당받았다. 그러나 18년이 지난 지금 ‘식후 30분 하루 세 번 복용하세요’의 복약지도 수준으로는 주권의식이 높아진 환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 <br/> <br/> 또한 한국사회는 4차 산업혁명 영향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아이비엠의 인공지능 왓슨이 암 치료에 참여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출연과 사용증가는 약사 업무와 역할에도 영향얼 주고, 약사 복약지도에 큰 변화를 줄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환자 질환명, 약품명 등 최적화된 복약지도 콘텐츠를 제공하는 능력을 갖출 것이다. 어쩌면 인공지능 약사가 인간 약사를 능가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복약지도에 있어 약사는 ‘식후 30분 하루 세 번 복용하세요’ 정도의 기본 정보 제공만으로는 부족하다. 미래 약사는 개별 환자에게 특화된 맞춤식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노력이 없다면 인공지능과 약 조제로봇이 융합된 4차 산업혁명의 미래사회에서 약사 직종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구글 선정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2030년까지 소멸되는 직업 100개를 발표했는데 약사도 포함돼 있다. <br/> <br/> 미래사회 인공지능과 로봇을 능가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약사’는 어떤 약사일까? ‘개별 환자 대상으로 맞춤식 복약지도를 해 만성질환 환자들의 복약순응도(약을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용량·용법으로 꼬박꼬박 복용하는 비율)를 높이는 습관을 길러주고, 의약품 안전사용을 돕는 약사’여야 한다. <br/> <br/> 환자 입장에서 동네약국 약사에게 제안하고 강조하고 싶은 역할이 있다. 한국 환자들은 본인을 포함해 가족 중 질병으로 치료받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당장 필요하지는 않지만 가족들이 평소 자주 복용하는 약도 있다. 이를 ‘가정상비약’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가정상비약 구비 시 약사가 참여하지 않는다. 약국이나 24시간 운영 편의점 등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의약품들을 구입하고, 관리도 거의 되지 않아 유통기간이 지난 경우도 있다. 이는 환자의 의약품 안전사용과 치료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br/> <br/> 따라서 연간 1회 또는 수시로 가정에 보관중인 가정상비약을 통째로 동네약국에 가져가 약사와 상담하고 적합한 가정상비약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복약지도를 받는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의약분업 이전 지역사회에서 동네약국 약사들이 수행했던 건강사랑방 역할을 회복하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br/> <br/>안기종

언론사: 국민일보-2-287.txt

제목: 영진약품 액상경구용 비타민D ‘D3베이스’ 출시  
날짜: 20170904  
기자: 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04203555001  
ID: 01100201.20170904203555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우리 몸의 칼슘대사에 필수성분인 비타민D는 햇볕을 통한 자외선 합성으로 체내에서 만들어 진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햇볕을 충분히 쬘 수 없어 현대인들은 비타민D가 결핍되기 쉽다. 2014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약 91%, 성인 여성의 96%가 비타민D 부족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우리 몸은 비타민D가 결핍되면 각종 암, 고혈압, 근육통증, 인슐린 저항성 및 당뇨병, 우울증, 골다공증 등 다양한 질환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면역 세포의 생성과 활성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중요하다.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8세 어린이 3700여명 중 비타민D 결핍 상태인 아이들은 아토피 피부염에 걸릴 위험이 1.3배, 알레르기 비염 위험이 1.2배나 높았다. 그래서 비타민D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음식이나 의약품을 복용을 통해 비타민D를 보충해야 한다. <br/> <br/> 이와 관련 최근 의사 처방을 통해 처방받을 수 있는 전문의약품 비타민D가 출시돼 눈길을 끈다. 영진약품이 판매하는 ‘D3베이스’는 스위스 DSM사(社) 원료를 기반으로 이탈리아 아비오젠에서 개발된 비타민D 제품이다. 회사 측은 “<span class='quot0'>이 제품은 콜레칼시페롤 단일제제 중 글로벌 넘버원 비타민D 브랜드</span>”라고 설명했다. <br/> <br/> 국내에 발매된 이 제품은 국내 최초 전문의약품 액상경구용 비타민D로 매일 복용하는 ‘드롭스(Drops)’와 한달 한번 복용하는 ‘오랄 솔루션 2만5000IU’로 복용 편리하면서 안정적으로 비타민D를 복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br/> <br/> 영진약품 관계자는 “기존 주사제와 더블어 이번에 도입된 경구제 도입을 통해 다양한 품목 라인이 구축되어 환자 상태에 맞는 다양한 프로토콜로 처방이 가능해졌다. 특히 주사제 처방이 어려웠던 유소아 및 고령자, 임산부 등 전 연령대 처방이 가능하게 되어 향후 비타민D 시장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br/> <br/> 영진약품은 2017년 2월 메디포트와 ‘D3베이스’ 공동 판매 계약을 통해 주사제 2종(30만IU, 10만IU)을 병의원은 영진약품이 종합병원은 메디포트가 담당해서 판매하고 있다. 양사는 앞으로 D3베이스의 공급사인 아비오젠사의 다양한 제품 라인업과 풍부한 임상자료를 통해 환자별 맞춤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br/> <br/>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br/> <br/>songbk@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2-288.txt

제목: [김양균의 현장보고] “우리 애 아파요”… 황급히 출동해보면 반려견  
날짜: 201709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04201555001  
ID: 01100201.20170904201555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그곳 주소가 서울시 OOO이죠? 어디가 편찮으시죠? 언제부터 가슴이 아팠나요? 시간은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가슴통증이 지속됐나요? 통증은 쥐어짜듯이 콕콕 쑤시듯이 아프세요? 식은땀은요? 호흡은 어때요?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출동구급대에 연결하겠습니다. 아, 구급대원이죠? 신고자와 연결되어 있어요. 31세 남성이고요. 신고자 연결되어 있으니까 말씀하세요!” <br/> <br/> 한차례 폭풍 같은 통화가 지나갔다. 김미영 소방사(38)는 옅은 한숨을 내뱉었다. 주간(오전 9시∼오후6시)에는 이런 구급신고가 30건, 야간(오후 6시∼오전 9시)에는 40∼50건의 신고 전화가 울린다. 서울종합방재센터 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일상은 늘 생사를 오가는 이들의 연락으로 시작되고 끝난다. <br/> <br/>신고자가 전화기의 119 버튼을 누르면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종합방재센터로 연결된다. 대단위로 이뤄지는 신고 중 의료지도와 관련된 것은 수초 내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연결된다. 센터는 다시 신고자의 정보를 취합해 응급과 비응급으로 분류한다. 이 과정은 중요하다. 출동을 하더라도 긴급을 요할 시의 대비를 위해서다. 응급의료자원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br/> <br/> “이 일의 장점이요?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김미영 소방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쑥스러움이 많은 김 소방관은, 그러나 하고픈 말은 꼭꼭 짚어가며 설명해줬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단점도 있다. 주로 전화통화로 신고자와 이야기를 하는 탓에 신고자가 본인이 알려주는 대로 응급처치를 하는지 확인이 쉽지 않은 탓에 그는 매번 발을 동동 구른다. 기자는 ‘어쩌면 현행 의료지도의 맹점 혹은 한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br/> <br/> 센터가 자랑하는 스마트영상 응급처치는 어떨까. 환자의 편의와는 별도로 소방관들의 애로사항도 ‘조금’ 있다. “얼굴이 너무 노출돼요. 이만하게 나온다니까요(웃음).” 의료 상담은 음성에서 영상으로 ‘진화’했지만, 흔들려 정확치 않은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으론 맥박이나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 환자의 상태를 명확히 알기 어려우면,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매뉴얼을 따른다. 그래도 맘은 급하고 걱정은 산처럼 크다. <br/> <br/> “전화로 심폐소생술을 상담해줄 땐데, 보호자는 환자가 죽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다행히 현장에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협조가 잘 이뤄졌죠. 환자가 소생해서 응급실로 인계됐을 때 그 기분이란!” 언제 보람이 크냐는 기자의 물음에 창피하다며 손사래를 치던 심지영 소방장(42)이 고백하듯 밝힌 6년간의 소회였다. 정중앙에는 ‘환자의 소생’이 자리하고 있었다. 소방관을 선택한 이유를 주저 없이 “운명”이라고 한 그이지만, 체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격무만큼은 그도 또렷한 답이 없다. 장장 15시간에 달하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면 컨디션은 “바닥을 뚫는”단다. 심 소방장이 피식 웃으며 한편으론 무서운 이야기를 던졌다. “<span class='quot0'>소방관이 암 인자도 많고 단명 한다던데… 팔자려니 해요.</span>” <br/> <br/> 한번 소방관은 영원한 소방관이라고 하더니! 그가 평소 ‘직업병’이라며 들려준 해프닝은 흥미로웠다. 언제 어느 때나 ‘일’이 생기면 일단 전화기를 비롯한 통신수단부터 확보한다고. 그렇게 전화기를 붙들고서 필요한 대비를 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하다못해 지하철을 탈 때에도 만약을 대비해 문을 수동으로 여는 방법을 골똘히 지켜보곤 한다. <br/> <br/> 김민정 소방관(40)의 이야기는 ‘다이내믹’했다. 김 소방관은 주소를 안 가르쳐 주는 게 곤욕이라고 말했다. “어떤 신고자는 주소는 가르쳐 주지 않고 무조건 빨리 오라고 소리를 질러요. 집까진 알아서 오라는 데 정말 난감해요. 통신사 기지국으로 조사해도 1∼5킬로미터의 오차가 있거든요. 영화에서처럼 어딘지 딱! 하고 나오지 않아요.” <br/> <br/> 별난 신고자에게 시달리는 건 일상이다. 막말과 욕설, 폭언이 많다보니 김 소방관은 “욕먹는 것은 익숙해졌다”고 했다. 처음만 해도 욕설에는 무응답이나 통화를 끝내는 것으로 대처했다. 시간이 갈수록 욕은 괜찮으니 제발 주소만 제때 알려주면 고맙다. 응급처치 안내를 해도 시키지 말고 빨리 오라는 신고자에게 김 소방관은 전화기를 붙들고 통사정하다시피 설득을 한다. <br/> <br/> 한번은 자살 기도자의 신고를 받았다. 목을 맨 상태에서의 전화를 한 터라, 말을 제대로 알아듣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목숨이 경각이 달린 터, 주소부터 확보해야 했다. 천신만고 끝에 구조출동을 해서 소방관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 신고자를 살렸다. 그 외에도 자살을 겁박하는 전화는 수시로 걸려온다. <br/> <br/> “전활 받으면 딱 그래요. ‘지금 뛰어내릴 거야. 네가 부추겨서 뛰어내린 거야’ 그러죠. 전 위치를 실토하도록 끈질기게 설득합니다.” 김 소방관이 어렵사리 위치를 확보하면 구조대와 구급대가 수분내로 출동한다. 불행 중 다행일까. 실제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전화말미 그가 늘 덧붙이는 말이 있다. “뛰어내리지 마세요. 저희가 구해드릴게요.” <br/> <br/>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다보니 당혹스러운 신고도 적지 않다. 한번은 자녀가 아프다는 신고에 출동해보니 ‘강아지’였다. ‘우리 애’의 정체가 사람이 아니란 걸 상상이나 했던가! 적반하장의 경우도 있다. 동물병원에 가시라고 조언을 하면, 이송을 안 해준다고 거칠게 항의한다. 문제는 이런 경우 정작 구해야 할 인명 구조가 지체된다는 점이다. <br/> <br/> 애로사항은 이밖에도 많다. 환자는 병원에 가고 싶지만, 보호자가 못 가게 하거나 그 반대의 사례다. 특히 응급환자일 경우에는 입술이 바짝바짝 탄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응급실의 치료비가 부담되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응급실로 이송한다 쳐도 이번에는 병원이 환자를 내친다. 그렇게 하릴없이 병원을 돌고 돈다. 병원의 기피 사유는 여럿이다. ‘돈을 안낸다’, ‘주취환자다’, ‘상습자다’, ‘진료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서’…. 온갖 사연으로 가득한 하루를 마감하면 이들에게 돌아오는 건 돌덩이가 된 어깨와 쉬어버린 목이다. <br/> <br/> 문재인 대통령의 소방관을 늘려준다는 약속은 언제쯤 이뤄질까? 4교대 근무만 되면 한결 낫겠다는 이들은, 하루하루 씩씩하게 응급환자를 살려내고 있었다. 이들의 뒷모습은 기자의 착각이었을까. 양 어깨에 무거운 짐이 얹어진 듯 보였다. <br/> <br/> angel@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2-289.txt

제목: 좌초 위기 중입자가속기 치료 센터 서울대병원이 맡아 기사회생할까  
날짜: 20170904  
기자: 김양균 쿠키뉴스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04172355001  
ID: 01100201.20170904172355001  
카테고리: 사회>미디어  
본문: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에 위치한 중입자치료센터. ‘꿈의 암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가속기센터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기관 사이의 복잡한 속내가 관찰된다. <br/> <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부) 산하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장 최창운, 이하 의학원)이 당초 역점을 두고 추진한 이 사업은 좌초를 거듭했다. 결국 과기부는 올 초 서울대병원(원장 서창석)을 우선협상자로 삼아 센터 운영을 협의하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2차 운영 병원 공모에 관심을 보였지만, 서울아산병원이 손을 떼 사실상 서울대병원이 추후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br/> <br/> 그러나 서울대병원의 속내는 복잡한 것처럼 보인다. 본지는 수차례 협상 과정과 운영 여부를 문의한 끝에 병원 내부 실무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당초 2차 병원 공모 조건에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10년 위탁 운영 조건이 포함됐지만, 노동조합의 반대로 철회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병원 실무자 o씨의 말은 언론보도와는 사뭇 달랐다. 그는 “(위탁운영 조건이) 아직 빠진 건 아니”라면서도 “적자가 심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운영은 그러나 서울대병원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말해 선을 긋는 듯 한 제스처를 보였다. <br/> <br/> 그는 또한 “과기부와 기장군은 서울대병원이 이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길 바라고 있다. 그 때문에 밀어붙이고 있다. 과기부는 기획재정부가 이 사업을 계속 ‘밀어주길’ 원한다”고도 귀띔했다. 여기서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대병원은 중입자가속기센터를 운영하게 될까? A씨는 ‘노’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부정하지 않았다. 반면 과기부의 입장은 좀 다르다. 다음은 해당 사업의 과기부 실무자의 말이다. “서울대병원·원자력의학원·과기부·부산시·기장군 사이에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이사회와 국정감사전에 업무협약을 맺을 작정이다.” <br/> <br/> 서울대병원의 주요결정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과기부 관계자 말대로라면 이사회 전에 사업 참여를 공식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고위 관계자도 “그런 의도로 읽힌다”며 난처하다는 듯 한 뉘앙스를 비쳤다. <br/> <br/> 이렇듯 과기부와 서울대병원 사이의 ‘동상이몽’에 대해 김쌍우 부산시의원(바른정당)은 “<span class='quot0'>과기부는 병원들에게 중입자가속기 사업 참여를 ‘종용’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지역병원들과는 협의 채널이 많지 않았고, 정책 방향도 동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었다</span>”고 말했다. 김 의원은 “<span class='quot0'>서울대병원은 많은 지원을 받아내려하고 (과기부와) 기재부는 ‘적당한’ 지원을 검토하는 줄다리기가 펼쳐지고 있다</span>”고 꼬집었다. ‘앓는 소리’를 한다지만, 실상은 서로 눈치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br/> <br/>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노조의 반응은 다소 회의적이다. 보건의료노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지회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초기 사업을 진행한 원자력의학원 집행부와 과기부의 책임은 있지만, 원자력의학원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본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서울대병원이 중입자가속기를 가져가면 원자력의학원은 과연 발전할 수 있겠는가</span>”라고 우려했다. <br/> <br/> 해당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은 서울대병원이 온다면 좋아하겠지만, 직원들의 사기는 저하될 수밖에 없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빅5 병원이 의료계를 좌지우지 하는 상황에서, 중입자가속기를 둘러싸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대결형태로 가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은 작금의 의료 양극화 상황을 고려하면 일순 타당한 지적으로 읽힌다. <br/> <br/> 그렇다면 과기부와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속내는 어떨까? 김쌍우 의원은 각자의 복잡한 속내가 감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서울대병원의 중입자가속기센터 운영을 내심 반대한다. 그들이 갖고 있던 기관의 운영권을 넘기는 데 불만을 갖는 것이다. 과기부의 지원으로 사업을 재개하길 바라는 걸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기부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불신하고 있다.” 이 말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과기부 관계자가 기자에게 한 말은 의미심장하다. “<span class='quot2'>곧 서울대병원과 MOU를 맺으면 더 이상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주관기관이 아니게 된다.</span>” <br/> <br/>김양균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290.txt

제목: 잇단 보장성 강화 천명… 암·희귀질환자 새 희망  
날짜: 20170904  
기자: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04171855001  
ID: 01100201.201709041718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문 대통령은 희귀병을 앓고 있는 5살 아이와 병으로 학업을 중단한 사례를 소개하며 희귀질환자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률 및 의약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span class='quot0'>새로운 건강보험 정책이 투병 중에도 희망을 지켜가는 많은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힘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span>”고 말했다. <br/> <br/> 이러한 대통령의 약속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즉각 행동동에 나섰다. 극희귀질환을 전수 조사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극희귀질환은 진단법에는 독립된 질환으로 있지만 국내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낮거나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이다. 상병코드가 없다는 것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인데 이로 인해 모든 지원과 혜택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br/> <br/> 현재 66개의 극희귀질환만이 산정특례의 혜택을 받고 있다. 알려진 희귀질환의 종류가 약 6000∼8000여종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극히 낮은 숫자다. 특히 세계적으로 3억5000만명이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환자의 약 50∼75%는 소아에서 발병한 것으로 보고 되고, 특히 희귀질환자의 약 30%는 5세 이전에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br/> <br/> 국내에서도 약 70만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년 기준)이 희귀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데 알려진 질환도 치료 약제가 있는 경우가 5% 미만이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진단을 위한 검사와 희귀의약품 사용의 제한, 높은 진료비 등은 적절한 치료 혜택을 받기 어렵게 해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전수조사를 많은 극희귀질환자들이 반기고 있다. <br/> <br/>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들어온 민원요청 사항, 환우회 및 전문학회 등을 통해 극희귀질환에 대한 전체 수요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질환 대상 환자수와 진단 기준 등에 대해 전문가 및 관련 학회의 검토를 거쳐 희귀질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이후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017년 말까지 희귀질환 목록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 2018년 완전 폐지되는 선택진료도 희귀질환자의 부담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희귀질환의 특성상 전문 의사의 수가 적기 때문에 비용을 더 부담해 선택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 <br/> <br/>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도 긍정적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 비급여 등 본인 부담을 연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항암제와 희귀난치약제 등 고가약제의 심사기준 완화나 지원금액 상향조정 검토는 암·희귀질환자에게 더 큰 혜택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고가 항암제라는 가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 건강보험 적용되는데 고가이면서 경제성이 낮은 경우에는 급여가 어렵거나 건강보험 적용에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br/> <br/> 이에 정부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환자 부담을 완화(100%→ 30∼90%)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비급여 약제사용에 따른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환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br/> <br/>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291.txt

제목: [이지현의 기독문학기행] 참호 속에서 묻다… 신은 존재하는가  
날짜: 201709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02000555001  
ID: 01100201.20170902000555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6·25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고한 이들이 수없이 죽었다. 그 전선의 참호와 벙커 속에서 '우리에게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란 질문을 하며 괴로워했던 한 육군 장교가 있었다. 그는 10여년 후 6·25전쟁을 배경으로 '신앙과 실존'의 주제를 풀어 작품을 썼다. 한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던 김은국(1932∼2009)의 첫 장편소설 '순교자(The Martyred)'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소설가 김은국은 1964년 미국에서 먼저 '순교자'를 발표해 미국 언론과 문단의 호평을 받았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span class='quot0'>도스토옙스키와 알베르 카뮈의 도덕적이며 심리적인 전통을 훌륭하게 이은 작품</span>"이라고 평했다. '순교자'는 20주 연속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세계 10여개국 언어로 번역, 출간됐다. 국내에서도 영화 연극 오페라 등으로 만들어져 관심을 모았다. 어떤 점이 그토록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일까. 불의와 절망, 수난과 죽음은 인간의 보편적인 고통이다. 소설은 '이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고통을 이겨내는 정의가 있는가' '그 비참한 운명 앞에서 무력한 인간은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란 질문을 끊임없이 던진다. <br/> <br/> <br/>예향의 도시 목포 <br/> <br/>전남 목포는 문학과 예술의 도시다. 이 도시가 낳은 예술가들을 언급할 때마다 소설가 박화성과 극작가 김우진 차범석 천승세, 시인 김지하, 평론가 김현, 소설가 최인훈과 김은국을 빼놓지 않는다. 김은국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다. 그가 48∼50년 재학한 목포고등학교(구 목포중학교)를 최근 찾았다. 학교 학적부를 통해 작가가 당시 용당리(현 용당동) 846번지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학교 내 역사관에서 김은국이 당시 6년제였던 목포중학교 제4회(1950년) 졸업생인 것을 확인했다. <br/> <br/> 목포고등학교 10회 졸업생인 박준상 시인이 김은국이 살던 용당동까지 동행해 줬다. 마을에 들어서자 박 시인은 소설가 박화성이 37∼62년 거처하며 작품 활동을 했던 집터에 세워진 세한루(歲寒樓) 앞에서 잠시 발길을 멈췄다. <br/> <br/> 박 시인은 “<span class='quot1'>이 일대가 당시 박화성 선생의 남편이 운영하던 비단공장이 운집해 있었다</span>”고 회상하며 “<span class='quot1'>조용한 성품의 김은국이 이북에서 가족과 함께 내려와 이 마을에 정착했다고 들었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김은국은 박화성의 집필실 인근에 살면서 박화성의 문학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안다</span>”며 “<span class='quot1'>이 마을에서 당시 대성동에 있던 목포중학교를 다녔을 것</span>”이라고 전했다. 김은국은 1950년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하면서 목포를 떠났다. <br/> <br/> 신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 <br/> <br/> 소설 ‘순교자’는 해방 후 이 땅에 벌어졌던 아픈 ‘전쟁의 기억’ 속으로 독자들을 빠르고 깊게 끌고 간다. 6·25전쟁 발발 직전 북한의 목회자 14명이 인민군에 체포된다. 이 중 12명이 처형되고 2명만 살아남는다. 충격으로 정신 이상자가 된 한 목사와 다른 또 한 사람의 목회자 신 목사. 사건의 정황을 아는 신 목사는 자신이 살아남은 일은 ‘신의 개입’이라고 말할 뿐 침묵을 지킨다. 냉정한 관찰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이 대위는 장 대령의 명령으로 사건의 진상조사를 한다. 신도들은 순교한 12명의 목사를 애도하고 멀쩡하게 살아남은 신 목사에게 비난을 퍼붓는다. <br/> <br/> 그러나 얼마 후 생포된 북한군 정 소좌에 의해 진실이 폭로된다. 지금까지 위대한 순교자로 알려졌던 12명의 목사는 배교했지만, 신 목사는 용기 있게 대항한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살려줬다고 했다. 그러나 신 목사는 12명의 목사가 위대한 순교자임을 믿고 거기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신도들을 위해 진실을 숨기고 자신은 유다와 같이 그들을 배반해 살게 됐노라고 거짓고백을 한다. 장 대령 역시 정치적인 입장에서 12명 목사를 위대한 순교자로 미화해 이용하려 한다. 신 목사는 사람들의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일 뿐 아니라 후퇴하는 유엔군을 따라가지 않고 평양에 남았다가 실종된다. ‘순교자’의 대략적인 줄거리다. <br/> <br/> 소설은 전쟁이라는 극한상황에서 벌어지는 인간 실존의 문제와 신을 향한 절대적 구원의 메시지를 정면에서 다룬다. 신 목사는 신의 섭리를 간절히 간구하는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인다. <br/> <br/> “날 좀 도와주시오. 불쌍한 내 교인들, 전쟁과 굶주림과 추위와 질병, 그리고 삶의 피곤에 시달리는 이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오. 고난이 그들의 희망과 믿음을 움켜쥐고 그들을 절망의 바다로 떠내려 보내고 있소. … 우린 절망과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린 그 절망을 때려 부수어 그것이 인간의 삶을 타락시키고 인간을 단순한 겁쟁이로 쪼그라뜨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소설 ‘순교자’ 중에서) <br/> <br/> 이런 신 목사의 절규에 이 대위는 “당신의 신은 그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알고 있는가? 아무 관심도 없지 않은가? 그런데 왜 당신은 사람들을 속이는가?”라고 물으며 스스로도 그 답을 찾고자 한다. <br/> <br/> 알베르 카뮈에게 헌사 <br/> <br/> 작가는 알베르 카뮈에게 작품의 헌사를 했다. “‘이상한 형태의 사랑’에 대한 그의 통찰이 나로 하여금 한국 전선의 참호와 벙커에서의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줬다. 알베르 카뮈에게.” 전쟁의 공포와 참상을 고스란히 경험한 그가 신앙을 갈망하면서 느끼는 의혹과 고뇌는 인간의 보편적인 고뇌였다. <br/> <br/> 소설 속 신 목사는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모습에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계시다면 우리 민족의 비참한 상황을 방관하고 계실까’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결국 신 목사는 고통당하는 신도들에게 환상을 심어 현실의 고통과 좌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인 자신의 역할이라는 새로운 신앙을 정립한다. 자신이 구해야 할 이들은 고통당하는 인간이며 그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결심이다. 그가 말한 ‘이상한 형태의 사랑’이다. <br/> <br/> 이 소설의 모티브는 외조부 이학봉 목사였다. 북한 공산당의 핍박에 저항했던 외조부는 6·25전쟁 직전 공산정권에 의해 체포된 후 1950년 10월 18일 저녁 대동강변에서 순교했다. 김은국은 할아버지가 장로교회 목사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1980년 대통령 표창과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독립운동가 김찬도다. 작가는 황해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평양고등보통학교를 다녔다. 그러나 북한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자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가족 전체가 1947년 남한으로 내려왔다. 가족은 남쪽 멀리 목포에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 그는 목포고등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했다. <br/> <br/>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1960년 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 문학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여성 페닐로우프 앤 그롤과 결혼했다. 슬하에 1남 1녀가 있다. 1962년에는 아이오와대학교의 작가 워크숍에서 창작 석사학위(MFA)를 받았다. 소설 ‘순교자’는 아이오와대학교의 작가워크숍을 통해 탄생한 것이다. 이외의 작품으로 5·16군사 쿠데타를 소재로 한 ‘심판자’, 일제강점기 한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잃어버린 이름’ 등이 있다. 1981년부터 2년간 풀브라이트 교환교수 자격으로 서울대에서 강의했다. 2009년 6월 23일 매사추세츠의 자택에서 암 투병 중 7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전 인생 중 한국에 머문 시간보다 미국에서 보낸 시간이 더 길었지만 그의 작품은 한국역사의 아픔과 함께했다. <br/> <br/> 김은국에게 작가적 토양을 심어준 목포의 구(舊)도심은 세월을 담아낸 터전들이 남아있다. 유달산 인근엔 역사의 아픔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목포근대역사관 2관(옛 동양척식주식회사)이 있고 부근은 지금도 일본식 가옥이 많이 남아있다. 역사관에서 나와 유달산을 향해 서면 언덕길 옆으로 붉은 벽돌로 지어진 목포근대역사관 1관이 눈에 들어온다. 옛 일본영사관 건물이다. 60여년 전 이 땅에서 일어났던 아픈 역사 이야기를 떠올리며 시가지를 걸었다. 지척에서 항구의 바람이 불어왔다. <br/> <br/>■[김은국처럼 생각하기] <br/> "<span class='quot2'>정의에 대한 약속 없이 인간은 고난 못이겨</span>" <br/> <br/> <br/>소설가 김은국(사진)은 6·25전쟁 발발 후 군대에 입대해 통역장교로 5년 가까이 복무했다. 전쟁의 공포와 참상을 고스란히 경험했다. <br/> <br/> "목사님의 신이건 그 어떤 신이건 세상의 모든 신은 대체 우리에게 무슨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당신의 신은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지도 않을뿐더러 인간의 비참, 살육, 굶주린 백성들, 그 많은 전쟁 그리고 그 밖의 끔찍한 일들과는 애당초 아무 상관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 거짓말에 거짓말의 연속 아닙니까? 열두 명의 목사는 모두 이유 없이 도륙당했습니다. 그들은 신의 영광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고 그들의 죽음에 대해 당신의 신은 그렇게 무관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판국에 당신께선 신을 찬미하다니요." <br/> <br/> 삶을 뒤흔든 이 대위의 질문에 대해 작가는 신 목사의 목소리를 빌려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인간이 희망을 잃을 때 어떻게 동물이 되는지, 약속을 잃었을 때 어떻게 야만이 되는지를 거기서 보았소. … 희망 없이는, 그리고 정의에 대한 약속 없이 인간은 고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 희망과 약속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면 다른 데서라도 찾아야 합니다. … 인간을 사랑하시오. 대위, 그들을 사랑해주시오. 용기를 갖고 십자가를 지시오. 절망과 싸우고 인간을 사랑하고 이 유한한 인간을 동정해줄 용기를 가지시오." <br/> <br/> 그는 고난 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작가가 전 인생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br/> <br/>목포=글·사진 이지현 선임기자 jeehl@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92.txt

제목: '정신과 상담'까지 받게 한 장동민 악플 수준  
날짜: 20170901  
기자: 온라인뉴스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01170644001  
ID: 01100201.20170901170644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개그맨 장동민이 악플러 100여명을 고소하면서 그동안 받은 악플 중 일부를 공개했다. 비속어 부분을 \*\*로 처리했지만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br/> <br/>장동민 소속사 코엔스타즈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악플은 다음과 같다.  <br/> <br/>\*\*\*로 도려내자. <br/>\*\*시름 느검마 \*\*에서 태어나지 말아야 했어. <br/>장동민 엄마 \*\* <br/> \*\*\*는 그냥 혀랑 이빨을 죄다 뽑아버려야 해. <br/> 갸\*\*\*걸레\*\*\*협동민미친\*\*거 <br/> \*\*\*\*로 찍어 죽여 버리고 싶음. <br/>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암에 걸려서 죽길 빌어. <br/> <br/>장동민 소속사는 악플러의 언사는 이미 묵과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악플러들은 장동민뿐 아니라 부모, 지인 등을 향한 악의적 비난하며 모욕했다고 강조했다. <br/> <br/>소속사는 장동민이 이런 악플 때문에 오랫 동안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병행했다고 밝혔다. <br/> <br/>장동민 소속사는 이날 한 법무법인을 통해 장동민과 그의 가족, 지인들에 대한 심한 욕설 등의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100여명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br/> <br/>소속사는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소속사의 다른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 및 루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법적대응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r/> <br/>온라인뉴스부

언론사: 국민일보-2-293.txt

제목: [이지현의 기독문학기행] 전쟁소설 ‘순교자’ 김은국…참호 속에서 묻다  
날짜: 20170901  
기자: 목포=글·사진 이지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901145144001  
ID: 01100201.20170901145144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6·25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고한 이들이 수없이 죽었다. 그 전선의 참호와 벙커 속에서 ‘우리에게 과연 신은 존재 하는가’란 질문을 하며 괴로워했던 한 육군 장교가 있었다. 그는 10여년 후 6·25전쟁을 배경으로 ‘신앙과 실존’의 주제를 풀어 작품을 썼다.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 후보에 올랐던 김은국(1932~2009)의 첫 장편소설 ‘순교자(The Martyred)’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br/> <br/>소설가 김은국은 1964년 미국에서 먼저 ‘순교자’를 발표해 미국 언론과 문단의 호평을 받았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span class='quot0'>도스토옙스키와 알베르 카뮈의 도덕적이며 심리적인 전통을 훌륭하게 이은 작품</span>”이라고 평했다. ‘순교자’는 20주 연속 베스트셀러의 자리에 올랐으며 세계 10여개국 언어로 번역, 출간됐다. 국내에서도 영화 연극 오페라 등으로 만들어져 관심을 모았다. 어떤 점이 그토록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일까. 불의와 절망, 수난과 죽음은 인간의 보편적인 고통이다. 소설은 ‘이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고통을 이겨내는 정의가 있는가’ ‘그 비참한 운명 앞에서 무력한 인간은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란 질문을 끊임없이 던진다. <br/> <br/> 예향의 도시 목포 <br/>전남 목포는 문학과 예술의 도시다. 이 도시가 낳은 예술가들을 언급할 때마다 소설가 박화성과 극작가 김우진 차범석 천승세, 시인 김지하, 평론가 김현, 소설가 최인훈과 김은국을 빼놓지 않는다. 김은국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다. 그가 48~50년까지 재학한 목포고등학교(구 목포중학교)를 최근 찾았다. 학교 학적부를 통해 작가가 당시 용당리(현 용당동) 846번지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학교 내 역사관에서 김은국이 당시 6년제였던 목포중학교 제4회(1950년) 졸업생인 것을 확인했다. <br/> <br/> <br/> <br/>목포고등학교 10회 졸업생인 박준상 시인이 김은국이 살던 용당리(현 용당동)까지 동행해 줬다. 마을에 들어서자 박 시인은 소설가 박화성이 37년~62년 거처하며 작품 활동을 했던 집터에 세워진 세한루(歲寒樓) 앞에서 잠시 발길을 멈췄다. <br/>박 시인은 “<span class='quot1'>이 일대가 당시 박화성 선생의 남편이 운영하던 비단공장이 운집해 있었다</span>”고 회상하며 “<span class='quot1'>조용한 성품의 김은국이 이북에서 가족과 함께 내려와 이 마을에 정착했다고 들었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김은국은 박화성의 집필실 인근에 살면서 박화성의 문학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안다</span>”며 “<span class='quot1'>이 마을에서 당시 대성동에 있던 목포중학교(현 목포고등학교)를 다녔을 것</span>”이라고 전했다. 김은국은 1950년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하면서 목포를 떠났다. <br/> <br/> <br/> <br/> 신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 <br/>소설 ‘순교자’는 해방 후 이 땅에 벌어졌던 아픈 ‘전쟁의 기억’속으로 독자들을 빠르고 깊게 끌고 간다. 6.25전쟁 발발 직전 북한의 목회자 14명이 인민군에게 체포된다. 이중 12명의 처형되고 2명만 살아남는다. 충격으로 정신이상자가 된 한 목사와 다른 또 한 사람의 목회자 신 목사. 사건의 정황을 아는 신 목사는 자신이 살아남은 일은 ‘신의 개입’이라고 말할 뿐 침묵을 지킨다. 냉정한 관찰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이 대위는 장 대령의 명령으로 사건의 진상조사를 한다. 신도들은 순교한 12명의 목사들을 애도하고 멀쩡하게 살아남은 신 목사에게 비난을 퍼붓는다. <br/> <br/>그러나 얼마 후 생포된 북한군 정소좌에 의해 진실이 폭로된다. 지금까지 위대한 순교자로 알려졌던 12명의 목사들은 배교를 했지만, 신 목사는 용기 있게 대항한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살려줬다고 했다. 그러나 신 목사는 12명의 목사들이 위대한 순교자임을 믿고 거기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신도들을 위해 진실을 숨기고 자신은 유다와 같이 그들을 배반해 살게 됐노라고 거짓고백을 한다. 장 대령 역시 정치적인 입장에서 12명 목사를 위대한 순교자로 미화해 이용하려한다. 신 목사는 사람들의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일 뿐 아니라 후퇴하는 유엔군을 따라가지 않고 평양에 남았다가 실종된다. ‘순교자’의 대략적인 줄거리다. <br/> <br/> <br/> <br/>소설은 전쟁이라는 극한상황에서 벌어지는 인간 실존의 문제와 신을 향한 절대적 구원의 메시지를 정면에서 다룬다. 신 목사는 신의 섭리를 간절히 간구하는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인다. <br/> <br/>“날 좀 도와주시오. 불쌍한 내 교인들, 전쟁과 굶주림과 추위와 질병, 그리고 삶의 피곤에 시달리는 이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오. 고난이 그들의 희망과 믿음을 움켜쥐고 그들을 절망의 바다로 떠내려 보내고 있소.…우린 절망과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린 그 절망을 때려 부수어 그것이 인간의 삶을 타락시키고 인간을 단순한 겁쟁이로 쪼그라뜨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소설 ‘순교자’ 중에서) <br/> <br/>이런 신 목사의 절규에 이 대위는 “당신의 신은 그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알고 있는가? 아무 관심도 없지 않은가? 그런데 왜 당신은 사람들을 속이는가?”라고 물으며 스스로도 그 답을 찾고자 한다. <br/> <br/> 알베르 카뮈에게 헌사 <br/>작가는 알베르 까뮈에게 작품의 헌사를 했다. “‘이상한 형태의 사랑’에 대한 그의 통찰이 나로 하여금 한국 전선의 참호와 벙커에서의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줬다. 알베르 카뮈에게.” 전쟁의 공포와 참상을 고스란히 경험한 그가 신앙을 갈망하면서 느끼는 의혹과 고뇌는 인간의 보편적인 고뇌였다. <br/> <br/>소설 속 신 목사는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모습에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계시다면 우리 민족의 비참한 상황을 방관하고 계실까’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결국 신 목사는 고통당하는 신도들에게 환상을 심어 현실의 고통과 좌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인 자신의 역할이라는 새로운 신앙을 정립한다. 자신이 구해야 할 이들은 고통당하는 인간이며 그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결심이다. 그가 말한 ‘이상한 형태의 사랑’이다. <br/> <br/>이 소설의 모티브는 외조부 이학봉 목사였다. 북한 공산당의 핍박에 저항했던 외조부 이학봉 목사는 6·25전쟁 직전 공산정권에 의해 체포된 후 1950년 10월 18일 저녁 대동강변에서 순교했다. 김은국은 할아버지가 장로교회 목사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1980년 대통령 표창과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독립운동가 김찬도다. 작가는 황해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평양고등보통학교를 다녔다. 그러나 북한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자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가족 전체가 1947년 남한으로 내려왔다.  <br/> <br/> <br/> <br/>가족은 남쪽 멀리 목포에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 그는 목포고등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했다. <br/>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1960년 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 문학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여성 페닐로우프 앤 그롤과 결혼했다. 슬하에 1남 1녀가 있다. 1962년에는 아이오와대학교의 작가 워크숍에서 창작 석사학위(MFA)를 받았다. 소설 ‘순교자’는 아이오와대학교의 작가워크숍을 통해 탄생된 것이다. 이외의 작품으로 5·16군사정변을 소재로 한 ‘심판자’, 일제강점기 한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잃어버린 이름’ 등이 있다. 1981년부터 2년간 풀브라이트 교환교수 자격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강의했다. 2009년 6월 23일 매사추세츠의 자택에서 암 투병 중 7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전 인생 중 한국에 머문 시간보다 미국에서 보낸 시간이 더 길었지만 그의 작품은 한국역사의 아픔과 함께 했다. <br/> <br/>김은국에게 작가적 토양을 심어준 목포의 구(舊)도심은 세월을 담아낸 터전들이 남아있다. 유달산 인근엔 역사의 아픔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목포근대역사관 2관(옛 동양척식주식회사)이 있고 부근은 지금도 일본식 가옥이 많이 남아있다. 역사관에서 나와 유달산을 향해 서면 언덕길 옆으로 붉은 벽돌로 지어진 목포근대역사관 1관이 눈에 들어온다. 옛 일본영사관 건물이다. 60여년 전 이 땅에서 일어났던 아픈 역사 이야기를 떠올리며 시가지를 걸었다. 지척에서 항구의 바람이 불어왔다. <br/> <br/>[김은국처럼 생각하기] <br/> <br/> <br/> 우리가 고난 당 할 때 주님은소설가 김은국은 6·25전쟁이 발발 후 군대에 입대해 통역장교로 5년 가까이 복무했다. 전쟁의 공포와 참상을 고스란히 경험했다. <br/> <br/>“목사님의 신이건 그 어떤 신이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대체 우리에게 무슨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당신의 신은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지도 않을 뿐더러 인간의 비참，살육，굶주린 백성들, 그 많은 전쟁 그리고 그 밖의 끔찍한 일들과는 애당초 아무 상관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거짓말에 거짓말의 연속 아닙니까? 열두 명의 목사들은 모두 이유 없이 도륙당했습니다. 그들은 신의 영광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고 그들의 죽음에 대해 당신의 신은 그렇게 무관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판국에 당신께선 신을 찬미하다니요.” <br/> <br/>삶을 뒤흔든 이 대위의 질문에 대해 작가는 신목사의 목소리를 빌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인간이 희망을 잃을 때 어떻게 동물이 되는지, 약속을 잃었을 때 어떻게 야만이 되는지를 거기서 보았소.…희망 없이는, 그리고 정의에 대한 약속 없이 인간은 고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 희망과 약속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면 다른 데서라도 찾아야 합니다.…인간을 사랑하시오. 대위, 그들을 사랑해주시오. 용기를 갖고 십자가를 지시오. 절망과 싸우고 인간을 사랑하고 이 유한한 인간을 동정해줄 용기를 가지시오.” <br/> <br/>그는 고난 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작가가 전 인생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br/> <br/>목포=글·사진 이지현 선임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294.txt

제목: 남도음식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브랜드, ‘맘엔찬’  
날짜: 201708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31163544001  
ID: 01100201.20170831163544001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전라남도 장성에는 7개의 남도음식 전문 기업이 모인 공동마케팅 브랜드 ‘맘엔찬’이 있다. 각 기업들은 김치, 장아찌, 장류 등 각기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모두 ‘정성’과 ‘정직’을 자신의 신념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어떻게 사업을 꾸려가고 있는지 ‘맘엔찬’참여기업들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br/> <br/>장성마을반찬 주식회사 대표직을 겸하고 있는 ‘예술자연농식품’의 한화숙 대표는 남편의 암에 좋은 것을 수소문하던 중 ‘야채수’를 만났다. 야채수는 남편의 암을 치유했고, 이후 직접 생산하기로 결심했다. 100% 유기농 채소만을 사용한 제품으로, 그녀는 암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건강한 채소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이다. <br/> <br/>내 가족도 믿고 먹는 김치를 만들겠다는 신념 하나로 시작한 ‘산들래’. 이 신념은 김순례 여사의 손에서 시작해 딸 백소연 대표의 손으로 이어져 배추는 물론 파, 고춧가루 등 부재료까지 모두 직접 재배한다. 생산하지 않는 재료도 모두 모녀의 손을 직접 거쳐야 하는데, 모든 과정이 수고스러워도 포기할 수는 없다. 산들래 김치 맛의 비법은 ‘정직’이기 때문이다. <br/> <br/>직접 만든 장아찌를 혼자만 먹을 수 없어, 지인에게 선물하다가 지인들의 권유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김선하 전통식품’의 김선하 대표. 자연보다 더 좋은 조미료는 없다는 마음으로 인공조미료와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재료까지 직접 재배한다.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생산량은 적지만 재료부터 반찬이 담길 장독 선별까지 본인의 손을 거쳐야 마음이 놓인다. <br/> <br/>공기 좋고 물 좋은 장성군 송계리에서 국산 콩만을 이용해 장을 담그는 ‘송계복 청국장’의 나영심 대표. 사업의 시작은 안전한 전통먹거리로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는 마음이었다. 이를 위해 생산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것은 ‘위생’이다. 가족이 먹는 것이라 생각하고 위생을 중요시 여겨 고객의 신뢰를 얻은 것이 사업 성공의 비결이라 꼽는다. <br/> <br/>전남 곡성·영광·장성·순천·담양의 특산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업체들이 모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소통하는 남도 먹거리 문화’를 이끌고자 만든 가공식품 공동브랜드 ‘네시피F&B'. 유기농 농산물로만 만든 남도 먹거리를 가공하여, 국내 판매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 수출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장성군에 있는 ‘네시피 쿠킹클래스&도시락카페’에서 장성 특산품을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6차 산업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br/> <br/>젊은 시절 한복을 짓던 손으로 한국의 맛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현재는 전통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수산식품’의 김영의 대표. 장성에서 나고 자란 농산물로 직접 음식점 밑반찬을 만들었는데, 반찬 맛을 본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다. 끊임없는 반찬 판매 요청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올해 반찬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br/> <br/>‘북하특품사업단㈜’의 시작은 농촌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주민 10가구가 모여 장성 특산품인 감을 이용한 상품과 젓갈, 장아찌류 등 남도 고유의 맛이 담긴 반찬들을 만든 것이었다. 해외에도 진출해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 ‘북하특품사업단㈜’은 성공의 비결로 ‘시대의 변화에도 한결같은 맛과 정성을 제공하려는 노력과 회원들의 부단한 봉사정신’을 꼽는다. <br/> <br/>최근 계란파동, 유럽산 E형 간염소시지 등 식품 원재료에 대한 불안이 높아졌다. 때문에 ‘맘엔찬’ 참여기업이 원칙으로 삼고 있는 ‘정성’과 ‘정직’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기업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남도반찬에 귀추가 주목된다. <br/> <br/>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95.txt

제목: 헤링스, 임상개발전략 수립 위한 핵심인력 영입  
날짜: 201708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31162544001  
ID: 01100201.201708311625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임상 디자인 CRO 헤링스(HERINGS)에 핵심인력들이 조인하고 있다. 헤링스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과학기술에 맞춰 최적의 임상 연구 디자인을 도출해 내기 위해 국내 CRO로서는 최초로 임상 디자인 연구 센터를 설립했다. <br/> <br/>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남병호 대표는 국립암센터에서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임상연구협력센터장을 역임했으며 미국에서 보스턴대학교(Boston University) 통계학 교수, 미국 Framingham Heart Study와 Boston University Psychiatric Rehabilitation Center에서 책임보건통계학자를 역임한 임상통계학자다. SCI급 논문 134편을 비롯해 국내외 학술지에 임상 연구와 연관된 논문 총 181건을 게재했으며 약 120여 건의 연구자·제약사 주도 임상시험을 수행했다. <br/> <br/>이와 함께 바이오 전략 및 투자 전문가 송유인 상무를 영입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CRO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갖췄다. 송유인 상무는 딜로이트 컨설팅 S&O(Strategy and Operation) 출신으로 국내외 다수의 바이오 및 헬스케어 회사의 전략을 수립한 전략 전문가다. 최근 신라젠에 투자해 1년 반 만에 두 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PEF(사모펀드)의 핵심운용인력으로 역임했으며 미국 소재 CRO에도 투자했다. <br/> <br/>또한, CRO 서비스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배윤희 이사를 임상시험본부장으로 영입했다. 배윤희 이사는 LSK글로벌파마서비스의 글로벌 임상팀장 출신으로 14년간 국내·외 크고 작은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또한 한화케미칼과 베링거잉겔하임 의학부에서 허가용 임상시험을 주도한 임상시험 전문가다. <br/> <br/>유아미 책임연구원은 고려대학교 의과학연구센터 연구교수 및 경희대학교 선임연구원 출신으로 최근 헤링스에 조인했다. 향후 남병호 박사와 함께 성공적인 차세대 임상 시험 수행을 위한 임상 디자인 및 통계 연구를 지속해 갈 계획이다. <br/> <br/>그 외 현직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및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의 의학·통계학 교수진들을 포함해 국내외 석학들을 헤링스의 Advisory Board Member 및 Expert Group으로 영입해 높은 수준의 임상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성공적인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br/> <br/>또한 헤링스는 국내 암 전문의로 이뤄진 사단법인 대한항암요법연구회(KCSG)의 모든 임상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br/> <br/>헤링스는 이와 같이 날로 다양해지는 신약 후보물질들의 성공적인 임상시험 수행 및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각 분야 핵심인력들을 영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적의 임상시험 디자인과 개발전략을 위한  'CRO – 스폰서 – 임상의'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br/> <br/>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96.txt

제목: [내일을 열며-이기수] 신종 담배도 과세해야  
날짜: 201708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31180755002  
ID: 01100201.20170831180755002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담뱃세 논란이 거세다. 보다 못한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교수)가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최근 국회에 발의 및 심의 중인 담뱃세 관련 두 법안 얘기다. <br/> <br/>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9월 1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담뱃세 인하? 오히려 인상이 정답이다!’란 제목으로 문재인정부 금연정책의 방향에 관한 학술행사를 갖는다. 발제자는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이성규 교수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다. 이 교수는 이날 ‘왜 담뱃세 인하 주장이 나오고 있는가’, 조 교수는 ‘담뱃세 인상의 사회계층별 파급효과 및 담뱃세 인상 이후 올바른 활용 방향’이란 제목으로 각각 입장을 밝힌다. 자유한국당의 담뱃세 인하 법안 발의에 따른 파문이 가시기도 전에 궐련형(마른 연초를 얇은 종이로 만)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커지고 있어서다. <br/> <br/>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인상 논란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불거졌다. 개정안은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20개 들이)당 126원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 수준인 594원으로 올리자는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최근 같은 사안에 일반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과세 방침을 확정했다. 일본 역시 동일과세를 추진 중이다. 우리는 의견이 갈려 조정이 어려운 모양새다. 2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됐다. <br/> <br/> 뭐가 잘못됐을까. 혹시 개별소비세만 인상하려 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차라리 일반담배와 같이 건강증진부담금도 동시 부과하는 쪽으로 접근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이 남는다. <br/> <br/> 사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담배과세 체계가 유해성을 크게 따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언뜻 봐도 세수(稅收)가 먼저다. 시판 4500원짜리 담배 한 갑당 건강증진부담금은 841원(18.7%)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담배소비세(22.4%), 지방교육세(9.8%), 개별소비세(13.2%), 부가가치세(9.6%) 등 제세금과 출고가 및 유통마진(26.3%)으로 빠져나간다. <br/> <br/> 한국인 사망원인 다빈도 질환 1∼3위로 꼽히는 암과 심·뇌혈관질환은 공통적으로 담배와 관련이 있다. 강력한 흡연억제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흡연자들은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다. 담뱃값을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흡연자들이 담배 대체재로 찾는 유사담배, 신종 궐련형 전자담배라고 예외일 수 없다. 피우는 방식만 다를 뿐 외양과 내용물(담뱃잎) 모두 일반담배와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 회사들은 제조원가를 공개하고, 담뱃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을 내는 게 옳다. 그래야 시장 변화를 미처 반영하지 못한 세제상 결함을 악용,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br/> <br/> 담뱃값을 올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담뱃세 또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는 방법이다. 기자는 부담금 인상이 낫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건강에 나쁜 줄 알면서도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의 ‘기부금’과 같다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br/> <br/> 장기적으로는 담뱃값 구조를 개편하는 정책 개발도 필요하다. 특히 담뱃값 인상 시 건강증진부담금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길 제안한다. 담배 팔아 마련한 돈이야말로 금연 프로그램 등 흡연 관련 질환의 예방 및 퇴치사업 지원 기금으로 활용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아울러 청소년들도 이용하는 편의점 등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회사들이 자사 제품 모형을 내걸고 ‘냄새걱정 DOWN’ ‘유해물질 90% DOWN’ 식의 문구로 무차별 광고하는 행위도 제한해야 한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절대 ‘착한 담배’가 아니다. 일반담배와 같이 건강불평등을 부추기는 유사담배일 뿐이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97.txt

제목: 전립선암, 고령도 안전하게 하이푸 비수술로 치료가능  
날짜: 201708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29151544001  
ID: 01100201.201708291515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우리나라의 식생활은 서구적으로 변한 지 오래다. 단기간에 걸친 서구화는 육류와 유제품 소비의 증가와 더불어 발육 정도와 속도를 바꾸어 놓았다. <br/> <br/>물론 좋지 않은 변화도 동반했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높아진 것이다. 전립선암의 상승폭은 놀라울 정도다. 1990년대만 해도 남성 암 중 10위에 불과했으나 무서운 속도로 상승을 시작해 현재는 5위를 차지, 중년 남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br/> <br/>전립선암 발병 연령대로 확인해 보면 70대가 43.8%, 60대가 32.5%, 80대 이상이 12.7% 순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50대 연령에서도 관련 질환이 발생하는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br/> <br/>전립선은 전립샘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방광 밑에 있는 밤톨만한 크기의 생식기관으로 정액 일부를 만들고 저장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부위에 나타나는 질환인 전립선암은 기능을 다하고 사멸하는 세포가 죽지 않고 증식하여 종양을 형성하여 악성종양으로 변질될 경우 전립선암이라고 할 수 있다. <br/> <br/>전립선암은 전립선의 외측 조직에 악성종양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조기 발견 시 90% 완치율을 보이는 이른바 ‘착한 암’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해당 질환은 서서히 나타나 초기에는 뚜렷한 자각증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기 발견 치료가 쉽지만은 않다. <br/> <br/>전립선암의 대표적인 증상은 배뇨통과 빈뇨, 요페증 등이 있는데 이 증상은 방광에서 요도로 넘어가는 부분이 폐쇄되어 나타나는 증상으로 혈뇨가 나타날 수 있다. 만약 증상이 심하다면 요독증이나 무뇨, 소변 감소증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암이 직장으로 전이되었을 경우 변비나 복통, 직장 출혈 등이 나타날 수 있다. <br/> <br/>해당 질환은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직장을 통해 손가락으로 만져보는 직장수지검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데 전립선 주변부에 딱딱하게 만져지는 결절이 있다면 전립선암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br/> <br/>양재역에 위치한 강남베드로병원 성봉모 원장은 “최근에는 혈액검사를 통해 전립선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립선 특이항원(PSA) 수치로 해당 질환을 진단하게 된다. 이러한 진단을 통해 전립선암을 진단 받았다면 조속한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br/> <br/>이어 “전립선암 치료는 암의 위치, 환자의 나이, 병기, 병력 등을 고려한 후 방사선 치료나 수술 등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한다. 하지만 수술의 경우 요실금, 발기부전 등 합병증 발생할 수 있어 환자의 일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전했다. <br/> <br/>최근 개발된 비수술 고강도 집속초음파 종양 치료법인 하이푸의 경우 종양의 크기, 증상 등을 고려해 전립선을 보존하고 그 기능을 유지시키는 신개념 비수술 치료로, 이용한다면 요실금, 발기부전 등 합병증 등의 부담과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br/> <br/>비수술 치료 ‘전립선암 하이푸’는 인체에 무해한 고강도 초음파를 병변 부위에 초점시켜 목표한 종양만을 정확히 괴사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칼이 아닌 초음파 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절개나 출혈이 없어 보다 후유증,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시술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시술은 비수술적 치료법이지만 수술적 치료법과 동등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br/> <br/>‘전립선암 하이푸’가 비수술이라 하여 절대 우습게보면 안 된다. 고강도의 열을 칼처럼 이용하는 고난위도의 치료법이며, 전립선은 특히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평생의 정신적 건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예민한 부분이므로 전립선암에 대한 시술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의료진의 숙련도와 의료장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하이푸 시술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병원을 찾아 방문해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br/> <br/>강남베드로병원 전립선암클리닉에서는 런던 칼리지 병원(University College London Hospital), 미국의 sonacare medical, 대한민국 서울성모병원 비뇨기과에게 전립선암 하이푸 시술에 대한 시스템을 전파 및 전수하였다. <br/> <br/>또한 2011년 처음으로 종양을 비수술로 치료하는 하이푸나이프를 도입한 이래 무절개, 여성의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의 치료를 효과적으로 치료 하고 있으며, 최근 독일 국가지정시험기관(National Certification Body, NCB)에서 안정성 시험을 검증 받은 “프로하이프” 도입, 자궁근종 하이푸 치료 4000례를 달성해 기념행사를 가지면서 명실상부한 하이푸병원으로 다시 한 번 입증 받은 바 있다. <br/> <br/>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98.txt

제목: 대장암의 원인 ‘대장용종’,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진으로 제거해야  
날짜: 201708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29100044001  
ID: 01100201.201708291000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천안 아산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임 모 씨(42세ㆍ남)는 얼마 전, 계속되는 설사 증세와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 대장내시경으로 진찰한 결과 증상의 원인은 대장용종이었다. <br/> <br/>대장에 생기는 용종은 대장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 혹이 돼 장의 안쪽으로 돌출된 병변을 말한다. 보통 대장용종은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용종의 종류에 따라 직장출혈, 배변습관의 변화, 점액배설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br/> <br/>특히 대장용종은 대장 내 점막이 있는 부위에는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이렇게 발생한 용종은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종양성 용종과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비종양성 용종으로 나뉜다. 종양성 용종인 선종은 대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대장내시경검사를 통해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br/> <br/>최근에는 대장내시경 시술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대장용종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 작은 크기의 용종은 올가미나 생검용 겸자로 제거하며 일정 크기 이상의 용종일 경우에는 고주파를 이용해 제거한다. 용종의 크기가 크거나 위치가 좋지 않아 내시경으로 치료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수술적 방법으로 제거해야만 한다. <br/> <br/>천안 아산의 우리튼튼내과 김민주 원장은 “<span class='quot0'>대장암의 씨앗이라 불리는 선종성 용종은 대장암 가족력, 음주력 등으로 젊은 층에게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span>”라고 설명했다. <br/> <br/>이어 김 원장은 “<span class='quot0'>우연히 병원을 찾아 검사를 진행했다가 선종성 용종을 발견한 사례가 적지 않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렇듯 우연히 선종성 용종을 발견해 제거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내원과 대장내시경검사가 적합하다</span>”고 조언했다. <br/> <br/>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299.txt

제목: 길 잃은 암 환자 ‘자연치유’ 도와드려요  
날짜: 201708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29050055001  
ID: 01100201.20170829050055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어디로 가면 마음 편히 쉴 수 있을까. 암 환자들이 병원 측으로부터 더 이상 해줄 게 없으니 병상을 비워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으레 품게 되는 의문이다. 암 진단 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빈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집에 가서 무기한 대기하라는 말을 듣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br/> <br/> 이럴 때 주치의가 있는 병원을 왕래하기도 쉽고 대기 중 항암 면역력까지 키울 수 있는 요양병원이 서울 동남권역에 등장, 암 환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 송파구 송이로에 자리 잡은 ‘자닮인요양병원’(대표원장 강동철·사진)이다. <br/> <br/> 이 병원 입원 환자들 중 70%는 한방 및 보완대체의학요법 치료를 받으면서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등에서 현대식 항암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나머지 30%는 3기 이상 진행 및 말기 암 환자들이다. 큰 병원에서도 치료를 포기해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통합 암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이 병원을 찾았다. <br/> <br/> 통합 암 치료란 현대의학과 전통 한의학에 대체의학요법까지 더해 항암 면역력을 키워주는 의료기술을 가리킨다. 자닮인요양병원은 이를 표방, 특별히 더 주목을 받게 된 곳이다. 병원명 ‘자닮인’도 자연을 닮은 사람들을 줄여서 만든 명칭이다. <br/> <br/> 강동철 원장은 28일 “<span class='quot0'>암은 단지 1∼2개의 원인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요법에만 기대는 것도, 의학적 치료에만 얽매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체력과 나이, 면역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인치료를 도모할 때 암 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자닮인요양병원이 병실 바닥을 모두 온돌로 만들고 벽과 침상을 황토 및 편백나무로 꾸민 배경이다. <br/> <br/> 강 원장이 암 환자들에게 자주 권하는 치료법은 자체 개발한 행인약침(杏仁藥針)과 천삼단(天蔘丹) 병용요법이다. <br/> <br/> 행인약침은 비타민B17로 불리는 아미그달린 성분이 풍부한 살구씨와 복숭아씨 추출물이 주성분이다. 아미그달린은 비타민C 고용량요법과 함께 요즘 스페인, 독일, 멕시코 등 서구에서 암 치료에 많이 쓰이는 약물이다. <br/> <br/> 천삼단은 인삼처럼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 항산화효과가 뛰어난 땃두릅나무의 전초를 말린 것 등 여러 생약을 혼합해 만든 한약이다. <br/> <br/> 강 원장은 “<span class='quot0'>암 치료 시 행인약침 등을 병용하면 면역력이 향상돼 암과의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암과 싸워 이기려면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300.txt

제목: ‘DDT 계란’ 농장 2곳 토양서도 검출  
날짜: 20170829  
기자: 세종=이성규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29183255001  
ID: 01100201.20170829183255001  
카테고리: 국제>미국\_북미  
본문: 계란에서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 성분이 검출된 2곳의 산란계 농장 토양에서도 DDT가 검출됐다. <br/> <br/> 농촌진흥청은 경북 경산과 영천의 산란계 농장 토양 조사에서 DDT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경산 농장은 닭 방사장에서 흙 ㎏당 0.163㎎, 반경 100m 이내 농경지에서 0.046∼0.539㎎ 농도로 DDT가 검출됐다. 영천 농장은 방사장에서 0.469㎎, 반경 100m 이내 농경지에서 0.176∼0.465㎎ 농도로 나왔다. 두 농장에서 사용 중인 농업용수와 사료에서는 DDT가 검출되지 않았다. <br/> <br/> 국내의 경우 농경지나 가금류 사육지에 대한 DDT 허용 기준이 없다. 다만 캐나다는 농경지 허용치가 ㎏당 0.7㎎ 이내다. 농진청 관계자는 “<span class='quot0'>DDT가 검출된 흙을 닭이 체내로 흡수해 계란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span>”며 “<span class='quot0'>두 농장의 닭과 달걀은 지난 23∼24일 전량 폐기됐다</span>”고 말했다. DDT는 유기염소 계열의 살충제다. 인체에 흡수되면 암을 비롯해 감각이상, 마비, 경련 등을 일으키는 맹독성 물질이다. 국내에서 1973년 사용이 전면 중단됐지만 반감기(체내에 들어오면 물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기간)가 50년 정도로 길다. <br/> <br/>세종=이성규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301.txt

제목: 암환자 생명줄을… 보험금 3억 가로챈 30대 구속  
날짜: 20170828  
기자: 권중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28145544001  
ID: 01100201.20170828145544001  
카테고리: 지역>전남  
본문: 전남 여수경찰서는 자신을 펀드매니저라고 속인 뒤 암 환자의 보험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모(30)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br/> <br/>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5년 8월 전남 여수의 한 종합병원 암 병동에서 환자 A(62)씨에게 접근해 식사를 사주며 친분을 쌓았다. 전씨는 자신을 펀드매니저라고 소개한 뒤 자신에게 투자하면 40% 수익을 낼 수 있다며 A씨에게 투자를 권했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A씨에게 100만원을 받아 계좌로 140만원을 돌려주고 환심을 사기도 했다. 전씨는 이런 식으로 A씨 등 환자 3명에게서 총 3억원을 받아 잠적했다. <br/> <br/>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이 사전에 입금돼 암 환자들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br/> <br/>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02.txt

제목: 암 투병 환자들 상대로 3억원 가로챈 30대 구속  
날짜: 20170828  
기자: 여수=김영균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28120144001  
ID: 01100201.20170828120144001  
카테고리: 지역>전남  
본문: 암 투병 중인 환자들에게 고액의 상환금을 주겠다며 주식 투자에 끌어들여 3억원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br/> <br/>전남 여수경찰서는 28일 암 투병 중인 환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모(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br/> <br/>전씨는 2015월 8월부터 9월초까지 여수시 모 병원에 입원 중인 암 투병 환자 3명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부풀려 갚겠다’고 속여 총 79회에 걸쳐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암 투병 환자들에게 접근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r/> <br/>전씨는 특히 환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환심을 산 뒤 자신을 유능한 증권 펀드 매니저로 소개하며 “<span class='quot0'>주식에 투자하면 약 40%의 수익을 낼 수 있다</span>”고 속인 뒤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br/> <br/>경찰은 전씨의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br/> <br/>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03.txt

제목: 점점 늘어나는 대장암 환자, 체계적인 관리 필요  
날짜: 201708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28114544001  
ID: 01100201.201708281145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발생 기전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타 암 질환에 비해 대장암은 비교적 위험요인이 잘 알려져 있다. 대장암은 보통 50세 이상의 연령대, 식습관, 비만, 유전적 요인, 음주, 신체 활동 부족 등으로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 특히 동물성 지방,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거나 돼지고기와 소고기 같은 붉은 고기, 소시지, 햄 같은 육가공품을 즐겨 하는 경우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br/> <br/>대장암은 초기에는 별다른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대장암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혈변, 복부 불편감, 설사 등이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단순한 소화기 관련 질환으로 보일 수 있어 암을 방치하는 사람들도 많다. <br/> <br/>대장암은 수술을 통해 절제 수술을 한다고 해도 20~50% 정도의 사람에게서 재발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 대체로 국한된 장소에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보다는 국소 재발과 원격 전이가 동반되는 광범위한 재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한 암 질환으로 꼽히고 있다. <br/> <br/>대장암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암 전문 요양병원도 주목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주목을 받기 시작한 암 전문 요양병원인 메디움수원요양병원은 암에 대한 치료/요양/재활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br/> <br/>암 치료는 환우 각 개인의 증상 및 부작용에 맞추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메디움수원요양병원은고주파온열치료, 면역 증강 치료, 항암, 방사선 부작용 경감 치료, 통증 치료, 영양 치료 등 다양한 치료 및 관리를 제공한다. 특히 고주파온열치료기를 2대 보유함으로써 환우들의 생활패턴을 깨지 않고 장시간의 대기 없이 생활 활동 시간 내에 쾌적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br/> <br/>암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암으로 인해 생긴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암 치료에 좋은 영향을 준다. 메디움수원요양병원은 웃음 치료, 음악/미술 치료 등을 시행함으로써 그동안 암으로 인해 받았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있다. <br/> <br/>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메디움수원요양병원의 나학열 원장은 “메디움수원요양병원은 암의 치료 효과를 높이고 항암, 방사선 치료 부작용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통합의학적 암 재활병원이다. 암은 대형 병원의 치료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암 전문 요양병원에서 체계적인 암 사후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br/> <br/>우리나라 사망률 1위가 암인 만큼 암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 또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암은 이제 불치병이 아닌 이겨낼 수 있는 질환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꾸준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해주는 것이 암 치료 후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br/> <br/>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04.txt

제목: [공복에게 듣는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복지·고용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에 전력”  
날짜: 20170828  
기자: 양병하 쿠키뉴스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28215355001  
ID: 01100201.201708282153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한 분야별 국정평가 여론조사(갤럽)에 따르면 복지 분야가 외교와 함께 ‘잘했다’는 평가(65%)가 가장 높았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라 불릴 만한 굵직한 복지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주요선진국에 크게 뒤진 우리나라 복지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희망찬 비전 제시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br/> <br/> 실제로 새 정부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정책을 강조하면서 ‘사람 중심,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국정철학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한 지난 17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을 만나 새 정부의 복지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br/> <br/> 현재 정부는 경제성장과 복지서비스를 모두가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사회인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 권 차관의 설명이다. 포용적 복지국가에 대해 권 차관은 “<span class='quot0'>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라는 양 날개가 균형감 있게 조화돼야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한 인적자본 육성을 위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기조와 보건복지 분야의 국정과제 내용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 민생에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과제는 우선적으로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br/> <br/> 또한 의료·돌봄 등 필수적이고 삶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span class='quot0'>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span>”며 “<span class='quot0'>전 국민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수립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 <br/> <br/> <br/> <br/>-새 정부의 복지정책이 이전 정부와 어떤 점에서 차별화가 있다고 보나. <br/> <br/>▷과거 정부에서는 대개 복지사각지대에 놓은 이들의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책의 기준이었다면, 새 정부는 복지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이를 통해 소득을 높이고 소비를 증진시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한마디로 복지와 성장이 한 축을 이루면서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벌어진 임금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br/> <br/> <br/> <br/>-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으로써 보건의료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br/> <br/>▷초연결·초지능사회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바이오·의료는 가장 파급력 있는 융합이 예상되는 분야다. 인공지능(AI)·센서,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과 의료가 결합해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혁신적 진단·치료법이 개발되고, 의료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난치병 치료 등 당면한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약·첨단 의료기기 등 연구개발 투자 확대, 유전체 자료를 활용한 암 진단·치료 등 정밀의료 기술개발, 희귀난치 질환 치료를 위한 재생의료 활성화 등을 추진 중이다. <br/> <br/>-지난 3월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다. <br/> <br/>▷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하고, 데이터 개방·연계 활성화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을 수립 중이다. 또 바이오헬스 창업의 전주기를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스타트업이 많아지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전자 가위 기술 등 질병 극복을 위한 유전자 분야 연구가 시도되고 있지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과학계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 민관협의체를 통해 유전자치료연구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br/> <br/>-공직생활 대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보냈는데, 기억에 남는 정책성과가 있다면. <br/> <br/>▷우리나라는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 1999년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각각 도입함으로써 사회보장의 틀을 갖췄다. 공직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복지정책관으로 재임하던 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로 개편하면서 중위소득을 통한 상대빈곤개념을 도입해 대상자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등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는 아니지만 메르스(MERS) 사태 당시 직원들과 확산 방지를 위해 밤을 새우며 일했던 것은 공직생활에서 잊기 어려운 경험이다. <br/> <br/> <br/> <br/>-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던 것으로 알고 있다. <br/> <br/>▷보육정책관을 지내면서 2009년 무상보육 지원대상을 종전 0∼5세 차상위 이하에서 소득 하위 50% 이하로 확대하고, 가정양육수당 도입 및 보육전자바우처를 실시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저 출산이 심화되면서 대폭 늘어난 보육·돌봄에 대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보육전자바우처의 경우 지자체와 어린이집의 보육행정을 대폭 간소화하고, 부모의 국가보육 혜택을 체감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던 정책이다. <br/> <br/> <br/> <br/>-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의 틀을 마련한 것도 큰 성과로 꼽힌다. <br/> <br/>▷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병실료·선택진료·간병 등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한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특진’이라 불리던 선택진료를 축소한 것은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 도입과 함께 병원들이 의료의 질 전반을 높이는 데 힘쓰도록 하는 연결고리가 됐다.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인력이 병원 입원서비스를 전담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도입해 확산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 의료비 부담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보람이다. <br/> <br/>양병하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305.txt

제목: 간암은 술 때문이다? 바이러스 감염 주의 필요  
날짜: 201708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25090044001  
ID: 01100201.201708250900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주로 음주로 인해 발병한다고 알려진 간암은 술뿐만이 아닌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발병하기도 한다. 간암은 일차적으로 발생한 원발성의 악성종양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암은 간세포암종과 담관상피암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br/> <br/>간암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B,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과 음주로 꼽히고 있으며,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약 72.3%가 B형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양성이며, 약 11.6%가 C형 바이러스 항체양성, 약 10.4% 가 장기간 음주 경력자이다. B형바이러스의 경우 예방접종을 통해 발병확률을 낮춰줄 수 있지만, C형 바이러스는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주의를 요하고 있다. 또한 알코올의 섭취량과 섭취빈도에 따라 간암 발병율이 올라갈 수 있어 음주습관에 대한 관리 역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br/> <br/>간암의 증상은 초기에는 거의 무증상에 가깝기 때문에 알아채기 어려우며, 증상이 발현되었을 때는 암 기수가 상당히 지난 경우가 많은데, 복부팽만감이나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며 소화 불량 등의 장애를 일으킨다. <br/> <br/>간암의 치료는 간절제술과 간이식술 등 수술적 치료를 비롯해 경동맥 화학 색전술, 방사선 치료등 비근치적 치료도 가능하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치료 후에도 간암의 사후관리를 통해 전이 및 재발 관리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br/> <br/>다스람요양병원의 문일주 원장은 “환자마다 가지고 있는 암의 상태와 진행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치료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치료가 완료되었다 해도 재발의 위험성이 높은 암의 특성상 통합의학적암치료를 통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암치료과정에서 떨어지는 체력을 증진시키고 면역력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암요양병원에서는 전반적인 밀착 관리를 통해 치료를 시행하며 통증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도 제공한다”고 말했다. <br/> <br/>한편 다스람요양병원은 암요양병원으로 암을 치료함과 동시에 암의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고주파온열치료기 및 면역력 개선을 위한 면역주사를 도입하였으며, 이 외에도 체외파충격파 및 물리치료, 뇌로 향하는 통증 신호를 바꾸어 주는 통증 치료 기기 등을 구비하여 체계적인 통증 관리를 제공한다. <br/> <br/>또한 면역력 저하와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질의 항암식단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요가, 필라테스, 라인댄스 등)을 매주 편성해 암치료 시 환자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위축감을 풀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br/> <br/>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 질환의 가족력 및 간염과 간수치 등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간수치가 높고 간염 이력이 있다면 간암 발병 위험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음주와 흡연 등을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암의 전조 증상이나 초기 발견에 힘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br/> <br/>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06.txt

제목: [한마당-김영석] 액티브X  
날짜: 201708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25174855002  
ID: 01100201.20170825174855002  
카테고리: IT\_과학>모바일  
본문: 2014년 초 대한민국은 한 편의 로맨스 드라마에 빠졌다. ‘별에서 온 그대’다. ‘400년 전 UFO를 타고 조선에 온 외계인이 같은 모습으로 지금 서울에 산다면’이라는 상상에서 시작된 드라마에 중국 대륙도 열광했다. 주인공 천송이가 입었던 코트는 단연 화제였다. 문제가 생겼다. 중국인들이 한국 쇼핑몰 사이트에서 ‘천송이 코트’를 직접 구매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섰다. 그해 3월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중국인들이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에 가로막혀 주인공 의상 구매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액티브X가 암덩어리 규제의 핵심이 된 것이다. <br/> <br/> 3년 뒤 액티브X가 또다시 대통령 참석 행사에 등장했다. 지난 20일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 기념 대국민 보고대회다. 외국에 사는 한 국민인수위원이 “<span class='quot0'>한국 인터넷 웹사이트에는 보안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액티브X가 설치돼 있어 불편하다</span>”고 건의했다.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span class='quot1'>많은 곳에서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어 한번에 걷어내기가 어렵다</span>”고 시인했다. <br/> <br/> 대한민국은 액티브X의 천국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브라우저 기술 액티브X를 활용한 공인인증서가 처음 나온 것은 1999년 전자서명법이 발효되면서다. 온라인 금융과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순식간에 확산됐다. 정부가 액티브X를 이용한 인증 방식만 고집한 점도 한몫했다. 국민들은 여전히 온라인 결제를 위해 액티브X 컨트롤 설치를 수차례 강요받고 있다. <br/> <br/> 액티브X 철폐에 가장 소극적인 곳은 금융권이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면책되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보안의 취약성이다. 액티브X는 해커들의 주요 침투 경로다. 액티브X를 개발한 MS조차 사용 중단을 권유하고 있다. 액티브X가 필요 없는 인증 방식도 많이 개발돼 있다. 액티브X에 액티브(active)하게 엑스(X)표 칠 때가 됐다. <br/> <br/>김영석 논설위원, 그래픽=이영은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307.txt

제목: “십자가와 부활, 용서와 사랑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날짜: 20170824  
기자: 노희경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24000256002  
ID: 01100201.20170824000256002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저자 허운석 선교사는 브라질 아마존에서 남편 김철기 선교사와 함께 20년 넘게 사역해온 인디오 부족의 어머니다. 2006년 폐암 진단을 받고도 복음을 전하러 다시 밀림으로 들어간 그는 급기야 4년 뒤 말기암 진단을 받는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평생 헌신했으면 복을 받아야지 왜 암에 걸리느냐”며 조롱했다.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충실한 종에게 무거운 짐을 허락했을까. <br/> <br/>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픔과 시련을 만나면 당장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게 바로 우리다. 하지만 저자는 그런 원망 대신 성경의 욥을 떠올리며 질문에 대해 답을 구한다. 가족과 친구에게 철저하게 외면받고 끝없이 추락한 욥을 통해 저자는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예수님을 목격한다. 그리고 담대하게 고백한다. <br/> <br/> “‘아, 내가 부활로 가는 길목에 있구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에 나를 동참시키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극도로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 하나님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거절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 주님을 부활로 다시 일으키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63쪽) <br/> <br/> 2013년 9월 12일 60세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저자의 삶은 입소문을 타고 전해지면서 수많은 영혼을 살렸다. 책에 나오는 내용이 그 입소문의 근원이다. 말기암 진단을 받은 2010년의 어느 날부터 쓰기 시작한 투병일기와 죽음 직전까지 복음을 전했던 마지막 설교문 네 편을 묶었다. 눈물 없인 읽을 수 없는 책이다. <br/> <br/> 책에선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나약한 ‘우리’도 만날 수 있지만 이내 믿음으로 아픔을 견뎌내는 강한 생명력을 소유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읽을 수 있다. 결국 저자가 삶의 끝자락에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것이다. 진정한 신앙인으로 사는 법. <br/> <br/>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용서와 사랑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내려놓고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할 때, 주님의 생명이 얼른 와서 나와 연합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197쪽) <br/> <br/>노희경 기자 hkroh@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08.txt

제목: “성경말씀에 근거한 언어처방, 암환자에게 용기”  
날짜: 20170823  
기자: 도쿄=글·사진 천지우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23000456002  
ID: 01100201.20170823000456002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암 환자가 삶의 고민을 털어놓으면 의사가 진지하게 듣고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문장을 처방한다. 히노 오키오(63·사진) 준텐도대학 의학부 병리·종양학 교수가 2008년 일본에서 처음 시작한 ‘암철학 외래’의 풍경이다. 암 환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불어넣는 ‘언어처방전’에는 성경의 가르침이 주된 재료로 쓰인다. <br/> <br/> 22일 도쿄 신주쿠 요도바시 교회에서 만난 히노 교수는 “<span class='quot0'>최첨단 의료의 제공뿐 아니라 전인(全人)적인 치료가 의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해 암철학 외래를 시작하게 됐다</span>”고 말했다. <br/> <br/> 암철학은 물리적 치료와 병행하는 정신적 치료다. 진료차트도 청진기도 없는 홀가분한 상태에서 환자와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눈다. 환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뒤 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자연스럽게 전달한다. <br/> <br/> “면담을 하고 나면 환자의 얼굴색이 180도 달라집니다. 지난 9년 동안 3000여명을 만났는데 그중 안색이 나빠져서 돌아간 사람은 1명도 없습니다.” <br/> <br/> 준텐도대학병원에 처음 개설된 암철학 외래는 2013년 일반사단법인이 됐다. 일본 전역에서 130여개에 달하는 ‘암철학 카페’가 생겼다. 환자와 의료진이 경험담과 조언을 공유하는 자발적인 모임이다. 히노 교수는 요도바시 교회를 비롯한 7곳에서 정기적으로 무료 강의와 개별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br/> <br/> 교회에서 열리는 암철학 카페에도 비(非)기독교인이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다. 히노 교수는 면담 때 직접 전도를 하지는 않지만 성경말씀을 바탕으로 조언을 한다. “<span class='quot1'>당신이 암에 걸린 게 어떤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 계기일 수 있다</span>”면서 에스더가 사명을 깨닫는 대목(에스더 4장)을 은연중에 소개하는 식이다. <br/> <br/>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안 해도 많은 환자가 그걸 압니다. 암철학이 결국 인간을 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수십명의 환자가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br/> <br/> 그의 언어처방전을 모은 책 ‘위대한 참견’은 일본에서 10만부 이상 팔렸고 지난해 한국에서도 출간됐다. 그는 “<span class='quot1'>무료에 부작용도 없는 마음 치료법인 암철학 외래가 한국에서도 시행되기를 바란다</span>”고 말했다. <br/> <br/>도쿄=글·사진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09.txt

제목: 베이비파우더 사용 ‘난소암女’ 미 LA법원, 4745억 배상 판결  
날짜: 20170823  
기자: 장지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23222855001  
ID: 01100201.20170823222855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를 평생 쓰다가 난소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여성에게 회사 측이 4억1700만 달러(4745억원)를 배상하라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에서 제기된 2000여건의 베이비파우더 관련 소송 배상금액 중 최고액이다. <br/> <br/> 배심원들은 캘리포니아의 여성 환자 에바 에체베리아(63)가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를 여성청결제로 60여년간 사용한 결과 난소암이 발생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007년 난소암에 걸린 에체베리아는 존슨앤존슨이 소비자들에게 베이비파우더의 성분인 탤크(활석분말)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r/> <br/> 존슨앤존슨은 배심원의 판결에 불복,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난소암 환자 여성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자사 베이비파우더는 안전을 입증할 만한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br/> <br/> 마그네슘이 주성분인 탤크는 물기를 잘 흡수해 피부 발진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지만 석면이 포함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탤크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학계에서는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br/> <br/> 소송에 따른 판결도 제각각이다. 앞서 2012년 미주리주에서도 난소암 발병 여성에게 1억1050만 달러 배상 판결이 나오는 등 피해자들이 승소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만큼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br/> <br/>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10.txt

제목: [단독] DDT 검출 농가 2곳 역학조사… 유입원인 조사 착수  
날짜: 20170823  
기자: 세종=신준섭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23220155001  
ID: 01100201.20170823220155001  
카테고리: 사회>환경  
본문: 정부가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 계란’을 역학조사한다. 1973년부터 사용 금지된 DDT가 어떤 경로로 유입됐는지 전문인력을 투입해 확인할 계획이다. DDT는 인체에 흡수되면 암은 물론 감각이상, 마비, 경련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맹독성 농약이다. <br/> <b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촌진흥청에 DDT 검출 산란계 농가 2곳을 대상으로 하는 역학조사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농가에서는 DDT 성분이 기준치(0.1㎎/㎏)를 밑도는 각각 0.028·0.047㎎/㎏이 검출됐다. 농진청은 해당 농가의 토양이나 지하수 등을 조사해 정확한 유입경로를 찾아낼 예정이다. <br/> <br/> 현재까지는 사용 금지 전에 뿌렸던 DDT 성분 함유 제초제가 토양에 남아 있다가 계란에서 검출됐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br/> <br/> DDT는 한 번 사용하면 50년 이상 토양 등에 잔류하는 물질로 알려졌다. DDT 성분이 남아 있는 토양을 방사 중인 닭이 먹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1970년대까지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점 등을 미뤄볼 때 DDT가 남아 있던 토양을 통해 닭의 체내로 흡수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실제로 DDT가 검출된 농장 2곳은 넓은 마당에 자유롭게 풀어놓고 닭을 기르는 농장이었다. <br/> <br/> 전문가들은 DDT 잔류 지하수를 마셨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한 화학물질 전문가는 “<span class='quot0'>DDT는 물에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에서 나왔을 경우의 수는 적다</span>”고 설명했다. <br/> <br/> 일부에선 정부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여러 종류의 물질을 한꺼번에 조사했기 때문에 DDT만을 대상으로 한 시약으로 다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br/> <br/> 농관원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농가의 계란 출하 자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 농가는 지난 18일 끝난 전수조사 과정에서 기준치 이하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br/> <br/> 농식품부는 일반 농장과 친환경인증 농장 모두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이하로 나오면 출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곳은 DDT가 검출되면서 계란을 출하하지 못했다. <br/> <br/>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11.txt

제목: 존슨앤존슨 '베이비파우더가 암 유발'…4000억원 배상  
날짜: 20170822  
기자: 박효진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22150544001  
ID: 01100201.20170822150544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이 21일(현지시간) 건강의약품 기업 존슨앤존슨에 이 회사 베이비파우더 제품을 쓰다가 난소암에 걸린 여성에게 사상 최고액인 4억1700만 달러(약 4752억 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br/> <br/>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에바 에체베리아라는 여성 환자가 존슨앤존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4억1700만 달러는 그동안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비슷한 베이비파우더 관련 소송 판결에서 나온 배상금액 중 최고액이다. <br/> <br/>에체베리아는 존슨앤존슨 베이비파우더를 정기적으로 여성 위생용으로 사용하면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된 탤크(활석분말) 성분이 난소암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50년대부터 2016년까지 무려 60년간 이 회사의 베이비파우더를 계속 사용해왔으며 2007년에 난소암이 발병했다. <br/> <br/>에체베리아는 고소장에서 “탤컴 파우더의 위험하고 문제가 많은 성질에 비추어 볼 때 난소암의 가장 근접한 원인은 이 파우더다. 하지만 존슨앤존스는 탤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br/> <br/>변호사 마크 로빈슨은 “<span class='quot0'>에체베리아가 난소암으로 입원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판결로 제약사가 제품들에 추가로 적절한 경고문들을 넣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다</span>”고 전했다. 이어 “의뢰인이 동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흔히 20~30년 동안 문제의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했다가 난소암에 걸린 다른 여성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br/> <br/>존슨앤드존슨사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회사는 배심원의 판결에 불복, 상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span class='quot1'>난소암 환자 여성들에게는 동정을 하지만 자사의 베이비 파우더는 안전을 입증할만한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span>”고 주장했다. <br/> <br/>이번 판결은 미주리주에서 고소를 제기한 2012년 난소암 발병 여성에게 존슨사가 1억 1005만 달러(약 1248억 원)를 배상하라는 세인트 루이스 법정의 판결을 뛰어 넘는 최고액으로 기록됐다. 버지니아주의 이 여성은 당시 “존슨 베이비 파우더를 40년 이상 사용해오다 난소암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br/> <br/>그러나 세인트루이스 법원에서 지난 3월 열린 다른 소송에서 배심원은 테네시주의 난소암 및 요도암 환자가 낸 같은 소송을 기각했고 뉴저지 주의 비슷한 2건의 소송에서도 판사가 원고의 발병 원인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br/> <br/>미 전역에서 1000여건의 같은 소송이 제기 되었지만 일부 승소자들은 훨씬 적은 배상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앤드존슨 측은 앞으로 미국 내에서 벌어질 소송에서도 회사와 베이비 파우더를 방어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r/> <br/>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12.txt

제목: [And 건강] ‘그날’ 없는 10~30대, 내가 왜?… 늘고 있는 조기 폐경  
날짜: 20170822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22050155001  
ID: 01100201.20170822050155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도와주세요. 4개월 넘게 생리가 없어 산부인과에 갔더니 조기 폐경이라네요.”(37세 여성 A씨) <br/> <br/> “20대도 폐경이 될 수 있나요? 7∼8개월 생리를 안 하는 건 기본이고 작년에는 생리 유도 주사 맞고 딱 한 번 했어요.”(26세 여성 B씨) <br/> <br/>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인카페 등에선 이처럼 조기 폐경에 대한 궁금증 해결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들의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아직 젊은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A씨는 “잠도 안 오고 막막하다. 남편 보기에 미안하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미혼의 B씨는 “조기 폐경이 치료되는지, 임신은 가능한지 궁금하다”며 간절하게 조언을 구했다. 폐경은 여성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생식에 관여하는 난소 기능이 떨어져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등)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생리가 끊어지는 현상이다. 우리나라 여성은 정상이라면 대개 50세 전후에 폐경을 겪는다. 조기 폐경은 이보다 10년 빨리, 40세 이전에 경험하는 경우다. <br/> <br/>‘그날’ 끊긴 10∼30대 증가세 <br/> <br/> 10∼30대 이른 시기에 폐경을 겪는 여성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기 폐경(원발성 난소기능부전)으로 병원을 찾은 30대 여성은 2095명으로 2012년(1414명)보다 48.2% 증가했다. 20대 여성은 같은 기간 48.4%(475명→705명), 10대는 51.5%(103명→156명) 늘었다. <br/> <br/> 국내에선 정부나 관련 학회 차원의 조기 폐경 실태 조사나 원인 연구가 이뤄진 적이 없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전체 여성 중 1% 정도가 40세 이전에 폐경을 경험한다. 차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센터 산부인과 김영상 교수는 “<span class='quot0'>연령별로 보면 30대는 100명 중 1명, 20대는 1000명 중 1명, 10대는 1만명 중 1명꼴로 발생한다</span>”고 설명했다. <br/> <br/>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정윤지 교수는 “<span class='quot1'>최근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나이든 미혼 여성이 많아지면서 조기 폐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포털사이트에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게 아닌가 싶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다만 이들의 경우 조기 폐경보다는 단순한 생리불순일 가능성이 높다</span>”고 했다. <br/> <br/> 조기 폐경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결혼 전이거나 아기를 갖지 못한 여성은 앞으로 임신할 수 없다는 상실감과 좌절감을 쉽게 떨치지 못한다. 정 교수는 “<span class='quot1'>조기 폐경 여성 중에는 진단을 받고 나서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병원 치료를 거부하거나 민간요법에 매달리다 상태가 악화돼 다시 찾는 사례가 많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조기 폐경 진단 시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조기 폐경은 난임이나 불임으로 이어져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유병 실태 조사나 인식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br/> <br/>50% 이상, 뚜렷한 원인 몰라 <br/> <br/> 조기 폐경은 40세 이전에 난소 기능이 상실돼 적어도 4개월 넘게 생리가 없는 무월경 상태이고 혈액 검사에서 한 달 간격으로 2번 측정한 난포자극호르몬(FSH) 수치가 폐경 수준(25IU/L 이상)으로 나올 때 진단된다. <br/> <br/> 밝혀진 원인으로는 염색체나 유전자 이상, 자가면역질환, 바이러스성 감염질환 등이 있다. 자궁내막증이나 난소암으로 인한 수술, 항암 치료 등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 투여로 생식능력이 떨어진 젊은 여성 암환자들에게 조기 폐경이 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백혈병 같은 혈액암의 경우 10∼20대 환자들의 비중이 높은데 이들 중 조혈모세포이식(골수 이식)으로 병은 완치됐으나 조기 폐경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br/> <br/> 문제는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특발성’인 경우가 50%를 넘는다는 점이다. 직장인 유모(29)씨는 10개월 전부터 생리가 없어 병원을 찾았다가 원인불명의 조기 폐경 진단을 받았다. 폐경을 부를 만한 암이나 질병력은 없었다. 염색체나 유전자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유씨는 “믿기지 않아 한동안 울기만 했다”고 말했다. <br/> <br/> 전문가들은 특발성 조기 폐경이 흡연이나 음주, 스트레스, 과도한 다이어트, 환경호르몬 노출 증가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r/> <br/> 특히 흡연과 조기 폐경의 관련성은 연구가 꽤 많이 진행돼 있다. 미국 로스웰파크암연구소가 여성 8만8700여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과거 담배를 피웠다 끊은 여성은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은 여성에 비해 조기 폐경 위험이 26% 높았다. 또 15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 여성은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고 간접흡연에 노출된 일도 없는 여성에 비해 폐경을 평균 22개월 일찍 경험했다. 연구진은 담배연기 속 독성물질이 여성 생식기능과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br/> <br/>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은 하루 3잔 이상의 술을 마실 경우 조기 폐경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알코올은 난소가 성숙해지는 걸 방해하고 배란 시기를 교란한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대인관계, 수면부족으로 생기는 스트레스가 폐경 시기를 앞당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김영상 교수는 “다이어트를 지나치게 하면 호르몬 분비가 안 돼 무월경이 온다. 이게 조기 폐경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br/> <br/> 사춘기가 2년 빨리 오는 성조숙증과 조기 폐경의 관련성도 제기된다. 여자 아이의 경우 만 8세가 안 돼 사춘기 증상이 나타나면 성조숙증에 해당된다. 최근 성조숙증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 <br/> <br/>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김성훈 교수는 “<span class='quot2'>초경이 빨리 시작되면 조기 폐경이 될 확률이 높다</span>”며 “<span class='quot2'>더 확실한 건 장기 추적연구를 해봐야 한다</span>”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span class='quot0'>조기 폐경일 때도 자연 폐경 때처럼 얼굴이 화끈거리는 안면홍조,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신경과민, 정서불안, 우울증, 성욕감퇴 등 갱년기 증상이 일찍 나타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생리 주기 변화와 함께 이런 증상이 있을 땐 조기 폐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 <br/> <br/>호르몬 보충 치료 “실보다 득 많아” <br/> <br/> 조기 폐경으로 에스트로겐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면 이른 나이에 골다공증 골감소증 심장질환 당뇨병 등 ‘2차 질병’을 갖게 될 위험이 높아진다. 조기 폐경을 방치하지 말고 여성 호르몬 보충 치료를 해야 하는 이유다. 이 치료는 자연 폐경 나이인 50세 전후까지 받아야 한다. 최근 국제학술지 ‘당뇨병학’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당뇨 환자 348명 중 40세 이전에 조기 폐경이 된 여성은 55세 이후 폐경 여성보다 당뇨 발병 비율이 3.7배 높았다. 에스트로겐이 결핍되면 기억이나 인지 기능도 떨어진다. <br/> <br/> 정윤지 교수는 “<span class='quot1'>일각에서 호르몬 보충 치료가 유방암 위험을 높인다고 우려하는데, 자연 폐경과 달리 조기 폐경의 경우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span>”고 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오히려 호르몬 보충 치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초래될 2차 질병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득실을 따져볼 때 호르몬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는 게 바람직하다</span>”고 덧붙였다. <br/> <br/> 조기 폐경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은 없다. 난소 기능을 떨어뜨리는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악화를 막을 수 있다. 금연, 알코올 섭취량 조절,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하다. <br/> <br/>5%에서 임신 기대 <br/> <br/> 조기 폐경 여성의 또 다른 관심사는 임신과 출산 여부다. 이들은 난소 기능이 많이 떨어지지만 약 10%에서 드물게 배란이 되기도 한다. 이때 자연 임신을 시도하거나 자연 배란을 이용한 시험관아기시술을 하면 임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임신 성공률은 5% 정도다. <br/> <br/> 김성훈 교수는 “<span class='quot2'>진단을 받고 1년 이내에 임신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시간이 지날수록 임신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임신을 원한다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span>”고 했다. <br/> <br/> 난소 기능이 아예 멈춰 이마저도 힘들다면 다른 사람의 난자를 공여 받아 시험관아기시술을 하는 방법이 있다. 정윤지 교수는 “<span class='quot1'>여성 호르몬 치료를 지속했던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임신율이 더 높다는 연구보고가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조기 폐경 환자에게 호르몬 치료가 꼭 필요함을 보여준다</span>”고 말했다. <br/> <br/> 김영상 교수는 “<span class='quot0'>항암·방사선 치료 등으로 난소 기능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자신의 난자를 채취해 냉동 보관해 뒀다가 나중에 시험관아기시술에 활용하는 방법도 최근 도입돼 임신 성공 사례가 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글=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313.txt

제목: 부적합 농가 계란 35만개, 빵·훈제란으로 가공 유통  
날짜: 20170822  
기자: 신준섭 최일영 기자, 최예슬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22050056001  
ID: 01100201.20170822050056001  
카테고리: 사회>환경  
본문: ‘살충제 계란’이 나온 산란계 농가가 3곳 더 추가되고, 유통 조사에선 일부 빵과 훈제란 제품에 부적합 농가의 계란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 추가로 발표한 전북 김제, 충남 아산·청양 등 3곳의 부적합 산란계 농가 모두 ‘플루페녹수론’이 소량 검출됐다. 플루페녹수론은 산란계 농가에서 검출 자체가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다. 부적합 농가는 모두 52곳으로 늘었다. <br/> <br/> 추가 조사는 사흘간의 전수조사(지난 18일 결과 발표)에서 일부 살충제 성분 조사가 누락돼 문제가 불거지자 시행했다. 친환경 인증 농가(780곳)를 제외한 일반 농가(459곳)는 지자체가 조사를 담당했다. 12개 광역 지자체는 올해 신규로 추가된 8종의 살충제 성분 중 5∼8종의 검사 시약을 구비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했다. 농식품부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결과를 섣불리 발표해 화를 더했다. <br/> <br/> 더 큰 문제는 난각 코드(계란껍질) 혼란이다. 추가된 3곳 중 2500마리를 키우는 전북 김제 농가의 경우 난각 코드 없이 계란을 유통했다. 앞서 발표한 부적합 농가 난각 코드도 또다시 수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 조사 과정에서 부적합 농가 7곳의 난각 코드가 잘못 발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br/> <br/> 유통 조사 결과도 혼란을 부추긴다. 식약처는 49개 부적합 농가 계란의 유통경로에 있는 1617곳을 조사해 451만1929개의 계란을 압류·폐기했다고 밝혔다. 수거는 대부분 수집·판매업체(92.7%) 단위에서 완료했다. 문제가 된 곳은 제조가공업체(0.5%)다. 3개 업체에서 부적합 농가의 계란(약 35만개)으로 빵과 훈제란을 생산해 뷔페식당, 마트, 편의점에 유통했다. 부산 사하구 소재 A사는 ‘모닝빵’ 등 32개 제품 935㎏을 제조해 이 중 731.5㎏을 이미 판매했다. <br/> <br/> 당국의 전수조사에서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이 검출된 사실은 사흘 뒤에야 알려졌다. 지난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친환경 인증 농가인 경북 영천 농장 1곳(8500마리 사육)과 경산 농장 1곳(4200마리 사육)의 계란에 DDT 성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농식품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사흘 뒤인 지난 20일 저녁 농식품부가 이를 공식 인정하면서 알려졌다. <br/> <br/> DDT 계란은 친환경을 표방하는 한살림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br/> <br/> 식약처 위해 평가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권호장 단국대 의대 교수는 “<span class='quot0'>DDT는 인체 내 잔류성이 높아 장기적으로는 암이나 내분비계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에 검출된 DDT는 실질적 위험은 되지 않을 것</span>”이라고 분석했다. 식약처는 앞서 확인된 5개 물질에 대해선 “<span class='quot1'>피프로닐 계란은 평생 매일 2.6개씩, 비펜트린 검출 계란은 36.8개씩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span>”고도 덧붙였다. <br/> <br/>세종·영천=신준섭 최일영 기자, 최예슬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314.txt

제목: DDT 계란, ‘생협’ 통해 팔려나갔다  
날짜: 20170822  
기자: 최예슬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22050055002  
ID: 01100201.20170822050055002  
카테고리: 사회>환경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이 검출된 농가에 대해 “<span class='quot0'>토양 조사 결과를 분석·모니터링해 위험물질이 발견되거나 의심되면 조치를 취하겠다</span>”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경북의 친환경 농장 2곳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DDT가 허용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DDT는 과거 살충제로 많이 쓰였지만 독성이 강해 1979년부터 시판이 금지됐다. <br/> <br/> DDT 계란은 친환경을 표방하는 한살림 생활협동조합(생협)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살림 측은 닭은 자유롭게 방사하는 동물복지형 농장에서 계란을 생산했지만 흙이 DDT 오염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 살림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문제의 계란은 처음 살충제 계란 논란이 나왔을 때부터 다른 제품과 함께 판매를 중단한 상태</span>”라며 “<span class='quot1'>38년전에 사용이 중단된 DDT가 흙에 잔류해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span>”고 말했다. <br/> <br/> 식약처는 이번에 발견된 DDT의 위해성은 미미하다고 결론내렸다. 식약처 위해 평가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권호장 단국대 의대 교수는 “<span class='quot2'>DDT는 인체 내 잔류성이 높아 장기적으로는 암이나 내분비계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에 검출된 DDT는 실질적 위험은 되지 않을 것</span>”이라고 분석했다. <br/> <br/> DDT조사는 친환경 농가에 한해서 이뤄졌다. 친환경 농가의 경우 위해물질에 대한 검사가 더 엄격하게 이뤄져 DDT가 검출됐으나, 일반 농가에서는 살충제 잔류물질 27종만 검사하고 DDT는 조사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span class='quot3'>토양조사나 환경조사를 통해서 DDT가 지속적으로 검출될 여건이 발견되면 잔류물질 검사 대상에 DDT를 추가하는 방안을 식약처와 논의하겠다</span>”며 “<span class='quot3'>DDT의 현재 기준이 문제가 있는지도 판단해 보고 협의해나가겠다</span>”고 밝혔다. 이날 식약처는 위해 평가 결과 “<span class='quot4'>피프로닐이 검출된 계란은 평생 매일 2.6개씩, 비펜트린 검출 계란은 36.8개씩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span>”고 밝혔다. <br/> <br/>최예슬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315.txt

제목: [헬스파일] 빈혈… 철분제 복용 앞서 원인 파악부터  
날짜: 201708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22000057002  
ID: 01100201.20170822000057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갑자기 어지럽거나 정신을 잃은 경험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심하는 증상이 빈혈이다. 빈혈 때문에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진 게 아닌가 싶어 확인하려는 것이다. <br/> <br/> 빈혈이란 한마디로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적혈구가 부족한 상태다. 적혈구 내 혈색소가 남성은 13g/㎗, 여성은 12g/㎗ 이하일 경우 빈혈 판정을 받는다. <br/> <br/> 적혈구가 부족하면 산소부족으로 어지럼증 외에도 여러 이상증상이 나타난다. 피로, 호흡곤란, 가슴 두근거림, 탈모, 부종, 생리불순 등이다. <br/> <br/> 빈혈은 철분 부족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적혈구의 수명은 약 4개월이다. 수명을 다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피 생성 공장인 골수에서 끊임없이 적혈구를 생산해낸다. 그런데 음식을 통해 철분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몸 조혈기계가 연료부족으로 가동을 멈춘다. 이때 생기는 게 ‘철 결핍성 빈혈’이다. <br/> <br/> 소아나 청소년, 임산부는 철분 요구량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지기 쉽다. 위 수술을 받았거나 만성설사, 염증성 장 질환자 등도 공급 부족이 되기 쉽다. <br/> <br/>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겪는 빈혈은 월경과다로 인한 게 대부분이다. 이 밖에 위궤양, 정맥류출혈, 종양 등으로 인한 출혈과 반복적인 헌혈 혹은 사혈로 인한 빈혈도 있다. <br/> <br/> 빈혈 치료는 몸 속 철분통장의 잔고를 철분제 복용으로 채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출혈성 질환 등 정확한 원인 파악이 필수적이다. 철분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왜 그런지 규명해 교정하는 게 올바른 자세다. <br/> <br/> 노인성 빈혈은 만성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더 주의가 필요하다. 철분제 복용보다는 원인질환 치료가 우선일 때가 많다는 뜻이다. 특히 감염, 자가면역질환, 암, 콩팥병 등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을 때 주의해야 한다. 일부 환자는 조혈제 주사가 필요하다. <br/> <br/> 엽산 및 비타민 B12 결핍에 의한 빈혈은 위전절제술을 받은 사람, 알코올 중독 환자에게서 자주 발견된다. 골수질환으로 생기는 빈혈은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이형성증후군 등이 주원인이다. 이 경우 원인질환 제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br/> <br/>김선혜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과장

언론사: 국민일보-2-316.txt

제목: 노인 위암 진단 후 치료 않으면 5년 내 거의 사망  
날짜: 20170822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22000056001  
ID: 01100201.2017082200005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노년기에 암을 발견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 최소한의 통증치료만 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하는 게 나을까. <br/> <br/> 하루를 더 살아도 여생의 질을 높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얼마나 더 산다고 치료를 하느냐는 반론도 있다. 고령자의 몸에 생긴 암은 젊은이의 암과 달리 진행이 느려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br/> <br/> 과연 어느 쪽 주장이 옳을까. 서울대병원 위장관외과 이혁준(사진) 교수 연구팀이 21일 이런 궁금증을 푸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고령 위암 환자의 암 진행속도와 사망에 걸리는 기간을 비교 분석한 내용이다. <br/> <br/> 이 교수 연구팀은 1988년부터 2015년까지 27년간 서울대병원과 서울시보라매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은 뒤 5개월 이상 수술 등 적극적인 암 치료를 거부한 환자 101명의 진행경과와 생존기간을 비교했다. 사망 시까지 어떤 암 치료도 받지 않은 환자는 절반가량으로 72명이었다. <br/> <br/> 이들이 치료를 거부한 이유는 합병증 위험, 치료 걱정, 대체요법, 경제적 문제 등으로 조사됐다. 조기위암에서 전이가 본격화되는 진행위암으로 발전하기까지는 평균 34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병기별로는 1기에서 2기가 34개월, 2기에서 3기는 19개월, 3기에서 4기는 2개월이 소요됐다. 발병 초기의 위암이 두 배 크기로 자라는 데는 평균 1년이 걸렸다. <br/> <br/> 위암 진단 후 어떤 치료도 받지 않은 72명이 사망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1기의 경우 평균 63개월, 2기 25개월, 3기 13개월, 4기 10개월인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나이는 암 진행 속도와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br/> <br/>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75세 이상 고령 환자와 74세 이하 환자의 생존율을 비교한 결과 위암 진행속도에 차이가 없었다</span>”며 “<span class='quot0'>노인의 암은 느리게 자란다는 속설은 근거가 없으며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5년 내 거의 다 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span>”고 말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17.txt

제목: ‘살충제 계란’ 인체 영향 논란…정부 “문제 없다” vs 의사협회 “장기적 영향 판단 불가”  
날짜: 20170821  
기자: 백상진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21164744001  
ID: 01100201.201708211647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정부가 살충제성분이 검출된 계란을 평생 먹어도 인체에 문제가 없다는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쥐실험을 바탕으로 간접 추산한 독성치를 두고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국민들에게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장기적으로 살충제 성분을 섭취한 상황에 대한 인체 영향을 확인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br/> <br/>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살충제 계란’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span class='quot0'>살충제 성분 5종이 검출된 계란을 매일 평생 먹어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span>”고 밝혔다. 5종은 피프로닐, 비펜트린, 피리다벤, 에톡사졸, 플루페녹수론을 말한다. <br/> <br/>정부는 살충제 계란이 위험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전수조사에서 살충제가 가장 많이 검출된 계란을 기준단위로 삼았다. 추산 결과 피프로닐이 최대 검출된 계란을 먹는다고 가정할 경우 1~2세 영아는 하루 24개, 3~6세 유아는 37개, 성인은 126개까지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br/> <br/>정부는 또 같은 방식으로 1~2세 영아의 경우 비펜트린은 7개(유아 11개, 성인 39개), 피리다벤은 1134개(유아 1766개, 성인 5975개)를 먹어도 괜찮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발견된 에톡사졸과 플루페녹수론의 경우 검출된 계란을 매일 각각 4000개와 1321개까지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다고도 했다. 다시말해 계란을 수천 개씩 먹는 극단적 상황을 가정해도 안전하기 때문에 현재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은 인체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br/> <br/>그러나 정부가 설명한 독성 수치는 어디까지나 쥐 실험을 통한 대략적인 추산치일 뿐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위해평가 자문을 맡고 있는 권훈정 서울대 교수(한국독성학회장)는 이날 브리핑에서 임산부나 노약자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span class='quot1'>인간을 대상으로 보고된 것은 없다</span>”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쥐가 새끼를 낳았을 때 신경발달에 문제가 없는지를 최소농도 기준치에 반영한다”며 “동물실험 값의 100분의 1을 사람에게 먹어도 좋다고 정한다”고 설명했다. <br/> <br/>특히 이번 위해평가 대상에는 산란계 농장에서 추가로 검출된 DDT 성분은 빠져있다. 자문단에 속해있는 권호장 단국대 교수는 “DDT는 놀라운 해충박멸력에 비해 급성독성력은 없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며 “문제는 인체 내 잔류성이 높고 장기적으로는 암이나 내분비계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DDT가 노출된 건 상징성은 있지만 실질적 위험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r/> <br/>반면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은 장기적으로 인체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제보건기구(WHO)를 인용해 “<span class='quot2'>사람이 피프로닐을 과다 섭취할 경우 어지럼증이나 구토, 복통 등의 독성물질오염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간과 신장 등 장기손상 가능성이 있다</span>”고 밝혔다. 비펜트린에 대해서도 “사람이 섭취할 경우 두통과 울렁거림, 복통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의사협회는 특히 이들 살충제 성분을 장기적으로 섭취한 경우에 대한 연구논문이나 인체사례 보고가 확인되지 않아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r/> <br/>‘날림 전수조사’로 헛발질만 계속하는 정부의 대응도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는 이날 420개 농가를 대상으로 보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북 1개 농가와 충남 2개 농가 등 3개 농가 계란에서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8일에는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가 49개라고 했다가 다시 말을 뒤집은 셈이다. 샘플을 확보할 때 ‘무작위 추출’이라는 전수조사 원칙을 무시한 채 농장주가 준비한 조사용 계란만 검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br/> <br/>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18.txt

제목: 난치성 삼중음성유방암도 표적치료제 앞에선 “꼼짝 못해”  
날짜: 20170821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21135144001  
ID: 01100201.201708211351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지금까지 항암치료 외에는 달리 뾰족한 치료방법이 없었던 삼중음성유방암에 새로 개발된 표적치료제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유방암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br/> 삼중음성유방암은 호르몬이나 유전자(HER2)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방암의 한 종류로 항암제에 일부 반응하더라도 재발이 많고 암의 진행이 빨라,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에서의 무진행 생존기간이 평균 6개월 미만일 정도로 치료가 어려운 암이다. <br/> 무진행 생존기간이란 암 치료 후 암이 새롭게 진행(악화)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암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암 발생 후 사망하기 전까지의 전체 생존기간과 다른 의미로 쓰인다. <br/>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김성배( <br/>사진) 교수는 21일 한국, 미국, 프랑스 등 8개국 44개 병원이 참여한 다기관 국제 연구를 통해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에서 AKT 표적치료제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 기존 항암제로만 치료한 환자보다 무진행 생존기간이 2배 증가해 획기적인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br/> <br/> 연구결과는 그동안 항암치료 외에는 표적치료 방법이 없었던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치료 분야에서 AKT 표적치료의 효용성을 처음으로 입증했다는 평가와 함께 세계 3대 암관련 임상의학잡지 중 하나로 꼽히는  ‘란셋 온콜로지(Lancet Oncology, IF 33.9)’ 최근호에 게재됐다. <br/>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 전체 유방암의 약 60-70%를 차지하고 있으며, HER2 특이 유전자 증폭과 관련된 HER2 유방암이 20%, 호르몬이나 HER2 유전자 증폭과 관계없이 유방암이 발생한 삼중음성유방암이 그 나머지 15-20%를 차지한다. <br/> 지금까지 삼중음성유방암 치료를 위해 암 성장에 중요한 신호경로를 차단하는 약제를 이용한 임상시험이 있었으나 효과가 좋지 않았고, 최근 면역치료제, DNA 손상시 복구와 관련된 PARP 억제제가 일부 제한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아직도 치료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br/> 김성배 교수팀이 항암치료 후 1년 이내에 재발된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에게 암 세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신호경로 중 하나인 AKT를 억제하는 약제(이파타설팁, Ipatasertib)를 이용한 무작위 임상 2상 연구를 시작한 배경이다, <br/> 김 교수팀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8개국 44개병원에서 124명의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 중 62명에게는 표적치료제(AKT 억제제)와 항암치료제(paclitaxel)를 함께 병합해서 치료했고, 대조군인 62명의 환자들에게는 항암치료제만으로 치료를 시행했다. <br/> 먼저 병합치료를 시행한 군에서는 평균 무진행 생존기간이 6.2개월이었고, 항암제 치료만 받은 군에서는 4.9개월이었다. <br/> 또한 연구팀은 전체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 124명 중 차세대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PI3K-AKT-mTOR 신호경로의 이상이 있는 환자들만 선별하였는데, 병합치료를 받은 군에서는 26명, 항암치료만 받은 군에서는 16명으로 총 42명이었다. <br/> 42명 중 항암치료제로만 치료받은 환자 16명의 평균 무진행 생존기간은 4.9개월이었지만, 표적치료제와 항암치료제를 병합한 환자 26명에서는 평균 9개월로 나타나 표적치료제를 투여한 환자에서 무진행 생존기간이 2배 정도 길어 획기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냈다. <br/> 표적치료제를 투여한 환자들에서 치료 약제로 인한 대표적인 부작용은 설사였고, 사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br/> 총 8개국 44개 병원에서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 국가별로는 아시아인이 58명, 백인이 54명, 흑인 등 그 외 인종이 12명이었다. <br/> 연구팀은 향후 3상 임상시험을 통해 삼중음성유방암 뿐만 아니라 전체 유방암 환자의 60-70%를 차지하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서도 AKT 억제제의 효과에 대해 추가 3상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br/>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우수한 치료약제가 부족한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에서 AKT 표적치료제의 효용성을 세계 처음으로 입증한 연구</span>”라며, <br/> “<span class='quot1'>특히 치료 전에 차세대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PI3K-AKT-mTOR 신호경로의 이상이 있는 유방암 환자를 선별할 수 있고, 이러한 환자 군에서 AKT 표적치료의 효과가 탁월하여 무엇보다 적합한 환자를 선별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 <br/> 김 교수는 앞으로 계속될 3상 임상연구를 통해 더 많은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에서의 치료효과를 입증하고, 더불어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들에게도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19.txt

제목: 해썹 떼면 판매 가능…DDT 검출된 친환경 계란 유통 ‘시끌’  
날짜: 20170821  
기자: 천금주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21075244001  
ID: 01100201.20170821075244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친환경 인증 농장에서 38년 전 국내에서 사용이 전면 금지됐던 농약 ‘DDT’가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DDT가 검출된 계란은 기준치 이하의 미량인 만큼 친환경 마크를 떼고 일반 계란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br/> <br/>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683개 친환경 인증 농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경북 지역의 친환경 농장 2곳의 계란에서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가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br/> <br/>DDT는 살충제의 일종으로 인체에 흡수되면 암은 물론 여러 이상 증세을 일으킬 수 있는 맹독석 물질이다. 특히 체내에 들어오면 물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대 24년으로 알려져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엄격히 금지됐다. 국내에서도 1979년 시판이 금지된 농약이다. <br/> <br/>농식품부는 전국 683개 친환경 인증 농장을 대상으로 지난 15일~17일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320종의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68곳이 친환경 농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경남의 위치한 농가 2곳에서는 DDT가 검출됐다. <br/> <br/>그러나 이들 농가는 기준치 이하의 미량이 검출된 만큼 ‘친환경’ 마크를 떼고 일반 계란으로 유통할 수 있다. 이는 농약을 직접 살포하지 않더라도 토양이나 사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닭의 체내에 흡수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br/> <br/>농식품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DDT는 과거 무분별하게 사용됐던 농약이어서 직접 살포하지 않더라도 토양에 남아있는 성분을 통해 닭의 체내에 흡수됐을 가능성이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DDT 외에도 원예용 농약으로 알려진 클로르페나피르, 테트라코나졸 등 두 가지가 추가로 검출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DDT 검출로 정부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가 해명자료를 통해 추가 검출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결국 친환경 무항생제 계란에서 검출된 농약성분은 기존 5종에서 3종이 추가돼 총 8종으로 늘었다. <br/> <br/>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곳곳에선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친환경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조차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은 물론 DDT가 검출됐어도 미량이어서 일반 계란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span class='quot1'>안전하다고 한 계란도 믿을 수 없다</span>” “<span class='quot1'>정부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소홀했으면 친환경 농가에서 맹독성 농약이 나왔겠냐</span>” “<span class='quot1'>계란 자체를 먹으면 안 될 듯</span>”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br/> <br/>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20.txt

제목: 중증 치매 의료비 10월부터 10%만 낸다  
날짜: 20170819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19215455001  
ID: 01100201.201708192154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10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들은 입원이나 외래 진료시 발생하는 의료비의 10%만 내면 된다.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정책 추진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90%를 지원한다. 연간 24만명이 혜택을 보게 돼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전망된다. <br/> <br/>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증 치매 산정특례 적용방안을 보고했다. 치매 환자 돌봄 비용 중 의료비 비중이 매우 크지만 그간 건강보험 보장률은 낮았다. 2015년 기준 치매 환자 1인당 평균 의료·요양 비용은 2033만원에 달했다. 이중 직접 의료비가 절반가량인 1084만원이었다. <br/> <br/> 이에 따라 우선 의료적 필요가 크고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 치매 환자에게 산정특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산정특례는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등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20∼60%에서 5∼10%로 경감해 주는 제도다. <br/> <br/> 치매 진단은 경도(CDR1), 중등도(CDR2), 중증(CDR3)으로 이뤄진다. 산정특례는 중등도 이상 치매 환자를 질환 특성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눠 적용된다. 증상이 매우 심한 14개 치매 질환(1그룹)의 경우 기존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와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해당 질환 확진 후 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기관에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하면 향후 5년간 별도의 일수 제한 없이 입원·외래 진료 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한다. 5년 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재등록이 가능하다. <br/> <br/> 또 환자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19개 치매 질환(2그룹)은 환자별로 연간 60일간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이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의 신경과 혹은 정신과 전문의가 지속적 투약·처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60일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연간 최대 120일간 혜택을 볼 수 있다. <br/> <br/> 복지부는 이날 2가지 시범사업 시행 계획도 보고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15분간 심층 진료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그간 대형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던 3분 진료 관행에서 벗어나 환자들에게 충분한 진찰과 상담, 검사 등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공립병원 1곳 이상, 민간병원은 신청을 받아 선정된다. 시범사업 기관에는 9만3000원 수준의 심층 진료 수가(진료 대가)가 주어지고 환자들은 그에 따라 5000원가량 더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뇌졸중이나 척수손상, 근골격계 환자들이 1∼6개월간 집중 재활치료를 받고 조기에 일상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21.txt

제목: 뇌종양 극복한 이의정, 지금은 아로니아로 관리해요  
날짜: 201708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18175944001  
ID: 01100201.20170818175944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방송인 이의정은 과거 뇌종양 판정을 받고 시한부 삶을 살았었다. 당시 3개월 판정을 받았던 이의정은 달력에 날짜를 표시해가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았던 것을 방송에서 고백했던 적 있다. 또한 몸에 마비가 와서 대소변을 엄마가 받아주실 때가 제일 힘들었다고 한다. <br/> <br/>지금은 매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이의정씨가 추천하는 식품이 있다고 한다. 이미 연예계에는 이것 전도사라고 불리며 방송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서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안다고 하는 이것. 바로 ‘아로니아’다. <br/> <br/>아로니아는 중국에서 불로매(늙지 않은 열매)라고 불리며, 유럽에서는 왕과 귀족들만 먹었다고 해서 킹스베리라고도 불리는 열매로, 안토시아닌이 다른 슈퍼푸드보다 월등히 많이 들어 있다. <br/> <br/>안토시아닌은 가장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 몸 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세포를 손상시켜 암이나 질병을 유발하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동맥경화,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아로니아는 눈의 피로를 완화, 시력 회복 및 백내장 예방에도 효과가 뛰어나 눈에 좋은 음식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으며, 노화예방, 피부미용, 다이어트까지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r/> <br/>한편, 이의정은 오는 20일 오전 현대홈쇼핑에서 본인의 힘들었던 시기와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강비결 아로니아를 소개할 예정이다. <br/> <br/>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22.txt

제목: 의협 “살충제 계란, 급성 독성피해 우려는 없다. 다만…”  
날짜: 20170818  
기자: 권중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18151144001  
ID: 01100201.201708181511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살충제 계란’이 발견된 국내 산란계 농가가 17일 현재 45곳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살충제 계란’의 독성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장기간 섭취할 경우'의 위험성은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의견을 밝혔다. <br/> <br/>의협은 18일 의사회관 3층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pan class='quot0'>살충제 계란의 급성 독성은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span>”라고 했다. 근거로 몸무게 10㎏ 미만인 영·유아가 살충제 독성 기준치를 넘은 계란을 하루에 2개를 먹더라도 급성 독성 피해를 입을 위험도가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br/> <br/>앞서 식약처는 피프로닐로 인한 급성 독성 증상이 단기간에 몸에 나타나는 최소 섭취량을 몸무게 60㎏ 성인 기준 0.54ppm으로 분석했다. 이만큼이 체내에 유입되려면 계란 245개 이상을 한 번에 먹어야 한다. <br/> <br/>또 의협에 따르면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성분이 암을 일으켰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피프로닐, 피리다벤 등 대다수 살충제 성분은 보통 약 1개월이 지나면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갔다. 다만 쥐나 일부 동물에게는 암을 일으켰다는 실험 결과가 보고됐다. <br/> <br/>추 회장은 “<span class='quot1'>살충제 계란을 장기간 섭취해 생기는 인체 변화는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span>”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하루에 4000만개가 소비되는 계란은 매일 먹는 가정이 많고 빵 같은 각종 식품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며 “허용기준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br/> <br/>‘살충제 계란’ 파동 재발을 막기 위해 동물사육 환경의 대전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살충제 계란 파동을 막을 대책으로 공장식 축산과 감금틀 사용 등 동물사육 환경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산란계 농장뿐 아니라 유통 중인 계란도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r/> <br/>정부의 실책도 꼬집었다. 그는 “친환경 인증 식품에도 살충제 성분이 나왔고 정부가 검사를 통해 계란이 안전하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번복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br/> <br/>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23.txt

제목: 서울대병원, 구강 경유 무흉 갑상선암 수술 인기  
날짜: 20170818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18093444002  
ID: 01100201.20170818093444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입을 통해 내시경 수술기구를 목안으로 삽입, 암을 제거하는 구강경유 무흉 내시경 갑상선 절제술이 선보여 각광받고 있다. <br/> <br/> <br/>서울대병원은 갑상선센터 내분비외과 이진욱( <br/>사진 왼쪽) 교수팀이 2016년부터 구강경유 내시경 절제술을 통해 갑상선암 제거 치료를 받은 환자 40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암 제거 및 수술 후 합병증 등이 기존 수술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환자들은 무엇보다 목에 흉터가 남지 않아 크게 만족해 했다. <br/> <br/>갑상선은 목의 아래쪽 나비모양 신체기관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 신체의 대사를 조절한다. 이 부분에 혹이 만져지는 경우 약 5%가 갑상선암으로 진단된다. <br/> <br/>갑상선암은 국내에서 가장 흔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면 생존율도 매우 높은 암이다. 주로 수술로 치료하는데, 목 앞부분을 절개하고 암을 제거하는 수술은 목에 큰 흉터를 남긴다. 특히 갑상선암 환자의 다수는 사회생활 하는 젊은 여성이라 수술 후 흉터는 큰 걱정거리다. <br/> <br/>이런 단점을 극복한 것이 ‘구강경유 내시경 절제술’이다. 이 수술은 입술과 아래 잇몸 사이의 점막에 3개의 구멍을 뚫은 후 내시경을 넣어 암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br/> <br/>피부절개가 없어 흉터가 전혀 남지 않으며, 통증이 적고 회복도 빠르다. 내시경이 들어가는 통로인 구강 내 점막은 시간이 지나면 완벽히 회복된다. <br/> <br/>이 교수는 “흉터를 줄이기 위해 겨드랑이나 귀 뒤를 통한 접근법은 물론 다양한 내시경과 로봇수술이 개발됐다. 하지만 여전히 피부를 크게 절개해야 하는데, 이 수술은 흉터가 남지 않는 유일한 수술이다”며 “비용도 기존 수술법과 비슷해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24.txt

제목: 한센인들의 두 천사 노벨평화상 추천한다  
날짜: 20170818  
기자: 최예슬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18222855002  
ID: 01100201.2017081822285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한센인을 위해 40년을 헌신한 푸른 눈의 간호사들이 있다. 1960년대 오스트리아에서 한국을 찾은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젊은 시절을 오롯이 한센인 의료봉사에 바쳤다. 정부는 두 사람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br/> <br/>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간호대학 동기였던 마리안느 스퇴거(83)와 마가렛 피사렉(82)은 각각 62년과 66년 한센인을 치료하는 국립소록도병원(전남 고흥)을 찾았다. 소록도에는 6000명의 환자가 있었지만 의료진은 5명뿐이었다. 당시 ‘문둥병’을 옮긴다며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았던 한센인들의 인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br/> <br/>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의료진조차 만지지 않으려던 한센인의 피고름을 만지고 이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한센인들에게 두 사람은 지상에서 만난 천사였다. 자원봉사자였지만 ‘수녀님’이라고 불렀다. <br/> <br/> 2005년 마리안느가 대장암에 걸리자 두 사람은 “주변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편지만 남긴 채 조용히 인스부르크로 돌아갔다. 현재 마리안느는 암, 마가렛은 치매로 투병 중이다. <br/> <br/> 국무총리비서실과 정부 관계부처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록도 간호사인 마리안느와 마가렛 소개, 선양사업·노벨평화상 추천 브리핑’을 열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브리핑을 진행한 소록도 성당 김연준 주임신부는 “우리는 마리안느와 마가렛에게 엄청난 빚을 졌다”며 “감사할 것에 적어도 감사해야 한다. 그게 바로 국격이고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br/> <br/> 정부 차원의 노벨평화상 후보 추진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4월 20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상영한 뒤 본격화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소록도병원이 100주년을 맞은 지난해 마리안느의 명예군민증 수여식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마리안느·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원회’(가칭) 구성에는 전남도와 사단법인 마리안마가렛이 앞장서고 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직을 수락했고, 김정숙 여사가 명예위원장직 제의를 받았다. 이외에 정치·사회 지도층에서 50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br/> <br/>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25.txt

제목: 표적치료체계 도입, 척추관협착증 치료 개선 기대  
날짜: 2017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17163444002  
ID: 01100201.20170817163444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허리통증’하면 조건반사처럼 ‘디스크’를 떠올린다. 그러나 실제 환자들이 받는 진단명은 척추관 협착증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연세건우병원 척추클리닉 이기열, 황규현 원장 연구팀에 따르면 2015~2017년까지 허리통증 내원환자의 협착증 진단율은 62%로 디스크의 21%에 비해 3배가량 높았으며, 지난해 통계사상 최대인 144만 명의 환자가 협착증으로 병원을 찾았다. <br/> <br/>문제는 높은 유병률로 질병 인지도는 높아진 반면 질병/치료 인식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사실이다. 이기열/황규현 원장 연구팀의 척추관협착증 환자 설문에서 '협착증'은 알지만 '어디에 협착증이 있는가?'란 질문 응답률은 불과 40% 미만이었고,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는 더 심각한 30% 미만이었다고 밝혔다. <br/> <br/>모든 질환은 진행 정도에 따라 경도-중등도-중증 등 병기가 구분된다. 그러나 협착증 환자들의 경우 ‘수술할 정돈 아니더라 혹은 이런저런 시술로 가능하다던데’라고 말하며 본인의 병기에 대해 정확히 아는 이는 드물다. 이 때문에 A병원을 가면 시술만으로, B병은 수술로만 치료한다며 병원이동 현상 역시 극심하다. <br/> <br/>이기열 원장은 “협착증 역시 진행 정도에 따라서 병기가 나뉘고, 상태에 따라서 보존과 수술로 치료가 구분된다. 그러나 많은 환자들이 잘못된 정보/인식으로 스스로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대체의학적 치료의 과장/과대 의료광고에 따른 피해사례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br/> <br/>많은 이들이 신경외과 치료는 고비용,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시술을 계속하다 안 되면 수술’의 극단적 이원화로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상태에 맞는 선별적 표적치료와 단계적 재활치료 병행으로 심리/경제적 부담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br/> <br/>이 원장은 “표적치료는 암 치료에서 암 진행에 연관된 특정분자를 표적해 암세포증식을 막는 것으로 이 개념을 척추관협착증에 도입한 것이다. 협착증 표적치료는 증상을 유발하는 병변 국소부위를 정확히 찾아 타겟점을 형성한 후 Micro-Needle을 정확하게 타겟점에 삽입해 오차범위 없이 정확하게 국소부위에 약물을 주사하는 치료이다”고 설명했다. <br/> <br/>이어 “약물이 정확히 투여되었다면 빠르게 통증이 완화되고 보행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때 호전되었다고 치료가 끝난 것이 아니다. 환자의 기능/운동 임상분석 과정을 통해 맞춤형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해 재활 허리교정을 시행해야 재발 가능성까지 제거할 수 있다”고 전했다. <br/> <br/>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26.txt

제목: 기장군,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 정상추진 촉구  
날짜: 20170816  
기자: 부산=윤봉학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16150045001  
ID: 01100201.20170816150045001  
카테고리: 지역>부산  
본문: 부산 기장군이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의 정상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br/> <br/>오규석 기장군수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하고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일반산업단지 내에 들어오는 대형 국책사업인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오 군수는 지난달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항의 방문한 바 있다. <br/>  <br/>기장군에 도입예정인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은 동남권산단 내 1950억원(국비 700억원, 지방비 500억원, 원자력의학원 750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치료센터에서 상용화 치료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br/> <br/>그러나 원자력의학원에서 750억원의 분담금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장기 표류 중에 있으며 최근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 참여병원 모집공고를 통해 서울대병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현재 협의 중이다. <br/> <br/>하지만 추가 사업비 문제와 서울대병원 측의 투자검토와 관련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지 않으면 동북아 의료관광허브를 꿈꾸는 기장군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br/> <br/> <br/>또한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지역 주민들도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뤄지는 추진상황에 대하여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br/> <br/>부산시와 기장군에서는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자체 분담금 500억원(부산시비 250억원, 기장군비 250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을 완료해 그 재원으로 부지매입과 중입자 치료센터 건물을 준공한 상태다. <br/> <br/>오 군수는 “<span class='quot0'>해당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span>”고 말했다.  <br/> <br/>한편 중입자가속기가 들어서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는 기장군에서 2019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며, 수출용신형연구로 사업,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구축 및 파워반도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과 이와 관련된 강소기업 유치 집적화로 머지않아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방사선 의・과학 융합 클러스터’로 자리 잡아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br/> <br/>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27.txt

제목: "새희망씨앗 기부, 뭔가 이상하다" 3년 전 의심했던 네티즌  
날짜: 20170814  
기자: 박상은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14164344001  
ID: 01100201.20170814164344001  
카테고리: IT\_과학>콘텐츠  
본문: 128억여원의 기부금을 사적으로 쓴 사단법인 ‘새희망씨앗’의 만행이 드러나면서 3년 전 이 단체에 대해 의문을 품었던 네티즌의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네티즌 A씨가 블로그에 “<span class='quot0'>새희망씨앗 후원 전화를 받았다</span>”는 글을 올린 것은 2014년 7월이었다. 3년 전에도 이 단체의 허술함이 드러났던 셈이다. <br/> <br/>당시 A씨는 새희망씨앗의 사업자번호를 확인한 결과 비영리단체가 아닌 점, 결손 가정에 현금이 아닌 교육 콘텐츠로 지원한다는 점 등에 의문을 품었다. 또 카드 할부로 정기후원 결제가 가능하며, 할부 이자를 대납해준다는 사실에 “이런 시스템의 후원 단체는 처음 본다”고 했다. <br/> <br/>A씨가 한 번 더 후원 권유 전화를 받은 것은 2015년 1월이었다. 그는 “분명히 전화번호는 랜덤이라 했는데 어찌해서 대한민국 휴대전화 4000만 회선을 돌고 돌아 6개월 만에 다시 전화가 왔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새희망씨앗은 A씨가 2014년에 올린 블로그 글을 삭제해달라고 계속 요청했다고 한다. A씨가 지적한 사업자번호 또한 비영리단체의 번호를 도용해 바꾸어놓았다. A씨는 “이번에 전화가 온 김에 상세하게 많은 것을 물어보았다”며 자신이 파악한 부분을 상세히 공유하기도 했다. <br/> <br/> <br/> <br/> <br/>A씨에 따르면 새희망씨앗은 후원자들에게 2~3만원의 기부금을 요청했지만 이들이 내세운 온라인 교육 콘텐츠는 KT에서 1만1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였다. 게다가 A씨가 KT 측에 확인한 결과  ‘새희망씨앗을 통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계약이 이미 종료됐다’는 답이 돌아왔다. 무엇보다 KT는 이 서비스를 2015년 2월자로 중단할 예정이었다. <br/> <br/>A씨는 “아이디를 후원 아동에게 주고 접속하게 하는 시스템. 이제서야 왜 2~3년의 기간을 그리고 1만원이 아닌 2~3만원을 추천하는지 조금 이해가 간다”며 “2만원을 하든 3만원을 하든 1인당 한 명의 아동이 연결되는데 남은 돈은? 그걸 모아서 장학금을 주는 건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불우한 학생 입장에서 현금보다 이런 온라인 콘텐츠가 더 유용할지는 의문”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br/> <br/>A씨는 또 “1년 정기 후원시 12개월 할부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결재 대행사가 대납해준다고 하는데 왜 그 피 같은 돈을 후원에 쓰지 않고 카드사 수수료로 납부하는 지(모르겠다). 지금은 계좌 이체나 일반 보험처럼 정기 결제가 가능한데 왜 처음에 저런 할부 시스템으로 유도하는지, 정말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의문투성이”라고 덧붙였다. <br/> <br/> <br/> <br/> A씨의 글은 지난 11일 새희망씨앗이 후원금 128억여원으로 호화 생활을 즐겼다는 보도가 나간 후 이른바 ‘성지글’로 주목받았다. 한 네티즌은 “전에 새희망씨앗 전화를 받고 이상하게 여겨져 이곳 블로그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사기꾼이었나보다. 사회의 암 같은 존재”라고 비난했다. <br/> <br/>한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새희망씨앗 회장 윤모(54)씨와 주식회사 새희망씨앗 대표 김모(37·여)씨 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2000만개가 수록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구입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고, 3년여간 4만9000명에게 128여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br/> <br/>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28.txt

제목: 유방암 후유증 및 재발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날짜: 201708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14111844002  
ID: 01100201.20170814111844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유방암은 연구가 많이 된 암이지만 아직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위험 인자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미리 피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위험 인자에는 고지방식 섭취, 환경호르몬 노출, 출산·수유 경험 유무, 음주, 비만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도 주요 위험 인자로 유전력을 꼽을 수 있는데, 어머니나 자매에게 유방암이 발생했을 때 본인도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이 2~3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엇보다 정기 검진을 철저히 받아야 한다. <br/> <br/>유방암에 정기 검진이 중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에게 초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흔한 증상은 유방에서 통증 없는 멍울이 만져지는 것과 함께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거나 유두가 함몰되는 것이다. <br/> <br/>이러한 증상은 통증은 없지만 자신이 주의 깊게 신경 쓴다면 자가 진단만으로도 충분히 유방암을 의심해볼 수 있다. 특히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 하면 비교적 생존율이 높은 암이기 때문에 평소 꾸준한 자가 진단 및 정기 검진으로 유방암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br/> <br/>메디움수원요양병원은 암 환우의 암 치료뿐만 아니라 항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일부 다른 병원에서는 많은 환자를 한정된 고주파 장비로 치료를 하다 보니 늦은 저녁이나 새벽에 치료를 받게 되는데, 메디움수원요양병원은 암 환우들이 이러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중급 규모 요양병원이지만 고주파온열치료기를 2대 보유하여 환자의 치료의 불편을 줄이고 있다. <br/> <br/>통합의학적 암 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메디움수원요양병원 나학열 원장은 “<span class='quot0'>암은 신체적인 고통은 물론 마음까지 병들게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암 치료에 더해 정신적인 부분까지 케어할 수 있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span>”고 전했다. <br/> <br/>이러한 최적의 사후관리를 위해 메디움수원요양병원은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음악과 미술을 통한 정신적 치료와 함께 기본적인 체력 증진을 위한 필라테스, 요가와 같은 운동 치료로 암 치료·재활·요양 모두를 책임지고 있다. <br/> <br/>또한 암 환우에게 가족처럼 다가가 소통하고 도움을 드림으로써 암 환우가 안심하고 의료진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r/> <br/>암은 근본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생길 재발과 전이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사후관리 또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닌 적절한 사후관리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치료 가능한 질환이다. <br/> <br/>온라인뉴스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29.txt

제목: 이대여성암병원, 새생명 나눔이 배액주머니 전달식  
날짜: 20170811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11102044001  
ID: 01100201.20170811102044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사진] 문병인 이대여성암병원 유방암․갑상선암센터장(가운데)이 레이디 병동에 입원 중인 환우에게 배액 주머니를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화의료원 제공 <br/>이대여성암병원(병원장 백남선)은 10일 ‘새생명 나눔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암 완치 환자가 만든 배액 주머니를 레이디 병동에 입원, 투병 중인 암 환자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br/> <br/>‘새생명 나눔이 프로젝트'는 이대여성암병원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미술치료 전공)이 협약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환우 위로사업 가운데 하나다. <br/> <br/>이번에 나눠준 배액 주머니는 미술 치료 전공 교육대학원생 5명의 지도 하에 11명의 암 환자들이 지난 6월 12일부터 한 달간 매주 월요일 2시간씩 4회에 걸쳐 직접 바느질로 만든 것이다. 주머니에 다양한 브로치를 만들어 장식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도 매달아 의미를 더했다. <br/> <br/>배액 주머니를 전달받은 입원 환자들은 암 완치 환우들이 작성한 응원 메시지와 손편지를 보고 힘을 얻었다. <br/> <br/>문병인 이대여성암병원 유방암·갑상선암센터장은 “<span class='quot0'>암을 이겨낸 환우들이 직접 만든 배액 주머니와 작성한 응원메시지를 보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힘을 얻길 바란다</span>”고 말했다. <br/> <br/>이대여성암병원은 수술 후 여성암 환자들의 암 치료와 건강한 생활을 돕는 ‘파워 업(Power-up) 통합교육 프로그램’,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온 암환자를 위한 ‘암 극복 프로젝트 콘서트, 10년 이상 장기 생존 암환자 및 가족을 초청하는 ‘암 환자 장기 생존 축하 파티’, 유방암 및 부인암 환자들의 모임인 이유회와 난초회 운영 등 여성암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30.txt

제목: 헬스 IT 기업 라이프시맨틱스,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참가  
날짜: 20170810  
기자: 김지훈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10174344001  
ID: 01100201.20170810174344001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헬스IT 기업인 (주)라이프시맨틱스가 10일 일산 킨텍스에서 막을 올린 제21회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에 참가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미래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였다. <br/> <br/> <br/> <br/>라이프시맨틱스는 이 날 주제관에서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헬스케어 기기를 활용한 암 재활과 호흡재활 등 메디컬 서비스를 선보였다. 또한 활동량과 다이어트를 관리하는 웰니스 서비스도 전시했다. <br/> <br/>이들 서비스는 라이프시맨틱스의 개인건강기록 빅데이터 플랫폼인 라이프레코드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br/> <br/> <br/> <br/> <br/>라이프시맨틱스 권희 서비스경영실장은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기록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  자가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며 "<span class='quot0'>메디컬 서비스는 현재 대학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span>"이라고 했다. <br/> <br/> <br/>과학창의축전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15일까지 열린다.  <br/>(사진=라이프시맨틱스 제공) <br/> <br/>김지훈 기자 da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31.txt

제목: 이경아 교수팀, 한국인 조혈모세포 치료율 높이는 유전자 발굴  
날짜: 20170810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10104944002  
ID: 01100201.20170810104944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국인 혈액암 환자의 조혈모세포 치료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유전자가 발굴됐다. <br/>강남세브란스병원은 진단검사의학과 이경아 ( <br/>사진)교수 연구팀이 ‘조혈모세포 가동화 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자형을 분석하는 실험을 통해 한국인 혈액암 환자의 조혈모세포 치료에 도움을 주는 릴랙신/인슐린 유사 집단 펩티드 수용체4(이하 RXFP4)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 <br/> <br/> 혈액암은 혈액을 만드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 혈액과 림프계에 발생하는 암으로 돌연변이 세포가 온 몸을 통해 흐르다 암세포로 변한다. 주로 조혈모세포 이식이나 항암제를 통해 치료한다.  <br/> 조혈모세포 이식치료는 조혈모세포를 많이 투여할수록 치료 성공률이 높아진다. 조혈모세포는 주로 골수에 존재하며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 등 혈액세포를 만든다. <br/> ‘조혈모세포 가동화 과정’은 조혈모세포를 골수에서 혈액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조혈모세포를 많이 채집하기 위해 가동화를 돕는 약제를 환자나 공여자에게 투여한다. <br/> 연구팀은 이번 실험과정에서 ‘조혈모세포 가동화’와 관련된 △혈액 내 조혈모세포 수 △채집산물 내 조혈모세포 수 △공여자 체중 당 조혈모세포 수 등 3가지 지표를 집중 조사했다. 특히 56명의 공여자와 9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혈모세포 가동화에 관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전자 후보 33개를 추려내고 이들 후보의 53개 유전자형의 다형성부위를 분석했다. <br/> 그 결과 RXFP4 유전자가 위 3가지 지표에 모두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br/> 이어 이 유전자가 다른 인종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평가하기 위해 101명의 유럽인을 대상으로 같은 검사를 시행했다. 그러나 연관성이 보이지 않았다. 이는 ‘RXFP4’ 유전자가 한국인 환자에게서만 조혈모세포 치료율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뜻이다. <br/> 이경아 교수는 “RXFP4 유전자가 한국인들을 위한 조혈모세포 가동화 약제 개발 등 혈액암 치료에 새로운 좌표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r/> 연구결과는 미국 공공도서관이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 최근호에 게재됐다. <br/>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32.txt

제목: “5·18 폭동”이라는 전두환 측근… 허지웅 “그저 다음 세대에 면목 없다”  
날짜: 20170809  
기자: 이형민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09172644002  
ID: 01100201.20170809172644002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영화평론가 허지웅씨가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매도한 전두환 전 대통령 측근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br/> <br/>민 전 비서관은 7일 SBS의 시사프로그램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과 전화 통화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span class='quot0'>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 다르게 성격을 규정하고 평가하겠지만 당시 광주 5·18이 벌어졌던 상황이나 사건 자체는 폭동인 게 분명하지 않느냐</span>”고 말했다. <br/> <br/>이어 1980년 5월 광주를 다룬 ‘택시운전사’에 대해 “(신군부의)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표적·겨냥해 사격했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왜곡 정도가 지나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부 독재에 맞섰던 시민들의 민주화 의지와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 5월 1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정부의 정책마저 부정한 발언이었다.  <br/> <br/>허씨는 8일 SNS에서 민 전 비서관의 발언을 미국 담배회사의 사례와 비교하며 비판했다. 그는 “미국 담배회사들이 평소 대중에 담배가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한다”며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 거라는 아주 작은 의심을 대중에 심어 담배 회사는 현상을 유지하며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인다”고 적었다. <br/> <br/>이어 미국 담배회사의 전략이 전 전 대통령 및 측근들이 사용하는 방식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두환 측이 ‘광주민주화운동은 폭동이다’와 같은 말을 사람들 사이에 툭 던져 놓으면 대다수 사람은 웃어넘기거나 화를 내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이 같은 말이 작은 불씨로 작용한다”며 “역사적 사실관계를 뒤집지는 못하지만, 어찌 됐든 지금의 세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인 것”이라고 적었다. <br/> <br/>허씨는 군부 독재의 잔재들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도록 방관하는 지금 세대의 책임을 이야기했다. 그는 “죄인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 오래도록 많은 것을 누리며 기사에 오르내리는 일이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이제는 그냥 부끄럽다”며 “그렇게 큰 죄를 지어도 표현의 자유를 누려가며 멀쩡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다음 세대들에게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br/> <br/> <br/>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33.txt

제목: 치매 MRI 검사비 100만→40만원, 폐렴 아동 입원비 26만→7만원  
날짜: 20170809  
기자: 백상진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09150844001  
ID: 01100201.201708091508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정부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미용·성형 분야를 제외한 모든 의학 분야의 비급여 항목을 2022년까지 건강보험으로 편입해 급여화하겠다고 밝혔다. 필수 치료임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MRI와 초음파 등은 모두 건강보험에 편입해 관리하고,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높아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30~90%로 차등화한다. 이들은 일단 예비급여라는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해 관리하면서 본인부담을 줄여가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br/> <br/>◇취약계층 필수 의료비 부담 완화 <br/> <br/>정부는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현재 비급여 항목인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나 MRI가 급여화된다. 치매 진단 차원에서 정밀 신경인지검사와 MRI검사를 받은 70세 김씨의 경우 검사 비용이 100만원에서 40만원으로 60% 절감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김씨가 완전틀니 시술을 받을 경우에도 기존에는 총 비용 127만원 중 절반인 64만원을 본인이 부담한 데 비해 새 대책 시행 이후에는 본인부담액이 38만원(30%)으로 줄어든다. <br/> <br/>아동들의 치과진료 부담도 낮춘다. 어금니 2개 ‘홈 메우기’ 시술을 받은 아동은 기존에 진료비 7만원 가운데 30%인 2만1000원을 본인이 부담했다. 앞으로는 진찰료의 30%, 홈 메우기 비용의 10%만 본인이 부담하게 돼 전체 비용이 1만1300원으로 54% 줄어든다. <br/>아동 입원의료비의 경우 나이에 따라 본인부담률 10~20%를 적용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5%로 낮추기로 했다. 폐렴과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입원한 9세 아동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26만원(총 진료비 131만원의 20%)에서 7만원(5%)으로 낮아진다. <br/> <br/>여성들은 자궁 초음파 시술 혜택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이 확진되거나 의심될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이번 대책 이후 대상자가 모든 여성으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초음파 검사비용도 7만5200원 전액을 내던 것에서 3만원으로 60% 줄어들 예정이다. <br/> <br/> <br/> <br/>◇선택진료비 없애고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 <br/> <br/>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15~50%까지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던 선택진료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예를들어, 뇌졸중으로 혈종제거 수술을 받은 이모씨가 8일간 입원했다고 가정해보자. 현행 제도로는 수술비 520만원(선택진료비 173만원 포함)과 입원료 137만원(선택진료 18만원 포함) 등 총 657만원 가운데 선택진료비(총 191만원)를 포함한 본인부담액이 214만원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선택진료비를 제외한 23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br/> <br/>그동안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인 이상 병실이 부족할 경우 어쩔수 없이 1~3인실을 이용하면 비급여 처리가 돼 비용부담이 컸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상급병실 이용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br/>예를들어 골절로 입원한 B씨가 4인 병실이 없어 열흘동안 2인실(20만원 가정)에 입원한 경우 지금까지는 상급병실차액 150만원과 기본입원료 10만원(50만원의 20%) 등 총 16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새 대책이 시행되면 2인실 급여화로 본인부담률이 40%로 감소돼 80만원으로 줄어든다. <br/> <br/>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34.txt

제목: 세렌클리닉, 수지상세포 백신·중립자 치료 병행…업스코팔 효과 기대  
날짜: 201708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09145044001  
ID: 01100201.201708091450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Abscopal effect'란 의학용어로 ‘방사선 조사(放射線 照射)를 받은 생체조직으로 인하여 조사받지 않은 조직도 영향을 받는 효과’를 일겉는 말이다. 최근 들어 이와 관련된 논문이 발표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br/> <br/>수지상세포 백신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암 전문 병원인 일본 세렌클리닉 그룹에서는 암치료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지상세포 백신치료와 방사선치료를 권장하고 있다. <br/> <br/>더욱이 세렌클리닉 그룹은 방사선 치료 중에서도 선진의료로 분류되어 있는 입자선치료, 즉 중립자 치료나 양성자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암 치료 효과를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br/> <br/>이러한 병용치료는 수지상세포 백신으로 암환자의 면역력을 안정시켜주면서 중입자나 양성자치료로 암세포를 타격해 줌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힘이 강하게 되어 암 치료 효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그러나 중립자나 양성자치료의 경우에 적용대상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적용이 가능한 환자의 경우 보다 효율적인 치료방법이 될 수 있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br/> <br/>세렌클리닉 그룹의 한국 Agency 법인 ㈜세렌코리아 송상한 대표는 “<span class='quot0'>세렌클리닉 그룹의 협조 하에 수지상세포 백신치료뿐만 아니라 병용치료로 입자선 치료도 함께 진행함에 있어서 홍보를 강화시켜 나갈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 <br/> <br/>또한 송 대표는 “<span class='quot1'>암 치료에 있어 환자분들이 지식이 부족해 일찍이 암을 발견하고 수술 등 표준치료를 받고서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 재발하는 케이스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1'>암은 면역력 관리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span>”고 조언했다. <br/> <br/>온라인뉴스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35.txt

제목: 여성 암 환자 23%는 갑상선 암,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  
날짜: 201708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09141044001  
ID: 01100201.201708091410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보건복지부의 2014년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여성 암환자 10만 465명 가운데 약 23.6%가 갑상선 암 환자로, 여성에게 발생하는 암 질환 중 갑상선 암이 발병률 1위로 집계됐다. 갑상선 암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약 2~4배정도 더 발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40대 이후 많이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20~30대 여성환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br/> <br/>갑상선은 나비모양의 장기로 우리 몸에서 호르몬(신체 대사 균형 유지와 체온 유지)과 칼시토닌(혈중 칼슘 수치를 낮춤)을 분비해주는 기관이다. 갑상선 암의 발병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방사선 노출사고에 의해 발병도가 높아질 수 있다. <br/> <br/>갑상선 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만약 환자 스스로 느껴질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이 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진행이 매우 느림 암에 속하기 때문에 초기치료를 받을 경우 근치 가능성이 높아 되도록이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초기 발견에 힘쓰는 것을 권하고 있다. <br/> <br/>갑상선 암의 증상으로는 목에 덩어리가 생겨 만져지기도 하며, 종양으로 인해 목소리의 변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음식을 삼키기 힘들다거나 숨이 찬 증상이 발현되기도 한다. <br/> <br/>다스람요양병원의 문일주 원장은 “갑상선암은 초기치료가 매우 중요하며, 치료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도 중요한 암이다. 일반적으로 암 치료 후 사후관리는 항암 효과를 높여 암의 재발과 전이를 예방하기 위한 면역 강화 및 고주파온열치료 등이 있으며, 화학적 항암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이나 식욕부진 등에 대한 케어도 포함된다. 또한 환자가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기초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 관리가 함께 병행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br/> <br/>다스람요양병원에서는 암의 치료를 위해 고주파온열치료기기와 고용량 비타민 주사, 미슬토 항암 주사, 한방치료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을 도입하여 항암 효과를 촉진시켜준다. 또한 즉각적인 통증관리를 위해 페인 젬머(PAIN JAMMER) 및 물리치료 등을 함께 한다. <br/> <br/>이 밖에도 환자의 정서적인 안정과 재활을 위해 악기 연주나 미술, 캘리그라피 등을 배우는 복지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요가나 필라테스와 같은 운동을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등을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인 치료와 안정을 돕고 있다. <br/> <br/>온라인뉴스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36.txt

제목: 최첨단 방사선치료기 뷰레이 ‘환자 능동형 영상 시스템’ 개발  
날짜: 20170809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09103144001  
ID: 01100201.201708091031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이 최첨단 방사선치료기 ‘뷰레이(ViewRay)’의 치료효과를 배가시키는 ‘환자 능동형 영상 시스템’(사진)을 개발했다. <br/> <br/>뷰레이는 자기공명영상(MRI)과 방사선치료 시스템을 결합한 방사선치료기다. MRI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종양 및 정상 장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 치료부위에만 정확하게 방사선을 조사하는 유일의 장비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5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이 장치를 도입, 가동 중이다. <br/> <br/>뷰레이를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환자의 해부학적 영상을 확보해, 환자의 호흡 패턴을 반영한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 <br/> <br/>하지만, 일부 환자의 경우 치료 중 호흡 패턴의 변화로 인해 계획된 치료가 어렵거나, 치료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br/> <br/>방사선 치료는 숨을 쉬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환자 호흡에 따른 인체 내부의 종양 및 장기의 움직임은 방사선치료의 정확도를 저하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br/> <br/>서울대병원은 방사선종양학과 우홍균 교수 연구팀이 뷰레이의 이 같은 문제를 개선, 보완할 목적으로 치료관 내부에 실시간 MRI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치료성적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br/> <br/>신기술 장착 영상 시스템 도입 후 조사결과 뷰레이 방사선치료의 총 시간은 30% 이상, 치료빔을 종양에 전달하기 위해 종양이 특정 지점에 위치할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5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br/> <br/>또한, 방사선치료의 정확도를 저해한다고 알려진 치료 중 빔오프(beam-off) 횟수도 1회당 457회에서 195회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측정됐다. <br/> <br/>빔오프는 종양이 치료가 계획된 특정 지점에 위치할 때까지 치료빔을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 반대로 빔온(beam-on)은 종양이 계획된 지점에 위치해 치료빔을 전달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br/> <br/>우 교수는 “<span class='quot0'>암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방사선치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이 시스템을 개발했다</span>”며 “<span class='quot0'>환자가 능동적으로 치료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연구결과는 의학물리학 분야 SCI급 국제 학술지 ‘메디칼 피직스(Medical Physics)’ 최근호에 실렸다. 우 교수팀은 이 신기술에 대한 국제특허도 출원해 놓고 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37.txt

제목: '교회의 심장이 다시 뛴다' 15쇄 인기몰이  
날짜: 20170808  
기자: 유영대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08221944001  
ID: 01100201.20170808221944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삼척큰빛교회 김성태 목사는 6년 전 단 2명의 성도에서 1500명으로 부흥시킨 한국교회의 차세대 목회자다. <br/> <br/>단 한 명의 영혼을 사랑하며 시작한 자신의 목회경험과 전도, 양육 이야기를 담아 펴낸 이 책은 왜 한 영혼이 중요한가를 알려준다. <br/> <br/>“저를 내려놓고 성도에게 최선을 다할 때 성도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숫자 보다 영혼에 집중하고 따뜻함과 사랑, 때론 질책으로 성도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br/> <br/>큰빛교회 성도들은 김 목사가 ‘눈물 나도록 따사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목사, 매주 듣는 설교에서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목사’라고 말한다. <br/> <br/>자신을 희생하고 성도 양육에 모든 것을 건 김 목사의 목회는 100% 순종하는 성도를 만드는 힘을 갖는다. <br/> <br/>한 성도가 암에 걸려 쓰러졌을 때 김 목사는 그날 밤 100여명의 성도를 모아 밤새 철야 기도회를 열었다. <br/> <br/>매주 여성도들은 집밥이 그리운 타지 대학생들에게 따뜻한 식탁을 제공한다. 오늘의 교회를 이룬 목회보고서격인 ‘교회의 심장이 다시 뛴다’는 큰빛교회의 전도이야기가 큰 테마지만 양육의 중요성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다룬 최초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br/> <br/>이렇듯 교회 이야기는 빠른 시간에 전파되어 교보문고와 갓피플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 최단기간인 출간 5개월 만에 18쇄를 찍는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당연히 이 책을 읽어본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한다. <br/> <br/>김 목사는 “<span class='quot0'>이 책이 영혼사랑과 전도, 양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나누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도 큰빛교회 목회를 통해 계속 열정적이고 참신한 목회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이 책은 여름 전도대, 소그룹 리더, 또 휴가철 여행 필독서로 딱 알맞은 책이다(책 구입문의: 물맷돌출판사/ 010-9194-3215) <br/> <br/>책 소개 <br/> <br/>16년전 단 두명의 성도에서 1,500명으로 부흥시킨 양육의 롤모델교회 이야기 <br/>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외우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br/>밥 먹을 때도 전도대상자 가게를 일부러 찾아가는 목사! <br/>성도 한 명이 아프면 밤새 잠 못자고 기도하고 아파하는 목사! <br/>학비가 없어 고통당하는 학생에게 사비를 털어 내주는 목사! <br/>나태한 성도를 과감히 꾸짖어 질책하는 목사! <br/>자신의 삶은 제로인 목사! <br/>양육이 백 배 더 중요하다고 외치는 목사! <br/>어쩌면 이 시대 목사의 표상인지도 모른다. <br/>성도를 저절로 충성하게 하고 100% 순종하게 만드는 교회 <br/>성도가 한 가족 같은 교회 <br/>‘양육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를 몸소 실천하는 큰빛교회 <br/>이 책 한권이 조국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의 신앙회복과 양육의 희망이 <br/>될 것입니다. 개교회 양육부서, 성도님들이 읽고 깨우치지기 좋은 책이다. <br/> <br/> <br/> <br/> <br/> <br/>3. 교보 독자평 <br/>넘쳐나는 신앙서적이 많아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br/>아마도 잠시 주춤했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시원하게 갈증을 해소해줄 도서이다. <br/>lo\*\*rtw 2017-02-17 08:50:02 <br/>수십년간 많은 신앙서적을 읽어보았지만 이렇게 가슴을 뛰게 하는 책은 처음인것 같다. 업적도 위대하지만 화려함이나 특별한 기술이 없이 서술되는 이야기들은 그 과정과 진솔한 경험에서 색다른 미세지를 준다. <br/>di\*\*ching 2017-02-17 00:32:51 <br/>양육에 더 마음을 쏟아 전도된 한 사람을 진정한 예배자, 주님의 제자로 키워내고자 할때 꼭 읽어야하는 책이라고 보여지네요. 크게 쓰임받는 책이되길 소망합니다~ <br/>se\*\*ecy84 2017-02-16 23:51:19 <br/>마치 수련회를 다녀온 직후 심장이 뜨거워지던 그 때처럼,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개인의 신앙의 회복과 한국교회의 뜨거운 회복이 기대되네요 <br/>pb\*\*bh1023 2017-02-16 21:21:10 <br/>느슨해진 영적 신발끈을 다시 조이며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하는 책이다.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침서가 되었다. 성도들의 삶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며 양을 풍성히 먹이자 애쓰는 목자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책이다. 사모님께서 차에서 굴러 떨어진 이야기에서 나는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빠른 회복으로 고쳐 주신 하나님의 만져 주심이 또한 감사해졌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간증하고 있다. 책장을 덮고 다시 나도 다시 뛰고 싶다. 살아 있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전도의 자리로 말이다. <br/>yj\*\*2439 2017-02-16 20:13:03 <br/>교회가 시대의 정신이되고 행동이 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가 된 이시대에 제목이 너무 큰 감동을 주어서 구매했습니다ㆍ <br/>ji\*\*8530 2017-02-16 15:00:28 <br/>살아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해주는 좋은 지침서입니다~^^ 모든 교회마다 건강한 심장박동수가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br/>si\*\*ot 2017-02-16 14:15:43 <br/>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br/>pj\*\*75 2017-02-16 12:18:48 <br/>많은 전도양육책들을 읽어 보았지만ᆢ이렇게 진정성으로 다가온 경우는 처음이다~ <br/>si\*\*ot 2017-02-16 13:43:57 <br/>제목 처럼 심장을 쿵쿵거리게 만든다. 양육을 고민하는 목회자 특히 목회를 시작하는 이들에게도 특히 유익하겠다~~ <br/>he\*\*oimkmj 2017-02-16 09:44:02 <br/>신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책입니다 !!! !!!!!!! <br/>zu\*\*ri 2017-02-16 09:32:31 <br/>"<span class='quot1'>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어라 힘들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때는 눈물을 닦아주는...</span>" 이 글귀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때 열풍적이었던 전도법 사이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결국은 손수건 같은 만남으로 성장하신 김성태 목사님의 스토리가 깊게 스며있는 책이었습니다. 양육전도라는 새로운 방식이 일반적인 종교서적과는 다르게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추천드립니다~ <br/>ch\*\*ek 2017-02-15 17:55:14 <br/>양육에 관한 필독서이다 <br/>ch\*\*k815 2017-02-14 20:47:26 <br/>귀한 책이 한국 교회의 큰 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br/> <br/>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38.txt

제목: [And 건강] 인기 없는 ‘국가 구강검진’ 왜?… ‘아아아~’는 이제 그만!  
날짜: 20170808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08050057001  
ID: 01100201.20170808050057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40대 남성 A씨는 1년 전 충치 신경치료를 위해 치과를 찾았다가 가슴을 쓸어내렸다. 입안 조직을 파노라마 영상처럼 연속 촬영해 한장의 사진으로 보는 X선 검사를 통해 생각지도 못했던 큰 병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왼쪽 아래턱 치아 밑에서 10㎝가량의 물혹(치성각화낭종)을 찾아낸 것. 겉으로 볼이 약간 부어 보이는 정도이고 통증도 없어 쉽게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한다. <br/> <br/> A씨는 "2년마다 하는 직장 건강검진에서 구강검진을 꼬박꼬박 받았지만 별다른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물혹이 작을 땐 물을 빼는 간단한 수술로 제거 가능하지만 커지면 약해진 주변 뼈를 잘라내고 새로 뼈를 이식하거나 금속 지지대를 박아야 한다.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br/> <br/> A씨 상태를 진단한 서울대 치과병원 영상치의학과 허민석 교수는 "치성각화낭종은 골치 아프고 재발도 잦다"면서 "치과의사 육안에 의존하는 현재의 국가 구강검진으로는 이처럼 숨어있는 치과질환을 찾아낼 수 없다. 파노라마 검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br/> <br/><br/> 60대 여성 B씨도 2년 전 우연히 치과에서 촬영한 파노라마 영상을 통해 왼쪽 위턱뼈에 생긴 악성 종양, 즉 암(중심성 점액표피양암종)을 발견했다. 구강 뼈에 암이 생길 경우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는 발견이 어렵다. B씨는 결국 치아 일부를 포함해 암이 퍼진 뼈 부위를 광범위하게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고 왼쪽 얼굴이 푹 꺼지는 장애를 안게 됐다. 그동안 국가 구강검진을 몇 차례 빠트렸다는 B씨는 “충치 몇 개 찾아낸 게 전부여서 굳이 받아야 하나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br/> <br/> 국가 구강검진 수검률 30% 안팎 <br/> <br/>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 시행하는 일반 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만 40세, 66세) 진단, 영유아 검진에는 구강검진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만 40세가 되는 해에 추가 실시되는 ‘치면 세균막검사’(치아 염색 통해 치태 확인)를 제외하고는 치아, 치주(잇몸)조직, 의치·보철(틀니 등), 구강위생 검사 등이 모두 치과의사의 맨눈 진료(視診·시진)로 이뤄진다. <br/> <br/> 육안으로는 진단이 불가능한 암이나 치아 사이 인접면 충치, 치아 뿌리 염증으로 인한 뼈 소실, 치아를 둘러싼 뼈 안에 생긴 초기 질환, 숨어 있는 치아(매복치) 등 심각한 문제를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치과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한마디로 현재 구강검진 방식은 국민의 구강건강 위험 요인과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 데 효용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br/> <br/> 실제 국가 구강검진 수검률은 다른 의과 쪽 건강검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다. 7일 건보공단의 건강검진통계 연보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일반 건강검진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31.1%로 의과 분야(76.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구강 30.1%, 의과 77.1%), 영유아 건강검진(구강 37.1%, 의과 69.5%)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br/> <br/>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성근 치무이사는 “지금은 단순히 입 벌리라고 해 구강 위생상태를 살피고 충치나 부정교합이 있는지 파악하는 정도에 그친다. 다양한 치과 질환을 찾아내지 못하니 굳이 구강검진을 받을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 <br/> <br/> 건보공단 관계자는 “검진을 받으러 가도 치과의사가 아니라 치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하는 경우가 많다. 치과 자체의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점도 한몫한다”고 했다. <br/> <br/> 파노라마 영상 검사 도입해야 <br/> <br/> 수검률을 높이려면 국가 구강검진 항목 개선과 함께 치과 자체의 서비스 질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위아래 치아 전체와 잇몸뼈, 턱뼈, 상악동(위턱 빈 공간)의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파노라마 영상 촬영을 구강검진 항목에 새로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br/> <br/> 보건복지부도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이달 중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검진 항목에 추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br/> <br/> 파노라마 촬영은 대부분 치과 병의원에서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찍는 데 20초 정도 걸리고 판독 결과 상담에 15∼20분 소요된다. 충치나 잇몸병 등 질환 진단·치료에 쓰일 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본인 부담금은 6000∼7000원 수준이다. <br/> <br/> 건강보험에서 의무 실시하는 국가 구강검진에는 파노라마 검진이 빠져 있다. 지금의 국가 건강검진체계 시행 시점(2009년)에 치과 파노라마 검사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br/> <br/> 치과의사협회는 2013년 질병관리본부에 구강검진 항목의 추가 필요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파노라마 검사 시행이 국민 건강증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비용 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채택이 좌절됐다. <br/> <br/> 치협 측은 “치과 질환은 더 이상 구강 내에 한정된 질환이 아니라 심장병이나 당뇨병 폐렴 치매 등 다른 전신 질환과 연관성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어 국민 건강증진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파노라마 검진은 이제 구강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유용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br/> <br/> 맨눈 진료로 못 찾는 병 포착 <br/> <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지난해 다빈도 진료 10대 질환에 치은염 및 치주질환(잇몸병)은 전체 2위, 치아 우식증(충치)은 6위에 올랐다. 진료비도 각각 1위, 5위를 차지했다. 치과 질환 유병 인구와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걸 보여준다. <br/> <br/> 또 치과의료정책연구소 2010년 연구에 따르면 일반 구강검진 때보다 파노라마 검사의 경우 잇몸병 31.9%, 충치 23.1%를 더 찾아냈다. 또 매복치(33.6%), 상악동 이상(11.6%), 하악과두(아래턱) 이상(2.1%), 선천성 및 후천성 치아 이상(24.5%) 등도 추가 발견됐다. 이밖에 치아뿌리 염증질환, 남아있는 치아, 과잉치, 치아종(치아에 생기는 돌), 낭종(물혹), 각종 양성 및 악성 종양 등 맨눈으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질환을 찾아낸다. <br/> <br/> 허 교수는 “<span class='quot0'>턱뼈(악골)에 생기는 많은 질환은 대부분 증상이 없으며 환자 자신이 증상을 느낄 때면 상당히 진행된 상태</span>”라며 “<span class='quot0'>흔한 잇몸병도 중간 정도 이전까지는 본인도 모르고 현재의 구강검진에서 정상 판정되는 경우가 많다</span>”고 했다. 가벼운 잇몸 염증(치은염)과 치석만 육안 판별이 가능하다. <br/> <br/> 허 교수는 “<span class='quot0'>실제 한 지인은 치아가 아프다고 해서 파노라마를 찍었더니 잇몸병이 상당히 진행됐고 왜 그동안 치료받지 않았느냐고 묻자 해마다 구강검진을 받았는데, 늘 정상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span>”고 덧붙였다. <br/> <br/> 충치도 치아 사이 인접면 혹은 틀니 같은 보철물 주변에 생길 경우, 또 치아 뿌리까지 번져 신경치료가 필요한지 여부 등은 육안으로 평가할 수 없다. 턱뼈에 생긴 물혹이나 양성 종양도 마찬가지. 현 구강검진으로 확인이 어렵고 증상을 느끼고 병원에 오면 이미 많이 자랐기 때문에 턱뼈를 절단하고 뼈 이식 뒤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구강암도 그 빈도만 낮을 뿐 비슷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br/> <br/> 경희대 치과병원 영상치의학과 최용석 교수는 “<span class='quot1'>40대부터 치아 부위에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종양을 조기에 진단하고 노인의 경우 만성 잇몸병으로 인한 염증이 골수염으로 이어지는 걸 막으려면 정기 파노라마 검진이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br/> <br/> 영유아와 어린이는 유치나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에 파노라마 검진을 통해 매복치나 치아종을 일찍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숨어있는 치아는 올바른 치열 형성을 막는다. <br/> <br/> 최 교수는 “<span class='quot1'>치아의 선천적 이상으로 과잉치(정상보다 치아가 많음) 혹은 결손치(있어야 할 치아가 없음)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미리 알면 영구치 교환 시기에 적절히 관리하면서 치아 상태를 좋게 개선할 수 있다</span>”고 했다. 과잉치는 정상 영구치가 나오는 걸 막아 일찍 조치하지 않으면 부정교합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유치에 충치가 생기면 인접면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치 발육에 영향을 줘 기형치가 솟아 날 수도 있다. <br/> <br/> 허 교수는 “<span class='quot0'>물혹이나 법랑모세포종 같은 양성 종양은 어린이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데, 현 구강검진으론 발견할 수 없고 파노라마 검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span>”고 말했다. <br/> <br/> 만 40세 검진 시 우선 시행 고려 <br/> <br/> 치과계에선 비용 효과성이 문제라면 우선 만 40세 생애전환기에 하는 ‘치면 세균막검사’를 빼고 파노라마 검진을 넣는 걸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br/> <br/> 최 교수는 “<span class='quot1'>잇몸병 유병률이 35∼44세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만 40세에 시범사업으로 우선 시행한 뒤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파노라마 검진에 의한 방사선 노출 우려에 대해선 흉부 X선 촬영에 따른 방사선 노출량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br/> <br/> 최 교수는 “<span class='quot1'>건보공단의 TV·라디오 건강검진 활성화 홍보 캠페인에 구강검진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아 국민 인식이 낮은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있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필수 건강검진 항목에 구강검진이 빠져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339.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122) 서울대학교암병원 구강·두경부암센터] 임상능력 국내 최고 수준  
날짜: 20170808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08050056002  
ID: 01100201.20170808050056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간암 췌장암 담도암은 간담췌외과, 위장관암은 소화기외과, 뇌종양은 신경외과, 방광암은 비뇨기과에서 각각 다룬다. 그렇다면 같은 머리라도 얼굴, 특히 입과 귀·코·목 쪽에 생긴 암은? 당연히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전문 영역이다. <br/> <br/> 서울대학교암병원 구강/두경부암센터(센터장 안순현·이비인후과 교수)를 방문했을 때 역시 그런 자부심이 느껴졌다. 드러내 놓고 표현하진 않아도 “(이 분야 만큼은) 우리가 국내 최고 전문가 집단”이라고 자신하는 것 같은 느낌 말이다. <br/> <br/> 알고 보니 그럴 만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서울대암병원 구강/두경부암센터의 외래를 찾은 환자만 연인원 7000여 명에 이른다. 같은 기간 각종 두경부암 수술 건수는 600건을 넘었다. 월평균 외래진료가 583.3건, 구강암 또는 인·후두암, 편도암 등에 대한 수술이 매일 1.7건씩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br/> <br/>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중 신환자는 약 10%에 불과했다는 사실. 재진 또는 타병원에서 정밀진단 및 치료를 의뢰한 전원 환자들이 나머지 90%를 차지하고 있었다. 구강암 및 두경부암 치료 분야에서 의료전달체계의 최상위급 4차 병원에 해당되는 센터만이 누릴 수 있는 위상이란 생각이 들었다. <br/> <br/> 수시 협진팀 15명, 팀웍 튼튼 <br/> <br/> 두경부(頭頸部)는 머리 두(頭)자와 목 경(頸)자를 합쳐서 만든 용어다. 말 그대로 두경부암은 뇌 아래쪽에서 쇄골 위 목 부위 사이에 발생한 암을 통틀어 가리킨다. <br/> <br/> 비강·부비동암 설암 구강암 연구개암 경구개암 후두암 비인강암 구인두암 하인두암 침샘암 등이 있다. 모두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목소리를 내는데 꼭 필요한 기관에 생기는 암들이다. <br/> <br/> 더 큰 문제는 국내에서 진단 및 치료 경험이 풍부한 이 분야 전문가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 결과 발암 초기, 조기에 암을 발견해도 해당 기관의 본래 기능을 살리기가 쉽지 않고, 삶의 질도 급격히 떨어지기 일쑤이다. <br/> <br/> 서울대암병원 구강/두경부암센터가 관련 암 환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두경부암 진료에 관한한 자타공인, 국내 최고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치료에 실패할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 여기는 것이다. <br/> <br/> 실제 이 센터는 국내 어느 병원보다도 입과 귀·코·목 쪽 암에 대한 임상경험을 다양하게 쌓은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 방사선종양학과 종양내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등 관련 진료과와의 협진, 공조체제도 잘 구축돼 있다. 진료 편의 측면에서도 국내 톱 수준이다. 검사에서부터 상담, 치료계획 수립까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정착시킨 덕분이다. 이후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를 마치기까지의 진료과정도 9개 상황으로 세분, 각 상황에 따라 신속 적절히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호평을 받고 있다. <br/> <br/> 자타공인 최고의 암 치료율 <br/> <br/> 의료진은 15명으로 짜여 있다. 안순현 교수(센터장)를 비롯한 이비인후과 이준호 김동영 김현직 권성근 한두희 정은재 교수팀을 주축으로 방사선종양학과 우홍균 김진호 교수팀,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김범석 교수팀, 영상의학과 김지훈 윤태진 교수팀, 병리과 정경천 교수 등이 최적의 개인맞춤 구강암 및 두경부암 치료법을 찾아 수시로 머리를 맞댄다(별표 참조). <br/> <br/> 이들의 임상능력은 국내 최고 수준이다. 특히 후두암의 경우 구미 선진 병원들과 견줘도 손색없는 치료율을 기록하고 있다. 진행성 후두암 환자의 치료 후 후두보존 비율이 평균 70%를 웃돈다. 세계 어느 병원도 쉽게 넘보지 못하는 기록이다. <br/> <br/> 방사선 치료 성적도 이에 뒤지지 않는다. 적지 않은 수의 두경부암 환자들이 이곳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암의 크기를 줄이거나 퇴치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br/> <br/> 지난해 한 해 동안 이 센터에서 완치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는 모두 198명이다. 같은 기간 국소 진행성 두경부암 치료를 받은 이는 130명, 재발성·전이성 두경부암 치료를 받고 삶의 질을 높인 환자도 60명이나 된다. <br/> <br/> 임상능력 배가 연구 활발 <br/> <br/> 서울대암병원 구강/두경부암센터는 기초 연구 및 임상시험을 통해 새 치료법을 찾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미국암학회지 등 유명 국제 학술지에 발표하는 연구논문 수가 연간 100편이 넘는다. 최근 COX-2 단백질과 구강/두경부암의 관련성을 잇달아 파헤쳐 주목을 받기도 했다. <br/> <br/> 이들은 요즘 국소 진행성 두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항암화학요법을 먼저 시행해 암의 사이즈를 줄인 다음 완치 목적의 다른 치료를 시도하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일단 재발하면 결과가 좋지 않은 두경부암을 이른바 ‘면역관문억제제’로 극복하는 방법, 어떤 환자에게 면역관문억제제가 효과적인지 금세 알 수 있는 바이오마커(생체표지자)를 발굴하는 연구도 하고 있다. 재발 또는 다른 장기로 원격전이가 되더라도 금방 찾아서 퇴치하는 새로운 우산형 표적항암제 임상시험 연구도 추진 중이다. <br/> <br/> 안순현 구강/두경부암센터장은 7일 “<span class='quot0'>언제든지 믿고 찾을 수 있는 센터, 세계 최고 권위의 두경부암 전문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각오</span>”라고 말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40.txt

제목: 호스피스 대상 질환에 에이즈·만성간경화 포함  
날짜: 20170807  
기자: 송병기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07203055001  
ID: 01100201.201708072030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암(癌) 이외에도 에이즈(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만성간경화 등으로 확대 적용됐다. 또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입원형에 자문형과 가정형 모델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br/> <br/>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무의미한 연명의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 호스피스 확대로 말기환자가 삶을 편안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말기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r/> <br/> ◇연명의료결정법 세부 내용은=연명의료결정법 하위법령에 따르면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하도록 했다. 법 시행에 따라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 정책을 심의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구성·운영 관련한 사항도 제정됐다. 이와 함게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관리하는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 등 관련 지정 기준·절차도 마련됐다. 하위 법령에는 연명의료 관련 사항을 관리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 생존기간이 길고 질환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비암 질환 특성을 고려해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지내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형과 가정형 호스피스 모델이 도입된다. 복지부는 4일부터 말기환자 자문형·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2차)에 돌입했다. 자문형 시범사업에는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20개 의료기관이, 가정형에는 고려대구로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25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1년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와 수가체계를 보완해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br/> <br/>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이용방법=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환자와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 등을 포함해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뜻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에서 제공된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암 이외에 추가된 3개 질환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는 자문형이나 가정형으로 제공된다. ‘자문형’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중 말기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병동이나 외래에서 질환 담당의료진의 진료를 받으며 서비스를 희망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체증상관리 자문과 심리·사회·영적지지, 사전돌봄계획 상담지원, 임종준비교육, 호스피스입원연계 등이 제공된다. ‘가정형’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중 말기환자가 대상이며, 가정에서 심리·사회·영적지지와 장비대여 및 연계·의뢰서비스, 24시간 주 7일 상담전화, 사별가족돌봄 등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 2월부터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모든 질병군)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도 제공된다. <br/> <br/>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2-341.txt

제목: [원자력병원 암전문의가 전하는 ‘건강톡’] 갑상선암, 착한암이라고 방심해선 곤란  
날짜: 20170807  
기자: 이영수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07202455001  
ID: 01100201.201708072024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치료경과도 좋고 부작용도 적어 ‘착한 암’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부 공격적인 갑상선암은 빠른 진행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갑상선암 중 느리게 성장하는 분화암도 치료시기를 놓치면 위험할 수 있어 방심은 금물이다. <br/> <br/> Q. 갑상선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목의 앞쪽 한가운데 튀어나온 목울대 혹은 울대뼈라고 부르는 갑상연골의 2∼3㎝ 아래에 있는 갑상선은 나비 모양으로 너비 4㎝, 길이는 5㎝ 정도입니다. 갑상선은 음식물을 통해 섭취된 요오드를 원료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필요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갑상선이 만들어낸 호르몬은 체온, 심장박동, 호흡, 위와 장의 운동 등 모든 기관의 기능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br/> <br/> Q. 목에 혹이 만져지는데 암일까요=갑상선에 생긴 혹을 갑상선 결절이라고 하며, 갑상선 결절은 양성결절과 암으로 불리는 악성결절로 나뉩니다. 갑상선암이 크거나, 주변 조직과 다른 기관으로 전이되지 않으면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일부에서 목 아래 갑상선 부위에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결절이 커져 기도나 식도를 눌러 쉰 목소리가 나기도 하며, 호흡곤란,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증상 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br/> <br/> Q. 초음파 검사로 진단할 수 있나요=초음파 검사로 혹의 크기, 위치 및 악성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이 의심되는 경우 가는 주사침으로 갑상선 혹에서 약간의 세포를 뽑아내 세포흡인검사를 합니다. 세포흡인검사는 확진검사는 아니지만 조직검사에 비해 빠르고 안전하며, 정확도가 높습니다. 암으로 진단되면 전산화단층촬영(CT) 및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을 통해 림프절 전이, 주변 조직 침범, 다른 장기의 전이 여부를 확인합니다. <br/> <br/> Q. 어떤 치료를 하나요=갑상선암의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수술입니다. 갑상선암의 종류, 크기, 환자의 나이와 병기 등에 따라서 수술 범위가 결정됩니다. 수술은 갑상선을 모두 절제하는 전절제와 우엽과 좌엽 중 한 쪽만 절제하는 엽절제로 나뉩니다. 전절제 후에는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으므로 평생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야 하며, 엽절제를 한 경우에도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발생하면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야 합니다. 수술 후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추가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시행 할 수 있습니다. <br/> <br/> Q.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갑상선을 모두 절제하고 재발 가능성이 다소 높은 환자는 남아 있을 수 있는 미세한 암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습니다. 주로 해산물 등 음식물을 통해 섭취되는 요오드는 갑상선 조직으로 들어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로 이용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 방사선이 나오는 방사성 요오드를 캡슐에 담아 환자가 복용하면 요오드를 흡수할 수 있는 갑상선암 세포를 포함해 남아 있는 갑상선 조직을 파괴합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환자의 몸이나 분비물에서 나오는 방사능의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 설계된 치료실이 필요합니다. 원자력병원은 국내 병원 중 가장 많은 12병상의 전용 치료병동을 가동해 오래 대기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br/> <br/> Q. 특별한 예방법이 있나요?=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요인으로 확실히 입증된 것은 어릴 때 방사선 노출, 유전적 요인, 갑상선종이나 양성 갑상선 결절 등이 있습니다. 평소 다시마, 김, 미역 등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 양배추, 브로콜리, 무 등의 십자화과 채소들과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일반 채소를 골고루 섭취합니다. 또한 과식하지 않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정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갑상선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br/> <br/>이영수 기자 juny@kuknews.com <br/> <br/>\*도움말=원자력병원 갑상선암센터 이국행(이비인후과)·김홍일(내분비내과)

언론사: 국민일보-2-342.txt

제목: [조민규 기자의 ‘건강백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효과 커 내년부터 제도화 모색  
날짜: 201708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07185155001  
ID: 01100201.201708071851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제도화의 목소리가 높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 심장혈관,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이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연간 소득의 10∼40%를 내는 경우 비급여 등 본인 부담의 50∼60%를 연간 2000만원 상한으로 지원한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의료급여·차상위계층(당연선정)과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또 기준중위소득 80%초과 100%이하 가구는 의료비가 소득에 비해 과다할 경우 지역본부 단위 심의위원회에서 별도 심의절차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재산과표액(주택, 건물, 토지 등의 합산액)이 2억7000만원을 넘거나, 사용연수 5년 미만의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br/> <br/> 사업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한시적 시행을 계획으로 국고(복권기금) 300억원과 민간기금 3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시행됐다. 제도 시행부터 지난해까지 5만8567건, 1760억원을 지원했다. <br/> <br/> 정부는 제도가 실효를 거두자 2016년 이후 2017년까지 사업 연장을 결정했고, 2018년 이후에는 제도화를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과 관련해 전국민과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겠다고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우며 제도화에 큰 관심이 모이고 있다. <br/> <br/>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임승지 부연구위원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span class='quot0'>주요국의 경우 정규급여목록에 없는 의료비지원도 의료보장체계를 운영하는 공적재원으로 의료보장법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재정, 제약사의 기부 혹은 세금, 복권기금 등의 국세, 민간기부금 등 매칭 펀드의 다양한 재원조달방식과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span>”고 밝혔다. 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긴급지원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법적근거를 담아 의료안전망 최후 지원단계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은 예산소진시까지 건강보험공단 전국 178개 지사에 입원시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사업기간(2013.8.∼2017.12.)중 2000만원 한도 내 지원되며, 입원·외래진료 합해 180일까지 본인부담 규모에 따라 50% 이상 지원된다. <br/> <br/> 지원방식을 보면 의료급여·차상위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단에서 요양기관으로 직접지급하게 되는데 다만 수진자가 완납 후 청구시 수진자에게 지급도 가능하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수진자가 본인부담금 납부 후 청구가 가능하다. <br/> <br/>kioo@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2-343.txt

제목: 한국당, 유시민 출연 ‘알쓸신잡’ 방송심의 신청  
날짜: 20170806  
기자: 권중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06141344001  
ID: 01100201.20170806141344001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자유한국당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재승 KAIST 교수 등이 출연한 tvN ‘알쓸신잡’(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의 방송심의를 신청했다. 출연자들이 원전과 관련해 허위발언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br/> <br/>한국당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알쓸신잡’의 6월 30일 방송분의 방송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방송의 출연진은 원자력발전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논란이 있는 내용을 100% 확정된 사실이거나 정설로 느낄 만한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br/> <br/>한국당은 “<span class='quot0'>유시민 전 장관, 정재승 교수가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수천명이며 피해자는 수십만명이 넘는다고 발언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체르노빌포럼의 2005년 보고서는 체르노빌 원전 폭발로 인한 직접적 사망자 수는 50여명이며 4000명이 피폭에 따른 암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밝혔다</span>”고 말했다. 또 “해당 사고와 암 발병이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등 정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br/> <br/>원전의 경제성에 대한 출연자들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한국당은 “<span class='quot0'>유시민 전 장관이 원자력발전 단가가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해 경제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2016년 한국전력통계(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발전원 별 구입단가는 KWh당, 원자력 68원, 석탄 74원, LNG 121원</span>”이라고 반박했다. 발전단가에 대해서는 “제2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당시 민관그룹의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원전발전 단가에는 원전해체비용,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 및 중·저준위폐기물 관리비용 등 사후처리비용까지 반영돼 있다”며 “오히려 석탄, LNG,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가에는 외부비용이 반영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br/> <br/>그러면서 “현재 탈원전 논란이 불거지고 국가의 에너지 정책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런 시점에 부정확한 내용의 방송은 국민 여론 형성과 국가의 정책 방향 설정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언론 본래의 역할에서 벗어나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보도에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r/> <br/>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44.txt

제목: 서울대병원 정두현 교수팀, 당뇨 유발 단백질 ‘펠리노1’ 첫 규명  
날짜: 20170804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04101144001  
ID: 01100201.201708041011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당뇨 발생과 비만 촉진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국내 의료진이 찾아냈다. 이 단백질 분비를 조절하면 당뇨와 비만을 동시에 억제하는 길도 열리게 된다.  서울대병원은 병리과 정두현( <br/>사진) 교수와 국립암센터 시스템종양생물학과 이호 교수 연구팀이 우리 몸 조직세포 안에서 면역기능을 조절하는 단백질, ‘펠리노-1’이 비만과 당뇨병 발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동물실험을 통해 입증하는데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br/> <br/> 연구팀은 펠리노-1이 결핍된 생쥐와 정상 생쥐 각각 20마리에게 고지방 사료를 먹이는 실험을 통해 당뇨와 비만 유발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 관찰했다.  <br/> 그 결과 펠리노-1이 결핍된 생쥐는 그렇지 않은 대조군보다 비만 발생률이 20%가량 낮은 것으로 측정됐다. 또 혈당은 10%, 인슐린 저항성도 35% 가량 낮았다. 이는 당뇨병 발병 위험이 그만큼 낮다는 뜻이다. <br/> <br/> [그림] 비만 쥐는 대식세포내에 증가된 펠리노-1이 IRF5와 결합해 지방조직의 염증을 유도하고 당뇨병을 유발시킨다. 서울대병원 제공 <br/> 정 교수는 “<span class='quot0'>펠리노-1 단백질이 비만과 당뇨병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향후 이 기능을 조절하는 방법을 찾으면 비만 및 당뇨병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 <br/> 비만은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 관절염, 암을 포함해 여러 질병의 병인에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비만과 관련된 질병 발생에 대해 많은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br/> 특히 성인 인구 10%가 앓고 있는 당뇨병은 비만 증가와 함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돼 상당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비만 관련 질병 발생 기전과 치료법에 관한 연구 결과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br/>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사업과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번 연구 결과는 기초과학 분야 유명 국제 학술지 셀(Cell)의 자매지인 ‘셀 리포츠(Cell Reports)’ 최근호에 게재됐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45.txt

제목: 4일부터 에이즈, COPD, 만성간경화 말기 환자도 "임종 돌봄받는다"  
날짜: 20170803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03144244002  
ID: 01100201.20170803144244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4일부터 암 이외에 에이즈(AIDS),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만성간경화 등의 말기 질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반 병동이나 외래, 그리고 집에서도 전문 병동에서와 똑 같은 임종 돌봄을 받는게 가능하다. <br/> <br/>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시행형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호스피스 분야는 이날부터, 연명의료결정 분야는 내년 2월 4일부터 적용된다.   <br/> <br/> 복지부는 "<span class='quot0'>이번 법령 시행으로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해 무의미한 연명의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줌으로써 인간으로써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또 "호스피스 확대를 통해 말기 환자가 삶을 편안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br/> <br/> 복지부는 의료현장에 각 질환별 말기 환자 진단 기준과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관리할 중앙호스피스센터에 국립암센터를, 연명의료 관련 사항을 관리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각각 선정했다. <br/> <br/> 복지부는 암 환자 외에 에이즈 등 3개 비암 질환 말기 환자들을 위한 일반병동에서의 자문형 호스피스(1차), 가정 호스피스(2차)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br/> <br/> 자문형 호스피스는 일반 병동에서 적극적인 질환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들 환자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원할 경우, 주치의 요청을 통해 호스피스전담팀이 직접 와서 통증완화는 물론 심리적 사회적 영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br/> 첫 시범사업 기관으로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개 의료기관이 선정됐다. 이들 기관외에 인천성모병원 가천대 길병원 영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울산대병원 이화여대목동병원 강동성심병원 서울의료원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성빈센트병원 안양샘병원 국제성모병원 대전성모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포항의료원  등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br/> <br/> 가정호스피스 2차 시범사업은 1차(21곳)보다 4곳 늘어난 25개 기관이 선정됐다. 내년 2월부터는 요양병원에서도 호스피스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46.txt

제목: 말기암환자에게 가짜약 사기… 3억 가로채  
날짜: 20170803  
기자: 손재호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03184755001  
ID: 01100201.20170803184755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말기암이나 난치병 환자들에게 “2, 3개월 안에 완치할 수 있는 산삼 줄기세포 신약이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보건범죄 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5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오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3명의 환자에게 “<span class='quot0'>산삼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 재생 신약이 있다</span>”며 적게는 400만원, 많게는 7500만원씩을 받고 서울시내 유명 호텔 객실에서 주사를 놨다. 이는 진통제나 국소마취제, 비타민 등을 합성한 주사액이었다. 이들이 챙긴 돈은 3억원이 넘는다. 환자 2명은 치료 중 사망했다. <br/> <br/>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불법이라 치료가 안 되니 베트남으로 가서 치료해주겠다”며 베트남 하노이 아파트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하기도 했다. <br/> <br/> 주범 김씨는 과거에도 의사 행세를 하다 적발돼 집행유예기간이었다. 김씨는 환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이 국내 명문의대를 졸업했으며 필리핀 의대 박사학위를 받고 중국에서 중의학을 수료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모두 거짓말이었다. <br/> <br/> 이들의 범죄 행각은 범죄 수익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내분이 일어나 경찰에게 알려졌다. <br/> <br/>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47.txt

제목: ‘말기 암환자 상대로 사기 친 가짜의사 검거’ 국제범죄수사팀 브리핑  
날짜: 201708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02125444001  
ID: 01100201.20170802125444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수사팀장인 황선기 경위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말기 암환자 상대로 사기 친 가짜의사 검거’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br/> <br/>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말기 암환자들에게 '산삼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재생 신약' 주사를 맞으면 완치된다고 속여 3억원을 챙긴 A(56)씨 등 3명 구속, 1명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br/> <br/>뉴시스

언론사: 국민일보-2-348.txt

제목: [And 건강] ‘느린 쓰나미’… 항생제 내성균의 역습  
날짜: 20170801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801185955001  
ID: 01100201.201708011859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느리게 움직이는 쓰나미.’ <br/> <br/>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균을 이렇게 규정했다. 지금 당장은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보다 낮은 소수의 일이지만, 방치할 경우 엄청난 재앙이 인류사회에 닥칠 것이라는 경고다. <br/> <br/>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생제에도 듣지 않는 새로운 내성균, 이른바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은 사망률 증가와 치료기간 연장, 의료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신종 감염병 이상의 파급력을 갖는다. <br/> <br/> 영국 정부는 세계적으로 매년 70만명이 항생제 내성균에 의해 목숨을 잃고 있으며 2050년에는 서울 인구와 맞먹는 1000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했다. 머지않아 항생제 내성이 암보다 더 치명적 사망 요인이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br/> <br/> WHO 등 국제사회는 2015년 국경을 초월하는 내성균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한 ‘글로벌 행동 계획(Action Plan)’을 제시하고 국가별 대책 마련과 국제 공조를 촉구했다. <br/> <br/> 우리 정부도 지난해 8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년)을 발표하며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내성균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br/> <br/> 하지만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오남용 줄이기와 적정 사용, 수술 후 감염 관리 및 예방, 항생제 사용 국민 인식 개선 등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왔다. 병원 간 환자 이동에 따른 내성균 확산 방지, 새로운 항생제 개발과 신속한 환자 접근성을 위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br/> <br/>요양병원→큰 병원 내성균 확산 <br/> <br/> 최근 중소병원, 특히 요양병원에서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오갈 때 항생제 내성균의 대규모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병원 간 환자 전원(轉院) 시 내성균 진료 정보 공유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기관들이 어떤 치명적 내성균을 갖고 있는지 까맣게 모른 채 환자를 서로 주고받는다는 얘기다. <br/> <br/>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31일 “<span class='quot0'>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이후 주로 급성기 질환 치료 병원에서의 감염 관리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둬 왔다</span>”며 “<span class='quot0'>요양병원의 경우 환자들의 장기 입원으로 내성균 전파 위험이 큰 데다 급성기 병원에 비해 감염관리 인프라는 취약해 항생제 내성률이 높은 편</span>”이라고 말했다. <br/> <br/> 2015년 5월 뇌출혈로 쓰러진 A씨(79·여)는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수술받은 뒤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와상(臥床) 상태로 지내왔다. 그러다 지난해 6월 갑작스럽게 고열이 나고 폐렴 설사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다시 실려왔다. A씨의 객담(가래) 검사에서 ‘카바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MRAB)’이 나왔다.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은 인공호흡기를 낀 중환자들에게 감염을 잘 일으키는 세균이다. 카바페넴은 광범위한 병원균에 잘 듣는다 하여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항생제다. <br/> <br/> 고려대 안암병원 감염내과 윤영경 교수는 “<span class='quot1'>A씨는 요양병원에서 반복되는 폐렴으로 강력한 효과를 내는 카바페넴과 반코마이신을 여러 차례 투여했지만 발열 증상이 계속되고 설사가 악화되는 등 현존 최고의 항생제마저 듣지 않은 것</span>”이라고 했다. <br/> <br/> 다행히 2∼3개 항생제 병합 치료로 급성기 증상이 나아져 또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겨갔던 A씨는 올해 1월 패혈증 쇼크가 와 두 번째 응급실로 실려왔다. 이번엔 혈액검사에서 ‘카바페넴 내성 폐렴 막대균’과 ‘카바페넴 분해효소 생성 장내세균(CPE)’이 동시에 검출됐다. 노인에게 급성 폐렴을 일으키는 폐렴 막대균은 최근 내성률이 높아지고 있다. <br/> <br/> CPE는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알균(VRSA)과 함께 최근 3군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돼 전수감시(모든 의료기관 의무 신고) 대상이 된 다제내성균(3가지 이상 항생제에 듣지 않는 균)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E)’의 한 종류다. CRE는 전수 감시 대상이 된 지 두 달도 채 안돼 1400여건이 발생 신고되는 등 급증 추세다. <br/> <br/> VRSA는 아직 국내 발생 신고가 없지만 내성균이 나타나는 건 시간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이런 슈퍼박테리아들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효과적 치료제가 없고 확립된 치료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br/> <br/> 윤 교수는 “<span class='quot2'>A씨에게 어쩔 수 없이 3개의 항생제를 병합 투여했지만 결국 닷새 만에 숨졌다</span>”고 했다. CRE로 인한 사망률은 50%에 가깝다. <br/> <br/> 고려대병원 측은 A씨가 응급실에 실려 올 때 요양병원으로부터 내성균에 대한 어떠한 진료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 윤 교수는 “<span class='quot2'>입원해 내성균 분리까지 사흘이 지난 뒤에야 환자 1인실 격리, 주변 환자 균배양 검사 등 병원 내 전파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span>”고 털어놨다. <br/> <br/> 요양병원은 암 수술 환자나 뇌졸중 당뇨병 등 만성 질환자들이 장기간 입원(평균 20일 이상)하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이 많이 이뤄지고 그에 따른 내성균 발생과 전파도 쉽다. 반면 감염내과 의사나 감염관리실이 부재하는 등 대다수의 감염 예방 인프라는 취약하다. 특히 도뇨관(소변줄)이나 카테터(투약관) 인공호흡기 등을 낀 상태라면 내성균이 더 많이 발생한다. 윤 교수는 “항생제는 균 배양검사를 통해 적합한 것을 써야 하는데, 많은 요양병원들이 검사도 않고 항생제를 마구 쓴다. 먼저 사용하고 보자는 식”이라고 했다. 특히 쓰는데 아주 신중해야 할 ‘마지막 보루’ 항생제 카바페넴의 오남용이 많다. <br/> <br/>병원 옮긴 환자 절반, 다제내성균 보유 <br/> <br/> 2015년 국가 항생제 내성정보 연보(KARMS)에 따르면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VRE) 비율은 요양병원이 58.6%로 가장 높았고 병원(12%) 의원(10.6%) 순이었다. 또 요양병원에서의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에 대한 카바페넴 계열 항생제 이미페넴과 메로페넴 내성률은 각각 82.4%, 81.5%에 달했다. 피부감염과 욕창 요로감염 폐렴 등을 일으키는 녹농균 내성률은 이미페넴 43.2%, 메로페넴 36.3%로 종합병원(이미페넴 33.3%, 메로페넴 27.9%)보다 약 1.2∼1.3배 높았다. <br/> <br/> 정부는 올 4월부터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 내년 10월부터는 중환자실 여부와 무관하게 150병상 이상 병원은 모두 감염관리실을 의무 설치토록 법을 바꿨다. 하지만 급성기 병원에만 해당되고 요양병원은 대상에서 빠졌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 평가 인증에 감염관리 항목이 있긴 하지만 급성기 병원에 비하면 기준이 느슨한 편이다. <br/> <br/> 요양병원을 비롯한 병원 간 이동 환자의 내성균 보유 실태도 심각하다.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박치민 교수팀이 2012년 1월부터 3년간 다른 병원에서 옮겨온 중환자 321명을 조사한 결과 절반 가까운 47%(151명)가 다제내성균을 보유하고 있었다. <br/> <br/>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은 27.1%,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21.5%, 카바페넴 내성 그람음성막대균(CRGNB) 15.6%, 광범위 베타-락탐계 항생제 분해효소 생성장내세균(ESBL) 3.7%의 내성률을 보였다. <br/> <br/> 의료진은 “<span class='quot3'>전원 환자의 경우 다제내성균 보유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뒤늦은 격리에 따른 내성균 확산 위험이 증가하고 적절한 항생제의 선택 또한 늦어질 수 있다</span>”고 했다. 또 “병원 간 전원되는 중환자 수가 증가할수록 동반되는 다제내성균 확산 가능성도 커진다”고 덧붙였다. <br/> <br/> 보건 당국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이르면 올해 안에 의료기관 간 내성균 보유 정보를 공유하는 전산 시스템과 대형병원-중소병원 진료 의뢰·회송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br/> <br/>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메르스 사태로 도입된 스마트검역 시스템처럼 각 병원의 의약품처방조제지원(DUR) 시스템에서 클릭하면 환자 방문 시 내성균 보유 여부와 거쳐 온 병원 등 관련 정보를 팝업 혹은 알람 형태로 알려주는 체계 구축을 추진 중</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전수감시 대상인 CRE와 VRSA에 우선 적용할 방침</span>”이라고 밝혔다. <br/> <br/>새 항생제 신속 접근 지원 필요 <br/> <br/> 내성균에 효과적인 새 항생제 개발과 치료 현장의 신속한 도입에도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 항생제 내성의 출현을 피할 수 있는 신항생제 개발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10년 정도 기간과 8000억원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다. 국내외 제약사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2010년까지 지난 30년간 전 세계에서 개발된 새로운 계열의 항생제는 3종뿐이다. 2007년 이후 10년간 국내 허가된 항생제 신약은 6품목이다. 이 중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그람음성균(다제내성균의 일종)’에 치료 효과가 입증된 신약은 3품목에 불과하다. <br/> <br/> 카바페넴 내성균에 사용 가능한 다국적 제약사의 일부 신항생제는 국내에서 적정한 급여(보험 약가)를 받지 못해 의료 현장에서 신속히 쓰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윤 교수는 “<span class='quot2'>중환자에게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가 부족해 ‘마지막 보루’인 카바페넴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내성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최후의 항생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카바페넴 대신 사용 가능한 새 항생제 개발과 빠른 도입을 위한 지원, 약가 정책이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br/> <br/>글=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349.txt

제목: 한국인 스트레스 강도 '직장 > 생활 > 학교 > 가정' 이유는?  
날짜: 20170731  
기자: 권중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31123344001  
ID: 01100201.20170731123344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한국인의 스트레스 체감도는 학생, 성인 가릴 것 없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학생의 비율이 OECD 평균의 2배에 달했고, 성인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OECD 38개국 중 31번째로 낮았다. 국내 영역별로는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br/> <br/>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27일 발간한 국민건강증진포럼에 실린 송선미 부연구위원의 ‘스트레스 관리: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br/> <br/>우선 국내 영역별로 한국인들은 직장-생활-학교-가정 순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부연구위원이 전국 2만5000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격년 주기로 시행하는 통계청의 스트레스 조사를 분석한 결과, 조사연도를 통틀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08년 77.8%, 2012년 72.9%, 2016년 73.4% 등으로 직장인의 75% 정도가 일터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다. <br/> <br/>지난해 ‘전반적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54.8%였다. 30~49세 응답자의 62.4%가 다른 연령대보다 스트레스가 높았고, 이밖에 교육 정도가 높고 이혼상태일수록 스트레스가 높았다. <br/> <br/>학교에서의 스트레스가 52.9%로 뒤를 이었다. 성별과 학교에 따라 차이가 났는데, 여학생은 59.1%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해 남학생(47.3%)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교별로는 대학생 이상(58.4%)가 가장 높은 스트레스 비율을 보였고, 고등학생(54.4%), 초·중학생(41.7%) 등 학령이 낮아질수록 스트레스도 낮아졌다. <br/> <br/>‘가정’에서 스트레스를 호소한 응답자 비율은 42.7%였다. 가정 스트레스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았는데,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이 54.8%로 기혼자(46.8%), 미혼자(33.3%)보다 많았다. 또 가정 내 역할 분담과도 관련이 있어 여성의 스트레스 비율(49.4%)이 남성(35.7%)보다 훨씬 높았다. <br/> <br/>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인의 높은 스트레스 체감도는 더욱 두드러졌다. 2015년 OECD 회원국 35개국 15~16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학생평가 프로그램 조사(PISA)에서 청소년들이 전반적인 삶에 만족하는 정도를 0~10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OECD 평균은 7.3점이었다. 반면 한국 청소년들은 6.4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 또 OECD 평균인 11.8%의 두 배에 달하는 21.6%의 학생들이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br/> <br/>한국 청소년들은 학업 불안지수도 높았다. OECD 회원국 청소년들은 평균 36.6%가 공부할 때 매우 긴장한다고 응답한 데 비해 한국 청소년들은 41.9%가 이같이 응답했다. 시험이 어렵게 나오거나 학교 성적이 낮게 나올까봐 걱정하는 학생 비율도 한국은 각각 69.1%, 74.6%로 OECD 평균(59.3%, 65.7%)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br/> <br/>성인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OECD 회원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2016년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OECD 평균은 6.5점(10점 만점)이었으나 한국 성인의 평균은 5.8로 38개국 중 31위였다. 특히 주관적으로 본인이 ‘건강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의 비율은 2015년 조사 기준 OECD 평균(68.8%)의 반토막 수준인 35.1%로 이 또한 OECD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 직장환경의 질은 OECD 평균이 0.5점인 표준점수로 변환했을 때 평균보다 낮은 0.43으로, 직장에서 시간압박과 강압적 지시 등의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보고서는 “만성화된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장애, 당뇨, 암 등의 질환을 야기할 수 있고 사회 안녕에도 위협이 된다”며 “개인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개발·확산하고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조직 문화 및 사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통합적인 정책들이 강력하게 요구된다”고 밝혔다. <br/> <br/>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50.txt

제목: ‘120㎏' 머라이어 캐리… 몸 못 가눠 男댄서에 기댄 채 공연  
날짜: 20170728  
기자: 민형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28133244001  
ID: 01100201.20170728133244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팝가수 머라이어 캐리가 식이조절을 잘못해 몸무게가 120㎏까지 불어났다. <br/> <br/>미국 연예매체 레이다온라인은 26일(현지시간) 머라이어 캐리의 식습관에 문제가 생겨 몸무게가 263파운드(약 120㎏)까지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br/> <br/>머라이어 캐리는 지난 19일 진행된 미스 라스베이거스 공연 중 무성의한 태도로 관객들에게 야유를 받았다. 당시 머라이어 캐리는 립싱크로 무대를 꾸미고 댄스 곡에서는 춤을 추지 않았다. 불어난 체중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한 캐리는 줄곧 남자댄서에게 기대어 공연을 펼쳤다. <br/> <br/>전문가는 머라이어 캐리가 관절염, 심장병, 고혈압, 당뇨, 암 등의 건강문제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br/> <br/>민형식 인턴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351.txt

제목: [시온의 소리] 전문가들의 죽음  
날짜: 201707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28000455001  
ID: 01100201.20170728000455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톨스토이는 회심 후 쓴 중편 ‘이반 일리치의 죽음’(1886)에 대해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죽음에 대한 묘사, 묘사로부터의 묘사’라고 썼다. 여기서 ‘평범한 사람’이 단순치 않다. 이게 밝혀져야 두 번째 ‘묘사’가 환기시키려는 작가의 열심이 제대로 드러난다. <br/> <br/> 주인공의 모델은 생리학자로 유명한 일리야 메치니코프의 형제로 작가가 교류했던 이반 일리치 메치니코프였다. 그는 툴라지방법원의 판사로 이른 나이에 암으로 사망했다. 일리야는 소설이 자기 형제의 풍부한 인간성을 추상화된 형태로 단순화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이 추상화와 단순화가 톨스토이가 기획한 ‘묘사로부터의 묘사’의 의도였다. 등장인물 전체가 단순화되고 추상화된 형태인 것이다. 평범한 사람이란 그들이 속한 법원조직과 같은 개개의 범주에 속한 전부를 말한다. 평범하지만 법조인, 정치인, 학자, 군인, 관료, 경찰, 교육자, 언론인, 기업인, 종교인 등 전문가들인 것이다. 작가는 그들 각계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고유한 생명력으로 존재하는 인간들이 아님을 폭로한다. 전체로서 어떤 비인격적인 힘에 이끌려 살아가는 추상적이고 단순화된 존재들. ‘단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위로 올라가 마침내 전문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출세라고 작가는 쓴다. <br/> <br/> 전문가란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올바르고 진실한 것이라는 믿음으로 타인들에게는 일고의 가치도 없을 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다. 교육, 취직, 결혼, 성공과 출세를 위한 최선의 최선을 다한 줄서기. 영원히 변치 않도록 추상화되고 단순화된 세상의 프로토타입이 아닌가.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다. 뭘 좀 안다는 고정관념이 어려서부터 몸에 뱄으나 실제론 아는 게 없는, 그 불쾌하고 끔찍한 의심과 두려움을 미뤄두고 있을 뿐인 게 전문가들의 평범함의 실체다. 군더더기를 빼고 남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헛 살아온 것인가.” 이반 일리치는 진정한 공포에 사로잡힌다. 자신을 추동해온 야망과 노력과 보상들은 짜맞춰진 연극이었다. 판사의 고상한 업무로부터 가정생활과 심심풀이 카드도박까지, 사회적 삶들은 연습된 동작에 불과했다. 죽음에 직면해서야 그들 가운데 홀로 이반 일리치는 죽음과 맞서게 된 것이다. <br/> <br/> 작가는 주인공을 제외한 동료들이 여전히 죽음의 세계에 살고 있음을 세밀히 보여준다. 누가 치안판사직을 승계할 것인가, 그것만이 그들의 관심사다. 아내와 딸조차 유산이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해서만 근심어린 관심을 기울인다. 그들은 자기 옆에 살아있는 사람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한다. (자기가 이미 죽었으므로) 타인의 죽음이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다지 슬프지도 않다. 슬퍼해야 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무관심과 거짓과 위선의 삼위일체. 이것이 이반 일리치가 죽어가는 사람으로서 죽음과 마주해 깨닫게 된 세계의 잔인함이었다. 이것이 톨스토이가 말하고자 한 평범한 전문가들의 비인격적 냉혹함이었다. 거기서 깨닫는다. 이런 쓸모없는 직업과 명성과 재물에 집착하며 뭔가를 아는 체하는 전문가로 나 역시 살아왔다. 세월호처럼 비정하고 잔인하게. <br/> <br/> 이 소설에서 평범하다는 것은 특히 지식인 전문가 집단의 무신론적 견해를 가리킨다. 이반 일리치는 하인 게라심과 아들의 사랑을 통해 구원 받는다. 소설은 판사 이반 일리치의 갱생으로 끝나지만, 현실의 위안이 되지는 않는다. 그들이 여전히 세상을 농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소설을 극찬하는 전문가(!) 중에 그 점을 밝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br/> <br/> 적폐청산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발이 거세다. 과거엔 반정부 종북으로 몰더니 이제는 친정부 비전문가들의 음모(陰謀)론을 편다. 현실이 음모에 불과했다니 현실인 게 더 중대한 음모 아닌가. 전문적 견해에 대한 근본적 의심과 불신의 출처는 외면한 채 정치적 괴물이나 사회적 좀비로 커밍아웃하는 전문가들의 끝판을 본다. 중뿔난 교만과 악은 보편적 사랑에 반하는 사단의 두 가지 특성이다. <br/> <br/> 풀잎에 연 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들이었던가. ‘웬일이냐, 너 새벽 여신의 아들 샛별아,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사 14:12) 교회 전문가들의 평범성부터 깨뜨릴 일이다. <br/> <br/>천정근 자유인교회 목사

언론사: 국민일보-2-352.txt

제목: 치질과 치핵, 같은 병일까? 다른 병일까?  
날짜: 201707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25150044001  
ID: 01100201.201707251500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국내에서 치핵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에서 치핵으로 치료를 받은 인원은 65만6126명으로 이중 남성이 33만7867명이었고, 여성이 31만8259명이었다. 남성 치핵환자의 경우 40대에서 가장 많았고, 여성 치핵환자의 경우는 50대에서 가장 많았다. <br/> <br/>치핵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과도한 스트레스, 무리한 다이어트, 잘못된 배변습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br/> <br/>안산 한사랑병원 대장항문센터의 기영준 과장은 “<span class='quot0'>치질이라고 하면 보통 항문으로 혈관 등이 밀려나와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생각하게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건 치질의 한 영역에 속하는 질환</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치질은 항문에 생기는 질환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항문에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치핵, 치루, 치열 등이 있는데, 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치질이다. <br/> <br/>우리가 흔히 치질이라고 하는 질환은 치핵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왜 치핵을 치질이라고 부르게 됐을까? 이는 항문에 생기는 질환의 대부분이 치핵이기 때문에 ‘치핵=치질’이라는 공식이 성립되게 된 것이다. <br/> <br/>안산 한사랑병원 기영준 과장은 “<span class='quot0'>치핵은 항문 주변의 쿠션조직이 여러 원인으로 인해 항문관 밖으로 빠져 나오는 상태를 의미한다</span>”고 설명했다. <br/> <br/>또한 “치루는 항문샘에 염증이 발생하면 농양을 형성하게 되는데 염증이 지속되다보면 항문관의 안쪽과 바깥쪽을 연결하는 누관이 형성되고 이러한 누관을 통해 항문 바깥쪽으로 분비물이 지속되는 질환을 말하며, 치열은 항문관이 손상을 받아 찢어지는 질환을 말한다”며 “안전한 치질수술을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의료진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br/> <br/>한편 안산 한사랑병원은 경기도 유일의 보건복지부 지정 외과전문병원으로써 총 10개의 특성화센터(단일통로복강경, 당일수술, 화상, 유방‧갑상선, 담낭, 암, 유방성형, 위‧대장‧항문, 치료내시경, 비만 센터)를 운영 중으로 7개의 전문클리닉(소아/성인탈장, 하지정맥류, 부유방/여유증, 액취증, 통증, 대장게실, 동정맥루 클리닉)으로 구성돼 있다.  <br/> <br/>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53.txt

제목: 서울대병원 박영주 교수팀, 갑상선암 연관 유전자변이 첫 발굴  
날짜: 20170725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25110444001  
ID: 01100201.20170725110444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서울대병원 박영주 교수(왼쪽)와 국립암센터 이은경 교수 연구팀. <br/>서울대병원과 국립암센터 공동 연구진이 갑상선암 발병위험을 높이는 유전자변이를 발굴했다. <br/> <br/>서울대학교병원은 내분비내과 김종일 박영주 손호영 교수팀이 국립암센터 이은경 황보율 교수 연구팀과 전장유전체변이 분석을 통해 ‘NRG1’유전자 변이가 한국인 갑상선암의 주요 위험인자란 사실을 밝히는데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br/> <br/>갑상선암의 가족력은 서양인의 경우 약 4~5%에 그치지만, 한국인에선 이보다 배가까이 높아 9.6%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연구팀은 분화갑상선암 1085개 사례와 대조군 8884개를 대상으로 전장유전체연관분석연구를 진행했다.  <br/> <br/>그 결과 한국인에게는 NRG1 유전자가 갑상선암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기능적으로도 갑상선 조직에서 발암 시 해당 RNA발현량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 변이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br/> <br/>연구팀은 그동안 서양인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갑상선암 연관 유전자변이 ‘FOXE1’가 우리나라 사람을 포함 아시아인에게선 발생빈도가 낮았던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br/> <br/>서양인 갑상선암 환자에게서 FOXE1 유전자변이가 많이 발견된다면 한국인 갑상성암 환자에게선 ‘NRG1’ 유전자변이가 많이 발견된다는 의미다. <br/> <br/>연구팀은 이밖에 이전까지 갑상선암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유전자변이 3가지(FOXE1, NKX2-1, DIRC3) 외에도 갑상선암 발병을 부추기는 새로운 감수성 유전자구조 7개(VAV3, PCNXL2, INSR, MRSB3, FHIT, SEPT11, SLC24A6)를 새로이 찾아냈다. <br/> <br/>박영주 교수는 “<span class='quot0'>민족에 따라 영향력이 다른 갑상선암의 특정 변이를 확인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 연구결과가 갑상선암의 유전적 원인을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 <br/> <br/>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최근호에 게재됐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54.txt

제목: 하이푸, 폐암 크기 줄이는데도 큰 도움  
날짜: 201707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25180255001  
ID: 01100201.201707251802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간암과 자궁근종의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초음파 집속 장치 ‘하이푸(HIFU)’가 폐암의 크기를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임상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 서울하이케어의원은 김태희 원장 등이 지난 13∼17일 중국 충칭에서 열린 제3차 ‘최소침습 및 비침투성 양쯔 국제포럼’에 참가, 하이푸 치료 효과를 높이는 다양한 하이브리드(융·복합) 종양 치료법을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br/> <br/> 하이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3년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비(非)수술 암 치료 장치다. 고강도(0.8∼3.5㎒) 초음파 에너지를 종양 조직에 집속시켜 암세포를 죽이는 원리다. 고강도 초음파를 암세포에 집속시키면 종양조직 내 온도가 1∼2초 만에 65∼100℃ 로 상승한다. 열에 약한 암세포는 즉시 괴사된다. <br/> <br/> 김 원장은 앞서 폐까지 전이된 간암 환자 박모(46)씨를 대상으로 하이푸 치료를 시도했다. 동시에 동맥 내 혈관치료, 면역항암치료, 면역세포치료 등도 병용했다. <br/> <br/> 하이푸와 동맥 내 혈관 치료는 2주 간격으로 2회, 그 외 면역치료도 주기적으로 계속했다. 또 두 달 간격으로 CT 촬영검사를 실시, 박씨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추적하며 관찰했다. <br/> <br/> 그 결과 두 달 사이 종양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덩달아 기침 가래 등 폐암 증상도 완화됐다. <br/> <br/> 김 원장은 “<span class='quot0'>간암 췌장암 등 간담도계 악성종양 치료에 유용한 치료법인 하이푸 시술 시 면역화학요법과 면역세포치료를 병행한 것이 폐 전이암 치료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보인다</span>”고 풀이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355.txt

제목: 과민성 대장증후군, 스트레스를 피하라  
날짜: 201707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24161644002  
ID: 01100201.20170724161644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전 생애 동안 30%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흔한 질환이다. 이 질병은 신경성 대장, 경련성 대장, 경련성 장염을 포함해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br/> <br/>과민성 대장증후군은 흔히 통증, 설사, 변비와 동반되지만, 경련, 잦은 변의, 가스 배출, 복부 팽만감, 점액 변 등을 일으킬 수 있지만 대장암으로 발전하지는 않는다. <br/> <br/>정서적 스트레스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뇌와 장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긴장하거나 불안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우 생리에 의해 악화되기도 한다. <br/> <br/>이 질환은 대장의 기능성 장애이며,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반면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진행되거나 수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br/> <br/>따라서 완치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적응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이 질환이 심각하지 않다고 간단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불안과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다. <br/> <br/>카페인, 유제품, 알코올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커피, 차, 초콜릿, 알코올음료(맥주, 와인, 칵테일), 유제품(치즈, 우유)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이 니코틴에 의해 악화되므로 금연해야 한다. <br/> <br/>위에 나열된 음식을 피하거나, 스트레스 관리, 가벼운 운동으로 좋아질 수도 있으며, 식생활 습관의 변화에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재발될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된다. <br/> <br/>약물치료는 주로 증상에 맞추어 처방되게 되므로 같은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라도 사람마다 처방이 조금씩 다르다. <br/> <br/>천안충무병원 소화기내과 설재일 과장은 “<span class='quot0'>섬유소, 지사제, 변비약, 진경제 등을 적절하게 처방하고 장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진정제를 사용하기도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이 때 사용하는 진정제는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약물과 용량과 용법이 다르며, 주로 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교과서적 치료 방법</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이어 “대장은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식사에 관심을 가지고 섬유소의 섭취를 증가시키고 적절한 약물을 사용하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상을 개선시키거나 없앨 수 있다”며 “경미한 증상은 때때로 다시 생길 수 있으나, 심각한 정도로 재발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조언했다. <br/> <br/>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56.txt

제목: 2070년 1년 중 절반이 여름된다… '아열대 한국' 현실화  
날짜: 20170724  
기자: 민형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24153944001  
ID: 01100201.20170724153944001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해가 거듭날수록 여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기상청은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가 해가 갈수록 빨라지고 기간도 늘고있다고 전했다. 10년 전만 해도 무더위를 알리는 폭염주의보가 7월부터 내려졌지만 이 시기가 점점 빨라져 2014년부턴 5월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br/> <br/>여름은 하루 평균기온이 20도 넘게 올라가서 안떨어지는 때를 말한다. 약 백년 전 조상들의 여름은 94일이였다. 하지만 요즘은 한 해 3분의1 이상을 여름으로 보내고 있다. 여름이 과거보다 40일 이상 늘어 130일이나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기상청은 이 추세라면 2070년엔 1년 중 절반이 여름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br/> <br/>밤이 돼도 기온이 안떨어지고 빛 공해까지 겹쳐서 밤잠 설치는 경우가 많다. 도심 상가에서 나오는 불빛이나 야경에 밤늦게까지 노출돼 잠을 설치게 되면, 암 발생률도 높아진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br/> <br/>민형식 인턴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357.txt

제목: 위암 수술 후 체계적 관리가 전이 및 재발 방지에 도움  
날짜: 201707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24113044001  
ID: 01100201.201707241130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위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히고 있다. 위암의 종류는 대부분 선암이지만 악성 림프종, 평활근육종 등도 드물게 발생한다. 위암이 점막층에서 시작해서 점막하층, 근육막층 및 장막층을 뚫고 주위 조직으로 전파되며 림프액을 통해 주변 장기로도 잘 전이된다. 때로는 혈액을 통해 폐, 간 등의 먼 장기에 까지 전이가 될 수 있다. <br/> <br/>위암의 예후는 발병 위치, 전이 유무 그리고 세포 분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좋은 분화도를 가진 위암은 전이가 적고 예후가 좋은 반면 분화도가 안 좋은 위암은 전이가 빠르고 예후도 불량하다. 위암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으며 진행함에 따라 상복부 불편감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위염, 위궤양, 기능성 소화장애와 구별이 되지 않아서 정기적인 위내시경검사가 위암의 조기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위암이 진행되어 구토, 빈혈,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위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 항암 및 방사선 치료 등의 표준 암치료가 필요하다. <br/> <br/>메디움수원요양병원 나학열 원장은 “위암은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하면 생존율이 높아진다. 현대인들은 종합검진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암의 유무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미루다 암이 발생하게 되면 이미 상당히 진행 된 상태가 많다. 위암의 재발 및 전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개인에 맞는 치료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br/> <br/>메디움수원요양병원은 총 81개의 쾌적한 병상을 보유한 암요양병원으로 고주파 온열암치료와 면역 암치료를 통해 암환자의 생존율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환자들은 병원 앞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수원화성을 산책하며 완치에 도전하고 있다. 암치료에 동반되는 통증은 치료 유지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데 페인스크램블러(뇌로 전달되는 통증신호를 바꾸어 완화시켜주는 비침습적 치료기)를 보유하여 즉각적인 통증 관리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체외충격파치료 및 도수치료 또한 환자들의 통증 관리에 사용된다. <br/> <br/>위암은 잘못된 식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질환으로 짜고 탄 음식, 자극적인 음식 등을 피하고 과일과 야채를 꾸준히 섭취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암을 발병하는 헬리코박터 세균 감염 예방을 위해 깨끗한 환경관리가 필요하다. <br/> <br/>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58.txt

제목: '밥 안 차려준다' 둔기로 아내 살해하려한 남편 집행유예  
날짜: 20170723  
기자: 정지용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23130144001  
ID: 01100201.20170723130144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br/>23일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6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r/> <br/>최씨는 지난 3월 27일 자정께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잠든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자신의 외도 사실을 알아챈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고,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r/> <br/>최씨의 아내는 무자비한 남편의 폭력에도 집을 나와  옆집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남편은 자신을 피해 도망치는 아내를 계속 쫓아가며 둔기로 머리를 내리쳤다.  <br/> <br/>재판부는 범행의 무자비함을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br/> <br/>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59.txt

제목: ‘아름다운 소녀?’ 알고보니 가슴 따뜻한 소년  
날짜: 20170721  
기자: 최영경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21000144001  
ID: 01100201.20170721000144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영국 웨일스 출신의 11세 소년은 여자 같다는 놀림을 꿋꿋이 이겨내고 2016년 1월부터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항암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져버린 아이들을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br/> <br/>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 투데이뉴스는 남부 해안의 도시인 라넬리에 사는 조슈아 스콧 힐의 기부 선행을 보도했습니다. 엄마 사만다 스콧(35)은 이런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br/> <br/> <br/> <br/>조슈아는 18개월 동안 기른 머리카락을 잘라 암투병을 하는 어린이의 가발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초 마트에서 엄마의 친구 딸인 암에 걸린 한 소녀를 만난 이후부터 머리카락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br/> <br/>조슈아는 "<span class='quot0'>나는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엄마에게 소녀의 머리카락이 어디 있냐고 물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엄마는 소녀가 화학요법을 받고 있어 머리카락을 잃었다고 설명해 주셨다</span>"고 말했습니다. <br/> <br/>엄마의 설명을 들은 조슈아는 소아암 치료받고 있는 다른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머리를 길러 가발을 만드는 곳에 기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머리카락을 기증하기 위해서는 7인치(17.78㎝) 이상 길러야 합니다. <br/> <br/> <br/> <br/>18개월 후 조슈아의 머리카락은 10인치(25.4㎝) 정도 길었습니다. 마침내 지난 15일 머리카락을 잘라 암치료로 머리카락을 잃은 소년 소녀들을 위해 가발을 만들어주는 '리틀 프린세스 트러스트'에 기부했습니다. <br/> <br/>그는 또 다른 단체에 기부하기 위해 소셜모금페이지에 사연을 공개하고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3500파운드(약 513만원)를 모금해 암 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매기센터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br/> <br/> <br/> <br/>조슈아는 머리카락을 기르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놀림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br/> <br/>"몇 명의 아이들이 나를 '소녀'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화가 났어요. 하지만 가족의 지지가 왜 내가 머리카락을 기르고 있는지 생각나게 했어요." <br/> <br/> <br/> <br/>사만다는 기금 모금 페이지에 아들의 머리카락 앞뒤 사진을 올렸습니다. <br/> <br/>그리고 "나는 오늘 지구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엄마입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br/> <br/> <br/> <br/>그녀는 아들의 짧은 머리에 익숙해지려면 며칠 걸리겠지만 한 가지 큰 이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pan class='quot1'>조슈아는 짧은 머리 덕분에 훨씬 빨리 달릴 수 있다고 믿어요.</span>" <br/> <br/>조슈아는 두 번째 기증을 위해 또다시 머리카락을 기르고 있습니다. <br/> <br/>▶소방관들 밥값 몰래 내주고 사라진 여성 “엄지 척!” <br/>▶동시에 두 자매에게 청혼한 남자, 그 숨은 사연은 <br/>▶[영상] 물에 빠진 가족을 구하는 청년, 충격 반전 “알고보니” <br/>▶생존율 3%의 남자가 만들어낸 100% 사랑의 기적 <br/>▶동성애 지지 학문이나 목회자 등은 모두 출교시켜야 한다 <br/>▶“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일만 일어나게 하신대” <br/>▶주인에게 버림받고 미이라에서 치료견 된 기적의 강아지 <br/>▶뇌수종 걸린 태아, 포기하려는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 체험 <br/> <br/>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60.txt

제목: 매케인 상원의원 뇌종양 진단… 美 정가 충격  
날짜: 20170721  
기자: 권준협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21213155001  
ID: 01100201.201707212131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미국 공화당의 대표적 중진이자 2008년 대선 후보였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80·사진)이 뇌종양 진단을 받아 현지 정계가 충격에 빠졌다. <br/> <br/> CNN방송은 20일(현지시간) 매케인 의원이 지난주 지역구인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한 병원에서 눈 주변 혈전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조직검사 과정에서 뇌종양의 일종인 교모세포종이 발견됐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매케인 의원은 “<span class='quot0'>수술이 잘돼 집에서 놀라울 정도로 잘 회복 중</span>”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의료진은 “<span class='quot1'>향후 종양 제거를 위해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등을 계획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 <br/> <br/> 교모세포종은 치명적인 악성종양으로 알려져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2009년 에드워드 케네디 전 민주당 상원의원과 2015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 보 바이든도 같은 종양으로 사망했다. 치료는 수술로 가능한 한 많은 종양을 제거하는 게 우선이다. 미 조지타운대 뇌종양센터 디파 서브러매니엄 소장은 “<span class='quot2'>교모세포종을 가진 환자 30%는 2년 이상, 10%는 5년 이상, 일부는 15∼20년 이상 산다</span>”고 말했다. <br/> <br/> 뇌종양 소식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매케인 의원은 항상 전사였다. 아내 멜라니아와 함께 당신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다. 곧 좋아질 것”이라고 기원했다. <br/> <br/>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매케인 의원은 미국의 영웅이자 가장 용감한 전사 중 한 명”이라며 “암이 상대를 잘못 찾았다. 물리쳐버려”라고 응원했다. 딸 메건 매케인도 “아버지는 담대하고 침착하다”며 “암은 아버지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br/> <br/>권준협 기자 gao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61.txt

제목: [색과 삶] 빛 공해  
날짜: 201707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21175255001  
ID: 01100201.20170721175255001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빛의 원초적 인식은 밝음이다. 그래서 그 기술도 언제나 밝음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백열등이나 형광등보다 에너지 효율이 월등하게 높은 발광다이오드(LED)는 전기요금 걱정을 덜어 주는 차세대 조명이다. 반도체를 활용한 LED는 전도물질에 따라 빛 색깔이 다르다. 노랑, 초록, 파랑, 하양과 같은 다양한 색을 구현하다 보니 빛으로 이미지를 표현하는 옥외조명으로 더 없이 제격이다. 대도시 옥외광고물은 갈수록 오색찬란하고 밝아서 빛과 색이 밤새도록 넘쳐난다. 과유불급이라, 어두워야 할 때 밝다는 사실은 당연히 부작용을 부른다. <br/> <br/> 밤에도 도시는 차와 사람으로 여전히 혼잡하고 부산하다. 도시의 소음과 넘쳐나는 쓰레기가 공해이듯이 한밤중 지나친 빛도 심각한 공해가 된 지 오래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빛 공해 민원이 2000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2013년부터 시행한 ‘빛공해방지법’이 있다고는 하나 유명무실하다. 이런 탓인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는 한국을 세계 2위 빛 공해 국가라고 발표했다. 빛 공해에 대해 엄청난 벌금을 물리는 영국에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결할 숙제는 너무나 수두룩하다. <br/> <br/> 너무 밝은 빛은 수면을 방해하고 생체리듬을 어지럽혀 우울증을 유발한다. 밝은 방에서 자는 청소년 중 절반 이상이 근시가 된다는 보고도 있다. 국제기구나 의학계에서는 면역체계 붕괴를 가져오는 빛 공해가 호르몬 관련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런 극단적 우려가 아니더라도 밤이 되면 어두운 상태에서 편히 잠들어야 한다.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수면을 방해하는 빛을 적극적으로 차단해보자. 잠자리에 들면 TV도 끄고 스마트폰도 멀찌감치 내버려 두는 게 상책이다.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들도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해주면 정말 좋으련만. <br/> <br/>성기혁(경복대 교수·시각디자인과)

언론사: 국민일보-2-362.txt

제목: [한국 선교팀 아프간 피랍 순교 10주기] “살아남은 우리 가슴에 순교 정신 심어주었죠”  
날짜: 20170720  
기자: 박재찬 장창일 이현우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20000356001  
ID: 01100201.20170720000356001  
카테고리: 문화>종교  
본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먼저 천국에 간 거라 믿어요. 부족한 종을 순교자로 세워주신 데 감사하고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배호중(82·제주영락교회 은퇴) 장로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2007년 7월 아프간 피랍사건 당시 순교한 고 배형규 목사의 아버지인 그는 인간적인 마음도 솔직하게 꺼내보였다. “<span class='quot0'>먼저 떠나보낸 자식이니 종종 마음이 아파올 때가 있지요.</span>” <br/> <br/> “<span class='quot0'>순교 정신 일깨워준 고마운 친구</span>” <br/> <br/>아프간 피랍 순교 10주기를 맞아 순교자 유족과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배 목사의 어머니 이창숙(78·제주영락교회 은퇴) 권사는 현재 암과 싸우고 있다. 한 차례 수술을 했지만 재발해 입원 중이다. 피랍사건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배 목사의 딸은 어느덧 새내기 대학생이 됐다고 배 장로는 말했다. 배 목사의 20년 지기인 낙도선교회 대표 박원희 목사는 배 목사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다. “<span class='quot0'>‘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순교다’라는 진리를 일깨워준 친구입니다.</span>” <br/> <br/> 또 다른 순교자인 고 심성민씨에 대해서는 박은조(은혜샘물교회) 목사가 특별한 사연을 들려줬다. “피랍 순교 1주기 때 성민이 어머님이 주일 오후 예배에 오셔서 간증을 했어요. 그때 ‘나같은 죄인에게서 순교자를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신 고백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br/> <br/> 신앙이 없던 심씨 어머니는 아들의 순교 후 극적으로 회심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박 목사는 설명했다. 심씨 친구인 곽민환(용인 향상교회) 부목사는 “<span class='quot1'>초심이 흔들릴 때마다 깨끗한 신앙인이었던 성민이를 떠올리곤 한다</span>”고 전했다. <br/> <br/> “<span class='quot0'>부끄럽지 않은 예수 제자로 순종할 것</span>” <br/> <br/> “아프간에 가기 전에는 신앙이 있긴 했지만 깊이 있는 신앙은 아니었어요. (피랍사건 후)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으로 많이 다듬어 주셨어요.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을 경험한 시간이었어요.” <br/> <br/> 아프간 피랍 성도 23명 중 한 명인 제창희 전도사가 최근 기독월간지 크리스채너티투데이코리아 인터뷰에서 밝힌 심경이다. 그는 지난해 회사원에서 신학도로 인생의 경로를 틀었다. <br/> <br/> 제 전도사 등 피랍사건을 겪었던 성도들의 지난 10년은 특별했다. 성숙과 성찰의 시간이었고 새 출발하거나 삶의 방향을 튼 이들도 있었다. 아프간을 향한 짙은 그리움도 배어났다. <br/> <br/>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다”고 운을 뗀 이선영씨는 “<span class='quot0'>(피랍사건 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선 답을 주셨고 은혜도 주셨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하지만 터널 안에서 내가 답을 찾고 구하고 연약한 부분을 마주하는 게 힘들었다</span>”고 털어놨다. 이어 “아프간은 제게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이자 내가 최종적으로 가야할 길의 꼭짓점 같은 곳”이라며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r/> <br/> 김지나씨. 피랍 사건을 겪은 뒤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 ‘사회가 우리에게 욕을 많이 했지만, 큰일은 아니더라도 좋은 일을 하며 살자.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적어도 착하게 산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는 살아야 하지 않겠나.’ <br/> <br/> 한지영씨는 “<span class='quot2'>아프간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곁에 늘 함께하신다는 걸 깨달았다</span>”고 고백했다. 이모 선교사는 “<span class='quot3'>아프간은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한 동시에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곳</span>”이라고 전했다. <br/> <br/> CTS기독교TV는 지난 18일 아프간 피랍순교 10주기를 기념한 대담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피랍 성도 대표로 출연한 김윤영씨는 2명의 순교자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다짐했다. <br/> <br/> “저와 함께 남겨진 스물한명은 아프간에서 함께했던 두 분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들에게 허락된 날들 동안 부끄럽지 않은 예수의 제자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곧 뵈어요.” <br/> <br/>박재찬 장창일 이현우 기자 jeep@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63.txt

제목: 얼굴 빨개지는 사람이 계속 술 마시면 식도암 확률 6배  
날짜: 20170718  
기자: 민형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18152344001  
ID: 01100201.201707181523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술 한 잔만 마셔도 유독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은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술먹고 얼굴이 빨개지는 증상을 '아시안 홍조 증후군(Asian Flush)'라고 하는데 한국 중국 일본 인구 중 36%가 이 증상을 보이고 있다. <br/> <br/>아세트알데히드는 술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중간과정 물질이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를 악성 발암물질로 그룹1로 분류한다. 술이 암과 연관되는 이유는 에탄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중간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이다. <br/> <br/>동북아시아인들은 대개 높은 효율로 에탄올을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시키는데 30~50%는 그 분해 효소가 부족한 형질을 갖고 태어난다. 이들은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하는게 아니라 아세트알데히드가 점점 쌓이는 것이다. 아세탈데하이드가 몸에 축적되면 단기적으로는 몸과 얼굴이 빨개지며 심장박동 수 증가, 어지러움증, 구토, 두통 등을 유발한다. <br/> <br/>사회적인 분위기로 이 변형 유전자 형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술을 많이 먹게되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비율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으며 이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한다.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ALDH2 변형형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식도암에 걸릴 확률이 6~10배가 된다. <br/> <br/>민형식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364.txt

제목: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도내 최초 로봇수술 성공  
날짜: 20170718  
기자: 원주=서승진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18101544001  
ID: 01100201.20170718101544001  
카테고리: 지역>강원  
본문: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병원장 이영희)이 강원도내 최초로 산부인과 및 흉부외과 질환에 대한 로봇수술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br/> <br/>로봇수술은 3차원 입체 영상을 이용해 집도의의 손 움직임을 정확히 재현할 수 있는 로봇 손에 의한 수술로 최소 절개를 통해 미세한 수술이 가능하다. <br/> <br/>이 때문에 다른 장기의 손상이나 출혈을 최소화해 기존 수술보다 정교하고 회복이 빨라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br/> <br/>지난 4월에는 도내 최초로 자궁근종·자궁내막증·자궁선근종 등 양성 부인과 질환 및 악성종양 절제술(산부인과 이산희·정다은 교수), 지난달에는 흉부외과 종격동 종양 절제술(흉부외과 변천성 교수)을 시행해 성공적인 결과를 거뒀다. <br/> <br/>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지역 주민에게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0년 4월 로봇수술 장비를 도입해 대장암·갑상선암·위암·전립선암 등 각종 암수술에 대해 폭넓게 시행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65.txt

제목: [And 건강] 腸 아픈 청춘 느는데… 의료비 늘까 ‘속앓이’  
날짜: 20170718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18050255001  
ID: 01100201.201707180502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정부 특별 지원 대상에서 빠지면 증상이 심할 때 처방받는 생물학적 약물인 레미케이드의 경우 한 번 주사 맞는 데 200만원가량을 내야 합니다. 기존 20만원에서 10배를 내야 돼요. 문제는 이걸 8주 간격으로 계속 맞아야 하는데, 환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거죠.” <br/> <br/> “잘 낫지 않고 재발이 잦은 데다 처음엔 가벼운 증상을 보였다가도 중증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 소화기 질환에 비해 처방약들이 비싼 편이고 평생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비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난치병인 염증성 장질환자와 이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최근 국회에 모여 한목소리로 의료비 경감 지원의 지속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대한장연구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염증성 장질환 극복을 위한 의료지원 심포지엄’ 자리에서다. 지난해 말 시행된 희귀질환관리법으로 염증성 장질환 중 일부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산정특례는 본인 부담이 큰 암, 심장·뇌혈관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병의 진료비를 깎아주는 제도다. 중증질환은 외래·입원비를 5∼10%, 희귀난치병은 10%만 내면 된다. 정부는 현재 희귀질환 및 산정특례 대상 질환 재분류 작업을 벌이고 있다. <br/> <br/>환자 늘어 희귀병 제외되면… <br/> <br/>염증성 장질환은 소장과 대장 등 몸에서 소화와 영양 흡수를 담당하는 장 안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염증이 끊임없이 생기는 만성병이다. 크론병과 궤양성대장염이 대표적이다. 예전엔 생소했던 이들 질환자가 최근 크게 늘고 있다. 때문에 과거 환자 수 2만명 이하인 희귀질환으로 분류됐던 것과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 <br/> <br/>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크론병 진료 환자는 2012년 1만4721명에서 지난해 1만9204명으로 4년 새 30.5% 증가했다. 희귀병 분류 기준인 2만명에 육박했다. 궤양성대장염 환자는 지난해 3만8212명으로 2012년(3만176명)보다 26.6% 늘었다. 궤양성대장염은 희귀병 대상 제외가 확실하다. 크론병도 증가 추세로 봤을 때 몇 년 내 희귀병 분류에서 빠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br/> <br/> 염증성 장질환은 백인에서 흔하고 동양인에서는 비교적 드물었다. 서양의 경우 궤양성대장염 발생 비율(2011∼2012년)이 인구 10만명당 24.3명, 크론병은 29.3명이다. 반면 한국(2006∼2012년)은 각각 4.6명, 3.2명으로 크게 차이난다. 그런데 1980년 중후반부터 이들 질환이 한국에서 증가하기 시작했다. 1991∼1995년 인구 10만명당 0.87명에 불과했던 궤양성대장염의 경우 1.74명(1996∼2000년) 3.08명(2001∼2005년) 4.6명(2006∼2012년)으로 꾸준히 늘었다. 크론병도 같은 기간 0.22명, 0.52명, 1.34명, 3.20명으로 상승했다. <br/> <br/>식생활이 장 미생물도 바꿨다 <br/> <br/> 염증성 장질환의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장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과 인체 면역 시스템 사이의 이상 반응이 지속돼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장 속 미생물군의 변화에는 식습관 변화와 스트레스, 흡연, 약물복용 등이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서구화된 식습관과 감염, 흡연, 소염진통제 오남용 등이 염증성 장질환의 빠른 증가세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예병덕 교수는 “<span class='quot0'>1988년 올림픽을 즈음해 국내에 패스트푸드와 청량음료 소비가 크게 늘었다</span>”며 “<span class='quot0'>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으면 장내 미생물 종류나 분포에 변화가 오고 장 염증 수치가 증가한다</span>”고 설명했다. <br/> <br/> 강북삼성병원 소화기내과 박동일 교수도 “<span class='quot1'>동물성 지방 음식을 많이 먹고 채소나 섬유소 섭취가 줄면 장내 미생물 중 인체에 유익한 균은 줄고 유해한 균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span>”며 “<span class='quot1'>이것이 장 면역계에 영향을 미쳐 염증을 유발하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 또 하나는 이른바 위생 역설이다. 위생 상태가 좋아지면서 장티푸스 등 과거 많이 걸렸던 감염병은 줄어든 반면 천식이나 아토피피부염, 염증성 장질환 같은 면역계 질환은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br/> <br/> 좀처럼 끊기 힘든 흡연의 경우 크론병 발병과 악화의 원인이다. 고령화로 인한 퇴행성관절염에 오남용되는 소염진통제는 크론병과 궤양성대장염 모두를 악화시킨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증가 추세라면 조만간 국내 염증성 장질환자 수가 서양 수준에 근접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br/> <br/>한 달 이상 설사 복통 혈변 시 의심 <br/> <br/> 염증성 장질환자는 경제활동 연령대인 젊은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완치가 어려워 평생 치료·관리가 필요하다. 심평원의 연령별 진료 환자를 보면 크론병은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많이 발병한다. 궤양성대장염은 20대 후반부터 환자가 늘기 시작해 30∼50대가 60%를 넘게 차지한다. <br/> <br/>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염증이 여러 곳에 띄엄띄엄 퍼져 있으며 깊은 궤양(푹 파인 염증)을 동반한다.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와 복통, 심한 설사가 주 증상이다. 오른쪽 아랫배가 아픈 게 특징이다. 증상이 헷갈리기 쉬운 과민성대장증후군은 배가 살살 아프다 변을 보면 좋아지지만 크론병은 계속 아픈 게 다르다. <br/> <br/> 궤양성대장염은 염증이 대장에만 국한돼 생긴다. 장 점막에 얇게, 주변으로 연속해 분포한다. 설사와 혈변이 특징이다. 코같이 끈적끈적한 점액질과 피가 변에 섞여 나온다. 치질과는 감별해야 한다. <br/> <br/> 크론병과 궤양성대장염은 증상이 5% 정도 비슷하다. 내시경 검진과 장 CT, MRI 등을 해봐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다. 예병덕 교수는 “<span class='quot0'>설사와 혈변이 한 달 넘게 반복되고 참을 수 없는 변 급박감, 점액질 변 등이 나타나면 궤양성대장염을, 복통이나 설사 체중 감소가 4∼6주 지속된다면 크론병을 의심해봐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 궤양성대장염은 10년이 지나면 대장암 위험이 높아진다. 10년 이후에는 1∼3년마다 한 번씩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크론병의 경우 오래 앓았거나 염증이 광범위할 경우 대장암뿐 아니라 소장암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소장 촬영 검사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 <br/> <br/>젊은층 부담 배려 필요 <br/> <br/> 두 질환은 화장실을 달고 살아야 하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궤양성대장염은 변이 급히 마렵거나 화장실을 다녀와도 시원치 않은 점이 고역이다. 젊은 환자들의 경우 학업이나 직장생활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고 경제적 부담도 크다. 한 20대 직장인 궤양성대장염 환자는 “활동기(염증이 많은 시기)에는 화장실을 수시로 들락날락해야 한다. 주변에 얘기하기도 그렇고 혹시 업무 도중에 실례할까봐 불안할 때도 많다. 치료를 위해 조퇴나 연가를 자주 내는 것도 눈치 보인다”고 털어놨다. <br/> <br/> 대한장연구학회가 염증성 장질환자 599명을 조사한 결과 81%가 질환 활동기에 피곤하고 허약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3점이나 됐다. 68%(평점 3.7점)는 증상 없을 때도 정신적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61%(평점 3.6)는 사람과 관계 형성에 장애를 받았다고 답했다. 64%(평점 3.7)는 조퇴·결석(결근)·휴학(휴직)할 때 스트레스, 압박감을 느낀다고 했다. 54%(평점 3.5점)는 치료비 때문에 가족에게 미안하거나 죄책감이 들었고 21%(평점 2.5점)는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포기한 적 있다고도 했다. <br/> <br/> 박동일 교수는 “<span class='quot1'>특히 젊은층 환자들의 경제·정신적 부담과 삶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책적 배려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span>”고 지적했다. 희귀병 산정특례에서 제외되면 현재의 일괄 본인부담 10%에서 지원 비중이 줄거나 중증 환자 위주로 대상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환자들은 걱정하고 있다. 박 교수는 “염증성 장질환은 증상 기복이 심한데, 대상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 경증이라고 제외됐다가 나중에 중증이 되는 환자들이 계속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고 그 반대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r/> <br/>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위원회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염증성 장질환처럼 호전과 악화의 변동이 심한 질환은 특성을 감안해 기준을 마련할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2'>희귀질환관리법에 배제되더라도 가까운 질환과 연계한 지원으로 보강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 <br/>글=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366.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120) 성빈센트병원 유방·갑상선센터] 유방·갑상선 질환자에 최적 치료 환경 제공  
날짜: 20170718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18232855001  
ID: 01100201.201707182328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갑상선암과 유방암은 국내 여성 암 1, 2위를 다투는 질병이다. 두 암 모두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 확률이 다른 어떤 암보다도 높아 더 주의를 끄는 암들이기도 하다. <br/> <br/>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유방갑상선센터(센터장 서영진·유방갑상선외과 교수)는 이를 위해 질병 중심 치료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환자 중심으로 최적화된 유방 및 갑상선 질환 진단 및 치료 프로그램을 구축해 놓고 있다. <br/> <br/>4년 연속 유방암 적정성 평가 1등급 <br/> <br/> 이 센터의 우수한 임상실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의료의 질 관리 평가에서도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특히 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 최근 4년 연속 1등급을 획득하며 유방암 잘 치료하는 의료 기관으로 이름을 알렸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 평가 때는 100점 만점을 받아 주목을 받기도 했다. <br/> <br/> 당시 국내 병원 전체의 점수는 평균 97.02점, 동일 종별(종합병원) 평균치도 96.70점에 그쳤다. 이는 성빈센트 유방갑상선센터가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방증이다. <br/> <br/> 성빈센트병원 유방갑상선센터는 또한 갑상선 분야에서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치료 지침 및 의료 적정성 권고사항을 준수, 환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br/> <br/>최대한 유방 원형 보존 <br/> <br/> 유방암 치료 시 환자들의 유방 보존 비율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 병원에서 암 절제 수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 중 90%가 유방을 보존하고 있다. 나머지 10%는 다발성 암과 같이 암세포가 유방 전체에 퍼져 유방 전(全)절제 수술이 불가피했던 경우다. <br/> <br/> 옛날에는 유방암이 발견되면 재발 위험 방지 목적으로 무조건 유방 전체를 제거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암의 치료 뿐 아니라 치료 후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암 절제수술을 하더라도 가능한 한 유방 원형을 살려서 보존하려는 쪽으로 치료방침이 바뀌고 있다. <br/> <br/> 문제는 수술 후 눈에 띄지 않는 암세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다. 유방원형을 살리는 보존적 치료는 아무래도 최대한 자기 조직을 많이 남겨야 되는데, 이 때문에 미처 확인하지 못한 암세포가 숨어 있다가 나중에 다시 퍼지거나 커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br/> <br/> 성빈센트병원 유방갑상선외과 서영진 교수팀은 이로 인한 재발 위험을 유방 초음파 검사와 MRI 촬영검사를 병행해 진단 및 수술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돌파해나가고 있다. 말하자면 초정밀 진단 및 수술로 수술 후 암 세포가 잔존해 있을 여지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뜻이다. <br/> <br/>환자 편익 제고 최우선 <br/> <br/> 성빈센트병원 유방갑상선센터는 또한 환자 편익 제고를 진료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다. 무엇보다 환자들이 편안히 검사를 받고 신속, 정확하게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진료과정의 초점을 맞춘다는 말이다. <br/> <br/> 이를 위해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교수뿐만 아니라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 관련 진료과 교수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진체제도 활발하게 가동 중이다. 꼭 해야 하는 검사를 받는데 걸리는 대기 시간을 최소화해주기 위해 방문 당일 모든 검사를 다 수행하는 ‘당일 진료-당일 검사’ 체제도 갖추고 있다. <br/> <br/> 그 결과 환자 만족도는 날마다 수직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암 진단 후 불필요한 검사를 중복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첫 방문 후 7일 이내에 검사에서 수술까지 모든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br/> <br/>질환 중심의 맞춤 치료 <br/> <br/> 질환 중심의 환자 개인맞춤 치료 시스템을 운영 하는 것도 자랑거리 중 하나다. 이 시스템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여러 진료과를 돌아다니며 필요한 검사와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주치의가 정해지면 그를 통해 암 치료의 전 과정이 통합적-포괄적으로 이뤄지게 돕는 방식이다. <br/> <br/> 치료 전 과정에 환자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요소들도 배치돼 있다. 유방갑상선센터 전문 간호사가 환자에게 수술 전후 단계별로 진행될 운동과 항암치료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며 상담해주는 제도다. <br/> <br/> 서 교수는 “<span class='quot0'>의료진과 환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덩어리가 되어 동행하는 동반자 치료 개념을 실천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span>”고 설명하며 “<span class='quot0'>유방암 갑상선암 환자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일이든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span>”고 강조했다. <br/> <br/>■ 서영진 교수는 <br/> <br/>미국 MD앤더슨 암센터에서 유방암 치료법 연수 <br/> <br/>1990년 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유방갑상선외과 전문의가 됐다. 2004∼2005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소재 MD앤더슨 암센터에서 유방암 치료법을 연마했다. 현재 한국유방암학회와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대한종양외과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br/> <br/>전이 및 재발성 유방암의 치료 및 예후, 유방암의 화학예방요법, 유방암의 유전자 치료 및 약물치료, 유방암 및 갑상선암 중개의학 등의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br/> <br/> “<span class='quot1'>환자와 보호자에 초점을 맞추고 그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span>”는 진료철학을 늘 되새긴다. 환자를 대할 때 그쪽 입장에선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더 좋아하고 만족할 것인지 먼저 생각하고 소통의 초점을 맞추면 안 될 일이 없다고 믿는 까닭이다. <br/> <br/>서영진 교수는 또한 환자들에게 가급적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편이다. 현재 환자의 상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완치 가능성이 있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상의한다. <br/> <br/>서 교수는 “<span class='quot0'>환자 스스로 치료의 필요성에 공감해야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치료에 임하게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처음에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던 환자가 무사히 수술과 치료를 다 받고 병세가 누그러졌을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span>”고 말했다. <br/> <br/>물론 항상 기쁨과 행복을 주는 환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환자들도 있다. 서 교수는 몇 해 전 병원과 의사를 믿지 못하고 민간요법으로 혼자 치료하다 끝내 세상을 뜬 한 유방암 환자 사례를 꼽으며 안타까워했다. 서 교수는“<span class='quot0'>옳지 않은 선택은 환자 본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span>”고 말했다. <br/> <br/> “의료진을 믿고, 충분히 상담하고 치료에 임한다면 못 이길 암은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특히 유방암은 어떤 경우에도 나을 수 있는 병이고 완치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br/> <br/>유방암 진단을 받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여성들에게 꼭 전하고 싶다는 서 교수의 메시지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67.txt

제목: LG디스플레이, 상생 프로그램 2·3차 협력사까지 확대 추진  
날짜: 20170718  
기자: 유성열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18185855003  
ID: 01100201.20170718185855003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LG디스플레이가 금융·기술·의료복지 분야 상생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br/> <br/> LG디스플레이는 1·2·3차 협력사 간 형성된 수직적 네트워크를 해소하고 모든 협력사와 함께 수평적 상생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신(新)상생협력체제’로 전환한다고 17일 밝혔다. <br/> <br/> 우선 2015년부터 1차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조성한 400억원 규모의 상생기술협력자금을 1000억원으로 늘리고 2·3차 협력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2·3차 협력사도 설비투자, 신기술 개발,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할 경우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br/> <br/>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동반성장펀드,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론 등 1차 협력사 위주의 다양한 금융 지원도 2·3차 협력사까지 활성화할 계획이다. <br/> <br/> 또 혁신적 신기술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원하는 ‘신기술장비공모제도’ 대상을 잠재 협력사까지 확대키로 했다. 새로운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 국내외 모든 중소기업과 연구소 및 대학이 대상이다. 아울러 2·3차 협력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LG디스플레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특허 5105건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유무상 양도키로 했다. 장비 국산화를 위해 협력사와 새 장비 공동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br/> <br/> 이와 함께 LG디스플레이는 자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2·3차 협력사 직원이 암, 희귀질환 등 질병에 걸릴 경우 자사 임직원과 같은 의료복지를 지원키로 했다.유성열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368.txt

제목: 암 예방·치료 ‘유전자 정보’에 답이 있다  
날짜: 20170717  
기자: 전미옥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17134755001  
ID: 01100201.2017071713475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암에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될까? 국가암등록통계(2014년 기준)에 따르면, 평균 기대수명인 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2%로 나타났다. 국민 3명 중 1명은 암을 경험한다는 이야기다. 암을 유발하는 요인은 생활습관, 환경 등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유전자’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br/> <br/> 암유전자란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유전물질을 뜻한다. 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을 유발하는 암유전자를 찾아내 치료와 예방에 활용하는 맞춤형 암 치료가 세계적 추세다.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면 해당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를 선별할 수 있어 치료 대안이 적은 말기 암 환자들에게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다양한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표적항암제 등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암의 예방과 완치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br/> <br/> 우리나라는 유전자 검사를 임상에 도입하고, 보험 급여화한 선도적인 국가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NGS기반 유전자패널 검사(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를 선별적으로 급여화했다. NGS 검사는 환자의 종양 조직 및 혈액을 분석해 수십에서 수백개의 유전자를 확인, 암을 유발하거나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를 찾는 진단기술로 환자에게 맞는 항암제를 찾는데 주로 활용된다. 여타 분석기법에 비해 시간이나 비용이 크게 절약돼 활용도가 높다. <br/> <br/> 현재 NGS 검사는 암 환자와 유전성 질환자·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상급 종합병원 22개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다. 고형암(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 흑색종, 위장관 기질종양, 뇌척수의 악성종양, 소아 신경모세포종, 원발불명암)에서는 HER2를 포함한 14가지, 혈액암(백혈병, 림프종 등)은 3∼11가지가 필수 검사 대상 유전자로 지정돼있다. 그 외 추가 검사 여부는 각 병원에서 결정할 수 있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50만 원 내외며, 검사 결과는 4주 정도면 확인할 수 있다. 박경운 분당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특정 유전자의 특정 변이가 검출될 경우 특정 치료 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개인별 맞춤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span>”고 말했다. 유전자 검사에 있어 판독기술 등 의료진 역량도 중요하다. 박 교수는 “환자에게서 특정 유전자 변이가 검출될 경우 그것이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변이인지 혹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양성 변이인지 판단해야 한다. 이 때 판독 과정에서 여러 근거들 중 어떤 근거를 중요하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 분석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까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다방면의 보완이 필요한 상태다. <br/> <br/> 이와 관련 최근 정부는 총 사업비 769억원 규모의 국가전략프로젝트 정밀의료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인의 유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적 치료제의 임상 효과를 검증해 맞춤형 의료를 확대하고, ICT기술을 활용,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사업화하는 것이 목표다. 정밀의료사업단장을 맡은 김열홍 고려대안암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유전체 분석에 따른 임상진단을 전국적으로 표준화해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환자마다 나타나는 특정 변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어떤 약물을 투여하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분석해 일련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교수는 “<span class='quot1'>이번 사업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연구자들과 제약회사 지원, 임상 의료진과 환자들의 정보제공 등 전 국민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span>”이라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임상에서는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장세진 서울아산병원 병리과 교수는 “활용도를 높이려면 항암 표적 치료제에 대한 제한을 풀어야 한다. 특정 표적 치료제가 특정 암에만 적용하도록 허가돼 다른 암에 효과가 있어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앞으로 보완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br/> <br/> 유전자 정보는 암 예방에도 활용된다. 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난소암과 유방암을 일으키는 BRCA 돌연변이 유전자를 발견, 가슴과 난소의 예방적 절제술을 받은 바 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BRCA 변이 보인자들의 평생 유방암 발생률은 72%에 달한다. 따라서 유전성 암 위험군이라면 유전자 검사로 적절한 치료와 예방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건강한 사람의 유전자 검사는 지양하고 있다. 김성원 한국유방암학회 출판간행이사(대림성모병원장)은 “유방암이 없는 여성에게서 BRCA 변이가 발견될 확률은 0.1%이하로 비용대비 효율성이 낮아 권하지 않는다. 적절한 치료법이나 예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유전자 검사 결과는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결과다. 무엇보다 무분별한 유전자 검사는 위험하다. 유전자의 문제는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불안, 죄책감 등을 동반하고 이로 인해 안타까운 결정을 하는 환자 사례도 종종 있다. 유전자 검사는 반드시 의료진의 상담을 받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r/> <br/>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2-369.txt

제목: [역경의 열매] 김경식 <11> 목회자 자녀 등에 장학금… ‘그리스도 군병’ 위한 양식  
날짜: 2017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17000255003  
ID: 01100201.20170717000255003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임마누엘집이 초창기부터 이어오고 있는 사업 중 하나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이나 목회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이다. 도봉산 자락에 있을 때부터 나는 장애인 가정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교육했다. 장애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비장애인들이 많다. 그런데 부모가 몸이 불편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살게 된다. 우리는 천막 가옥에서 15명의 아이들을 교육시켰다. 거여동으로 이사한 1987년 3월부터는 연중 사업으로 정례화해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br/> <br/> 한번은 영세 목회자인 최은총(가명) 목사가 편지를 보내왔다. 아들인 영우(가명)가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된 것에 감사하는 내용이었다. 최 목사는 사모가 암 치료를 받고 있었고 개척 목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장학금을 받게 돼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br/> <br/> 나는 영우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꿈을 품고 도전하라”고 말했다. 장학금 전달에서 나는 길게 말하지 않는다. 그저 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span class='quot0'>불편한 몸으로 살아온 나를 봐라</span>” “여러분들도 못할 게 없다” “<span class='quot0'>예수 안에서는 능치 못할 게 없다</span>”고 말한다. <br/> <br/> 나는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br/> <br/> 임마누엘집이 매년 펼치는 사업 중에는 교도소 방문도 있다. 장애인 복지재단에서 무슨 교도소냐고 궁금해 할 분들도 계시겠다. 교도소 방문은 나의 어두운 과거와 관련이 있다. 젊었을 때 도박 사건에 연루돼 6개월간 목포교도소에서 감방 생활을 해봤던 경험 때문이다. 그때 재소자들이 참 어렵게 생활한다는 것을 알았다. 물론 죄값을 치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다. <br/> <br/> 4년 전부터 나는 1년에 서너 차례씩 경기도 여주의 소망교도소에 간다. 임마누엘집 식구들도 같이 가서 재소자들을 위로하고 빵을 후원한다. 복지재단 산하 포천의 빵공장에서 만든 빵이다. 잔뜩 싸가지고 간다. 풍물놀이도 하고 예배도 드린다. <br/> <br/> 예배에서는 항상 내 간증을 들려준다. 그런데 재소자들은 내가 목발을 짚고 나오는 것부터 유심히 살펴본다. 그리곤 이야기에 빠져든다. 예배 참석자 300명 중 250명은 눈물을 흘린다. 예배가 끝나면 재소자 중 일부는 한마디씩 한다. “<span class='quot0'>출소하고 나가면 열심히 살겠습니다.</span>” <br/> <br/> 실제로 출소한 형제들 중에는 나 때문에 변했다는 사람이 여럿이다. 그동안 20명이 넘는 출소자들이 임마누엘집을 찾아왔다. 이들이 찾아오는 것은 나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다. 나는 교도소 집회를 가면 꼭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다. 일종의 광고인데 임마누엘집과 교회의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준다. <br/> <br/> “<span class='quot0'>여러분 서울 지하철 5호선을 타고 거여역에서 내려 5번이나 6번 출구로 나와서 70m만 걸어오세요</span>” 한다. 그러면 재소자들은 이를 기억했다가 찾아오는 것이다. 이들이 오면 나는 교통비를 챙겨주고 점심이나 저녁을 사준다. 찾아온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br/> <br/> “교도소에 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왔지만 김 목사님 같은 분은 처음 봤어요. 목발 짚고 힘겹게 강단 올라가 말씀 전하는 것을 들으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9월 방문이 기다리고 있다. 벌써부터 설렌다. <br/> <br/>정리=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70.txt

제목: [원자력병원 암전문의가 전하는 ‘건강톡’] “낯선 인두암, 확실한 예방법은 금연”  
날짜: 20170717  
기자: 이영수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17210755001  
ID: 01100201.201707172107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지난해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한 해 발생한 인두암은 전체 암 발생의 0.4%를 차지했다. 인두암은 발생 빈도는 낮지만 흡연과 음주를 즐겨하는 한국인의 생활습관을 고려한다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암이다. <br/> <br/> Q. 인두는 어떤 기관인가요 <br/> <br/> 인두는 뇌 바로 아래에서부터 식도 사이의 코와 목구멍, 입천장 부위를 지나는 근점막관을 말합니다. 위쪽부터 위치한 순서대로 비(코)인두, 구(목구멍)인두, 하(후두)인두로 나뉩니다. 주로 공기와 음식이 함께 지나는 통로인 인두는 발성에 중요한 공명관의 역할을 하고, 귀의 압력을 조절해주며, 여러 편도조직이 분포해 면역기능을 담당합니다. <br/> <br/> Q.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요 <br/> <br/> 흡연 시 인두의 내벽을 발암물질이 지속적으로 밀접하게 자극해 세포변이가 발생하여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두암 환자의 대부분은 심한 음주자로 흡연과 음주를 함께 하는 경우 암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자궁경부암 발생의 주요인자인 사람유두종 바이러스도 최근 인두암의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인두암은 피곤할 때 입술에 물집을 생기게 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일종인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감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흡인성 먼지,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는 경우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br/> <br/>Q. 특별한 증상이 있나요 <br/> <br/> 다른 암과 같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인두암, 하인두암은 목구멍 통증, 이물감, 음식물 삼킴 장애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음식물을 지속적으로 삼키기 어려운 경우 영양섭취 부족으로 체중감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목구멍의 종양이 자라면서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올 수도 있고, 목소리가 나오는 길을 좁게 만들어 목소리가 변하거나, 성대마비를 일으켜 쉰 목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비인두암의 경우 코막힘, 코피, 중이염, 뇌신경 침범으로 인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br/> <br/> Q. 어떻게 진단하나요 <br/> <br/> 인두암 진단은 상부기도 소화관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상부기도 소화관 내시경검사가 필수적이며 가장 중요합니다. 내시경 검사로 인두에 혹이 있으면 떼어내고 조직검사를 합니다. 암으로 진단되면 병변의 범위와 전이여부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전산화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검사(MRI)를 할 수 있습니다. <br/> <br/> Q. 수술로 완치되나요 <br/> <br/> 인두암 치료는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를 합니다. 치료 시 암의 제거도 중요하지만 인두 고유의 다양하고 중요한 기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인두암은 수술로 접근이 어렵지만, 방사선치료와 함께 항암치료를 병행해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재발률을 낮춥니다. 구인두암은 목부위로 전이가 잘 되므로 수술과 방사선치료의 병합요법으로 치료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인두암은 수술과 방사선, 항암치료를 함께 시행해 생존기간을 늘리고 기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br/> <br/> Q. 특별한 예방법이 있나요? <br/> <br/> 금연은 가장 확실한 인두암의 예방법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하인두암의 발생에 영향을 주며, 특히 흡연과 같이 하는 심한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인두암의 위험인자로 밝혀지고 있는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안전한 성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채소, 과일, 곡물을 많이 섭취하고 비타민A·C·E 등을 적당량 복용하는 것 역시 인두암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생활습관입니다. <br/> <br/>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br/> <br/>\*도움말=원자력병원 두경부암센터 이병철(이비인후과)·나임일(혈액종양내과)

언론사: 국민일보-2-371.txt

제목: ‘페린젝트’ 고용량 철분주사제 위암수술 후 빈혈 해결법으로 주목  
날짜: 20170717  
기자: 이영수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17210255001  
ID: 01100201.201707172102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위암수술 후 환자가 겪는 빈혈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수술 중 출혈로 인한 전해질, 수분 등의 손실을 수액으로 보충하게 되는데 이때 급성 빈혈이 발생한다. 빈혈이 생기면 장시간 동안 환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치료 방법은 ▶수혈 ▶철분 복용 ▶자연치유 등 세 가지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기존 방법이 수술 후 빈혈을 치유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br/> <br/> 특히 수혈은 혈색소(헤모글로빈 단백질) 수치가 7g/ℓ 이하인 경우에만 권고되고 있지만,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암 수술 환자에 대한 무분별한 수혈은 오히려 감염과 면역반응 등의 부작용을 일으켜 생존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 국내 연구진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해 최근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미국의학협회지(JAMA)에 게재했다. 김영우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팀은 삼성서울병원 등 국내 7개 대형병원 위암치료 외과 의사들과 공동으로 위암 수술 후 생긴 급성 빈혈을 치료하는데 ‘고용량 정맥철분제 정맥주사’가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br/> <br/> 이 연구는 위암 수술 후 5∼7일 사이에 혈액 내 혈색소 수치가 7∼10g/㎗ 사이의 빈혈이 있었던 454명(평균 나이 61.1세)에게 ‘페린젝트’(성분명 페릭 카르복시 말토즈)를 정맥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7년에 걸쳐 이뤄졌다. 연구 결과 철분제를 정맥에 주사한 빈혈 환자 중 92.2%가 12주 후 헤모글로빈 수치가 본 연구의 1차 목표인 혈색소반응(혈중 혈색소 반응 등재 당시 보다 2g/㎗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혈중 혈색소 수치가 11g/㎗ 이상인 경우)을 보였으며, 평균 혈중 혈색소 수치가 9.0g/㎗ 에서 12.3g/㎗로 수치가 정상치에 가깝게 개선됐다. <br/> <br/> 의료진은 정맥 철분주사제만으로 헤모글로빈 수치를 높여 빈혈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부적절하게 시행되던 수혈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우 교수는 “<span class='quot0'>오늘날 의학계에서는 수혈의 위험성이 점차 알려지게 되면서 적정한 수혈을 통해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려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를 통해 위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의 수술 전후 빈혈에 정맥 철분 주사제가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환자의 혈액 관리 전반의 임상 행태를 전환시킬 중요한 근거로 작용되는데 의미가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 공동연구자인 배재문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고용량 철분주사제인 페린젝트가 향후 부작용이 많은 수혈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위암 환자가 많은 국내 의료 환경에 꼭 필요한 연구과제”라고 강조했다. <br/> <br/> JW중외제약의 ‘페린젝트’는 철로써 500㎎ 함량으로 국내 유일의 고용량 철분주사제다. 암을 비롯해 인공관절, 제왕절개, 심뇌혈관질환 등 다양한 수술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수혈을 최소화하는데 간편하고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r/> <br/> 임산부 빈혈이나 산모의 철 결핍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최근 여성 임신 연령이 노령화되고 다이어트가 일상화되면서 빈혈을 겪는 산모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임신 초기에 먹는 경구용 철분제는 소화기 부작용으로 입덧을 더욱 심하게 할 수 있어 꾸준한 섭취가 힘들다. 이처럼 경구용 철분제 복용이 어려운 임산부에겐 정맥 철분주사제가 권장된다. 주사용 철분제는 자궁근종 등 부인과 질환 수술 전후 신속하게 빈혈 교정이 가능하다. <br/> <br/>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2-372.txt

제목: [쿡기자의 건강톡톡] 비타민D 생성… 햇빛 잘 활용하면 “Good”  
날짜: 20170717  
기자: 전미옥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17191055002  
ID: 01100201.20170717191055002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연일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을 기록하고 있다. 햇빛 속 자외선은 피부 알러지, 피부암 등 피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D를 합성하는 등 순기능도 적지 않다. 햇빛을 건강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br/> <br/> 햇빛은 열을 전달하는 적외선과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그리고 자외선으로 구성된다. 햇빛이 인공 전등과 다른 점은 바로 ‘자외선’ 때문이다. 자외선에는 A, B, C 세 종류가 있다. 이 중 자외선 A는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고, 자외선 B는 피부암에 걸릴 가능성을 높인다. 자외선 C는 파장이 짧아 피부 깊숙이 도달하지는 않는다. <br/> <br/> 피부과 의사들은 여름철 자외선 차단을 강조했다. 허창훈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자외선은 노화, 피부질환의 주범이기 때문에 특히 햇볕이 강한 날에는 얼굴만이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야한다</span>”고 말했다. 또한 허 교수에 따르면 비타민D 생성을 위해 일부러 야외활동을 늘리는 것도 권장되지 않는다. 허 교수는 “햇볕을 일부러 쬘 필요는 없다. 비타민D는 먹는 것으로 보충해도 되고, 일상적으로 출퇴근할 때 팔 다리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햇볕을 쬐는 정도라면 비타민D를 합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 교수는 “얼굴의 경우 피부암과 피부질환 발생률이 다른 부위보다 높기 때문에 맨 살로 자외선을 쬐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며 “자외선은 두피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여름철 햇빛이 강한 때에는 창 넓은 모자를 쓰고 얇은 긴팔 옷을 입는 것이 좋다.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자외선 노출 부위를 최소화하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br/> <br/> 다만 피부를 통해 흡수된 자외선은 체내에서 비타민D를 합성해 뼈와 근육을 유지시키고 면역세포 생산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최창진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비타민D의 역할은 근골격계 유지 및 면역력 강화, 암 예방 등 다양하다. 기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몸에 비타민D를 활성화하는 수용체가 여러 군데 분포해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r/> <br/> 자연적으로 비타민D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햇빛을 얼마나 쬐어야할까.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중요한 것은 자외선의 파장 수준”이라며 “무작정 햇볕을 쬐면 비타민D가 합성되는 것이 아니라 300nm내외 파장이 있는 자외선을 받아야 한다. 겨울이나 초봄, 공기가 나빠 흐린 날에는 야외활동을 오래해도 비타민D가 충분히 생성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br/> <br/> 최 교수는 “여름철은 비타민D가 합성되기 좋은 계절이다. 30분∼1시간 정도 전체 피부 면적의 20%이상을 햇볕에 직접 노출시키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한 번 햇볕을 쬐면 2주 이상 비타민D활성도가 유지된다”며 “햇빛은 비타민D 뿐만 아니라 기분을 좌우하는 세로토닌과 수면 사이클에 관여하는 멜라토닌을 분비시키는 등 순기능이 많다. 피부노화 등이 우려되는 얼굴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되 적당한 야외활동을 한다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전미옥 기자, 삽화=전진이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373.txt

제목: [류샤오보 별세] “中 인권탄압국” 위상 추락 불가피… 천안문 민주화 운동의 상징 감시속 숨져  
날짜: 20170714  
기자: 구성찬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14002555001  
ID: 01100201.20170714002555001  
카테고리: 국제>중국  
본문: “류샤오보는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잘 안다. 그럼에도 해외 치료를 고집하는 건 자신이 죽더라도 아내 류샤는 해외에서 남아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br/> <br/> 영국 BBC가 보도한 류샤오보 친구의 전언이다. 친구는 “류샤오보는 자신이 죽은 뒤에 류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반드시 그녀를 해외로 빼내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전했다. <br/> <br/> 13일 숨진 중국 민주화 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중국 당국의 감시를 받다 세상을 떠났다.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20년 가까이 온갖 고초를 겪다 결국 암을 이기지 못하고 한 많은 생을 마쳤다. 부인에게라도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도록 하고 싶다는 그의 소원은 이뤄지지 못했다. 류샤오보는 독일 평화주의자 카를 폰 오시에츠키(1889∼1938)에 이어 두 번째로 복역 중 사망한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기록됐다. 1935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오시에츠키는 나치 독일 치하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병원에서 숨졌다. <br/> <br/> 1955년 중국 지린성 창춘에서 태어난 류샤오보는 88년 베이징사범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고 노르웨이 오슬로대와 미국 하와이대, 컬럼비아대에서 방문학자로 지내며 중국 현대문학 등을 강의했다. 전도유망한 젊은 학자이자 촉망받는 작가였다. 뉴욕에서 유학하던 그는 89년 천안문 사태가 발생하자 귀국해 반체제 민주화 운동가의 길로 들어섰다. 당시 천안문광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였고, 마지막까지 남은 학생들이 무사히 광장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군과 협상을 벌였다. <br/> <br/> 하지만 천안문 사태가 유혈진압된 이후 반혁명 혐의로 투옥돼 20개월 동안 비밀 수용소에 갇혀 있어야 했다. 수용소에서 나와 좌절할 때 젊은 시인이자 화가였던 6세 연하의 류샤를 만났다. 류샤오보는 “<span class='quot0'>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한 여자에게 응축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span>”고 말했다. 류샤의 아버지는 은행권 고위간부로 유복한 가정이었다. 두 사람은 96년 천안문 인근에 신접살림을 차렸다. <br/> <br/> 그러나 류샤오보가 이후 20여년 동안 투옥과 노동교화, 석방을 되풀이하는 등 부부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2008년 12월에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지식인 303명이 중국의 민주개혁을 요구하는 ‘08 헌장’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됐다. 6개월 넘게 구금됐던 그는 2009년 6월 국가전복 선동혐의로 구속돼 같은 해 12월 징역 11년형과 정치권리 박탈 2년형을 선고받았다. 류샤오보는 2009년 12월 작성한 법정 최후진술문에서 “내게는 적이 없고 원한도 없다. 따라서 나는 최대의 선의로 정권의 적의(敵意)를 대하고 사랑으로 원한을 녹임으로써 개인의 처지를 넘어 국가발전과 사회변화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br/> <br/> 2010년 10월 랴오닝성 판진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그는 중국에서 기본인권 수호를 위해 일관되게 비폭력 투쟁을 벌인 공로를 인정받아 중국 국적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수형자에게 상을 주는 것은 ‘노벨상에 대한 모독’이자 서방국가의 ‘정치적 음모’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류샤오보가 암으로 가석방되자 그의 수감생활과 투병, 치료를 위한 해외 석방 청원 등은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다. 중국 정부는 외국에서 치료받도록 해달라는 류샤오보와 국제사회의 요청을 ‘내정 간섭’이라며 거부해 왔다. <br/> <br/> 류샤오보의 사망으로 중국은 최대 아킬레스건인 인권 탄압 이미지가 더욱 굳어져 국제적 위상 추락이 불가피하게 됐다. 민주화 요구 시위대를 탱크로 무자비하게 짓밟은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의 인권 문제를 줄기차게 비판해온 국제앰네스티(AI) 등 인권단체는 류샤오보 사망을 빌미로 공세의 고삐를 조일 전망이다. <br/> <br/>노벨위원회 “中 무거운 책임져야” <br/> <br/>노벨상을 주관하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가 간암 투병 중 사망한 것과 관련, 중국 정부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br/> <br/> 베리트 라이스 안데르센 노벨위원회 대표는 이날 언론에 발표한 성명에서 “<span class='quot1'>류샤오보가 치명적 상황에 이르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옮겨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span>”이라고 지적했다. <br/> <br/>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74.txt

제목: [시온의 소리] 순례자의 지혜  
날짜: 201707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14000155001  
ID: 01100201.20170714000155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월터 스콧(Walter Scott)은 영국의 시인이자 소설가였다. 그는 평생 많은 책을 저술했는데 임종 전 사환에게 책을 가져오라고 했다. 사환은 주인이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인 몇 권의 역작을 가져왔다. 하지만 주인은 “<span class='quot0'>아니, 책이라면 성경 말고 또 무슨 책이 의미가 있단 말이냐</span>”라며 호통을 쳤다. <br/> <br/> 그가 죽기 전 찾은 성경은 죽음의 순간뿐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위한 지혜를 가르친다. “<span class='quot1'>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span>”(전 3:1∼11). <br/> <br/>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시지만 사람은 시간 안에 머물러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 그 안에서 우리는 각각의 때를 살아간다.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유년기를 넘어 청년과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때를 살아간다. <br/> <br/> 하나님은 각각의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아름다움이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이 전도서의 첫 번째 교훈이다. 그러나 이 교훈은 곧 이어지는 다음 교훈과 충돌한다. 그것은 영원을 사모하며 각각의 때를 절대화 하지 말라는 것이다. <br/> <br/> 유대인의 전승 가운데 ‘다윗왕의 반지’에 얽힌 전설이 내려온다. 어느 날 다윗왕이 보석 세공인을 불러 명령을 내렸다. “나를 위한 반지를 새겨오라. 반지에는 승리를 거두어 환호할 때에도 들떠 오만하지 않으며, 패배를 겪었을 때는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가 담겨야 한다.” <br/> <br/> 보석 세공인은 답을 찾을 수 없어 지혜로운 왕자 솔로몬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솔로몬이 말했다. “이 글귀를 반지에 새겨 넣으시오. 왕께서 이 글을 보시면 승리에 도취한 순간에는 자만심을 가라앉히며, 패배의 절망적 순간에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br/> <br/> 무슨 글이었을까.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였다. 우리는 모두 때와 때를 여행하는 시간의 여행자들이다. 시간을 살아가는 시간의 순례자들이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때를 지나며 또 다른 때를 맞을 뿐, 우리의 어느 순간도 영원하지 않다. <br/> <br/> 슬픔의 때에는 슬퍼하라 말한다. 기쁨의 때에는 기뻐하라 말한다. 슬픔은 슬픔으로써 이길 수 있고 기쁨은 기쁨으로써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기억하라. 슬픔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갈 것이다. 삶의 어느 순간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는 순간에 붙잡힌다. 왜냐하면 순간이 운명이 되기 때문이다. 보이는 현실이 절대가 되기 때문이다. <br/> <br/> 반면 우리에게 영원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은 순간에 쫓기거나 붙잡히지 않게 한다. 오히려 순간을 잘 살아가게 하는 지혜를 갖게 한다. 인생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모든 순간을 음미할 수 있다. 슬플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도 가벼이 지나치지 않으며 매 순간마다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지혜를 배울 수 있다. <br/> <br/> 한 권사님이 아까운 나이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분은 주일이면 예쁜 모습으로 안내봉사를 했다. 그녀는 안내 전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삶을 살다가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할 텐데 제가 활짝 웃는 모습으로 인사할 때 마음이 다 풀려 은혜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그녀는 암 투병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병상을 찾은 지인들에게 했던 농담은 지금까지도 회자된다. 그것은 “미인박명(美人薄命)이래”였다. <br/> <br/>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에 눌리지 않는 여유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녀는 자신의 박명이라는 문제를 아름다움으로 해결하고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자신의 때, 하나님의 선물을 음미한 것이다. 그렇게 삶의 순간도, 죽음의 순간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가셨다. <br/> <br/> 성경의 교훈은 인생예찬이다. 삶의 모든 때가 아름답다. 이처럼 아름다운 인생의 여행을 위한 지혜를 주는 책이 성경 말고 또 어디 있단 말인가. <br/> <br/>박노훈(신촌성결교회 목사)

언론사: 국민일보-2-375.txt

제목: 고대 안암병원, 암 센터 확장 오픈  
날짜: 20170713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13101544002  
ID: 01100201.20170713101544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고대 안암병원(원장 이기형)은 13일 환자가 감동하는 암 치료의 실현을 목표로, ‘환자 개인 맞춤형 포괄적 암 치료’를 핵심가치로 삼는 암센터(센터장 김선한· <br/>사진)를 확장 오픈했다고 밝혔다. <br/> <br/> <br/>고대 안암병원은 이번 암센터를 확장하며 암환자의 진단, 치료, 교육, 연구, 가족관리프로그램 등 포괄적 암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두루 갖췄다. <br/> <br/>먼저 10여개의 다학제팀을 바탕으로 다학제진료를 강화했으며, 공간 확장은 물론, ‘MRI-초음파 영상 퓨전 전립선 생검 시스템’ 등 첨단 장비를 도입했다.  <br/> <br/>고대 안암병원 암센터는 이를 통해 중증 암환자의 치료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감동을 주는 서비스로 고대병원의 암 치료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신뢰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br/> <br/>김선한 고대 안암병원 암센터장은 “새롭게 오픈한 암센터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 의료진의 실력이 다학제팀, 포괄적 치료시스템, 환자 중심의 환경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축했다”면서 <br/> <br/>“<span class='quot0'>암 치료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환자와의 긴밀한 교감을 통해 첨단의 암 치료가 감동적이고 따뜻하게 환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76.txt

제목: 멸종위기 ‘황금박쥐’ 유전체 세계 첫 해독  
날짜: 20170713  
기자: 최예슬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13181555001  
ID: 01100201.2017071318155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연구진이 ‘황금박쥐’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붉은박쥐(사진)의 게놈(유전체)을 세계 최초로 분석했다. <br/> <br/> 박종화 울산과학기술원(UNIST) 생명과학부 교수가 이끄는 게놈산업기술센터 연구진은 멸종위기에 처한 붉은박쥐의 보전과 복원을 위해 게놈을 해독하고, 다른 생물과 비교 분석을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br/> <br/>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붉은박쥐는 국내에 확인된 개체수가 500마리 남짓에 불과한 희귀종이다. 연구에는 충북 단양 고수동굴에서 발견된 붉은박쥐 사체가 사용됐다. 한국에서 박쥐의 게놈을 해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r/> <br/> 연구진은 박쥐 유전자가 인간 수명과 질병에 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쥐는 몸 크기에 비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포유류다. 이번에도 박쥐의 긴 수명, 비행능력, 초음파 감각, 낮은 시력에 관한 유전자 변이가 확인됐다. <br/> <br/> 특히 연구진은 붉은박쥐의 게놈에서 맹독으로 알려진 비소(As)에 강한 유전변이를 찾아냈다. 비소에 강하기 때문에 붉은박쥐는 중금속으로 오염된 동굴 환경에서도 생존이 가능했다. <br/> <br/> 박 교수는 “<span class='quot0'>국가적으로 붉은박쥐 같은 생물자원의 유전정보를 모아 빅데이터로 만들 필요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박쥐 게놈에서 장수와 관련된 유전정보를 더 깊이 연구해 암 치료와 수명 연장에 활용하고 싶다</span>”고 밝혔다. <br/> <br/> 게놈 분석 결과 붉은박쥐의 개체수는 마지막 빙하기 후반이던 1만∼5만년 전부터 급격히 줄었다. 박쥐는 해충을 잡아먹거나 꽃가루를 옮기는 등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br/> <br/> 이번 연구는 류덕영 서울대 수의대 교수팀과 함께 진행했으며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와도 협업했다. 연구 내용은 국제적 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에 지난 5일자로 발표됐다. <br/> <br/>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77.txt

제목: 제23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 오는 10월 개최...‘면역 암치료’ 결과발표  
날짜: 201707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12175044001  
ID: 01100201.201707121750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일본 아베종양내과의 아베 박사가 오는 10월 28일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23회 국제개별화 의료학회에서 다가 신수지상세포 면역 암치료 결과를 발표한다. <br/> <br/>23회를 맞는 이번 국제개별화의료학회는 ‘암, 면역이 도전하는 정밀의학의 최전선’이란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br/> <br/>면역세포치료는 수술, 항암제, 방사선치료에 이어 제4의 치료법으로 소개되면서 1970년대부터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 분야다. 최근에는 암치료와 자가면역질환, 알레르기 치료까지 범위가 확대되며 다양한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br/> <br/>이번 학회에서는 암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면역항암제인 옵티보와 여보이의 치료사례가 발표된다. <br/> <br/>아베종양내과의 아베 박사는 지난 5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2017 국제 바이오마커와 암면역학회’에서 다가 신수지상세포를 사용한 난치성 비소세포폐암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는데, 풍부한 임상경험으로 아베종양내과는 면역항암제를 치료에 적용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br/> <br/>아베 박사의 연구팀은 기존 수지상세포 암치료의 2가지 난제를 극복했다. 먼저, 25cc의 소량채혈만으로 암 치료에 충분한 수지상세포백신 치료제를 만들었다. 수지상세포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암 치료에 충분한 단구(수지상세포가 되기 직전의 전구세포)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다. 아베 박사의 연구팀은 단구를 미분화상태로 대량 증식하는 기술을 개발, 이를 극복하였으며 인류의 암 정복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됐다. <br/> <br/>또한, 시설에 따라 배양기술과 품질에 차이를 보이면서 암세포의 다양성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였다. 아베 박사의 연구팀은 같은 병기의 암이라도 환자마다 사용될 암항원이 다르므로 암세포의 다양성에 맞는 최신 암항원을 평균 5종류 추가했다. 암 환자 개인에 가장 적합한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다. <br/> <br/>아베종양내과는 ‘다가 신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제’라고 불리는 아베 박사 연구팀의 이 치료제 제조법을 일본, 미국, EU, 대한민국, 싱가폴, 중국 등에서 특허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br/> <br/>다가 신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는 암 세포의 분자를 표적으로 한다. 즉 영상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휴면상태에서도 암유전자나 바이오마커를 기준으로 진단과 치료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다가 신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는 현재 암치료뿐만 아니라 재발방지에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br/> <br/>아베종양내과의 다가 신수지상세포 치료제의 치료와 연구개발은 한국기업 ㈜선진바이오텍이 공동 참여하고 있다. <br/> <br/>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78.txt

제목: (사)국제사랑의봉사단, 전 세계 고통 받는 이웃들의 마음과 삶 치료  
날짜: 201707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12172344001  
ID: 01100201.20170712172344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흔히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봉사의 삶은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도 바쁜 삶을 살고 있는 CEO이자, 의사가 매년 세계 곳곳을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면? <br/> <br/> <br/> <br/>대중들에게 황성주 박사(Hwang Sung Joo)는 면역의학을 연구해 온 의사나 암면역 전문병원인 사랑의병원의 병원장, 암환우들을 위해 생식을 개발한 기업의 CEO로 익숙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CEO들은 비즈니스를 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외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황성주 박사의 시작은 다른 CEO들과는 사뭇 다르다. <br/> <br/>황 박사의 대외적인 활동의 시작은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과대학 교수 시절 가게 된 방글라데시의 참상을 보고, 5년 뒤인 1992년 12월 국제사랑의봉사단(이하 봉사단)을 설립하고, 그 다음해 1월 43명과 함께 방글라데시 찔마리로 의료봉사를 떠났다. <br/> <br/>그리고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황 박사는 매년 봉사단을 통해 전 세계의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웃들을 찾아가는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해 오고 있다. <br/> <br/> <br/> <br/>창단 이래 황 박사는 사랑의병원 의료진과 함께 매년 봉사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오지를 중심으로 의료봉사와 건강에 대한 강의, 리더십 세미나, 전인치유 세미나 등으로 전인적(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회복과 한 개인을 넘어서 지역과 사회적인 건강함을 회복하는 일을 돕고 있다. <br/> <br/>황 박사는 “<span class='quot0'>봉사단 활동을 통해 삶이 변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다</span>”고 고백한다.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직접 체험하면서 사랑 받아야 할 한 사람의 소중함을 배우고, 그 소중함을 잃은 이웃들의 고통을 보며 안타까움과 애절함을 느끼면서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 <br/> <br/>그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기업인 ㈜이롬은 매년 이익의 10%를 아프리카 및 저개발국가에 후원하고 있다. 특히,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유급)휴가와 참가비를 지원하여,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닌 사람을 보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br/> <br/>특별히 올해 설립한 국제사랑의봉사단 25주년을 맞아 오는 8월 12일부터 24일까지 제50기 특별팀이 대대적인 해외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가난으로 고통 받는 6.25 참전용사들을 만나는 에티오피아팀, 쿠미대와 인근 캠프를 통해 남수단 난민들을 돕는 우간다팀, 심각한 실업난으로 삶의 기반이 무너진 청년들과 소외계층을 돕는 아르메니아팀 등 현재 세계 곳곳의 생생한 이슈들을 살피고 도울 수 있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의료봉사, 강의활동 등으로 이웃들을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될 예정이다. <br/> <br/>황 박사는 “<span class='quot0'>봉사는 단순한 구호활동이 아닌 전인적인 변화와 성장을 추구해야 하고 이것은 일시적인 후원이 아닌, 모든 것이 동원되어야 하는 총체적인 사랑의 필드를 만들어야 가능한 일</span>”이라고 말한다. <br/> <br/>그는 설립단체의 비전인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라”를 푯대로 고통 받는 세계의 이웃들을 만나 사랑을 전하는 위대한 일을 실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행진에 참여하기를 당부했다.  <br/> <br/>말이 아닌 삶이 보이는 섬김과 나눔을 가장 최전방에서 실천하는 황성주 박사(Hwang Sung Joo)의 행보가 기대된다. <br/> <br/>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79.txt

제목: 부천성모병원, 일반인 호스피스강좌 수강생 공모  
날짜: 20170712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12103144001  
ID: 01100201.201707121031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병원장 권순석)은 다음 달 9~11일, 3일간 성요셉관 대강당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호스피스교육과정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br/> <br/>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 2일(수)까지 부천성모병원 호스피스팀으로 등록하면 되며, 교육비는 교재와 중식비를 포함하여 5만원이다. <br/> <br/>이번 교육은 암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암사망자의 약 15%만이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이용하고 있음에 따라 암, 호스피스,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br/> <br/>호스피스는 죽음을 앞 둔 말기암 환자가 최대한 자신의 품위와 인격을 가지고 고통 없이 남은 삶을 보내도록 도와주는 활동으로, 통증, 증상의 조절 및 정서적, 사회적, 영적 지지를 통한 돌봄을 제공하는 완화의료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질병을 근원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돌봄(Holistic care)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br/> <br/>3일에 걸쳐 진행되는 호스피스 교육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이해 ▲암이란 무엇인가? ▲호스피스 윤리 ▲자원봉사자의 역할 ▲가정호스피스의 이해 ▲암환자의 증상관리 ▲암 환자의 영양관리 ▲내면을 살펴보는 미술치료 프로그램 ▲사별가족 돌봄 ▲호스피스 환자와의 대화기법 ▲봉사자 체험 나누기 ▲나의 죽음에 대한 나눔 등으로 구성, 호스피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배울 수 있는 기회다. 따라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되길 원하거나, 말기암 환자가 주변에 있는 보호자가 들으면 유익할 것이라는 게 병원 측의 설명. <br/> <br/>특히 종교와 상관없이 타인의 상처를 어루만져줄 수 있고 자신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교육이 제공돼 관심을 끈다. <br/> <br/>예수회 CPE연구소 소장 정무근 신부가 호스피스 환자와의 대화기법에 대해, 한국비폭력대화센터의 김보경 강사가 연민의 대화라고 불리는 비폭력대화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br/> <br/>올 8월부터 시행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2016년 2월 공포)과 관련한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도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인 지영현 신부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예정이다. <br/> <br/>3일 전 과정 수료 시 국내 호스피스 관련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느 수료증이 제공된다.  <br/> <br/>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는 1993년 분산형 호스피스로 오픈, 2016년 3월부터 가정호스피스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정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말기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을 24년간 함께 하고 있다. 문의: 032-340-2435/2530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80.txt

제목: 멸종위기 '황금박쥐' 게놈 세계 첫 해독…"종 보전, 인간 장수 연구 토대"  
날짜: 20170712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12101544001  
ID: 01100201.201707121015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황금 박쥐’의 게놈(Genome·유전체)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해독하는데 성공했다. 멸종 위기종인 황금박쥐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유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또 오래 사는 황금박쥐의 유전변이는 인간 장수 연구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br/> <br/>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박종화 생명과학부 교수가 이끄는 게놈산업기술센터 연구진은 ‘붉은박쥐(Myotis rufoniger, 마이오티스 루포니거)’의 게놈을 해독하고, 다른 생물과 비교‧분석을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br/> <br/> 이번 연구는 류덕영 서울대 수의대 교수팀과 함께 진행했으며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와도 협업했다. 연구내용은 국제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 최신호에 발표됐다. <br/> <br/> 이번 연구로 붉은박쥐는 한국에서 게놈을 해독한 최초의 박쥐가 됐다. 박쥐는 몸 크기 대비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포유류인데 이번에도 긴 수명, 비행능력, 초음파 감각, 낮은 시력에 관한 유전자 변이가 확인됐다. 야생생물인 박쥐의 유전자가 인간의 수명과 질병에 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br/> <br/> 붉은박쥐는 국내에 확인된 개체 수가 450~500마리밖에 되지않는 희귀한 생물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452호로 지정돼 있다. <br/> 이번 연구에서는 충북 단양 고수동굴에서 죽은 채 발견된 붉은박쥐를 이용해 DNA 시료를 얻고, 게놈을 해독했다. 연구팀은 붉은박쥐의 게놈을 해독한 결과를 다른 박쥐 7종과 육상 포유동물 6종의 게놈과 비교하면서 관련 유전적 변이를 분석해냈다. <br/> <br/> 특히 붉은박쥐의 게놈에서는 박쥐 색깔과 맹독으로 알려진 ‘비소(As)’에 강한 특성 등에 관한 유전변이를 찾아냈다. 박쥐는 일반적으로 검은색으로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색깔을 가진다. 연구진은 다른 동물의 게놈과와 붉은박쥐의 게놈을 비교하면서 붉은색을 띠게 만드는 유전변이를 발견했다. 또 붉은박쥐에는 비소(As)저항성 유전자 서열에 변이도 찾았다. 이 부분은 붉은박쥐가 중금속으로 오염된 동굴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진화적 단서를 제공한다. <br/> <br/> 또 붉은박쥐의 개체 수가 마지막 빙하기 후반부터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모든 생명체의 게놈은 그 생명체의 과거 진화의 역사와 개체 수에 대한 기록이 저장돼 있다. 게놈은 생물종의 역사책인 것이다. 이번 분석에서 1~5만 년 전부터 붉은박쥐가 속한 애기박쥐과 박쥐들의 개체 수가 급감했고, 붉은박쥐가 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br/> 이번 연구 논문의 주저자인 박영준 석‧박사통합과정 연구원은 “<span class='quot0'>박쥐의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등장으로 서식지가 파괴됐기 때문일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박쥐들의 감소 추세가 박쥐 전반적인 것인지, 그리고 박쥐의 감소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밝히려면 추가적인 박쥐 게놈 연구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참고로 박쥐들은 해충을 잡아먹거나, 벌처럼 꽃가루를 옮기는 등 생태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br/> <br/> 박종화 교수는 “<span class='quot1'>박쥐는 생물학적으로 고래만큼이나 재미있는 동물이며, 장수하는 동물로서, 인간에게 매우 귀중한 생물자원</span>”이라며 “<span class='quot1'>국가적으로 이런 생물자원의 유전정보를 모아 빅데이터로 만들 필요가 있으며, 박쥐 게놈에서 장수 관련 유전정보를 더 깊이 연구해, 궁극적으로 암 치료와 수명연장에 활용하고 싶다</span>”고 밝혔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81.txt

제목: “많이 마시면 안 좋다?”… 커피의 누명  
날짜: 20170711  
기자: 김철오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11170144001  
ID: 01100201.201707111701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커피로 뇌‧심장‧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에서 하루 2~3잔의 커피를 마신 사람은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18% 낮았다. <br/> <br/>영국 일간 가디언은 10일(현지시간) “<span class='quot0'>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구 마크 건터 박사와 서던캘리포니아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베로니카 세티아완 부교수 등 연구진이 미국 학술지 내과학회보에 실린 실험 2건을 분석한 결과 ‘커피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span>”고 보도했다. <br/> <br/>연구진은 1차 실험으로 1990년부터 16년 동안 커피를 마신 18만5000여명을 분석했다. 다양한 연령과 국적의 사람들이 실험군에 들어갔다. 이 실험에서 매일 커피 1잔을 마신 사람의 사망률은 12%, 매일 2∼3잔을 마신 사람의 사망률은 18% 낮게 나타났다. <br/> <br/>연구진은 2차 실험으로 유럽 10개국 45만여명의 커피 섭취 경향을 파악했다. 연령 흡연 운동량을  변수로 두고 매일 3잔 이상 커피를 마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사망률을 분석했다. 이 실험에서 매일 3잔 이상 커피를 마신 남자는 18%, 여자는 8% 낮은 사망률을 보였다. 커피를 많이 마신 사람은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았고, 간효소 및 혈당조절 등 생물학적 지표도 좋게 나타났다. <br/> <br/>세티아완 교수는 “<span class='quot1'>커피를 통해 암 뇌졸중 당뇨병 심장질환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span>”고 주장했다. 건터 박사는 “<span class='quot2'>두 실험에서 일관성이 있게 나타난 결과만 놓고 보면 ‘커피만으로 사망률을 낮출 수 없다’는 주장이 의아하게 느껴질 정도</span>”라며 “<span class='quot2'>커피 섭취가 건강한 식습관의 하나가 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다만 연구진은 두 실험에서 건강한 식습관 및 운동습관을 가진 사람에게 사망률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 커피가 모든 질환의 사망률을 낮추지 않았다는 점, 커피를 자주 마시는 사람이 일과 여가에서 상대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br/> <br/>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82.txt

제목: 한양대병원, 21일 두경부암의 날 무료검진 행사  
날짜: 20170711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11154944002  
ID: 01100201.20170711154944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한양대학교병원 암센터(소장 태경·이비인후과 교수)는 오는 21일 오후 2~5시 본관 3층 강당에서 세계 두경부암의 날을 맞아 ‘두경부암, 아는 만큼 이긴다’란 제목으로 공개 건강강좌 및 무료검진 행사를 갖는다고 11일 밝혔다. <br/> <br/>건강강좌는 대한갑상선두경부외과학회 정필상 회장이 ‘두경부암 바로 알기, 두경부암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걸리나요?’, 한양대병원 암센터 태경 소장과 이비인후과 송창면 교수가 각각 ‘두경부암의 치료, 아는 만큼 이깁니다’, ‘두경부암 예방 및 치료 후 관리’를 주제로 강연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개그맨 배영만씨도 ‘(나는) 두경부암 이렇게 이겨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br/> <br/>한양대병원 암센터는 이날 강의가 끝난 후에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두경부암 검진 및 상담 행사도 가질 예정이며, 다양한 기념품과 푸짐한 경품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br/> <br/>태경 한양대병원 암센터 소장은 “<span class='quot0'>두경부암은 다른 암에 비해 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해야 치료 예후가 좋다</span>”며 <br/> <br/>“<span class='quot1'>두경부암이 어떤 병인지와 예방법을 알아보고, 로봇 수술을 포함한 두경부암의 최신 치료, 치료 후 관리 등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강좌를 마련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 치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span>”고 말했다. <br/> <br/>문의: 암센터(02-2290-8830)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83.txt

제목: 경동맥화학색전술+사이버나이프 병합 치료… “수술 불가 간암환자도 생존율 향상 기대”  
날짜: 201707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11202155001  
ID: 01100201.201707112021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수술이 불가능한 간암 환자도 경동맥화학색전술과 사이버나이프 병합 치료를 하면 생존율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은 간암센터 소화기내과 장재영(사진) 정승원 교수 연구팀이 방사선종양학과 장아람 박영희 교수팀과 함께 수술 불가 판정을 받고 경동맥화학색전술과 사이버나이프 치료를 병행한 간암 환자 30명을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결과 5년 생존율이 무려 66.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br/> <br/> 한국인 간암 환자의 5년 평균 생존율이 약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였다는 얘기다. <br/> <br/> 조사결과 특히 경동맥화학색전술을 먼저 시행하고 국소 잔류 암을 사이버나이프로 제거한 경우 평균 생존 기간이 93개월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항암화학요법만 시행하고 사이버나이프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의 평균 생존기간은 17.5개월에 머물렀다. 경동맥화학색전술 후 사이버나이프 치료를 병행한 경우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평균 생존기간이 무려 75.5개월이나 연장된 셈이다. <br/> <br/> 경동맥화학색전술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간암 환자들의 생존기간 연장을 위해 사용되는 항암화학요법의 일종이다. <br/> <br/> 간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경동맥의 일부 구간을 약물로 막아서 간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방법이다. 또 사이버나이프는 360도 전 방위에서 암 조직에 방사선 칼을 쏘아 그 열에너지로 암을 태워 없애는 장비다. <br/> <br/> 장 교수는 “간암 치료법이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환자들의 장기 생존 가능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암세포의 성장을 막는 경동맥화학색전술과 방사선 칼 사이버나이프를 병행하는 치료법이 앞으로 간암 극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384.txt

제목: '해리포터' 출연 원했던 난치병 어린이… 그 꿈을 이뤄준 스네이프 교수  
날짜: 20170710  
기자: 박세원 인턴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10154244001  
ID: 01100201.20170710154244001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스네이프 교수 역할을 맡았던 배우 앨런 릭먼(1946~2016)이 생전에 암 투병 어린이에게 베풀었던 선행이 회자되고 있다. <br/> <br/>평소에도 불치병이나 난치병에 걸린 어린이들을 돌보는 데 관심을 쏟았던 릭먼은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촬영 당시 한 난치병 어린이의 소원을 들어줬다. 당시 신경계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신경아 세포종' 4기였던 15살 어린이 제이는 죽기 전 해리포터에 한 번이라도 출연하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br/> <br/> <br/> <br/>릭먼은 아이의 꿈을 듣고는 감독에게 제이를 출연시키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완곡하게 거절하는 제작진에 릭먼은 "스네이프 교수의 표정을 짓더니 '얘가 출연하면 왜 안되지?'"하고 되물었다고 한다. <br/> <br/>릭먼의 배려로 제이는 수업시간 맨 뒤에 앉는 학생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편집을 거쳐 개봉한 영화에서 제이의 모습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이는 무척 기뻐했다고 한다. 2005년 세상을 떠난 제이에 대해 제작진은 "제이는 촬영 현장에 분명히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br/> <br/>릭먼의 동료이자 해리포터의 제작진이었던 파울라는 "<span class='quot0'>모두가 망설일 때 앨런은 흔쾌히 제이를 영화에 출연시키자고 제안했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는 정말 완벽한 인성과 연기력을 가진 훌륭한 배우였다</span>"고 회상했다. 아이에게 선행을 베푼 릭먼은 지난해 1월 암으로 사망했다. <br/> <br/>박세원 인턴기자 sewonpar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85.txt

제목: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한국인 김성호 교수” 인천대에서 바이오산업 이끈다  
날짜: 20170710  
기자: 인천=정창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10134244001  
ID: 01100201.201707101342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립 인천대학교(총장 조동성)가 국내외 글로벌 석학 5명을 초빙해 세계 수준 의 바이오 연구중심대학에 도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국립대학 중 바이오분야선도대학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br/> <br/> <br/> <br/>조동성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span class='quot0'>인천대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바이오 연구중심대학으로 우뚝 서겠다</span>”고 선언했다. <br/> <br/>조 총장은 “<span class='quot0'>바이오를 시작으로 로봇·드론, 미래도시, ‘녹색기후기금(GCF)과 연계한 기후변화’, ‘중국’, ‘통일후 남북통합’ 등으로 ‘연구 봉우리’를 세울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br/> <br/>인천대는 구조생물학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자인 김성호 석좌 교수를 융합과학기술원장으로 영입해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리드하는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송도에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br/> <br/>융합과학기술원 원장으로 초빙된 김성호 석좌교수는 전이 리보핵산(tRNA)의 3차원 구조를 세계 최초로 규명해 생체 고분자 결정구조분야의 세계 최고 권 위자로 호암상 등을 수상했으며 ‘한국인으로서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과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br/> <br/> <br/> <br/>이번에 초빙하는 글로벌 석학들은 전원 외국인으로 김 교수와 유전체연구 권위자인 이민섭 박사는 한국계 미국인이다. <br/> <br/>나머지 3명은 ‘국경없는 의사회’ 대표를 역임한 인도계 미국인 우니 카루나카라 예일대 연구교수, 백신연구 전문가인 독일출신의 유엔 산하 국제백신연구소 과학자문위원장과 빌게이츠재단 수석고문 랄프 클레멘트 교수, 바이오분야연구 권위자로 네덜란드 빈데샤임대학교 총장과 위트레흐트대학교 생명대 학장을 지낸 알버트 코넬리슨 교수다. <br/> <br/>조동성 총장은 “<span class='quot0'>이번에 1차로 5명의 글로벌 석학 영입한데 이어 앞으로도 세계 수준의 연구자 20명을 조교수로 채용해 5년후 10~20%만 채용하겠다</span>”며 “<span class='quot0'>인천대가 한국과 세계 바이오 연구와 산업을 잇는 글로벌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span>”고 밝혔다. <br/> <br/>조 총장은 이어 “<span class='quot0'>학교 인근의 이온다이애그노믹스사에 기업속 학교를 추진하는 등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세계적인 기업과 연계해 세계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위해 인천대를 개방하겠다</span>”고 덧붙였다. <br/> <br/>김성호 교수는 “<span class='quot1'>한국과 인천은 인종의 차이를 활용해 여러 병원에서 샘플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는 점에서 유리하다</span>”며 “<span class='quot1'>현재는 세계적으로 제놈에 대한 정보만 있을 뿐</span>”이라고 역설했다. <br/> <br/>그는 또 “<span class='quot1'>개인에 따라 어느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냐 또는 어느 암에 안걸릴 확률이 얼마냐를 밝히는 연구는 인천대 바이오 크러스터에서 맨 먼저 하게될 것</span>”이라고 역설했다. <br/> <br/>석학들은 “지금까지 세계 과학계는 가능성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출발점은 똑같다”고 입을 모았다. <br/> <br/>인천대는 그런 점에서 기존 방법에 매몰되어 있는 다른 곳보다 새롭게 생각하고 접근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는 것이 석학들의 주장이다. 인천대가 ‘DNA 스마트 캠퍼스’시대를 연 것이다.   <br/> <br/>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86.txt

제목: [헬스파일]배변습관의 급격한 변화, 혈변 직장암의 위험신호!  
날짜: 20170710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10110444001  
ID: 01100201.20170710110444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김지훈 교수 <br/> <br/>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br/>대장항문외과 <br/> <br/> <br/> <br/> <br/> <br/> <br/>어느날 혈변을 보거나 점액변, 설사 등의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br/> <br/>특히 점액변이나 흑색변,최근 배변 습관의 변화(정상적인 변을 보던 사람이 점차 설사나 변비 증상이 생기는 것을 말함), 이유 없는 체중 감소 등의증상이 동반된다면 이는 대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다.  <br/> <br/>혈변을 본다는 것 외에는 통증이나 다른 불편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장암을 의심하지 못하고 치료시기를 놓치는경우가 많다. <br/> <br/>직장암이란 직장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한다. 대장은 크게 결장과 직장으로 구분되는데, 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결장에 생기는 암을 결장암, 직장에 생기는 암을 직장암이라고 하며, 이를 통칭하여 대장암 혹은 결장 직장암이라 한다. 직장은 대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길이는 약 15㎝이며 상부, 중부, 하부 직장으로 나눌 수 있다. <br/> <br/>직장암의 원인은 일반적인 대장암과 같이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높은 열량의 섭취, 동물성 지방 섭취, 섬유소 섭취 부족, 비만 등이 직장암의 발생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직장암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으나, 암이 자라면 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혈변과 변이 가늘어지는 증상이 흔하게 나타나며, 식욕부진과 체중감소를 동반할 수도 있다.  <br/> <br/>대변보는 습관의 변화로 변을 참기가 힘들거나 변을 본 다음에도 다시 보고 싶어지는 후증기도 동반될 수 있고, 암이 진행하게 되면 통증도 생긴다. <br/> <br/>2016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를 보면 2014년 국내에서 21만7057건의 암이 발생했다. 이 중 대장암은 2만6978건으로 전체의 12.4%로 3위를, 직장암은 1만1700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5.4%를 차지했다. <br/> <br/>최근 서구형 암으로 불리던 대장암은 올해 위암을 제치고 남성 암발생률 1위에 오를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br/> <br/>암이 진행하는 경우 직장주변의 방광, 여성의 경우 질, 주변 신경으로 전이되어 아랫배의 통증이나 질 출혈도 생길 수 있다.  <br/> <br/>하지만 증상만으로는 치질 등의 다른 질환과 구별이 안되므로 전문의와 상담하고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br/> <br/>직장암의 확진은 내시경 검사를 통한 조직검사를 통해 암세포를 발견한다.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검사로는 직장수지검사, 대변검사, 대장 조영술, CT 또는 MRI검사, 혈액검사 등이 있다. <br/> <br/>직장암 수술의 성공은 직장과 직장을 둘러싼 지방층인 직장간막을 깨끗이 들어내는데 달려있다. 쉽게 말해 핫도그에서 안쪽에 있는 소시지를 직장이라고 하면 겉을 둘러싸고 있는 밀가루 빵이 직장간막이다. 직장간막의 제일 겉은 순대의 껍질처럼 얇은 막이 감싸고 있다. <br/> <br/>직장간막에는 직장에서 시작한 암세포가 퍼져 있을 수 있으므로, 직장암 수술 중 직장과 함께 직장간막을 제거 할 때 바깥쪽에 있는 막을 터뜨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br/> <br/>만약 막을 터뜨리면 암세포가 흘러나와 수술 후 재발률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직장암 수술에서 항문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항문이 없으면 평생 인공항문을 통해 배설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할 뿐 아니라 항문을 잃는다는 충격에 수술을 포기하는 환자도 있기 때문이다. <br/> <br/>직장암 수술의 치료 결과와 완치는 정밀한 수술이 좌우한다. 배에 구멍 몇 개만 뚫고 진행하는 로봇과 복강경 수술은 배를 많이 열지 않고도 미세한 수술이 가능하다.  <br/> <br/>배에 뚫은 구멍을 통해 수술 부위를 몇 배 이상 확대해 입체영상으로 볼 수 있는 카메라를 넣고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점을 통해 항문과 성기능 배뇨기능을 살리는 비율이 높아졌다. <br/> <br/>더 나아가 로봇수술은 특수카메라가 전송하는 10배 확대된 3차원 영상을 보며 로봇 팔을 조정해 수술한다. 로봇 팔은 손 떨림이 없고, 540도 회전이 가능해 정교하고 안전한 수술이 가능하다.  <br/> <br/>골반 때문에 시야가 좁고 항문과 근접한 직장암을 세밀하게 수술할 수 있어 항문에서 8㎝ 미만 거리에 발생한 저위직장암을 로봇으로 수술하면 항문 보존률이 95% 이상에 이른다. <br/> <br/>최근에는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유전자 패널검사를 통해 환자 개인별 맞춤 암치료가 가능해 졌다. <br/> <br/>NGS검사는 환자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분석해 유전자 변이로 인한 질환을 진단하고, 각 개인에게 잘 맞는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기법이다.  <br/> <br/> NGS 검사를 통해 대장암의 유전자 변이부위를 한꺼번에 분석함으로써 검사시간의 단축 및 개인 맞춤형 치료를 통한치료제(약물)에 대한 반응이 예측 가능해져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87.txt

제목: [And 라이프] 성인병 주범? 고기는 억울하다… 99세까지 88하게? ‘미테리언’이 돼라  
날짜: 20170710  
기자: 김혜림 선임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10050004002  
ID: 01100201.20170710050004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오는 12일은 초복이다. 중복은 22일, 말복은 8월 11일이다. 옛날부터 복날에는 건강을 위해 특별한 보양식을 먹는 풍습이 있었다. 그해의 더위를 물리치는 뜻으로 고기로 국을 끓여 먹었고 이를 ‘복달임’이라고 불렀다. 육개장 삼계탕 등은 요즘도 대표적인 복날 음식으로 꼽힌다. 최근 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보양식으로는 여전히 육식이 사랑받고 있는 셈이다. <br/> <br/> 주선태 경상대 농업생명과학대학(축산학 전공) 교수는 9일 “<span class='quot0'>육류의 단백질은 필수아미노산의 조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몸에 좋을 수밖에 없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육류의 단백질을 비롯해 지방, 비타민, 미네랄은 체내 흡수되는 속도와 이용 가치가 식물성 식품이나 탄수화물 가공식품에 비해 월등히 높다</span>”고 말했다. 주 교수는 “<span class='quot1'>건강한 장수를 원한다면 복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고기를 즐기는 미테리언(Meatarian)이 되라</span>”고 조언했다. <br/> <br/> “<span class='quot2'>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신선한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했는데 고기를 즐기라고요?</span>” 채식이 장수식인 양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이렇게 반문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br/> <br/> 주 교수는 “<span class='quot1'>채식은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을 치료하는 목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치료식이지만 건강한 사람들이 채식을 하면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span>”고 경고했다. 특히 성장기의 어린이, 청소년들, 면역력이 약화되는 중장년층은 채식을 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 주 교수의 설명이다. <br/> <br/> 실제로 극단적인 채식으로 건강을 해친 사례가 적지 않다. 미국의 환경운동가인 리어 키스는 그의 저서 ‘채식의 배신’을 통해 “<span class='quot3'>20년간 동물성 식품을 입에 전혀 대지 않는 극단적인 채식 생활을 실천하다가 몸을 망쳤다</span>”면서 육식으로 몸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아예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완전 채식(Vegan)은 지독한 편식일 뿐이라는 것이 영양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br/> <br/> 비만 고혈압 등 성인병의 주범으로 오해받았던 육식이 외려 사망률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와 국립암연구센터는 지난 5월 24일 “고기와 유제품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할수록 사망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발표했다. 연구진은 총 134개 항목의 식품과 음료 섭취량을 비교 분석해 40∼69세 남녀 8만여명을 대상으로 1990년대부터 약 15년간 추적 조사했다. 그 결과 축산물 섭취량이 높을수록 사망 위험이 떨어졌다. 축산물 섭취량이 가장 많은 그룹이 가장 적은 그룹 대비 10% 정도 사망 위험이 낮았다. 암과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등 순환기 질병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최근 채식이 마치 암 치유식처럼 알려진 것도 잘못된 인식임을 보여준다. 실제로 대부분의 암 주치의들은 항암치료 중에는 고기와 생선 등 고단백을 섭취할 것을 권고한다. <br/> <br/> 배화여대 조리학과 김정은 교수는 “<span class='quot4'>채식만으로는 필수 아미노산 섭취뿐 아니라 엽산, 아연, 철분 등의 영양소가 쉽게 결핍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후각손실 등 신체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span>”면서 육식을 통한 고른 영양 섭취를 강조했다. 채소에는 없어서 육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는 콜레스테롤과 육류 단백질이 대표적이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피로를 이겨내고 체내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각종 호르몬의 기본이 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D의 연료이기도 하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60조개 세포의 막(膜) 역시 고기에 많이 들어 있는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만들어진다. 세포막이 튼튼하면 뇌를 포함한 신체의 모든 부분이 튼튼해져 질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축산물은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는 ‘완전 단백질 공급원’이다. <br/> <br/> 주 교수는 “<span class='quot1'>건강을 생각한다면 성인 체중 1㎏당 1g의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span>”며 고기는 20%가 양질의 단백질이므로 70㎏의 성인이라면 하루에 350g 정도의 고기를 먹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span class='quot1'>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채식에 좋은 고기를 얹어 먹는 ‘고기 먹는 채식’을 실천하라</span>”고 강조했다. 주 교수가 추천하는 좋은 고기는 안전하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무엇보다 유통기간이 짧아 신선한 고기다. 국내산 고기면 이 조건을 100% 충족한다. <br/> <br/>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388.txt

제목: 색전술+사이버나이프 병합요법, “수술불가 간암도 꼼짝못해!”  
날짜: 20170708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08090544001  
ID: 01100201.201707080905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수술이 불가능한 간암 환자에게 경동맥화학색전술과 사이버나이프 병합 치료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수술이 불가능한 간암 환자에게는 전통적으로 경동맥색전술을 많이 시행하는데, 이 치료 후 사이버나이프 수술로 잔여 혹 덩어리를 제거하는 치료를 병행하면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br/> <br/>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은 간암센터 소화기내과 장재영( <br/>사진) 정승원 교수팀을 중심으로 한 다학제 협진팀이 수술이 불가능한 간암환자 30명을 대상으로 경동맥색전술과 사이버나이프 치료를 병행하고 5년 동안 경과를 추적 관찰한 결과 5년 생존율이 66.2%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br/> <br/>한국인 간암 환자의 5년 평균 생존율이 약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생존율이 3배 이상 높아진 셈이다. <br/> <br/>특히 사이버나이프로 국소 암을 제거할 경우 치료 후 평균 생존 기간이 93개월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이버나이프 치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을 때 평균 생존기간은 17.5개월에 그쳤다. <br/> <br/>경동맥화학색전술 후 사이버나이프 치료를 병행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 생존기간을 무려 75.5개월(약 6.3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br/> <br/>장 교수는 “간암 치료법이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환자들의 장기 생존 가능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암세포의 성장을 막는 경동맥화학색전술과 방사선 칼 사이버나이프를 병행하는 치료법이 앞으로 간암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r/> <br/>연구결과는 최근 순천향대서울병원 간암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정기 학술세미나 ‘2017 리버위크’에서 발표됐다. 2014년 발족한 간암 다학제협진팀을 뿌리로 소화기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교수들이 최신 의학연구동향 및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다. <br/> <br/>한편 순천향대서울병원의 간암 다학제진료팀은 각 분야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토론과 협의를 통해 최선·최적의 치료법 조합을 찾아내 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동시에 환자 및 보호자가 참여해 질환의 설명과 향후 치료 및 예후를 듣고 상태를 상담하는 원스톱 진료 시스템을 갖췄다. <br/> <br/>경동맥화학색전술과 같은 인터벤션 분야는 영상의학과 구동억 김용재 교수팀, 일반적인 간절제술 뿐 아니라 복강경 간절제술, 간이식을 포함한 수술 분야는 외과 허경열 최진용 교수팀, 그리고 사이버나이프 및 방사선 치료 분야는 방사선종양학과 장아람 박영희 교수팀이 책임지고 있다. <br/> <br/>또 간암진단과 고주파열치료는 소화기내과 홍성숙 황지영 교수팀, 병리학적 진단은 병리과 진소영 진윤미 교수팀이 담당하고 있다. <br/> <br/>장 교수는 정승원 교수와 함께 간암 환자의 진단부터 치료까지 계획을 잡고 다학제 협진팀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89.txt

제목: [오늘의 국민일보] 김정은에게 공개적으로 만남 요청한 문 대통령  
날짜: 20170707  
기자: 권중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07070044001  
ID: 01100201.20170707070044001  
카테고리: 정치>북한  
본문: 2017년 7월 7일 금요일 국민일보입니다. <br/> <br/> <br/> <br/>▶ 文대통령 “<span class='quot0'>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만날 용의</span>” <br/> <br/>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 구상을 담은 ‘뉴베를린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는 정상회담을 전격 제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span class='quot1'>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span>”며 “북한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r/> <br/> <br/> <br/>▶ 文 대통령-시진핑 ‘북핵·사드’ 논의 <br/> <br/>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및 미사일 해법,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문제 등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span class='quot1'>한·중은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대한히 중요한 협력관계</span>”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도 “<span class='quot2'>양국관계와 지역평화 발전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span>”고 답했습니다. <br/> <br/>▶ 트럼프 “北 나쁜 행동, 엄중 결과 따를 것” <br/> <br/>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매우 나쁜 행동”이라면서 “엄중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성공 후 미국의 대응은 초강경 모드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중국에 대한 교역중단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br/> <br/>▶ 카셰어링 업체 ‘기름값 바가지’ <br/> <br/>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을 받은 ‘카계어링(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이번엔 높은 연료비 때문에 소비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ℓ당 1400원대(휘발유 기준)인 저유가 시대에, 대여 차종에 따라 ℓ당 최고 3000원이 넘는 연료비를 부과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br/> <br/> <br/> <br/>▶ 자문형 호스피스 사업 빅5 병원 중 4곳 참여 <br/> <br/>다음달부터 말기 상태의 암·에이즈·만성간경화·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환자들은 전국 20개 의료기관의 일반 병동이나 외래 진료 단계에서부터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 중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이 이런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참여합니다. 삼성서울병원은 빠졌습니다. <br/> <br/>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90.txt

제목: [단독] ‘빅5’ 병원 중 4곳 ‘자문형 호스피스’ 동참… 삼성서울병원만 빠져  
날짜: 20170707  
기자: 민태원 기자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07214455001  
ID: 01100201.201707072144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다음 달부터 말기 상태의 암 에이즈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환자들은 전국 20개 의료기관의 일반 병동이나 외래 진료 단계에서부터 ‘편안하고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br/> <br/> 이른바 ‘빅5 병원’ 중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이런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br/> <br/>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자문형(1차)·가정형(2차) 호스피스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위원회를 열고 자문형 20곳, 가정형 25곳(1차 21곳에서 확대)을 최종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자문형의 경우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9곳, 종합병원 11곳이 포함됐다. <br/> <br/> 의료수익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빅5 병원 중에는 삼성서울병원만 빠졌다. 이 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급성 질환자를 치료할 공간마저 부족해질 상황이어서 막판까지 고심하다 불참키로 했다</span>”고 말했다. <br/> <br/> 이들 대형병원은 암 등 중증 환자 치료의 상당수를 맡고 있지만 그간 투자 대비 적은 수익성을 이유로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 제공에 소극적이었다. <br/> <br/> 가톨릭계열 서울성모병원만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병동(23병상)을 운영 중이다. 서울대병원은 최근에야 호스피스 병동(10병상)을 운영키로 결정했다. <br/> <br/> 현재 복지부 지정 호스피스전문기관(병동 입원형)은 전국 77곳(1277병상)에 불과하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15곳(207병상)뿐이다. <br/> <br/>대형병원의 외면 탓에 말기 환자들이 호스피스 병동 입원을 기다리다 죽음을 맞는 일이 빈번하다. 2015년 기준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이용률은 15%에 그친다. <br/> <br/> 다음 달 4일 시행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웰다잉법)에 따라 기존 암에 만성간경화 등 3개 질환이 호스피스 대상에 추가돼 서비스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대형병원들이 말기 환자의 전인적 돌봄 의료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크다. 호스피스 이용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br/> <br/> 일부 병원은 자문형 호스피스와 비슷한 완화의료(통증 완화 및 증상 관리)를 제공해 왔지만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를 통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 <br/> <br/> 호스피스 전문교육을 받은 의사와 전담 간호사, 사회복지사(최소 1인 이상)를 중심으로 종교인 등 영적돌봄 제공자, 자원봉사자 등이 한 팀을 이뤄 활동한다. 환자와 가족이 요청하면 담당 의료진이 협진을 의뢰하고 호스피스팀이 환자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통증 및 증상 완화, 심리적·영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br/> <br/> 일반 병동에는 임종실(1인실)을 1개 이상 갖춰야 한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자문형 돌봄 상담료와 임종관리료, 임종실료 등을 수가(진료 대가)로 보상받는다. 돌봄 상담료는 초회일 경우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각 60분씩 상담을 제공해야 인정받는다. 심평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암 환자의 경우 5%, 에이즈는 10%(국가와 지자체에서 대부분 부담), 만성간경화·COPD는 20%만 이용료로 내면 된다</span>”고 말했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91.txt

제목: 부산 기장군,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사업’ 건설허가 촉구  
날짜: 20170706  
기자: 부산=윤봉학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06215644001  
ID: 01100201.20170706215644001  
카테고리: 지역>부산  
본문: 부산 기장군이 연일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사업’ 건설허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br/> <br/>오규석 기장군수는 이를 위해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사무처장을 방문했다. 이어 7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성게용 원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br/> <br/> 앞서 오 군수는 지난달 26일 미래창조과학부 성일홍 연구개발투자심의관, 4일 한국전력기술(kopec) 조직래 전무를 잇따라 방문,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에 유치 예정인 대형 국책사업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사업’의 건설허가를 촉구했다.  <br/> <br/>이 사업은 미래부 주관으로 부산시와 기장군이 함께 추진하는 역점 국책사업으로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장군에 유치하게 됐으며, 향후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미래 먹거리 사업이다. <br/> <br/>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및 경주지진 여파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심사가 강화되어 현재까지 수출용 신형 연구로의 건설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br/> <br/>이에 오 군수는 더 이상 사업의 지연을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 판단, 직접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며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br/> <br/>지난 2월에는 관련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직접 방문해 신속한 건설허가를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허가’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결행하기도 했다. <br/> <br/>오 군수는 “<span class='quot0'>신형 연구로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내 기업유치 및 입주 시기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해당 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신속한 건설허가를 위해 노력해 달라</span>”고 요청했다. <br/> <br/>수출용 신형 연구로는 암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의 대량 생산과 중성자를 이용한 반도체 생산, 비파괴 검사 등 다양한 연구 및 생산을 할 수 있는 소형 연구로를 말한다. <br/> <br/>지난 2008년 캐나다 연구용 원자로의 노화문제로 방사성동위원소의 품귀현상이 빚어져 전 세계적으로 암세포의 뼈 전이여부를 알아보는 핵의학 영상검사가 마비된 것도 모두 수출용 신형 연구로와 관련이 있다. <br/> <br/>동위원소가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 수가가 높아져 진단 및 치료를 못받고 목숨을 잃는 암환자들이 생길 수 있다. <br/> <br/>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동위원소 생산시설 건립 필요성이 줄곧 제기되어 미래부가 ‘수출용 신형 연구로 사업’을 공모하게 됐고, 당시 9개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 끝에 2010년 기장군이 유치에 성공했다. <br/> <br/>수출용 연구로가 준공되면 그동안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던 방사성 동위원소의 국내소비량을 100% 자력으로 공급해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일본, 중국, 동남아 등 해외수출도 기대해 볼 수 있어, 향후 50년간 38조에 이르는 경제적 이윤 창출과 150여명의 고급연구원 유치 등 막대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br/> <br/>또한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 및 동위원소 공급 시기는 OECD 원자력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동위원소의 안정공급을 위한 OECD 공동선언서에 이미 서명을 한 상태로 연구로 건설허가가 늦어질수록 국제적 약속을 위반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영향력 하락이 예상된다. <br/> <br/>안전성도 충분히 검증 받았다. 수출용 신형연구로는 원자력 발전소와는 애초부터 건설의 목적과 규모가 다르다. 열출력은 발전용의 0.3%에 불과하고, 내진설계도 발전용 원자로보다 훨씬 더 견고한 0.3g(g:중력가속도, 지진규모 7.0)로 채택됐다. 건설부지 역시 고리원전보다 8배 이상 높은 해발 80m의 고지대로 지정해 지진해일 피해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성을 인정받았으며, 캐나다를 비롯한 독일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안전하게 운영 중인 검증된 원자로다. <br/> <br/>한편 수출용 신형 연구로가 들어서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는 기장군에서 2019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며,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구축 및 파워반도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과 이와 관련된 강소기업 유치 집적화로 머지않아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방사선 의・과학 융합 클러스터’로 자리 잡아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br/> <br/>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92.txt

제목: 암 투병 중인 '김우빈' 위해 영화 제작 연기한 최동훈 감독  
날짜: 20170706  
기자: 박세원 인턴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06155944001  
ID: 01100201.20170706155944001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비인두암을 앓고 있는 배우 김우빈을 위해 최동훈 감독이 신작 '도청'의 제작을 연기한다. 오는 8월부터 촬영 예정이었던 영화 '도청'은 출연진을 확정해 준비에 한창이었다. 하지만 주연 중의 한 명인 김우빈이 비인두암으로 치료에 들어가자 완치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br/> <br/>최동훈 감독이 '암살' 이후 차기작으로 준비했던 영화 '도청'은 홍콩 영화 '절청풍운'의 리메이크다. 김우빈을 비롯해 이정재, 김의성, 염정아 등의 배우가 출연을 확정했다.  <br/> <br/> <br/> <br/>최 감독은 김우빈 외에 다른 배우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우빈이 완치될 때까지 영화 제작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br/> <br/>다른 배우들도 다른 작품 일정으로 마냥 기다리기 어렵고 여름 촬영을 목표로 한 영화이기에 올해 촬영은 힘들어진 상황이다. 비인두암 진단을 받은 김우빈은 현재 약물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며 완치에 전념하고 있다. <br/> <br/>박세원 인턴기자 sewonpar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93.txt

제목: 세브란스병원 최영득 교수팀, 비뇨기과 로봇수술 3000례 돌파  
날짜: 20170706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06112444001  
ID: 01100201.201707061124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은 비뇨기과 최영득( <br/>사진) 교수팀이 아시아 지역 최초로 비뇨기과 로봇 수술 3000례를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br/> <br/> <br/>최 교수는 지난 2005년 8월 로봇 팔을 비뇨기과 수술에 처음 적용한 이래 2012년 5월 1000례를 돌파했고, 이후 5년 여 동안 2000례를 더해 3000례 시술의 대기록을 달성하게 됐다. <br/> <br/>특히 주목되는 것은 전립선암 수술(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이 전체 3000례 중 약 85%를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br/> <br/>전립선암 수술은 로봇 수술의 장점이 명확하게 적용되는 분야다.  <br/> <br/>전립선은 골반 뼈 안쪽에 위치한 탓에 개복 수술을 하는 경우 암이 생긴 부위가 뼈에 가려져 옆에서 보면서 수술을 해야 한다.  <br/> <br/>하지만 로봇 수술의 경우 골반 뼈 안쪽까지 카메라가 들어가 전립선암 발생 부위를 10배 확대해 세세히 보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크게 줄어든다. 출혈도 훨씬 적다. <br/> <br/>덕분에 수술 후 합병증인 요실금 및 발기부전과 관련된 구조 손상과 직장이나 요관 등 인접 부위 손상도 최소화할 수 있다. <br/> <br/>로봇 수술의 장점과 최 교수의 실력이 만나면서 중증의 환자들도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다.  <br/> <br/>전립선암 로봇 수술 환자의 약 50%는 고위험 환자군에 속했으며, 이 환자군 중 약 3분의 2는 3기 이상인 환자였다.  <br/> <br/>최 교수는 국소 전립선암은 물론 수술이 무척 까다로운 진행성 전립선암에 대해서도 로봇 수술을 시행해 왔다. <br/> <br/>최 교수는 정확하면서도 빠른 수술로 이름이 높다. 전립선암 로봇 수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빨라야 1시간 30분 정도지만 오랜 경험을 쌓은 그는 로봇 수술 시간이 30분 정도에 불과하다. 짧은 수술 시간은 환자의 신속한 회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94.txt

제목: 포항하늘빛교회, 29일 서모세 목사 초청 부흥성회 연다  
날짜: 20170706  
기자: 대구=김재산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06101744001  
ID: 01100201.20170706101744001  
카테고리: 문화>종교  
본문: 포항하늘빛교회(담임목사 한안섭)는 오는 29일 서모세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부흥성회를 연다. <br/> <br/>서모세 목사(성령영성교회·사진)는 이날 오후 2시 시작되는 부흥회에서 뒤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된 이야기와 신유의 은사,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 등을 간증형식으로 풀어낸다. <br/> <br/>서 목사는 미션스쿨을 다니던 중학생 때 침례를 받은 뒤 공무원에 이어 사업, 태권도 사범 생활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갑자기 그의 몸이 뒤로 나가 떨어졌으며, 자신의 몸 안에서 어둠의 영이 쏟아져 나옴을 볼 수 있었다. <br/> <br/>​서 목사는 성령체험 후 금연을 결심 뒤 2개월간의 노력 끝에 담배를 끊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 포로가 될 수 있다는 것과 단호히 결심하고 악에 저항하면 주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깨달음도 얻을 수 있었다. <br/> <br/>서 목사는 이전의 자신의 삶이 얼마나 엉터리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됐다. 그래서 늦깎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다. <br/> <br/>그는 죽음의 목전에서 사투를 벌이는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 환자가 고침을 받는 모습을 봤고, 위암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는 암이 소멸됨을 보며 미국 대통령직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직분을 얻었음을 깨달을 수 있어 한없이 기뻤다고 했다. <br/> <br/>성령체험은 자신을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br/> <br/>서 목사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초대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떤 경우도 넘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런 군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br/> <br/>한안섭 목사는 “<span class='quot0'>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임파테이션을 통해 묶임과 결박이 풀리는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인 권능을 받는 시간이 될 것</span>”이라며 포항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br/> <br/>포항하늘빛교회는 포항세무서에서 포항여고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br/> <br/>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95.txt

제목: 독도 홍보 학술적으로 바꿨다  
날짜: 20170706  
기자: 안동=김재산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06050055002  
ID: 01100201.20170706050055002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경북도가 독도 홍보 전략을 학술적으로 확 바꿨다. 도는 독도에 대한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밝혀 정면 비판하는 독도 학술광고 시리즈를 제작해 5일 공개했다. <br/> <br/> ‘독도, 일본주장이 왜 허위인가!’라는 제목으로 5편으로 구성된 광고물은 독도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 제1편은 ‘독도, 일본 땅 이라고?’라는 제목으로 ‘죽도(울릉도) 외 일도(독도)는 본방(일본)과 관계없음’이라고 명시한 1877년 태정관지령 문서를 증거로 내세워 일본 스스로 독도가 한국 땅임을 천명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br/> <br/> 제2편은 ‘독도, 일제강점과 관계없다고?’라고 반문하며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러시아 함대의 남하를 막기 위해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는 등 독도가 일본 침략의 희생물이 된 경위를 알리고 있다. <br/> <br/> 제3편은 ‘한국은 독도를 몰랐다고?’라는 제목으로 샌프란시스코조약 초안 작성 때 독도가 한국 땅으로 명시되었음을 알리고, ‘리앙코르도’암(岩)을 한국 사람은 ‘독도’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기록한 니타카호 항해일지도 제시했다. <br/> <br/> 제4편은 ‘독도는 일본 땅, 미국도 인정했다고?’라며 되묻고 1948년 주한미군사령부 공문이 ‘독도 근처 수역은 한국인 어부들의 가장 좋은 고기잡이 지역’이라고 적시한 공문서를 게재하고 있다. 마지막 편에서는 ‘독도, 진실은 하나!’라는 제목 아래 세종실록 지리지 내용과 1900년 10월 25일 ‘독도(석도)를 울도군 관할구역’으로 명시한 칙령 제41호를 들어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명확히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br/> <br/>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96.txt

제목: 삼성서울병원, 양성자치료환자수 500명 돌파  
날짜: 20170705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05105744001  
ID: 01100201.201707051057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삼성서울병원은 암병원 양성자치료센터(센터장 표홍렬)가 5일, 가동 1년만에 치료환자수 500명, 연간 치료횟수 9000건을 각각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br/> <br/>이는 비슷한 시기에 오픈한 다른 국가의 양성자치료시설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치료 실적이다. <br/> <br/>삼성서울병원은 1세대 방식에 비해 훨씬 진보한 ‘차세대 양성자 치료 기법’으로 불리는 스캐닝 양성자 치료법 비중이 전체 치료의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문을 연 미국 메이요클리닉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유사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하다. <br/> <br/>삼성서울병원은 또한 특정 암에 치우침 없이 여러 암종에서 골고루 양성자치료를 적용, 주목을 받고 있다. 치료 암 중에는 특히 간암, 두경부암, 뇌종양 (뇌종양 대부분은 소아환자),폐암의 치료 건수가 많은 것도 유별나다. <br/> <br/>또한 이미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가 같은 부위에 다시 방사선치료를 받아야 하는 방사선 재치료의 경우가 66건에 이른다. 동일부위 두번째 방사선 치료는 대부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기존의 관념을 깬 것이다 <br/> <br/>전체 양성자 치료 환자 중 소아암의 환자 비중은 약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장발육기에 있는 소아에게 기존 방사선치료 대비 부작용이 적은 양성자치료의 이점이어필한 것으로 보인다. <br/> <br/>암종별로는 간암 치료가 가장 많았다. 양성자치료가 시작된 이후 양성자치료센터를 찾은환자 중 3개월 추적관찰을 한 78명의 간세포암 환자 중 70%에서 종양이 완전히 소멸되었으며, 지난 1년동안 양성자치료 부위에서 종양이 다시 커진 경우는 10%에 불과해 90% 이상의 국소종양 제어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양성자치료는 주변 정상 조직에 노출되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면서 종양 부위만 선택적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기존 엑스선 방사선치료를 했을 때 간기능 저하가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치료 한 달 후에도 간 기능 저하가 나타나지 않았다. <br/> <br/>특히 대부분B, C형 간염 또는 간경변을 동반하고 있는 간암 환자가 기존의 방사선치료를 받을 때 치료 후의 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방사선량을 줄이거나,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간 기능 손상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지만, 양성자치료는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br/> <br/>폐암의 경우에도 기존 방사선 치료 대비 폐 보호 효과가 두 배 이상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스캐닝치료에서 그 우수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br/> <br/>이는 폐암은 종양과 주변 림프절조직을 동시에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 난이도가 높아 1세대 양성자치료법으로도 폐의 보호가 쉽지 않았는데, 스캐닝 치료법의 우수성이 본격적으로 발휘되는 암종으로 판단된다. <br/> <br/>또한 심장 주변에 위치한 폐암 혹은 식도암의 경우 기존 방사선치료로는 심장의 보호가 거의 불가능하였는데, 양성자치료는 심장 앞에서 양성자빔을 멈춰 세워 거의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수년 안에 스캐닝 양성자 치료를 이용한 폐암의 치료 효과를 학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r/> <br/>삼성서울병원 암병원양성자치료센터 박희철 교수는 “양성자치료를 도입하고 난 후, 나쁜 간기능 때문에 기존 엑스선으로는 방사선치료를 적용할 엄두를 내기 어려웠던 환자에서도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방사선치료를 할 수 있게된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 의료진들도 놀라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br/> <br/>아직 간암의 양성자 치료 기간이 짧아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현재 표준 치료법인 수술이나 고주파소작술을 이용하기 어려운 간암 환자분들에게 양성자치료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97.txt

제목: [김영찬·심진경의 명작은 시대다] 죽어도 계속되는 이야기… 박경리의 ‘토지’  
날짜: 201707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05050055002  
ID: 01100201.20170705050055002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일찍이 조선의 기생 황진이는 이렇게 노래했다. <br/> <br/>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 내어 <br/> 춘풍(春風)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br/> 어론 임 오신 날 밤이면 굽이굽이 펴리라 <br/> <br/> 임을 향한 애틋한 연심(戀心)이 길고 긴 시간의 허리를 잘라내 간직했다가 임 앞에서 펼치겠다는 참신한 발상을 낳았다. 그런데 이 발상에서 문득 우리는 뜻하지 않게도 소설 장르의 본질 하나를 발견한다. 소설은 시간을 다루는 예술이다. 인간의 삶은 시간과 더불어 변화하고 흐르는 시간 속에서 갖은 우여곡절과 흥망성쇠를 겪는다. 소설이란 인간 삶의 면면히 생동하는 그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의 한 토막을 잘라내 펼쳐놓는 장르다. 그리고 황진이의 애틋한 시간이 그러했듯 소설이 잘라내 펼쳐놓는 그 시간은 인간의 의식과 감정과 사유가 투영된 인간적 시간이다. 인간의 삶이 지속되는 한 소설은 그렇게 계속 쓰여질 것이다. 이런 소설의 본질에 대해 한국문학사에서 박경리만큼 자각했던 작가는 따로 없었다. 박경리는 문학으로 현실을 살았던 작가였고 소설을 삶의 본질이라는 차원에서 사유한 작가였다. 그래서 박경리는 이렇게 말한다. "<span class='quot0'>소설이란 삶과 생명의 문제이며, 삶이 지속되는 한 추구해야 할 무엇이지요.</span>" <br/> <br/><br/>그런 박경리에게, “‘토지’는 나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이야기”였다. 박경리의 ‘토지’는 삶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는 이야기이며, 그렇게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은 소설이다. ‘토지’는 1969년 6월 월간 ‘현대문학’에 연재되기 시작해 26년간의 집필 끝에 1994년 총5부 16권으로 완간된 대하소설이다. 대하소설로는 이에 앞서 일제강점기 홍명희의 ‘임꺽정’(1928∼39)이 있었으나, 해방 이후로는 ‘토지’가 최초인 셈이다. ‘토지’는 이후 여러 대하소설의 등장을 고무하고 촉발했는데, 김주영의 ‘객주’ 황석영의 ‘장길산’ 조정래의 ‘태백산맥’ 최명희의 ‘혼불’ 등이 그 사례들이다. <br/> <br/> 박경리의 ‘토지’는 그처럼 1970∼80년대에 급격히 증가했던 역사대하소설의 선두주자였다. 이 시기에 역사대하소설이 급증했던 것은 까닭이 있다. 이 시기는 긴 세월 축적된 한국근대사의 모순이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던 시기였다. 민중의식의 급격한 성장은 그것을 촉발했고 그와 함께 왜곡되고 은폐된 근대사에 대한 새로운 조망의 요구와 열망도 생겨났다. <br/> <br/> 그런 맥락에서 갑오농민전쟁과 항일투쟁 같은 민족운동의 역사와 민중의 생활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복원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랐다. 특히 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과 분단, 전쟁, 급격한 산업화로 이어지는 한국 근대사 100년의 굴곡을 어느 정도 조망할 수 있는 심리적 물리적 거리가 확보될 수 있었다는 사실도 중요한 조건이었다.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표된 역사대하소설은 이러한 요구에 대한 문학적 반응이었다. <br/> <br/> 그리하여 ‘토지’는 1897년부터 1945년 해방에 이르기까지 근 오십 년에 걸친 질곡의 한국근대사와 민중의 삶의 역사를 생생한 문학적 언어로 되살려낸다. 여주인공 서희를 중심으로 구한말 최참판댁의 몰락과 간도로의 이주, 고향인 평사리로의 귀환과 복권의 이야기가 동학혁명, 일제강점, 3·1운동, 광주학생운동, 원산노동자 파업, 만주사변 등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드라마틱하게 펼쳐진다. 700명이 넘는 인물들이 써나가는 이 방대한 소설은 그 자체로 소설로 쓴 역사이자 민속지(民俗誌)이며 민중생활사라 할 수 있다. <br/> <br/> “<span class='quot0'>호열자(콜레라)로 외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딸 하나가 살아남아 집을 지켰다.</span>” 박경리가 어린 시절 외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다. 작가는 그 이야기에서 ‘토지’ 창작의 단서를 발견한다. ‘토지’는 어렵게 살아남은 여자가 간난신고 끝에 훼손된 집을 복구하는 소설이다. ‘토지’의 서사에는 수많은 사건과 인물 들이 그려지는데, 그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인 인물은 여주인공 ‘서희’다. 서희는 불굴의 의지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숙명을 헤쳐 나가는 강인한 인물이다. 그리고 그런 서희의 캐릭터에는 작가 자신의 정념이 짙게 투영돼 있다. <br/> <br/> 작가의 자전적 경험을 그린 단편 ‘불신시대’의 주인공 ‘진영’이 그랬듯이, 남편과 자식을 잃고도 살아남은 사람은 꾸역꾸역 살아가야 한다. 어머니와 딸을 부양해야 하는 작가의 삶 또한 그러했다. 작가는 세상을 불신했고 인간에 대한 믿음을 잃었으며 그리하여 암흑 속에 놓인 자기를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럴수록 불의의 세상과 대결하는 생명의 힘에 대한 욕구는 더욱더 강렬해질 수밖에 없었다. 서희의 캐릭터는 그렇게 탄생했다. <br/> <br/> 서희의 외모와 출중한 능력에 대한 묘사가 ‘토지’ 전편에 걸쳐 과도함으로 넘쳐나는 것도 어쩌면 그래서일 것이다. 소설 속의 모든 등장인물들이 그녀의 미모와 위엄에 감탄하고 기가 죽는다. 그녀를 본 조선인 형사는 “뭔가에 홀린 듯”한 느낌에 빠져들고 뱃사공은 “<span class='quot1'>감히 서희 쪽을 쳐다보지도 못한다.</span>” 또 누군가에게 서희는 “빛이었고 우주의 신비”이자 “관음상이요 숭배의 대상”이기도 하다. 게다가 그녀는 남자 못지않은 사업 수완과 지력과 담력, 의협심과 인간미의 소유자이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해 돌진하는 적극성과 추진력까지 갖춘 인물이다. 마치 고전소설의 영웅과도 같은 풍모를 풍기는 서희의 캐릭터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여주인공 스카렛 오하라의 한국적 버전이다. <br/> <br/> ‘토지’는 몰락한 집안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그런 서희의 복수극을 중심에 놓고 다양한 인물들이 펼쳐내는 개별 서사들을 엮어 간다. 감정 표현이 극단적이고 쉽게 정념에 사로잡히는, 극단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인물들의 면면이 그 서사의 역동성을 만들어낸다. 거기에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의 묘사가 더해지면서 서사는 그런 상황에 놓인 인물들 간의 갈등 대립 투쟁 상승 몰락 등을 동력으로 생동감을 얻으며 움직여간다. 이 과정에서 ‘토지’가 그려내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상 질서의 변화다. 봉건에서 근대로, 엄격한 신분제사회에서 탈신분제사회로, 농업사회에서 상업사회로, 농촌에서 도시로, 조선에서 간도로 확장되는 삶의 변화가 이 소설의 중심에 있다. <br/> <br/> ‘토지’에서 시간의 흐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장소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평사리’다. 이 소설에서 평사리로의 귀환은 그 자체로 변하지 않는 어떤 가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의식(儀式)이다. 그 가치란 무엇인가? 평사리로의 귀환은 표면적으로는 남성 중심적 가계(최씨 가문)를 복원하고 계승하는 태도와 연관된 것으로 읽힌다. 서희가 두 아들의 성씨를 그녀와 혼인한 하인 길상의 성인 김씨가 아닌 자신의 성인 최씨를 따르게 하는 것도 표면적으로는 최씨 가문을 존속시키고 봉건적 가부장제를 지키려는 노력으로 보인다.(그리고 ‘토지’에 대한 그간의 많은 비판도 이 지점에 집중된 바 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 소설에서 존속시켜야 할 그런 남성 가계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붕괴돼버렸다. 그리고 서희는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다. <br/> <br/>서희는 생각했다. 최참판댁 가문의 말로는 세 사람의 여자로 인하여 난도질을 당한 것이라고. 윤씨는 불의의 자식을 낳았고, 별당아씨는 시동생과 간통하여 달아났으며 서희 자신은 하인과 혼인하여 두 아들을 낳았다. <br/> <br/> 서희의 조모인 윤씨 부인은 강간당해서 혼외자식을 낳았고 모친인 별당아씨는 시동생뻘 되는 김환과 야반도주하였으며 서희 자신은 하인인 길상과 혼인했다. 최씨 가문의 정통성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허구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 서희에게 가문의 존속이란 가부장제적 질서의 수호라기보다는 근원적 질서, 즉 생명의 원리를 지키는 것에 가깝다. 변하지 않는 생명의 원천으로서 ‘토지’로의 귀환인 셈이다. 따라서 평사리로의 귀환은 가부장적 가문의 복원이 아니라 유장한 생명의 근원으로의 귀환이다. 평사리는 언제나 그곳에 있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삶의 근원이다. <br/> <br/> ‘토지’의 저변을 흐르는 주제는 이 평사리라는 공간에 집약돼 있다. 평사리는 여성적인 공간이다. 서희가 마지막에 자애로운 어머니이자 어려운 마을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대모신(大母神)으로 변모하는 것도 평사리라는 공간이 그러한 여성적 보살핌과 베풂이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평사리는 모든 것을 품어주는 여성적 돌봄과 치유의 공간이며 삶의 지속을 가능케 하는 본원적인 생명의 공간이다. ‘토지’는 남성적 폭력(일제 앞잡이 조준구)에 의해 훼손되고 빼앗긴 그 본원적인 생명의 공간을 서희라는 강인한 여성의 투쟁을 통해 회복하는 이야기다. ‘토지’를 생명을 위한 여성적 투쟁의 서사극이라 할 수 있는 건 이 때문이다.<br/> <br/> <br/>■박경리는… 근현대사 속 민중의 삶 총체적으로 담아 <br/> <br/>작가는 1926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났다. 55년 김동리의 추천을 받아 '현대문학'에 단편소설 '계산'으로 등단했다. 등단 직후에는 '불신시대' '암흑시대' '영주와 고양이' 등의 단편소설을 썼는데, 그 중 '불신시대'로 58년 제3회 현대문학상을 수상했다. 박경리의 초기 단편소설은 전쟁 중 남편을 잃고 전쟁이 끝난 직후에 아들을 잃은 작가 자신의 자전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다. 전후의 훼손된 사회 현실을 전쟁미망인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담고 있다. <br/> <br/> 이후에는 김약국의 딸들(1962), 파시(1964), 시장과 전장(1964)을 비롯해 성녀와 마녀, 가을에 온 여인, 나비와 엉겅퀴 등 20여 편에 이르는 장편소설을 썼다. 한국문학사에 길이 남을 대하소설 '토지'는 69년에 집필을 시작해서 94년에야 완성된다. '토지'는 만 25년이라는 집필시간만큼이나 다양한 지면(현대문학(1부), 문학사상(2부), 주부생활(3부), 정경문화, 월간경향(4부), 문화일보(5부))에 연재됐다. 1부를 연재하던 중에 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받는 등 투병생활을 하면서도 가슴에 붕대를 감은 채 소설을 쓸 정도로 작가는 '토지' 집필에 전념했다. <br/> <br/> '토지'는 동학 직후부터 해방에 이르는 장구한 세월동안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총체적이면서도 드라마틱하게 그려내면서 한국문학의 기념비가 되었다. '토지'는 이미 연재 초기부터 추리소설적 구성과 개성 있는 인물, 빼어난 언어감각으로 평론가의 호평과 독자의 인기를 얻었다. '토지'는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79년과 84년에는 KBS, 2004년에는 SBS에서 드라마로 제작되어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된다.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으로 번역되기도 했으며, 청소년 소설과 만화로 각색되기도 했다. <br/> <br/> 2003년에 '토지' 이후를 다룬 '나비야 청산(靑山)가자' 연재를 시작했지만 끝맺지는 못했다. 2008년 폐암과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98년 강원도 원주 흥업면 매지리에 토지문학관을 세워 현재까지 작가들의 집필실로 개방하고 있다. 토지문화재단은 2011년 한국 최초로 세계문학상인 '박경리문학상'을 제정해서 1회 수상자인 최인훈을 시작으로 류드밀라 울리츠카야(러시아), 메릴린 로빈슨(미국), 베른하르트 슐링크(독일), 아모스 오즈(이스라엘), 응구기 와 티옹오(케냐) 등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br/> <br/><br/><심진경 문학평론가>

언론사: 국민일보-2-398.txt

제목: 인권보다 연어… 노르웨이의 中 눈치보기  
날짜: 20170705  
기자: 권준협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05230255001  
ID: 01100201.20170705230255001  
카테고리: 국제>중국  
본문: 노르웨이 총리가 중국 인권운동가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61) 석방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측근조차 비판하고 나섰다. <br/> <br/> 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는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최근 선거 유세에서 수차례 류샤오보 관련 질문을 받았지만 “외교부가 담당하는 일”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입장에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했다. EU는 지난달 30일 중국이 말기 간암을 앓는 류샤오보를 석방하고 원하는 나라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r/> <br/> 뵈르게 브렌데 노르웨이 외교장관도 언급을 삼갔다. 브렌데 장관은 “<span class='quot0'>외교부 성명 외에는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다</span>”고 답변을 꺼렸다. 미국과 EU 입장에 동의하는지 묻는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했다. 외교부는 지난주 류샤오보의 암 투병 소식이 알려지자 “슬프다”며 “류샤오보와 가족들이 잘 이겨내길 바란다”는 형식적인 성명을 내보내 반발을 샀다. <br/> <br/> 노벨 평화상 시상국인 노르웨이가 중국 눈치를 보며 몸을 사린다는 지적은 내각 내부에서마저 제기되고 있다. 노르웨이의 태도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이 류샤오보를 받아들이고 치료를 돕겠다고 나선 것과 대조적이다. 현지 아프턴포스턴에 따르면 자유당 소속 올라 엘베스투엔 의원은 “총리의 침묵에 큰 충격을 받았다. 분명한 입장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리는 단순히 중국을 자극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한다”고 비판했다. <br/> <br/> 노르웨이는 중국과 관계가 다시 악화될까 봐 우려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중국의 외교 관계는 2010년 류샤오보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고 끊겼다. 노르웨이는 중국의 연어 수입 중단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 그러다가 외교장관과 총리가 각각 지난해 12월, 올해 4월 중국을 방문하면서 관계를 정상화했고 연어 수출 재개도 논의하고 있다. <br/> <br/>권준협 기자 gao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399.txt

제목: 산부인과학회, “근육층 파고든 경부암에는 광역동치료 하지 마라” 권고  
날짜: 20170704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04102344001  
ID: 01100201.20170704102344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산부인과학계가 일부 무분별한 광역동 레이저를 이용한 부인암 치료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br/>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배덕수· <br/>사진·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부인종양위원회는 4일, 자궁경부암 등에 대한 광역동치료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가급적 암세포가 5~10㎜이내 깊이 상피조직에 한정돼 있을 때만 시술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br/> <br/> 근육층까지 파고든 경우 잘 치료된 듯해도 재발 위험이 높고, 이로 인한 시비도 심심치 않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br/> 이 가이드라인을 만든 부인종양위원회에는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김재훈 교수(위원장) 김성훈 교수팀과 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최민철 교수,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산부인과 이성종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서동훈 교수 등이 참여, 의견을 모았다. <br/> 광역동치료(PDT)가 자궁경부암의 전암병변인 상피내종양(intraepithelial neoplasia) 치료법으로 국내에 소개된 이후, 의료계 일각에서는 장기(organ)의 수술적 제거 없이 보존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에 주목, 인기리 시술됐다. <br/> 그러나 최근 광역동치료 후 질환이 완치되지 않거나 재발한 환자들의 민원이 종종 제기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대부분 침윤성 자궁경부암 환자들에게 광역동레이저 치료를 시도한 경우였다.  <br/> 학회는 고가의 치료 비용 또한 환자들의 불만 사항이지만, 그 이전에 침윤성 암은 치료 후 경우에 따라 환자가 사망할 수 있으므로 항상 과학적 근거에 따라 최선의 치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br/> 광역동치료는 지난 1995년에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이 암 치료법으로 공식 인정한 이후, 세계 각국에서 폐암·식도암·방광암·피부암 등의 치료에 쓰이고 있다. <br/> 1, 2 종양 부위의 비정상 암세포에만 장시간 축적되는 광과민성 약제(photosensitizer)를 투여한 후, 특정 파장의 레이저 광선을 쏘게 된다.  <br/> 결국, 레이저의 에너지는 광과민성 약제가 있는 곳에서 조직내의 산소가 활성화하는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고 이렇게 생성된 활성 산소에 의해 비정상 암세포만 파괴되는 원리를 이용한 첨단 암치료법이 광역동치료법이다.  <br/> 병기 부인암 치료 영역에 있어서도 광역동치료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보고되었다.  <br/> 자궁경부암의 전암병변인 자궁경부상피내종양(CIN,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2기 혹은 3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장기적인 치료성공률이 92.8~98.1%에 이르렀다는 보고가 있다.  <br/> 외음부암의 전암병변인 외음부상피내종양(vulvar intraepithelial neoplasia)의 치료로 광역동치료를 이용한 연구결과에 힘입어 미국산부인과학회도 가이드라인에 외음부상피내종양 치료 방법의 하나로 광역동치료르 호함시키기도 했다. <br/> 이외에도 젊은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 환자의 생식력 보존을 목적으로 광역동치료를 적용한 연구들이 국내에서 보고되었으며 치료 후 정상 출산까지 성공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br/> 학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동레이저 치료를 부인암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그 안정성이나 유용성이 제대로 축적되지 못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br/> 레이저가 침투해서 암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 깊이가 5~10 ㎜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이보다 깊숙한 위치의 암세포는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 광역동치료의 단점이다.  <br/> 광역동치료 실패 환자들은 대부분 자궁경부 원추절제술을 시행하지 않고 생검만으로 진단된 자궁경부 0기암을 포함한 상피내 종양 환자들임을 볼 때 침윤성 암을 완치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데는 광역동치료가 일차 치료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학회측의 지적이다.  <br/> 따라서 광역동레이저 치료법은 근육층을 파고들지 않은 무침윤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에 국한해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br/> 다시 말해 부인암 영역에서 광역동 치료의 가능성은 전암병변에서의 효용성에 대한 경험 축적과 달리 침윤성 암에서의 결과는 아직 불완전하게 입증되었으므로 치료 효과의 과학적 입증까지 치료법으로서의 선택은 보류하는 것이 맞다는 뜻이다.  <br/> 배덕수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span class='quot0'>부인암 영역에서의 광역동치료는 전암병변의 치료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근육층까지 파고든 침윤성 암에서는 의학적 효과가 명확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사용돼선 안 될 것으로 본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2-400.txt

제목: [헬스 파일] 항암치료, 약일까 독일까  
날짜: 201707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04050055003  
ID: 01100201.20170704050055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몸이 아플 때는 병원을 찾는 것이 옳다. 그런데 되레 병원을 피하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자가 치료에 몸을 맡기는 환자들이 있다. <br/> <br/> 몇 년 전 일이다. 50대 남자 환자분이 부인과 함께 필자를 찾아왔다. 대장암이 간까지 번져 수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시기가 문제일 뿐 사실상 사망진단이나 다름없었다. <br/> <br/> 환자는 힘든 항암 치료대신 각종 민간 대체의학 요법을 찾아 헤매는 길을 선택했다. 결과는 보나마나 실패였다. 자가 임의치료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 그는 필자를 찾아왔다. 몸은 이미 완전히 망가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br/> <br/> 검사 결과 그는 암성 출혈이 지속돼 혈액양이 건강한 성인남성 기준대비 3분1 수준에도 안 될 정도로 심한 빈혈 증상을 보였다. 일상생활이라도 수행할 수 있게 해보자고 환자를 설득했다. 즉각 수혈과 동시에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br/> <br/>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에서 늦게 발견한 사람들은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곧 시한부 사망선고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항암치료를 포기하고 지내다 통증이 심해지면 진통제나 놔달라는 이도 적지 않다. 모두 잘못된 만남, 그릇된 선택이다. <br/> <br/> 완치 불가라는 의사의 소견을 사망선고와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다. 진행 및 말기 암 역시 평생 혈당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하는 당뇨환자와 같이 비슷한 전략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소홀히 관리하면 금방 합병증이 발생해 생명을 위협하고 삶의 질도 떨어트리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br/> <br/> 많은 이들이 항암제는 독해서 암보다 사람을 먼저 죽일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최선의 약제를 적절히 투여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종양내과 의사와 긴밀히 협의, 상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들어 항암제 부작용을 조절하는 방법이 많이 발전했고, 탈모 유발 항암제도 소수에 그친다. 적어도 부작용이 겁난다고 항암치료를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br/> <br/> 적극적인 항암치료 대신 증상 조절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존적 치료를 ‘베스트 서포티브 케어’(최선의 지지치료)라고 한다. 항암 치료가 되레 독이 될 수 있다거나 내성이 생겼을 때 이러한 지지치료가 큰 힘이 된다. <br/> <br/> 예컨대 늑막에 물이 차서 숨쉬기가 힘들 때는 흉수를 빼주고, 암이 뼈로 옮겨 붙어 신경을 누를 때는 신경차단 시술을 통해 통증을 조절해준다. 암성 출혈로 빈혈이 심할 때는 수혈을, 복수가 차면 복수를 빼주는 처치로 삶의 질 저하를 막아준다. <br/> <br/>글=김선혜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혈액종양내과 과장, 삽화=공희정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2-401.txt

제목: [시온의 소리] 물은 상품이 아니다  
날짜: 201707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704000257001  
ID: 01100201.20170704000257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수년 전 스위스의 대표적 다국적 기업 N사가 브라질 원주민들의 땅을 구입해 샘물의 근원을 차지하려 했을 때의 일이다. 베른교회를 중심으로 이 일의 심각성을 적극 알리고 물을 둘러싼 불의한 상황에 목소리를 내는 데 동참하도록 촉구했다. ‘물은 상품이 아니라 공동의 자산(Water Is NOT a Commodity, Water Is a COMMON Resource)’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br/> <br/> 시민공동체로서 교회가 스위스뿐 아니라 전 지구적 토지 횡령, 물 횡령 상황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오래 전의 일이었다. 교회의 깨어있는 행동은 결국 N사가 수자원의 근원이 되는 땅을 사서 사업을 벌이려던 계획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또 N사의 대표가 스위스 개신교회의 대표적 개발전문기관인 ‘만인을 위한 빵(Bread for all)’의 이사직을 내려놓게끔 했다. 기업이 이윤극대화만 추구하며 공동체의 선을 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교회가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짚어내며 시민단체와 공동 대응한 결과였다. <br/> <br/>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시는 분이시다(마 5:45). 물은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생명체의 삶이 가능하도록 주신 선물이다. <br/> <br/> 이처럼 물이 하나님의 포용적 사랑의 선물임을 깨닫지 못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못한 채 단기적 시야로 무분별하게 개발에 나섰던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이 아니라 ‘녹조성장’만 초래했다. <br/> <br/> 이 사업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창조된 피조세계를 관리할 청지기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됐다. 오히려 인간은 자연의 자체적 복원력에 의존해야 하는 나약한 존재임을 더 절실하고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제 경제논리도 이윤추구뿐 아니라 생태정의와 맞물려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br/> <br/> 경제(economy)와 생태(ecology), 교회 연합과 일치운동(ecumenism), 이 세 가지 개념의 영어단어는 모두 집을 뜻하는 그리스어 오이코스(oikos)에서 유래한다. 오이코스는 온 우주적 차원의 집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를 어원으로 가진 이 세 단어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인간에 의해 자행된 수많은 전 지구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교회의 연합과 일치운동이 어떠한 방향성을 설정해야하는지 일러준다. 만물이 그분과 화해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 사건(골 1:20)은 우리가 인간 중심의 편협한 구원관을 벗어나 생명 중심의 신앙과 실천으로 철저하게 전환토록 촉구한다. <br/> <br/> 스위스의 신학자 크리스토프 쉬티겔베르그는 그의 책 ‘환경과 개발’에서 지구 위에 잠시 손님으로 머무는 우리가 손님으로 지켜야 할 12가지 규정을 강조했다. 물이 이 땅에 살아갈 후손들과 나누는 공동 자산임을 명심하고 우리 일상의 모습을 성찰하는 것도 그 중 하나다. <br/> <br/>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 아모스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암 7:14)이라는 표현에서 보여주듯 생태 감수성을 갖고 경제정의와 생태정의를 연관해 살피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역설했던 인물이었다.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암 5:14)는 그의 외침은 자본주의를 극대화시킴으로써 공공선을 무시한 채 온 생명체를 고통으로 몰고 가는 이 시대에 새롭게 강조돼야 한다(암 5:24). <br/> <br/> 유엔이 2016년부터 30년간 전 지구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할 ‘지속가능개발 목표’ 17개 조항에서 물 관련 조항들을 별도의 주제로 삼은 것은 그 사안의 긴박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개발 목표는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나 특정 국제기구만의 구호가 아니다.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 중심의 사고방식으로의 전환과 구체적 실천을 통해 동참해야 할 일이다. <br/> <br/>정미현 (연세대 교수)